

2022년 제31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년 제31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자료 쪽번호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333
31차 정기총회 정회원		3
30차 정기총회 회의록		4
2021년 임시총회 회의록		8
회계감사 보고서 상담소/ 열림터		251/ 259
사업감사 보고서		272
2021년	팀, 부설기관 활동보고	14
	2021년 상담통계	200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207
	보고1- 대통령 지방선거 입장 및 10대 정책과제	208
	보고2- 부설 연구소 올림 평가 및 운영중단	213
	발간자료	216
	블로그 "뭔다! 상담소" 포스트	217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영상	221
	입장, 논평, 성명 목록	227
	외부 강의 활동	233
	외부 자문 및 정부위원회 참여	237
	발제, 발표, 토론, 사회	240
	집필 원고	242
	언론에 난 상담소	243
2021년	상담소 수입지출결산	254
	열림터 수입지출결산	261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275
	팀·부설기관 활동계획	277
2022년	상담소 예산안	253
	열림터 예산안	260
임원 후보 및 임원 소개		329
자문위원단 소개		330
상근활동가 소개		250
2022년	공로상 /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331

2022년 31차 총회 정회원

No.	이름	비고	No.	이름	비고	No.	이름	비고
1	강남식		28	박아름		55	장주리	
2	고재영	신규	29	박지희		56	전순유	
3	권지연		30	배순희		57	전혜영	
4	김다미		31	변혜정		58	정정희	
5	김두나		32	서민자		59	정지은	
6	김민지	신규	33	신은재		60	조은희	
7	김보화		34	안선민		61	조인섭	
8	김복연		35	양현경		62	조인옥	
9	김신아		36	유승진		63	조중신	
10	김여진		37	유호정		64	천정환	
11	김연경	신규	38	윤경진		65	최란	
12	김윤희		39	윤정원	신규	66	최보원	
13	김은아		40	이경환		67	최지나	
14	김주아		41	이나영		68	추상아	신규
15	김지영		42	이명선		69	탁수정	
16	김현지		43	이명숙		70	한소망	
17	김혜정		44	이미경		71	한희정	
18	김효진		45	이어진		72	허복옥	
19	나선영		46	이영희		73	홍순기	
20	노선이		47	이향심		74	황지성	
21	노주희		48	이효린				
22	류수민		49	임경진	신규			
23	문숙영		50	장광미				
24	문호진		51	장다혜				
25	박미숙		52	장수경				
26	박부진		53	장윤경				
27	박아름		54	장윤정				

- ※ 후원회원 전환 (2022.1.18 이사회 의결) _ 곽옥미, 김혜경, 문미라, 박은진, 안호선, 유미란, 이혜정 (7명)
- ※ 정회원 전환 (2022.1.18 이사회 의결) _ 고재영, 김민지, 김연경, 임경진, 윤정원, 추상아 (6명)
- ※ 회원 탈퇴 (2022.1.18 이사회 확인) _ 백미순, 이윤상, 임순영 (3명)
- ※ 회원 제명 (2022.1.18 이사회 의결) _ 김강자 (1명)

2021년 제30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의 종류: 정기총회
2. 개최 연월일: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7시
3. 개최장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1층 이안젤라홀/ 온라인 (zoom)
4. 총회원수 및 출석회원 수: 총 79명 중 53명 출석(참석 43명, 위임 10명, 참관 5명)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다. 이미경 소장이 인사말을 하다. 유호정 활동가가 정회원 79명 중 출석 43명 위임 10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공증변호사 원민경 변호사를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참관인 발언권에 대해 문자 전해영 활동가가 동의하였고 참관인도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것으로 하다.

의장이 서기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김신아 회원이 김보화, 김현지 회원을 서기로 추천하여 김여진 회원이 동의하고 조은희 회원이 재청하여 서기로 선정하다. 이명숙 의장이 회순을 자료집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이 김여진 회원이 동의하고 전해영 회원이 재청하여 이를 채택하다.

제29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2020년 제29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최란 활동가가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자, 정정희 회원이 동의하고 박지희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2020년 활동보고

노선이 활동가가 PPT에 따라 5개 팀과 부설기관의 2020년 활동을 발표하다.

특별보고 1. 인권침해 및 평등문화 증진활동 보고

이명숙 의장이 인권침해 및 평등문화 증진활동 보고는 자료집의 서면보고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다.

특별보고 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소의 성찰과 입장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소의 성찰과 입장에 대해 김혜정 활동가가 발표하다. 상담소 내 입장문과 관련 회원에 대한 처분, 향후 상담소의 방향 등의 안건 의결이 필요하나,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함을 보고하고, 이명숙 의장이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2월 25일(목) 저녁 7시에 제안하다.

2020년 감사보고

제1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를 보고하다. 김미순 사업감사가 감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감사는 공석임을 밝혔고, 배자하 감사가 영상으로 회계감사를 보고하다.

제1호의 안 2020년 결산 승인

상당소는 사무국 전해영 활동가가 2020년 결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20년 결산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결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이명숙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조은희 회원이 동의하고 류수민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제2호의 안 임원 및 대표단 선출

1) 사임/퇴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임시 진행

정관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4조(임원의 임기 등)에 의거하여, 이윤상 이사와 김미순 사업감사가 이사회에 사임의사를 밝혔음을 이명숙 의장이 소개하다. 이미경 소장과 정정희 열림터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었음을 알리다. 이명숙 이사장이 중임이사 후보이므로, 정정희 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전해영 회원과 한소망 회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임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다. 박아름 회원이 동의하고 장다혜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2) 이사 선출

정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4조(임원의 임기 등)의 1항 및 2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이명숙, 이미경, 박부진, 배순희, 최보원, 홍순기 이사의 중임에 대하여 임기만료는 2021년 3월 15일이나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예선기로 논의하고, 윤정원 이사를 신임이사로 추천하다. 이어 이명숙 이사장 후보와 박부진, 이미경 중임이사가 중임의 변을 밝히고, 윤정원 신임 이사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다. 정정희 임시의장이 중임이사 및 신임이사에 대한 승인을 구하자 총 53명(위임10명)의 찬성 표결로 다음과 같이 승인되다.

		다	음	
이 사	이 명 숙	*****-*****		2021년 3월 15일 중임
이 사	이 미 경	*****-*****		2021년 3월 15일 중임
이 사	박 부 진	*****-*****		2021년 3월 14일 중임
이 사	배 순 희	*****-*****		2021년 3월 14일 중임
이 사	최 보 원	*****-*****		2021년 3월 15일 중임
이 사	홍 순 기	*****-*****		2021년 3월 15일 중임
이 사	윤 정 원	*****-*****		2021년 3월 15일 신임
이 사	이 윤 상	*****-*****		2020년 12월 30일 사임

위 피선거자들은 취임과 중임을 승낙하다

3) 이사장 선출

정관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명숙 이사장의 연임을 제외한바, 이에 정정희 임시의장이 승인이 구하자, 총 53명(위임10명)의 찬성 표결로 선출되다.

4) 감사 선출

정관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 (임원의 자격), 11조(임원의 선임), 제16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이

사회에서, 사업감사로는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회계감사로 14조(임원의 임기 등)에 의거 배자하 감사의 연임을 추천하다. 이에 허오영숙 사업감사 후보가 서면으로 정견발표를 하고, 정정희 임시의장이 신임 감사 및 연임에 대해 승인을 구하자 총 53명(위임10명)의 찬성 표결로 선출되다.

5) 상근직 대표단 선출

정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경수), 제10조(임원의 자격),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4조(임원의 임기 등)의 4항 및 5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소장 후보에 김혜정 현 부소장, 부소장 후보에 최란 현 사무국장,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후보에 조은희 현 여성주의상담팀장을 추천하기로 논의한 바, 신임 임원 후보단이 각각 정견발표를 하다.

정정희 임시의장이 선출방식에 대해 온라인 투표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천정환 회원이 동의하고 이호린 회원이 재청하다. 이에 이명숙 이사가 대표단 후보가 단선이니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수정 제안하고, 강남식 회원이 동의하고 천정환 회원이 재청하다. 정정희 임시의장이 대표단 후보에 대한 반대이견이 있는지 묻고, 후보에 대한 선출 승인을 구하자 총 53명(위임10명)의 찬성 표결로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다	음	
소 장	김 혜 정	*****-*****	2021년 2월 1일 취임
부소장	최 란	*****-*****	2021년 2월 1일 취임
부설 열림터 원장	조 은 희	*****-*****	2021년 2월 1일 취임

위 피선거자들은 취임을 승낙하다

4) 사임/퇴임 인사

이윤상 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음을 인사하다. 이미경 소장, 정정희 원장이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인사를 하다.

제3호의 안 2021년 사업계획 승인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하고, 제3호의 안부터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으로 다시 총회를 진행하다. 김신아 활동가가 전체 사업계획을 소개하다. 이윤상 회원이 비영리 단체의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연구소 소장이 공식인 상황인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다. 이에 김보화 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소 소장 취임 및 비전 논의, 조직체계 정비가 2021년 사업계획에 있다고 답변하고, 최란 활동가가 회계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품품법에 의거, 정회원의 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아 아니며 이에 대해 정회원들과 함께 정비를 할 것임을 안내하다. 이명숙 의장이 안건에 대해 동의여부를 묻자 이호린 회원이 동의하고 장다혜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제4호의 안 2021년 예산 승인

사무국 전해영 활동가가 2021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21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다. 이명숙 의장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김여진 회원이 동의하고 이윤상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기타안건

이명숙 의장이 기타안건이 있는지 질문하다.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또 다른 안건은 2월 임시총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안내하다.

신입활동가 소개

이명숙 의장이 신입활동가 김현지, 윤경진 활동가가 의사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각 활동가가 자기소개를 하다.

공로상 및 감사패 시상

류수민, 노선이 활동가가 시상을 진행하다. 류수민 활동가가 이미경 소장, 정정희 원장, 김미순 전 사업감사님께 감사패를 시상하다. 노선이 활동가가 원민경 변호사, 은유 작가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김잔디님께 용감한반성폭력 운동상을 시상하다.

원민경, 은유님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김미순님의 수상 소감을 김보화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이 대독하다.

폐회 선언

30차 총회 의사록의 확인과 공증에 대한 위임은 53명의 찬성(위임 10명 포함)으로 승인되다. 의장 이명숙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 오후 9시 4분) 이후 이취임식 21:30 유튜브 실시간 송출 안내

서 기 2021년 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의장 이사장 이 명 숙 (개인)

이사 이 미 경 (개인)

이사 이 경 환 (개인)

이사 장 다 हे (개인)

2021년 임시총회 의사록

1. 회의의 종류: 임시총회
2. 개최 연월일: 2021년 2월 25일(목) 오후 7시
3. 개최장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1층 이안젤라홀/ 온라인 (zoom)
4. 총회원수 및 출석회원 수: 총 79명 중 52명 출석(참석 40명, 위임 12명)

의장 및 소장 인사말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다. 김혜정 소장이 인사말을 하다. 한소망 활동가가 정회원 79명 중 출석 40명 위임 12명으로 과반수 이상 52명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개회선언, 임시총회 제안배경 및 취지 설명

이명숙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임시총회 제안 배경 및 취지에 대해 최란 부소장이 설명하다. 임시총회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내부의 입장과 평가를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유하고 정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책임감 있게 이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판단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총회는 상담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속고와 논의의 장으로, 관련 회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과 운동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설명하다. 임시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들은 2021년 지속사업으로 진행되어 2022년 정기총회에서 보고, 평가 및 점검될 예정임을 설명하다.

서기선출

의장이 이번 임시총회는 의사록에 대한 공증법인의 공증절차 없이 3명의 정회원과 함께 의사록 확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의사록 확인할 정회원 선출은 말미에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다. 서기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전해영 회원이 류수민 활동가, 유호경 활동가 서기로 추천하여 박아름 회원이 동의하고 조은희 회원이 재청하여 서기로 선정하다.

회순채택

- 1) 이명숙 의장이 회순을 자료집의 순서 중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 사안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의 보고안건과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의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순대로 할 것을 제안하여 김보화 회원이 동의하고 김여진 회원이 재청하다.
- 2) 안건2. 회원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김혜정 소장이 안건 상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다. 임시총회 공고 후 대 상회원인 남인순 후원회원과 임순영 정회원에게 소명 절차를 안내하고 두 명 모두 이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고, 사전 정회원들에게 안내한 '제명' 가부 의결은 불가해짐을 설명하다. 정관 제8조 1항에 근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한 회원에 대한 처분의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소명 의견 확인 및 해당 사안 평가 등의 논의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를 위한 안건으로 해당안건을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다.
- 3) 의장의 지목을 받아 장운경 회원이 상담소의 회원의 구분은 다양하고, 대상 회원이 책임을 지고 탈퇴한다면 자발적 탈퇴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상담소가 어떤 사건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때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논의해나가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4) 문효진 회원이 회원과 상담소는 징계성 조치가 가능한 관계가 아니고, 평등하고 상호협력적이고 열린 관계임

을 말하고 현행 정관상 자유로운 탈퇴 의사를 밝힌 회원들은 그 의사를 막을 절차가 없어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5) 이윤상 회원이 회원처분의 건이라는 안건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6) 노주희 회원이 안건 상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

7) 강남식 회원이 이미 탈퇴 의사를 밝혔기에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말하고 상담소 내규 등의 정비와 보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8) 유승진 회원이 회원처분의 건 상정을 위한 소명 절차에서의 탈퇴가 아니라면 안건 상정이 불가한 것이 맞으나, 회원처분 절차 과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탈퇴인지 의문이고, 따라서 안건 상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9) 김보화 회원이 해당 안건은 제명 건이 아닌 회원 처분의 건이고, 안건 상정을 통해 해당 사안이 어떤 문제였고, 어떤 처분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안건 상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10) 이명숙 의장이 해당 안건은 제명 건이 아니라 회원처분의 건이고 평가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안건임을 재설명하다.

11) 장윤경 회원이 본인이 들은 바로는 소명서 제출 전, 대사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상담소에서 언제 탈퇴 의사를 확인하였고, 소명은 언제 이뤄졌는지 질의하다. 김혜정 소장이 남인순 후원회원의 경우, 2012년부터 후원을 지속했고, 중간중간 미납입 시기도 있었으나 이어졌고, 2020년 8월부터 후원 중단을 했으나 후원중단이 곧 탈퇴는 아니어서 해당 안건 상정을 진행하였음을 설명하고, 임순영 경회원의 경우, 2020년 8월 경 상담소가 필요하면 본인이 탈퇴를 해야할지 문의를 하려 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2021년 1월 전 소장에게 한 것이며, 본인이 탈퇴하겠다는 명문은 이번 소명서에서 접수했음을 설명하다.

13) 김여진 회원이 정관상 회원에 대한 제명의 경우 이사회의 안건 부의 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2단계라고 여겨지고, 이사회 승인으로 해당 안건이 부의된 후, 총회 의결을 거치기 전,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1단계는 거쳤으나 2단계에서 왜 제명안건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기록되어야 하기에 해당 안건 상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14) 이명숙 의장이 찬반 의결 청취를 종료하고 찬반 투표 진행을 제안하다. 최란 부소장이 온라인 줌 회의의 투표기능을 통해 안건2. 회원 처분의 건을 회순채택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찬성, 안건상정에 반대한다면 반대로 표결해줄 것을 요청하다. 투표 결과,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4명(총 40명 투표)으로 회원 처분의 건을 제명 의결이 아닌 논의 안건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다.

보고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 (안)

최란 부소장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을 발표하다.

이어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내용을 공유하다. 사전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상담소가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상담소의 지원절차, 초기대응 절차, 방향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상담소의 공식 입장 부재에 대한 지적, 과정과 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면담 이전에 사건이 다른 단체에 노출된 것이 문제라는 의견, 여성단체의 철저한 자기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발표하다. 두 번째 질문인 “유출전달 사안을 통해 상담소가 점검해야 할 지원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지원절차가 잘 점검되고 정비되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 공직자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발표하다.

1) 이명숙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백미순 회원이 초기에 유출, 전달 경로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건 대응에 혼선이나 전락수립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지원 원칙에 대한 점검에 대한 발전적 논의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2) 홍순기 회원이 공동대응의 원칙에 있어 공유범위, 외부와의 소통 담당 지정 등의 규칙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다.
- 3) 이명숙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추가 질의가 없어 보고를 마친다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에 대해 성문화운동팀 김신아 활동가가 발표하다.

이어 최란 부소장이 사전 수렴 의견 내용을 공유하다. 안건1과 관련한 질문에 상담소 지원과 타기관 요청 연대 사안의 방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근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등을 경과하며 공공기관의 성폭력, 노동권의 의제로 확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평가 의견,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사건 지원과 관련한 교육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공유하다.

- 1) 김여진 회원이 지원 과정에서의 판단오류가 있을 때 정정하고 빈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권위없이 소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의 임시총회가 그 시작이라고 여겨져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2) 홍순기 회원이 여성단체 간담회, 토론회 등의 시기가 9~10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기상 상반기에 진행될 필요는 없는지 질의하고, 이에 최란 부소장이 30주년 기획사업이 상반기 진행예정으로 여성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일정이 하반기에 배치되었으나 상반기 진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다.
- 3) 이운상 회원이 사업을 통해 원칙을 재정비하는 것만큼 과정에서 상담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상담소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과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4) 이에 이명숙 의장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소 입장표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경환 회원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이경환 회원이 임시총회 전 상담소 입장문을 검토했으나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이후에 발표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음을 답하고, 입장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5) 이어 이경환 회원이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 평가의 필요성을 말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유출, 전달과정과 판단,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평가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다.
- 6) 강남식 회원이 실행방안의 주요 쟁점의 토론과 기준 수립을 위해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입장발표에 대해서는 회원과의 논의가 더 필요함을 제시하다.
- 7) 이명숙 의장이 입장발표 관련, 시기, 내용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8) 강남식 회원이 시기적으로 모든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에 입장발표가 필요함을 제시하다.
- 9) 유승진 회원이 해당 사안은 상담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행동 차원의 입장발표가 필요한 사안임을 제시하고, 김혜경 소장이 2021년 1월 초, 공동행동 289개 전체 단위에서 130명의 참여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상담소 이사회에서는 상담소의 단독 입장문이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였음을 공유하다.
- 10) 유승진 회원이 상담소 자체적으로 성명문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고, 상담소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단일한 입장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초기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던 활동가들의 사과문이나 공대위 담당 활동가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1) 이명숙 의장이 입장발표에 대한 찬반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경환 회원이 표결로 집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명숙 의장이 회원들에게 입장발표에 대한 시기, 내용 등의 판단을 이사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다.
- 12) 백미순 회원이 활동가 내부에서 결정하고 회원들은 지지하는 역할 분담이 있고 안건으로 논의될 부분은 아니어서 표결로 진행하지 않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3) 김여진 회원이 입장발표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자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왜 입장발표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김혜정 소장이 본 상담소는 여성단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 사안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하고 평가해야 할 여성단체 일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의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므로, 다른 단체를 통한 관련 정보 유출 전달을 인지했을 때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의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기록과 소명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설명을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설명, 설득, 사과 등의 다양한 층위가 복합적으로 있어 입장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세심하고 길게 이어져 현재까지 입장문이 발표되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14) 이명숙 의장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이사회 위임을 요청하고, 안건1은 원안대로 승인여부를 묻자 유승진 회원이 동의하고 김두나 회원이 재청하다.

안건2. 회원 처분의 건

김혜정 소장이 회원 처분의 건 제안 내용과 남인순 후원회원과 임순영 정회원의 소명서 내용을 화면 공유하고 대독하다.

1) 문효진 회원이 정관 제8조2항의 제명에 대한 조항은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적용하는 제한적 조항이고 이미 탈퇴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이명숙 의장이 이 안건은 제명 여부 의결이 아니라 토의 안건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2) 홍순기 회원이 해당 안건의 근거는 상담소가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함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향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정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다.

3) 백미순 회원이 회원처분의 건은 정관상 법리적 근거가 없고, 안건 토의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대응 태도 및 원칙과 회원 규정 정비 등은 논의가 필요하면 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4) 이에 이명숙 의장이 정당한 위중한 사안일 때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소급입법도 있고, 이번 사안도 상담소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정관개정 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그럴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탈퇴한 회원에 대한 평가나 사안 논의는 진행하기 어려움을 말하다.

5) 장윤경 회원이 제명 안건이 아니라 전체적 사건 지원에서의 문제점, 앞으로의 비전 제시 등의 대안을 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6) 김다미 회원이 처분의 논의와 정관 규정 정비, 향후 계획이 함께 논의되는 부분에 대한 혼란함을 말하고, 회원의 역할, 의무와 권한에 대해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7) 노주희 회원이 정관상 후원회원 부분이 명기된 것은 상담소 설립 시기에 후원회원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인순 후원회원의 경우, 가입한 일시와 이사회 승인회의록이 있어야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임순영 정회원의 경우,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처분안건이 상정되어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탈퇴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절차는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8) 김보화 회원이 임순영 회원은 자문위원이라는 조직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운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관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논의의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발전의 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9) 박아름 회원이 제명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 앞서 먼저 탈퇴하면 사실상 제명이라는 정관상 규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제명할 사안인지에 대한 여부, 절차상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불가하다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등 세 가지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10) 홍순기 회원이 해당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 활동이 정치에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NGO 활동이 사회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한다는 가치를 동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다.

11) 강남식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고 여성주의 윤리가 어떤 사안에 방법, 수위로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12) 이에 이명숙 의장이 소급 적용 등의 예시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수위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음을 설명하다.

13) 노주희 회원이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소환해서 제명하는 것은 옳지 않고, 30년 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해온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하고, 이번 사안의 처리 과정이 이후에 누구와 연대하고 운동할 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14) 김혜정 소장이 사전 의견 수렴과정에서 있었던 질문에 대해 답하다. 임순영 회원의 경우, 2020년 7월 8일 박 사장이 “4월 사건 이전에 문제삼으면 문제될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나서도 9일 아침 이미경 당시 소장에게 전화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만 말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대응과 관련한 문의를 했고, 이는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이었고, 만약 당시 소장이 이에 답을 했더라면 유출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후원회원은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위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하는 경우 확인되면 바로 반환하는 절차나, 이의 근거인 모금 윤리를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후원자에게 어떤 책임이나 권한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이견이 있음을 말하고, 회원 규정 및 가입 탈퇴 절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을 말한다. 또한 임순영 회원의 경우, 2021년 2월 9일 본 상담소 소장, 전 소장과 면담을 통해 본인은 회원처분의 건 안건 상정에 반대하고 탈퇴를 권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장은 회원들과 함께 정관에 따라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탈퇴를 권하지 않는 방식을 하기로 결정한 바를 전달했음을 밝히다.

15) 김여진 회원이 어떤 순간의 선택에서 정말 우리편 지키기와 같은 논리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함을 말하고, 이번 사안을 통해 만약 본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정당하게 비판해주었으면 하고 본인 또한 목격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한다. 또 그런 차원에서 내부에서 이미 여러 성찰의 과정을 거쳐오신 듯 하여 지지의 입장을 표한다는 의견을 밝히다.

16) 이경환 회원이 제명이나 총회의 절차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어 아쉽다는 의견을 말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본질에 충실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시총회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17) 이명숙 의장이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최란 부소장이 사전 의견을 공유하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함께 토론하고 진단하고 당사자가 인식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회원 자격 유지에 있어 회원 가입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 해당 회원은 본인의 일(업무)로서 한 행동이고 이것이 상담소 지원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 피해자의 요구를 참고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공유하다.

18) 이명숙 의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장윤경 회원이 동의하고 강남식 회원이 재청하다.

기타안건

이명숙 의장이 기타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 없이 안건 승인을 마친다.

의사록 승인 절차 안내

이명숙 의장이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임시 총회 의사록을 함께 확인할 정회원 3명을 선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에 최란 부소장이 유승진 회원, 노주희 회원을 제안하여 수락하였고, 김여진 회원이 자원하다. 2021년 임시총회 의사록의 확인에 대한 위임은 52명의 찬성(위임 12명 포함)으로 정회원 3명 (김여진, 노주희, 유승진)으로 승인되다.

폐회선언

의장 이명숙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오후 10시 6분)

서 기 2021년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이 사 이 명 숙
이 사 김 혜 정
이 사 이 미 경
이 사 이 경 환
이 사 장 다 혜
이 사 홍 순 기

정 회원 김 여 진
정 회원 유 승 진
정 회원 노 주 희

2021년 팀 · 부설기관 활동보고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상담팀 업무를 체계화한다

내담자 지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활동가 소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우리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와 주변인의 관점과 이야기를 다각도로 알린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열린터의 고민을 홍보 매체를 통해 외화하고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 개별상담을 통해 소진예방에 힘쓴다

퇴소 이후의 삶도 함께 살피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의 현황, 상담일지 분석,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대중과 공유한다

30주년 기념 단행본 발간을 위한 활동가 세미나와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 관리와 아카이빙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한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한다

페미니즘 신간 읽기 회원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려낸다.

모든 외부연대활동에서 소식, 후기, 내용 등을 상담소 계정에 공유하는 활동을 팀에서 함께한다

상담소 사람들, 조직문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나누고픈 이야기를 주1회 짧게 공유하는 '활동스토리' 를 게재한다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한다

상담체계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드러내고 알린다

활동가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를 팀활동과 연결하여 활성화한다

임신중지 관련 해외 법제도 및 현황을 국내에 알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2020.12.31.)을 앞두고 바쁘게 전개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에 비판적으로 참고한다

UN CSW(여성지위위원회)와 Generation Equality Forum(파리)에 참가하여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2020년,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살피고 미투운동,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다

2019 세계4차심터대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열린터 활동에 반영한다

국외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위치를 공유하고, 국내 각종 공대위 활동, 강의, 자문 등을 통해 운동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연구활동으로 환류한다

후기 작성 및 발표에서 '적용해 볼 점' 코너를 신설하여 연대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제교류협력에서 상담소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표, 공유한다

국제교류협력 비용 상황 현실화한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여성주의 상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 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
성문화운동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 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 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4.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
부설 연구소 울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 2.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 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 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 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

2021 여성주의상담팀 활동 보고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방향	팀별 실천 방안
<p>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상담 윤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여성주의 상담과 사건지원의 방향 제시
<p>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자 자조모임의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생존자와 현장에서 함께하며 풍성한 연결망 견인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연대망 확장
<p>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통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존자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 -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을 통해 반성폭력운동 이슈를 발굴하고 새로운 담론제시
팀 활동 목표	
<p>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목표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목표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 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활동가들의 안정적 업무 적응 및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함 - 윤리규정, 상담매뉴얼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의 공식화를 통해 여성주의상담 윤리에 대해 고민하며 사건지원 원칙을 정립함 - 공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건지원의 외연을 확장하고 활동가 역량을 강화함 - 기자간담회, (전문가동료)슈퍼비전, 상시사례회의 등 사례에 대해 논의를 다각화하여 사건지원 역량을 강화함 - 점점 늘어나는 지속 상담 건수와 다양한 상담소의 지원 방식을 드러내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실적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상담일지 양식 및 통계표를 개선함 -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 존엄한생존자의신나는외출을 생존자가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되찾는 과정을 경험 - 두 번의 전문가 슈퍼비전을 진행함으로써 활동가 소진 방지를 예방하고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 ‘공론화 지원’을 주제로 동료슈퍼비전을 진행함으로써 동료 기관과 공론화 지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서로의 공론화 지원 방식을 배우고 활용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음 -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 전문 기관 방문 및 네트워크 시간 마련하여 교류 -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을 통해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양성,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1-1. 여성주의 상담과 통합적 지원의 체계화 및 전문화

• 배경/필요성 :

- 2020년 3명의 상담팀활동가(상근)외에 1명의 상담활동가(반상근)를 주3일 배치하였으나, 상담활동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소진과 재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 반상근인 상담활동가의 활동 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상담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말 상담팀활동가(상근)를 4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함
 - 상담부스는 1차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창구로서, 기본적인 안내 뿐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 향후 법적, 의료적 지원까지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초기 상담이 진행됨. 안정적으로 상담 부스가 운영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활동가의 상담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 있음
 -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상담부스에서 1차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져 사건지원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역량 강화함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목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 및 지원 경험 확대

• 방법 및 계획 :

- 1) 상담 부스 운영 : 상담팀 4일(월~목), 상근활동가 1일[금 2타임(10:00~12:30 / 1:30~16:00)] 배치.
- 2) 사건 지원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검토. 활동가별 총 10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적극 연계. 격주 1회의 업무 회의 시 지원사례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 활동을 경험
 - :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체	담당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감이, 파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경진

• 진행 내용

- 1) 상담부스 운영
 - : 신입활동가 2인에 대한 교육연수 3주, 상담 부스 참관 및 실습 4주를 운영하였고, 2월 한달간 일일 슈퍼비전 및 상담일지 검토를 진행함

- : 신입활동가 2인이 2월부터 상담부스에 배치되어, 4인의 상담팀 활동가가 주 1회씩 총 4일(월~목)을 담당함. 격주 업무 회의 중 월 마지막 업무 회의 시 상담팀 활동가 부스 배치 일정을 확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매주 금요일은 상근활동가를 2타임(10:00~12:30 / 1:30~16:00) 배치하다가 4월부터 오후 타임을 17시 까지로 연장하였고, 균등한 시간 배분을 위해 오전/오후 부스 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함
- : 전국 성폭력상담소 연락처를 모든 활동가에게 배포하여, 부스에서 상담이 진행 중일 때 사무 전화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가 연결되면 응대하는 활동가들이 내담자 거주지 인근의 상담소로 즉시 안내하고 있어 내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2) 사건지원

상담년도	의견서 제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연계의뢰서 제출	건수
2021	7	33	57	34	131
2020	13	36	27	63	139
2019	10	23	26	47	106

- : 1차 전화 상담 시 지속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상담팀 내부 논의 후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속지원으로 이어져 활동가별 평균 17사례 정도를 상시적으로 지속지원 중임. 지속지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초기 신규상담의 비율이 적어지고,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건수가 예년에 높은 이유는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내 피해지원TF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기금 예산 확대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대위 변호인단이 여러 가해자들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건수가 현저히 증가함. 또 2월부터 신입활동가들이 신속하게 사건지원을 진행한 것도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이 늘어난 요인임.
- : 격주 1회의 업무 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정례화하였고, 필요시 수시로 사례와 관련한 논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을 향상 시키고, 담당 활동가의 소진을 방지함
- : 불법촬영동반 준강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내담자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격주 1회 변호사/내담자/활동가 정례회의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음. 또 변호사, 내담자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담자의 역량강화를 돕는 등 기존과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지원 하였음.

지원 방식	내용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악물 성폭력, 확보된 증거에 대한 수사 진전을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초경찰서 앞 • 주최 :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사회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발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 내용 및 쟁점 공유: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2. 준강간 사건의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한다!: 김태욱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유포 여부 확인은 피해회복의 첫 걸음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 4. 피해자 글 대독: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기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월 27일(토) 오전 11시 • 참여 : 피해자 2명, 기자 5명, 피해자 변호사 1명, 유랑, 오매 • 주제 : 언론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진행 상황 공유 • 세부 내용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건 진행 상황 논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 어려운 언론계 문화, 제도적 허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1월 27일(토) 오전 10시 • 참여 : 피해자 1명, 피해자 변호사 2명, 피해자 지인 2명, 기자 4명, 감이, 경진, 유랑, 파랑 • 주제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올바른 보도를 위한 기자간담회 • 세부 내용 : 사건 진행상황 공유 및 피해자의 소회 및 대응 나눔, 디지털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차 피해, 피해자 주변인의 역할, 대학 내 성폭력 학내 대응 관련 논의, 공론화 진행 결의와 과정 나눔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연대체	담당	세부 활동 내용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2/22 [공대위 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4/15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기자회견 공동 주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감이, 파랑	1월: 내부 인수인계(1/12) 상담소 내 담당자 간 역할조정 회의 15차 전체 회의(1/19) 2020년 활동 평가 및 2021년 계획 피해지원TF 4차 회의(1/22) 후원금 지급 관련 논의 [공대위 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22) 2월: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가해자 1심 선고(2/4)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2심 시작(2/10) 16차 전체회의 (2/17) 2021년 계획 3월: 피해지원TF 5차 회의(3/4) 후원금 신청 양식 검토 등 [기자회견] 갓갓 1심 선고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3/10) 후원금 안내 및 신청과 지급 피해지원TF 6차 회의(3/26) 무법신청 서류 취합 등 17차 전체회의(3/30) 4월: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4/2) [공대위 성명]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4/8) 무료법률구조 신청 완료(4/22) [카드뉴스]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향소심 기각(4/22)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재판 모니터링(4/23)

		<p>피해지원TF 7차 회의(4/23) 추가 피해 상황 공유 등 18차 전체 회의(4/30) 문화운동 콘텐츠 기획 등 논의</p> <p>5월: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결심 모니터링(5/10) 피해지원TF 8차 회의(5/26) 추가 피해 상황 공유 및 논의 박사방 엄벌촉구 서명제출-8,086명 (5/26) 기자회견 준비 회의(5/31)</p> <p>6월: [기자회견] 텔레그램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6/1) 19차 전체 회의(6/4) 콘텐츠 기획, 가해자별 탄원서 조직 피해지원TF 9차 회의(6/18) 권인숙 의원실 미팅 준비 등 권인숙의원실 미팅(6/22)</p> <p>7월: 피해지원TF 10차 회의(7/15) 추가 피해 관련 논의 20차 전체회의(7/22) 문화운동 유보 및 토론회 제안, 활동 백서 관련</p> <p>8월: 피해지원TF 11차 회의(8/12) 무법심의위 의견서 제출 등</p> <p>9월: 피해지원TF 12차 회의(9/30) 국감대응</p> <p>10월: [기자회견] 박사방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10/15)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대법원 앞 20차 전체 회의(10/15) 토론회 기획 피해지원TF 13차 회의(10/28) 추가 피해 관련, 토론회 준 비</p> <p>11월: [캠페인] 갓갓 대법원 선고 액션 (11/9) “우리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SNS 확산 캠페인 [공대위 성명] 34년 형이 무기징역이 되는 그 날까지: 문 형욱(갓갓) 대법원 최종선고심에 부쳐 (11/12)</p> <p>12월: [정책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인가? (12/8) @온라인ZOOM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피해지원TFT 발 제) 피해지원TF 14차 회의(12/9)</p>
<p>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p>	<p>유랑, 경진</p>	<p>2월: 19차 공대위회의 진행</p> <p>3월: UN 특별절차 보고서 제출함 UN 특별절차 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 보도협조요청</p> <p>6월: [공대위 성명]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피해자 탄원서 발송 경향신문, 조선비즈 기사 오보 관련 사과 및 정정 보도 요청</p> <p>11월: 20차 공대위 회의 진행 - 무죄 선고 이후 3년 대응 관련</p> <p>12월: 21차 공대위 회의 진행</p>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피해지원TF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월례회의 주관하여 진행하고, 세 부적으로는 개별 사건 지원 상황을 파악하며 변호인단과 소통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실무를 맡아 진행함. 전체회의에서 피해지원 상황 공유 및 관련 논의를 이끌어감. 또 영상팀에 자원하여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시도함(피해자들의 상황 변동으로 영상 제작은 보류되었고, 영상팀 활동은 종료됨).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연대 단위 소통방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함. 최근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공대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대응을 하는 등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현재 2심 무죄 선고 이후 3년간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임.

• 평가 :

- 사무국과 협력하여 신입활동가 2인이 안정적으로 상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월부터 안정적인 부스 운영이 가능하였고, 상담팀 4인의 역량 강화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에서 효율적인 사례 분배를 통해 좋은 팀워크를 기반으로 원활한 사건지원을 할 수 있었음.
- 상담부스를 운영함에 있어 전체 일정(상근자회의, 활동가 교육, 임시 총회 관련 긴급회의 등)으로 인해 전화상담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상담팀 활동가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자원활동가들의 염려가 있어, 추후 상담소 활동가들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일정에 착신 전환이나 상담 불가 공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불법촬영동반준강간사건 기자회견: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상담팀 업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의 필요성과 사건의 쟁점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지원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상담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기획함. 준강간공대위,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등 공동주최를 제안하고, 다른 팀과의 협업을 요청하여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공론화를 할 수 있었음.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잘 전달되었지만, 피해자가 주로 호소하는 수사관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움이 있음. 피해자 변호사가 없고 수사관이 방어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진행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음.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통해서만 수사 진행내용을 전해 듣는 상황에서 지원자로서 어떤 내용을 언론화할지 고민이 많았음.
- 그 밖에 다채로운 사건지원: 언론 대응 및 공론화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해봄으로써, 내담자의 욕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고 역량강화 하였으며, 많은 연대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성폭력 이해에 관한 기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공론화 지원 시 함께 할 수 있는 기자들과의 연대를 다질 수 있었음. 이를 통해 활동가도 다양한 사건지원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기존 의료·법률·심리지원 외에 공론화 지원의 유형화와 전략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음.
- 공대위 활동: 상담팀 활동가 모두 공대위에 배정되어 각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 기존의 공대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 (예, 공군 내 성폭력 사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발빠른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향후 계획

- 사건지원의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더욱 다각화되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 활동 백서 제작 준비 중

1-2. 성폭력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로의 접근성 향상
- 미투운동 등 피해생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가 증가하여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유가 절실하나, 의료 및 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목표: 치료를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하며,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방법 및 계획 :

1) 의료비

- 1인 6개월 이내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2) 개별상담(복권기금)

- 전화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 진행 내용 :

1) 의료비

번호	기관명	명수	건수
1	0000심리연구소	1	1
2	000000연구교육원	5	66
3	000000연구소	16	231
4	00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	266
5	000심리상담센터	1	6
6	주)000	1	5
7	00000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	9
8	0000상담센터	6	47
9	000신경과의원	1	16
10	00약국	1	12
11	0000병원	1	12
12	00약국	1	3
13	00가정의학과	1	1
14	000정신건강의학과	1	32
15	00상담코칭지원센터	1	16
16	00한의원	1	5
17	00000한의원	1	4
18	00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26
19	0약국	1	5
20	000심리상담연구소	1	12
21	0000정신건강의학과의원	1	11
22	0000약국	1	2
23	00신경과의원	1	4
24	0000000 00마음	3	56
25	0000내과	1	1
26	0000약국	1	2
27	0000내과	1	2

28	000000 000병원	1	1
합계		74	854

- : 지난 연말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이월되면서 연초 지급 금액이 다소 높았음.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예산에 맞게 잘 지원하고자 수시로 팀 내에서 논의 시간을 가짐. 이를 통해 연초 예산안보다 5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신청하기로 결정함.
- : 구청 지원 등 상담소 지원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담자에게 상세히 안내함.
- : 개인청구의 경우 초기 상담 시 제출 서류에 대해 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음. 상담 결과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각 증빙서류에 대해 헛갈려하는 부분이 드러남. 이에 각 영수증을 안내하는 이미지를 첨부 발송하여 이해를 도움.

2) 개별상담(복권기금)

- : 치료회복 프로그램(작은말하기) 예산변경을 통해 각 개별상담 진행기관에 각 사례 1명씩 추가 배정함(각 3명-4명)
- : 개별상담 진행기관에서 내담자 노쇼가 발생하며 앞으로의 비용 보전에 관련하여 문의함. 운영지침 상 노쇼 비용을 보전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며, 내담자 연계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기로 함.
- 개별상담 진행 내용

기관	지원대상자(명)
에브리마인드	4
정신분석센터 판도	4
계	8

• 평가:

- 팀 논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를 적절하게 연계함.
- 개별상담 연계를 통해 의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
-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한정적이다 보니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연계가 물리는 경향을 보임. 기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신규기관 탐색이 필요함.
-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구청 지원 등 상담소 지원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실제 연계로 이어지기도 함.(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 다소 이른 시기(8월)에 의료비 소진이 되어 전성협 회의 등에서 논의 사안으로 공유 제안함.
- 사건지원 없이 의료비 지원만 하는 내담자의 경우 별다른 지속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담자 구청 직접 신청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 차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 있음.

1-3. 여성주의 상담 윤리규정 및 매뉴얼 공식화

• 배경/필요성:

- 30주년을 맞아 상담활동가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마련
- 상담 및 사건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일관적인 지침과 기준 필요
- 처음 상담 활동을 시작하는 상담활동가를 위한 여성주의 상담 교육 자료 필요
- 목표: 여성주의 상담 윤리 규정 및 매뉴얼을 통한 사건지원 및 상담 기준 방향 제시

- 방법 및 계획:
 - 주요원칙매뉴얼TF팀 및 상담팀 회의 통해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활용 방안 논의
 - 윤리규정 및 상담 매뉴얼 완성 후 상근활동가에게 공유
 - 홈페이지 게시 및 사무실 배치
- 진행내용:
 - 주요원칙매뉴얼TF팀 회의 진행

	일정	내용
1	1/19	상담매뉴얼 및 상담원 윤리규정 내용 검토
2	3/23	상담팀 자문회의 참고하여 윤리규정 수정 논의 상담매뉴얼 관련 의견 나눔 및 역할조정
3	4/20	상담매뉴얼 검토
4	5/25	윤리규정 완안 논의, 상근자회의 회람 후 9월 정기 이사회 안건 상담매뉴얼 수정본 검토, 편집 이후 상담부스 비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상담팀에서 수정본 정비 6월 말 활동 종료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논의 : 상담팀 업무 회의 6/4, 6/18
- 이후 내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 정함. 내담자 개인정보를 상담일지와 분리하여 관리 및 폐기가 용이하게 함. 내담자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 및 신청서를 상담일지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함.
- 윤리규정은 2022년 3월 이사회 의결 예정 후 적용
- 평가:
 - 윤리규정 작성 과정에서 여성주의 상담활동가의 윤리적 책임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음. 윤리규정을 통해 처음으로 상담활동가의 의무와 권리를 공식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초반에 상담 매뉴얼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TF팀 구성원과 자원활동가가 협력하여 기존의 지원 안내 자료집과 차별화된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었음. 이후 상담 활동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상담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을 새로 제작하며 상담일지 보관 기한, 내담자 개인정보이용 보관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음.

1-4.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 무고와 억고소, 명예훼손, 성매매 중 성폭력 피해 사건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 존재
 -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가 필요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 지원 제공
- 방법 및 계획:
 - 2월 중 홈페이지 홍보 및 지원자 확인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자원활동 의사를 밝힌 신규변호사와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진행
 - : 신규변호사의 경우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3월~11월 법률상담 진행

: 격주 1회,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진행내용: 총 17회 중 15회, 22건의 법률상담 진행

순번	일정	담당변호사	배석 변호사	배석활동가	건수
1	3월 8일	이현주		감이	1
2	3월 22일	이수지		유랑	1
3	4월 5일	원민경	이은심(취소)	파랑	2
4	4월 19일	신수경	이은심(취소)	경진	취소
5	5월 3일	김영주		감이	2
6	5월 17일	천정환	이도경	파랑	1
7	5월 31일	신수경	이도경	유랑	1
8	6월 14일	천정아	송진성	경진	취소
9	6월 28일	권경	이도경	감이	1
10	7월 26일	이수지	송진성	경진	2
11	8월 9일	김영주	이도경	파랑	1
12	8월 23일	천정환	이도경	경진	1
13	9월 6일	이도경		유랑	1
14	10월 18일	송진성	이도경	파랑	2
15	11월 1일	천정아	이도경	경진	2
16	11월 15일	이도경		유랑	2
17	11월 29일	권경	이도경	감이	2

• 평가:

- 법률상담신청자들이 사전에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제출 전, 후로 문자 및 전화 안내를 했지만, 내담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는 일이 잦아 1회당 1건씩 법률상담이 진행되었고, 2회 일정은 전체 취소되었음
- 월법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전년도 12월~2월)의 예약이 누적되어 신청 시기와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일정 사이의 기간이 길어져 그 사이 내담자의 상황 변화로 인해 취소되는 일이 빈번했음. 최대 3주 전 신청을 목표로 하고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예약이 완료된다는 것과 법적 절차상의 변경이 생기면 미리 고지해달라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월법 신청 시 내담자에게 상담 시간이 1시간밖에 안된다는 점을 안내하지만 지각하는 일이 빈번하여 2건의 상담이 진행될 때에 시간이 밀리는 일이 있었음. 시간약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의 1층, 지하 1층 공간에서 계획대로 진행하였음. 활동가와 배석변호사가 꼭 동석하여 진행하여 지속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
- 신청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글폼 양식으로 신청서를 변경했으나 월법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는데 구글폼 양식이 맞지 않아 다시 한글파일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함.
- 법률상담 후 내담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았음. 이에 신규 변호인들에게는 최초 법률상담 전 배석을 제안하였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담소와의 협업 방법을 공유하였음. 신규변호사 추천과 기존 변호인들과의 활발한 상호 피드백을 위해 반기별 평가 혹은 연평가의 기회를 만들기로 함.

1-5.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사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건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면접 상담이 증가하는 상황. 이에 IT인프라 소외현상을 겪는 내담자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참여를 위한 IT인프라 지원 필요
- 목표: 지역의 내담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IT인프라 지원
- 방법 및 계획:
 - 1인 50만 원 지원 한도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비서울 지역에 사는 내담자에게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지원
 - IT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내담자가 비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트북 혹은 공간 대여료 지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사용 변경 건 및 지출 내역 보고
- 평가:
 - 2019년 11월 지출 금액 보고 후 착오가 있어 후원자로부터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음. 정산 후 후원자에게 다시 보고하였고, 후원자가 현재 예산 500만원을 채울 금액을 후원하기 어려운 상황 공유함.
 -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서 새로 신설한 IT 인프라 지원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기존 운영의 방식으로 사건지원 및 행사 참여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내담자로 확인 될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지원(교통비, 숙박비, IT인프라)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향후계획: 후원자에게 집행내역 보고

[신규] 1-6. 위드유센터 법률동행지원사업

- 배경/필요성:
 -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의 성폭력이 크게 공론화된 후, 많은 피해자가 직장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지하고 대응을 고민하게 됨.
 -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직장 관계의 사람에 의한 피해가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성희롱 피해는 26.2%로 적지않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대응 상담을 했음.
 - 그러나 성희롱 유형은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사내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다양한 지원도 늘고 있음.
- 목표: 통합적이고 내실 있는 사건 지원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 회복을 조력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사례지원
 - 총 6건의 사례지원
 - 초기 상담을 통해 주 호소내용 파악(사내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해당 사건에 맞는 노무사 및 변호사 배치
 - 진술 과정 상담활동가 동행
 - (2) 활동가 역량강화
 - 중간 및 최종 평가
 - 노동부, 국가인권위 지원 등 제도적 대응 사례 2건 내부 발표
- 진행내용:
 - 2/26 위드유센터 법률동행지원사업 신청
 - 3/1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협약식 (경진)
 - 4/7 직장 내 성희롱 사건지원을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유량)
 - 7/8 네트워크 회의 중간 점검

- 9/14 직장내 성희롱 피해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 12/22 사업 결과보고회
- 사업기간 : 3월 22일~12월 10일(사업연장)
- 사례지원 수 : 2
- 평가:
 - 사업 진행 과정 중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만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 제소 건은 지원 범위 대상이 아니라 지원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음.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한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서울 소재의 상담소에서 지원받는 내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보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전략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규사업을 실행하였음. 노무사 등 기존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법률 조력 풀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사안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사업의 구조 및 체계와 관련해 사업위탁기관과 상담소의 이해가 상이하여서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음. 또한, 부분적 지원의 한계로, 통합적 지원 및 전반적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목표 지원사례 건수를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사업비가 감액되어 조정되었음.
 - 상반기까지 지원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목표 건수를 채우는데 집중하면서 내담자와의 소통이나 사건진행상황 파악, 통합적 지원 전략 수립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드유센터에서 위촉한 법률조력인단 명단을 토대로 노무사를 섭외하였으나, 기존에 협력 경험이 전무한 이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 노동청 진정이나 산재신청, 인권위 진정의 방법이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활동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음. 향후 해당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방안 중 하나로 노무사 등 법률 조력 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의 기회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이후 사업을 통해 인연이 된 노무사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함.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을 잘 지원하기 위해 노동인권단체 및 노무사들과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2-1. 상담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 본 상담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생존자들의 전화상담이 많아, 통계 분석을 통해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음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2018년 자원활동상담원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 초기 상담 이후 지속 지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상담 통계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상담일지와 통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원현황 파악과 이슈대응 및 발굴에 활용
- 방법 및 계획 :
 -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 상담팀 활동가의 일지 검토 및 슈퍼비전 진행
 - 월별 일지 점검 :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 보고 : 요청 시 상담 관련 실적 및 통계 보고
 - 지원 현황 보고 : 이사회, 나눔터, 상하반기 평가회의 등 지원 현황 보고

- 이슈별 통계 제공 : 필요시 혹은 요청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상담 통계 분석 제공
-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 통계 배포 : 전체 및 키워드 중심의 1년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외화
- 진행 내용

방법	내용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상담팀 내 일지 검토 및 슈퍼비전 진행
월별 일지 점검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2020년 한 해 운영실적(2/19) 2021년 상반기 운영실적(7/19)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운영실적(10/5) 지원실적 제출(4/1, 6/2, 7/12, 9/16, 11/11, 11/29, 12/7)
지원 현황보고	이사회(3/16, 5/24, 9/7, 11/19) : 지원 현황보고 나눔터 87호 : 2019년 상담통계 (1/20) 상반기 평가회의(7/2) : 상반기 지원 현황 보고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 통계 배포	[보도자료] 2020년 상담통계현황(3/4) [카드뉴스] 기초통계편(3/19) [카드뉴스] 세부통계1_카메라등이용촬영편(4/14) [카드뉴스] 세부통계2_준강간,준강제추행편(6/1)

• 평가

- 일지 작성과 검토가 잘 진행되고 있음. 더불어 실적보고 역시 원활히 진행됨.
- 현재의 상담통계는 1차 상담과 지원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갈수록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속지원 사례들을 충분히 분석해내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운영실적에도 1차 상담 외에 지속지원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위한 논의 필요함. 사례회의나 공론화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사건 지원을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올해 처음 시도해 본 상담통계분석 카드뉴스는 상담현황을 좀 더 시각화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작업을 위해 투여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 확인이 필요함. 처음 보도자료 작성되었을 때 자원활동가에게 이미지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미지 작업을 해야 하기에 자원활동가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전체 통계 중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실제로 배포 시기가 많이 늦어져 시의성 측면에서 평가 필요함.
- 향후계획: 상담통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논의 지속

2-2. 효과적인 상담통계 활용을 위한 논의

• 배경/필요성 :

- 초기상담이 많은 상담소의 특성상 현시기의 주요한 성폭력 상담 경향 파악 가능
- 반성폭력 운동 이슈 대응에 상담통계의 적절한 활용 필요

• 목표: 논의를 통해 상담통계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 방법 및 계획:

- 반성폭력 이슈에 상담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 3월 중, 연구소 및 상담팀 내부 업무 회의를 통해 상담통계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내용 정리
- : 외부 자문을 통한 교육 또는 통계 및 일지 개선

• 진행내용:

1. 업무회의 내 논의

일시	회차	내용
3/12	6차	- 3/5 여가부에서 실적보고된 건수 관련 문의 : 실제 상담 및 지원 건수와 운영실적으로 보고되는 건수의 차이가 너무 큼 : 기본적으로 건수/횟수 기준이 달라 지속 지원 건수 포함되지 않는 문제 + 실제 지원 내용과 보고되는 내용이 다른 문제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4/9	8차	상담일지 및 통계 개선 방안, 여가부 실적 관련, 개인정보 보완 관리 방법 아이디어 논의
4/23	9차	1) 상담일지 수정 방향 논의 2) 이후 논의 과제 선정
5/7	10차	- 2020년 상하반기+2021년 상반기 일지읽기 모임 때 나온 일지수정 의견 정리 - 통계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 상담일지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개선방안 계획세우기 - 운영실적에 미포함되는 다양한 지원들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시급.
9/10	16차	- 통계 및 실적 반영을 위한 일지 변경 관련 논의 현황 공유 및 이후 진행 논의

2. 상담일지 개선안 마련 및 자문회의

추진내용	세부 내용												
자문회의 준비회의	- 일시: 11/16 14:00 - 참석: 유랑, 감이 - 논의 내용: 상담일지 개선 내용 검토 - 피해자와의 관계, 법적 절차, 상담원 지원 내용 등												
1차 자문회의	- 일시: 11/23 19:00 - 논의 내용 : 상담일지 양식 변경안 마련 배경 설명 : 변경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상세 설명 : 현행 상담통계 상 오류 검토 : 상담일지 개선 작업 일정 조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내용</th> <th>일정</th> </tr> </thead> <tbody> <tr> <td>상담일지 변경안 1차 마감</td> <td>12/15</td> </tr> <tr> <td>변경안 시범 사용</td> <td>12/16~12/23</td> </tr> <tr> <td>2차 자문회의(예)</td> <td>12/23</td> </tr> <tr> <td>: 검토 의견 조율 및 추가 수정 내용 확인</td> <td></td> </tr> <tr> <td>실제 사용</td> <td>2022/1/3</td> </tr> </tbody> </table>	내용	일정	상담일지 변경안 1차 마감	12/15	변경안 시범 사용	12/16~12/23	2차 자문회의(예)	12/23	: 검토 의견 조율 및 추가 수정 내용 확인		실제 사용	2022/1/3
내용	일정												
상담일지 변경안 1차 마감	12/15												
변경안 시범 사용	12/16~12/23												
2차 자문회의(예)	12/23												
: 검토 의견 조율 및 추가 수정 내용 확인													
실제 사용	2022/1/3												

• 평가:

- 상담일지 양식 개선을 통해 상담소의 다양하고 탄탄한 지원 방식을 드러내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상담통계에 누락되었던 공론화 및 공동대응 지원, 사례회의 지원 건수를 상담통계와 운영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 대응, 인권위 및 노동부 진정 등의 제도적 대응을 추가하여 법적 대응 외 다양한 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됨. 또한, 상담일지 일부 항목을 운영실적 항목과 맞춰 효율적으로 실적을 집계할 수 있게 됨.

2-3 일지읽기모임

• 배경/필요성:

- 해당 모임에 활용할 일지 선별부터, 진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슈 발굴하고 현황 파악 도모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담당자만의 상담 및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이에 상담활동가들과 의견 나눔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목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도 향상 및 전체활동가의 역량강화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오전: 상담일지사본 배포 및 읽기, 오후: 의견나눔 및 평가
- 진행내용 :
 - 상담일지 읽기 모임
- : 3/24 참석 - 오매, 앵, 달별, 박지희, 신아, 조은희, 수수, 상아, 파이, 백목련, 파랑, 란, 경진, 유랑, 감이
- : 9/3 참석 - 경진, 파랑, 유랑, 감이, 파이, 오매, 낙타, 박지희, 시나, 수수, 조은희

시간	내용	
10:30~12:30	일지 및 워크시트지 배포, 일지 읽기	
12:30~13:30	점심식사	
13:30~15:00	일지 읽기	
15:00~17:00	작성 된 워크시트지를 토대로 논의(주요 내용 정리)	
	① 상담일지를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례, 피해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첫 말하기를 하는 사례의 경우 법적, 의료적 해결 안내에 그치지 않고 끝나지 피해생존자의 생애를 다루며 잘한 부분들을 끌어내는 등 역량과 힘을 지지하는 상담 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상기함. - 상담부스에서의 1차 상담 시 활동가들의 지지의 말을 바탕으로 다시 전화를 하는 사례가 많음. 우리의 말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② 상담일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내담자 지원 업무를 하지 않는 활동가들의 경우 자세한 형사 절차 과정(피해자의 열람등사 등), 다양한 연계기관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읽기 일기를 통해 숙지함. - BJ, 오픈채방 참여자 등 다양한 가해자 유형의 증가.
	③ 고민됐거나 아쉬웠던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상담 시 피해 당사자의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상담 방향. - 외국에 거주하는 내담자, 외국에서 발생한 피해 상담. - 친족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해 높아진 기대감. 과거에는 개인적 치료 위주였다면, 현재는 생존자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방식임. 이에 사회적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내담자들의 전화 많음. 여러 대처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 숙지하면 좋겠음. - 일지 앞면 체크 누락 많음. 또한 면접상담신청서 등 서류에 활동가 서명 누락 건 다수 - 유의하기로 함.
④ 2021년 세부 분석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특집. 올해 들어 강간보다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아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소성의 변화 등이 있을 수도 	

		<p>있다는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번호사에 대한 불만 많음. 이에 대한 통계, 논의 필요해 보임.
	⑤ 상담일지 양식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지 작성 시 ① 사건요약 ②상담내용 - 상담원/내담자 방식으로 통일. - 친족 분류 정리 필요. - 불송치 절차 반영.

• 평가 :

- 상담일지 읽기 모임을 통해 상근활동가의 상담 및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특히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유형에 따른 상담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함.
- 활동가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법률문제들을 일지를 읽기 통해 해소하기도 함. 이어서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경찰의 불송치 권한 등) 대해 공유하며 최신 정보 습득에 기여함.
- 작성된 워크시트지 취합을 통해 추후 세부분석, 양식 논의에 적용.
- 장애, 연령 등에 따라 전화와 온라인 상담 방식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파악함. 당장의 상담방식 다양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제공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도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됨.
- 9/3 이안젤라홀 내부 공사로 활동가 각자 자리에서 일지를 읽고 온라인 줌(zoom)으로 참여함. 상반기 오프라인 진행에서의 비해 활동가들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됨. 업무 시간과 구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추후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요구됨.

(신규) 2-4. 상담일지 데이터화

• 배경/필요성:

- 상담일지 보관의 한정적인 공간으로 인해 장기적인 상담일지 보관 및 데이터화 방안 마련 필요
- 상담일지 데이터화 논의 중 훼손된 일지 상태 등을 고려 신속하게 데이터화 작업 필요성 대두.

• 목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담일지 보관 및 데이터화

• 방법 및 계획:

- 훼손 일지부터 우선적으로 스캔 작업

: 비파괴식(수직 위 렌즈)기기 사용 필요. 장기 보관되었거나 훼손된 일지의 경우 기존 파괴식 스캔(렌즈 접촉 방식)기기를 사용할 경우 부품 등 손상 우려 큼

: 작업방식, 보안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모집하여 상담소 내에서 진행

- 나머지 일지

: 우선적으로 훼손된 일지 스캔 작업을 마친 후 논의 필요

• 진행내용 :

일정	세부 내용
11월 초	2인 채용
11/15 ~ 11/16	상담일지 옮기기 및 기기세팅.
11/17 ~ 11/19	스캔 작업 및 데이터화 분업 등으로 적응기
11/22 ~ 11/14	각각 스캔작업과 일지별 pdf파일화 업무 분업 작업

- 11/14 작업량: 훼손 일지 111권 중 약 59권

• 평가 :

- 초기 사업 계획 시 1일 일지 5권 작업 완료를 예상함. 그러나 일지 분리하기, 누락일지 정리, 순서정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하루 2권~2권 반 정도의 작업 완료.

- 두 명의 작업자가 해당 사업의 중요도를 인지하여 작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진행됨.

목표3. 생존자 역량강화와 연대의 확장을 모색한다.

3-1.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말하기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진행
 - : 매달 참가신청 받아 모집(모집인원 기준: 활동가 포함 13명 내)
 - :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집인원 기준을 최대한 적용
 -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 이후 참여 소감과 설문 진행
 - : <모임후기> 작성하여 사후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 : 12월에는 작은말하기 송년회 행사 진행
- 진행내용

회기	일시	진행자	참여자	주제
1	3/31	유랑	12명	현재의 감정 및 상황 알아차리기
2	4/28	파랑, 감이	11명	사건 이후 일상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
3	5/26	파랑, 감이	8명	후유증에 대해서
4	6/30	파랑, 감이	13명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죄책감 털어내기
5	9/29	파랑, 감이	9명	피해 이후 대응
6	10/27	파랑, 감이	11명	사건 이후 긍정적 사고방식과 성장경험
7	11/24	파랑, 감이	11명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8	12/15	파랑, 감이	15명	작은말하기 송년회

- 평가:
 - 공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 장소를 대관하지 못하고 상담소에서 진행함. 다소 건조하고 삭막한 내부를 아늑하게 만들고, 다과 도시락을 준비하여 생존자를 환대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여 7,8월 두 달간 개최하지 못하다가 9월부터는 외부공간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공간을 찾음. 공간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인원: 신규참여자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매달 10명 내외의 인원을 신청받아 진행함. 이에 기존참여자들이 신규참여자들을 위해 격월로 신청하는 등의 배려를 보여 적정인원이 유지되고 있음
 - 진행: 몇몇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 비해 많은 말을 하고,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끄는 경우가 있어 이

에 행사 시작 전 함께 낭독하는 <이 공간의 약속>과 <작은말하기 참여자의 약속>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여 진행함. 신규참여자나 오랜 기간 참여하지 않은 기존참여자가 지각할 경우 최대한 기다렸다가 함께 약속문을 읽거나, 공간 외부에서 따로 약속문을 읽게 하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함.

- 신입활동가가 안정적 담당을 위해 부담당 활동가와의 역할조정을 함.

3-2. 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 이후 내담자 및 작말 참여자들의 대외적인 말하기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정교하게 세팅된 말하기 무대가 아닌 작은 규모의 집회나 게릴라식 퍼포먼스 형태의 아웃도어 액션으로 기획하고자 함
- 목표: 외부 장소에서 생존자들의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 마련
- 방법 및 계획:

시기	장소	내용
3/31	작은말하기	취지 설명 및 기획참여 제안
4~5월	본 상담소 내·외부	- 기획단 구성 - 세부 기획회의 2회 - 준비 실무회의 1회
6월	미정	- 서바이버 아웃도어 액션<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 - 게릴라 홍보 - 진행 - 후기 작성하여 외화

- 진행 내용:

시기	활동	내용
3~4월	홍보	- 일시: 3/31, 4/28 - 장소: 작은말하기 - 내용: 취지 설명 및 기획 참여 제안
5월	1차 기획회의	- 일시: 5/17 오후 4시 - 장소: 줌회의실 - 참석: 성폭력피해생존자 5인, 유랑, 감이 - 내용: 사업계획 공유, 외출 아이디어 나누기 - 결정: 6월 말 평일 저녁,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함께하는 심과 힐링, 수다
	2차 기획회의	- 일시: 5/27 오후 4시 - 장소: 줌회의실 - 참석: 성폭력피해생존자 4인, 감이, 경진 - 내용: 1차 회의 내용 및 상담팀 논의 내용 공유 및 기획 변경 논의 - 결정: 활동기간(6/19~7/2)중 키워드별 4인 모둠 구성하여 모둠별 활동 1회
6월	3차 기획회의	- 일시: 6/2 오후 4시 - 장소: 줌회의실 - 참석: 성폭력피해생존자 4인, 감이 - 내용: 2차 회의 내용 공유, 키워드 분류, 가이드라인 검토 - 결정 (1) 설명회 개최 및 내용, 실행 시 유의점 (2) 지원 비용: 모둠당 6만 원 (선결제 가능한 곳 우선. 활동에 따라 최대

		<p>2만 원의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숙박/여행의 경우는 계획에 따라 한도 증액 가능하지만, 논의가 필요함)</p> <p>(3) 소요 시간: 2~4시간 혹은 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p> <p>(4) 1인 1모듬 원칙. 자리가 남으면 1회에 한해 추가 모집 가능</p> <p>(5) 한 키워드에 4명 이상 신청한 경우 모듬을 나눌 수 있음.</p>
	홍보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신청 기간: 6/7 오후 1시~ 6/9 오후 5시 (추가 신청 포함) - 모듬구성 발표: 6/9 오후 6시 30분 - 총 12명 신청 (1인 최대 2모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다&드로잉: 3명 • 오픈하우스: 4명 • 짧은여행 긴 여운: 4명 • 같이 걷자: 3명 •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3명 • 자유주제: 2명
	존/생/신/외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차) 6/9 19시 (참석: 생존자 2명/ 진행: 감이) (2차) 6/10 16시 (참석: 생존자5명/ 진행: 감이) - 장소: 줌회의실 - 내용: 활동 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 “나는 이럴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나는 이럴 때 불편함을 느껴요” 3가지씩 말하기, 후기 작성 방법 논의
	각 모듬별 준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각 모듬별 오픈채팅방 (7개) - 진행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팀 활동가가 각 모듬별 오픈채팅방 개설 및 초대 (2) 6/15 정오까지 모듬별 활동 계획안 제출 (계획 제출, 총무, 사진 등 역할분담, 예산을 포함한 세부 계획표, 존중의 약속 등)
	모듬별 외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6/19~7/2) 내 각 모듬별 활동을 1회 수행. - 외출 시 활동가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활동가는 모듬별 활동 지원금의 집행과 활동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불편함이나 어려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함. - 활동 후 사진과 간단 후기를 작성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다&드로잉(6/28): 파랑 • 오픈하우스(6/25): 감이 • 짧은여행 긴 여운(6/20): 경진 • 같이 걷자(6/30): 감이 •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6/27): 유랑 • 자유주제(6/21): 감이
7월	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사진과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생존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외화

• 평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작은말하기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기획회의 단계부터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4인 모듬 구성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음.
- 기획회의와 설명회 등 참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로 인해 훼손되었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음.

목표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

4-1. 사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단체별 사건지원의 체계 운용의 방식과 지원 전략의 상하므로 타 상담소와의 교류 및 슈퍼비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적 활동을 통해 연계망을 확대.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 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개별 사안을 지원하는데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전체 상근활동가들에게 묻고 나누며, 종결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 대한 공유 및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확인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함.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기회제공
- 목표: 사건지원의 경험을 정리·공유함으로써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함
- 방법 및 계획 :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슈퍼비전	5/13, 10/7	상담 사례의 성격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섭외하여 전문가 슈퍼비전 진행(상, 하반기 2회)
동료슈퍼비전	8/20	타 상담소 교류 및 사례 슈퍼비전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상근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지원방법을 논의함

• 진행 내용: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슈퍼비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5/13(목) 14시 • 장소: 이안젤라홀 • 진행자: 경진 • 참석자: 조은희, 지희, 낙타, 수수, 상아, 신아, 앞, 달별, 감이, 유랑, 파랑, 파이, 오매, 란, 백목련 • 슈퍼바이저: 김은아(라다) • 슈퍼바이저: 유랑, 감이 • 슈퍼비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트상대에 의한 준공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유랑) - 대리인이 보이는 모습(사건에 대한 과한 개입, 피해자와 본인을 동일시 등)들이 일종의 대리외상의 증상으로 보임. 피해당사자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에 어느 정도 경계가 필요함. - 사건 전환 시점에 다른 제안들을 통해 지원 진행과 관련하여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 요구됨.

		<p>2) 공소시효 도과 특수강간(감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사건 발생이 경과 한 시점에 법적 진행을 호소하는 부분이 핵심. 과거 내사종결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회복하려는 의지이며, 이는 법적 해결이라는 욕구로 이어짐. - 이러한 사례의 경우 상담을 통해 승소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실패가 아니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필요 있음. - 사례가 종결되었지만 내담자에게 있어 앞으로의 남은 과정들은 활동가를 통해 받은 지지의 경험이 남을 것으로 보임.
<p>동료슈퍼비전</p>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1(금) 14시-16시 • 장소: 한국여성의전화 • 진행자: 감이 • 참석자: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5인(유연, 손문숙, 예림, 도지현, 가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4인(파랑, 감이, 유랑, 경진) • 역할분담: 한여전과 소통 및 사회 - 감이, 사례 준비 - 유랑(주 사례), 파랑(보조사례), 속기 - 경진 • 진행 순서: <p>1_각 사례 발표 + 질의응답</p> <p>1-1_데이트상대예의한 악물 의심 성폭력 (유랑)</p> <p>1-2_기자예의한 강제추행 피해 이후 언론사에 의한 2차 피해 (파랑)</p> <p>1-3_어플로 만난 상대에 의한 스토킹 (예림)</p> <p>1-4_전 국회의원에 의한 추행피해 후 보복성 역고소 및 기사 게재 (도지현)</p> <p>1-5_대학교수에 의한 성폭력 공론화 과정에서의 연대체 결합 (예림, 손문숙)</p> <p>2_공론화지원 및 사례별 고민에 대한 논의</p> <p>3_운영실적 관련 논의</p>
<p>전문가슈퍼비전</p>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29(금) 14시-17시 • 장소: 상담소 1층 • 참석자: 유랑, 경진, 파랑, 백목련, 앓 • 슈퍼바이저: 김미랑 • 슈퍼바이저: 파랑, 경진 • 슈퍼비전 내용 <p>1) 직장 내 성추행 이후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내담자의 사건지원(파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사건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 상담자를 재촉하고 빠른 지원을 원하는 가운데 지원자 및 조력자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임 - 성폭력 법적지원, 노동 쪽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항목이 있는데 구분하여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내담자의 불신이 정보력과 에너지로 장점이 되기도 함. 여태껏 해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주변 지지체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데이트 폭력)시 심리 정서적 지원의 방향 (경진) -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의 경우 관계를 맺은 동안 폭언, 폭행 뿐 아니라 가스라이팅 등의 정신적 피해도 동반됨. 이로 인해 관계를 끝낸 후 당시의 경험들이 현재 심리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피해 사건 화시 상대와의 긍정적 감정을 보이며 양가감정을 드러낼 때 활동가가 심리 정서적지원의 어려움을 가짐
더 나은 사건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대안학교 내 사건(최초 상담번호: 2021-06-117, 담당: 감이) - 일시 및 장소: 2021.7.21. 15차 상근자회의에서 논의 - 내용: 학교 운영주체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학생들 거취 관련 고민 나눔 / 인권위 제소와 노동부 진정, 여가부 인가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지원방안 논의함

• 평가:

- 전문가슈퍼비전: 중간에 확인 절차와 내용 전달 늦어졌고, 전체 활동가들이 참석하는 자리 등의 기본적인 정보 사전 공지가 부족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됨.
- 하반기 전문가 슈퍼비전의 경우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미리 신청을 받아 진행했는데 다른 상근활동가의 참여가 저조했음. 상담팀 신입 활동가의 사례 2건을 진행했는데, 슈퍼바이저가 지원자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자책을 덜면서 지지하고 역량 강화를 해주었음.
- 동료슈퍼비전: (총평) 두 기관 모두 1년 미만의 새로운 활동가들이 많아 인사를 나눌 수 있었고, 상담 및 사건지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담소 간 활동가 교류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
- : (사전준비) 업무회의를 통해 동료슈퍼비전을 제안할 기관을 선정.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공동대책위 내 사건지원 역할을 함께 맡았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라 점차 공론화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론화지원”이라는 주제 선정. 예상대로 공론화지원 요청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상담활동가들의 고민이 깊은 유사한 상황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공론화지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원칙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 사전에 슈퍼비전 양식 및 상담소의 사례를 공유하였으나 동료기관에서 사례를 늦게 보내주어 사전에 사례를 검토할 여유가 없었음.
- : (진행) 애초에는 각 기관별 한 사례씩 총 두 사례를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총 다섯 사례가 모아지다 보니 각 사례와 관련된 설명과 논의가 전체 시간 중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게 되었음. 하지만 공론화 지원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나눌 수 있었던 장점은 있었음.
- : (내용) 공론화를 원하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일대일 상담지원과 달리 명확한 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주지해야 하며, 사건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그에 대한 호응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우리의 요청이 우선 수용되어야 자료 검토를 토대로 공론화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필요함.
- : (활용) 동로기관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내담자와 연결할 만한 기자 리스트 확보 및 네트워크 유지, 직접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동석, 취재 및 인터뷰 후 보도에 대한 약속을 명문화하고 사전 검토 가능성도 확보하는 등 보다 평등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에 노력함, 보도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 등)에 대해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4-2.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적 사건지원 활동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자문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를 3월 중 개최
 - 상시 자문 활성화: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팀 자문회의	3/25	- 법조, 상담, 의료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 팀 보고 및 안건 논의
--------	------	--

• 진행 내용

날짜 (장소)	내용	참석자
3/5 (중 회의실)	<p>I. 보고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문위원 위촉 명단 및 위촉 기간 보고 2.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0주년 사업계획 3. 2020년 상담현황 및 여성주의상담팀 활동보고와 2021년 사업 계획 4. 공대위 진행내용 <p>+ 관련 질의응답: Q. 30주년 모금계획은 어떤지? A. 있음. / Q. 코로나19로 인한 상담영향과 앞으로 방안은? A. 방역지침 준수하며 가급적 넓은 공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자 함.</p> <p>II. 논의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윤리규정(가)> 검토 및 의견 나눔 :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윤리규정있음. 참고가능할 것 (권력차이, 다중관계 등). : 다중관계 금지에 대해 적극적 회피 등 책임 명시 : 1조 중 의무와 권리 => 권리와 의무 수정 : 5조(정보보호 기록 의무) 조항에 담당자 명기, 이 규정에 해당되는 모두에게 기록의 의무 등 고지, 지침 등 안내 : 연구자료활용 관련 연구자의 제한 등 기존 내규와 같이 점검할 필요 : 4조 4항 조직적 한계 등 종결 부분에서 기준 모호 2.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제언 중인 내용 3. [기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이 시급. 대한변협과 국선변호사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법무부 소속인 국선변호사 너무 많은 사건 배당되고, 금액지급 관련한 세세한 서류들에도 불구하고 소액이 후불제. 무법시스템과 동일하게 가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와의 협의 필요 : 언론을 통한 공론화 필요 	<p>- 자문위원: 최지나, 김은아, 김두나, 신수경, 이은심, 원민경, 이정선, 천정환, 천정아 (9명)</p> <p>- 활동가: 유량, 경진, 파라, 감이, 오매, 란 (6명)</p>

	: 국선변호사의 좁은 입지와 경험을 넓힐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 있음. 많은 사건 중에서 더 집중해야할 사건을 집중조력하는게 좋을수도 : 현재 상황에서 상담팀이 내담자들에게 더 잘 안내해야할 필요 III. 공유 1. 2021년 임시총회 결과 공유	
--	---	--

• 평가

- 신규자문위원들 참석. 앞으로 기대됨.
- 사임의사를 밝힌 자문위원 또는 2년 이상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내담자분들은 해촉 절차등이 필요함.
- 윤리규정 관련 의견은 규정팀에 전달 필요. 국선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이번 논의 토대로 내부 논의 진행 필요할 수 있어 보임.

4-3.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 1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1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금액 부족분 발생 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 적극 활용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상근자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진행 내용:

7월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 신청(대기)
10-12월	10/17, 24, 31, 11/7, 28, 12/12 파트너 동반 및 개인 심리상담 총 6회기 (회당 80분) 진행

• 평가:

- 피해생존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소진 예방이 중요하기에 1년차에 해당하는 활동가에게 주어지는 소진예방 프로그램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음. 대상 활동가가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피해생존자 상담지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이에 상담지원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소진에 대한 개별 심리상담에 더하여 파트너 동반 상담을 진행하였고, 파트너 관계 개선에 따른 활동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소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내담자 심리상담 연계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

5-1.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교육의 필요성 및 성폭력 관련 법, 지원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 필요
-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실시에 대한 많은 수요
- 목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 양성
- 방법 및 계획:
 - 교육 기획
 - : 연구소와 커리큘럼 및 강사 논의
 - : 3~4월 기획팀 구성 및 세부 기획 논의, 강사 섭외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 실시
 - : 7월에 주중 (10시-5시) 100시간 진행
 -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예정
 - : 교육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기회 고려 (법정 모니터링 소모임 등)
- 진행내용:
 - 주요 진행일정

기간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3월~4월	커리큘럼 기획 및 강사섭외	기획단 구성 (경진, 유랑, 파랑) 연구소와 커리큘럼 및 강사 논의 기획회의 진행 : 3/16, 3/23, 4/22 강사섭외 진행 및 강의의뢰서 발송
5월	수강생 모집	사전홍보물 제작 및 게시 : 5/3 홍보물 제작 및 수강생 모집 : 5/31 온라인 강의 모니터링 담당 일정 조정 기획회의 진행 : 5/24
6월	교육 준비	기획회의 진행 : 6/8, 6/30 수강생 입금 확인 및 안내 문자 발송 교육 진행 양식(출석부/강의평가서/지급내역서) 만들기 강의안 취합 및 자료집 편집 자료집 우편 발송 교육과정 운영계획 마포구청 보고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 기획 : 영화 사전 상영 (6/23~6/25), 사전 질문 구성, 사전미팅(6/29)
7월	교육진행 및 평가	온라인 교육 진행, 출결 모니터링 강의평가 및 지급내역서 취합 강의로 지급 수료증 우편발송 평가회의 진행 (8/5)

- 최종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월일	시간	차시	교육내용	강사
----	----	----	------	----

	9:00-10:00	-	◎오리엔테이션	
7/5 (월)	10:00-13:00	1강	여성인권과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4:00-17:00	2강	여성주의의 이해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7/6 (화)	10:00-13:00	3강	남성성과 문화	김수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14:00-17:00	4강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몸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7 (수)	10:00-13:00	5강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00-17:00	6강	반성폭력 운동의 개념과 쟁점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7/8 (목)	10:00-13:00	7강	강간죄 개정운동의 역사와 위력 성폭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4:00-17:00	8강	젠더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폭력 법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9 (금)	10:00-13:00	9강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 및 지원 체계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14:00-17:00	10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및 지원 체계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7/12 (월)	10:00-13:00	11강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14:00-17:00	12강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및 피해자 권리보장제도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7/13 (화)	10:00-13:00	13강	청소년 성문화의 이해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14:00-17:00	14강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서재선 (서울아동해바라기센터 부소장)
7/14 (수)	10:00-13:00	15강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동성 성폭력에 대한 지원	양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14:00-17:00	16강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해와 지원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7/15 (목)	10:00-13:00	17강	성매매의 구조와 성폭력 상담 지원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14:00-17:00	18강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폭력피해 지원	나무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팀장)

7/16 (금)	10:00-13:00	19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이해와 지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4:00-17:00	20강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7/19 (월)	10:00-13:00	21강	이주여성인권과 젠더폭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
	14:00-17:00	22강	낙태죄폐지 운동을 통해 보는 재생산권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7/20 (화)	10:00-13:00	23강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치유의 이해	조이수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사무국장)
	14:00-17:00	24강	성폭력 피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7/21 (수)	10:00-13:00	25강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해결과 가해자	최김하나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14:00-17:00	26강	☉법원방문 참관	
7/22 (목)	10:00-13:00	27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I	김은아 (상담심리센터 위민 대표)
	14:00-17:00	28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II	
7/23 (금)	10:00-12:00	29강	☉성폭력 문화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3:00-15:00	30강	☉영화 <잔인한 나의, 흠>	
	15:00-17:00	31강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	푸른나비, 민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액션 공폐단단 활동가)
7/26 (월)	10:00-13:00	32강	사건지원자의 태도와 역할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14:00-17:00	33강	☉성폭력 상담 실습 I	유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7/27 (화)	10:00-13:00	34강	☉성폭력 상담 실습 II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14:00-15:00	35강	☉팀 발표 및 수료식	

• 평가:

(1) 총평

- 총 40명이 수강하였고 이중 1명이 교육 시작 1/3 시점에서 수강을 포기하여 수강료 일부를 환불함. 최종적으로 총 39명 수료 완료함.
-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에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되었고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음. 온라인 교육은 몸이 아픈 사람, 육아하는 사람, 비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음.
- 상근활동가 3명(경진, 유랑, 파랑)이 교육 기획단으로 참여하여 기획과 진행, 소통이 원활한 완성도 높은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여성주의상담팀 3명이 모두 기획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 달간 전체적인 팀 업무 과부하가 심했음. 그래서 교육 중간에 전체 상근활동가 상담 부스 담당을 추가 배분하여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음. 추후 같은 팀 활동가들이 기획단으로 참여 시 전체 상근활동가 상담부스를 추가 배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사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수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함.
- 강사 섭외비 및 수업 준비 비용 현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상 35만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수강료를 상향등 정책 제언이 필요함.

(2) 준비과정

- 3월부터 미리 교육 준비를 시작해서 진행 과정 중 놓친 것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짐.
- 준비과정에서 총 7번의 기획회의를 통해 기획단 3명이 미리 논의하고 적절히 역할 분담할 수 있었음.
- 강사의뢰시 분량 등의 정확한 안내 필요함.
- 내부강사들에게 마감 일정 알림이 늦어져 혼선이 있었음. 내부 강사에게도 외부강사와 같은 강의 의뢰서를 발송할 필요 있음.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수강생들끼리 교육 소감을 이야기하거나 기획단에게 바로 질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3) 온라인 교육 진행 과정

- 온라인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를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교육 모니터링 실무를 2명으로 한 것 적절했음. 기획단이 수시로 소통하며 갑작스런 문제를 잘 해결하였음. 모니터링 시 한 명이 교육 진행, 한 명이 수강생 출석체크를 담당해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
- 온라인 공간에서 수료를 위한 출석 체크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힘들었음. 온라인 교육이라 교육 기간 중 개인 일정을 병행하는 사람 있었음. 여러 상황의 변수가 많아 오프라인과 달리 1시간 단위로 출석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출석체크를 어떻게 해야할지 기획단에서 상시 논의함. 이 과정에서 교육 집중 독려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기도 함.
- 카메라를 상시 켜두고 10분 이상 카메라 OFF 또는 자리를 비우면 결석으로 체크한다는 것을 교육 OT 때 온라인 교육 약속으로 안내함.
- 사람마다 규칙에 대한 이해도와 순응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강생과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음.
- 상담소에서도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다고 사전 안내했으나 기기나 인터넷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강사가 온라인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아쉬움이 있었음.

(4) 교육 커리큘럼

- 전체적인 교육 구성 좋았음. 3월부터 연구소와 함께 논의하고 30기 교육 평가를 참고해 교육을 구성하였고 평가도 좋았음.
- 이번에 새로 구성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공폐단단 피해생존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토크쇼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수강생 평이 매우 좋았음. 그 전에 <잔인한 나의, 흙> 영화를 온라인 링크로 개별생명해 친족성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음.
- 법원방문 참관하는 날이 폭염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참관객을 꺼리는 일부 지방법원이 있어 걱정했으나 참여수업이라 수강생 평이 좋았음.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수강생들이 법원 참관 날에 만나서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이 많았음.
- 수강생마다 감수성과 지식이 달라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5) 기타

- 적극적인합의 릴레이 토크쇼 참여시 3시간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소 행사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고 적극적 합의에 대한 이해를 넓힘. 수강생은 출석 관리에 적절히 활용함.
- 교육이 끝나고 교육 후기를 자원 받았는데 세 분이 후기를 써주셔서 이메일 소식지 <된다 상담소>에 두 개

계재함.

- 상담원 교육이 끝난 후,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동기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일부 수강생들이 상담소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음.

5-2 의료기관 네트워킹

• 배경/필요성:

- 피해생존자들이 방문하는 기관과의 회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도모
- 신규 피해생존자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기 전부터 방문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우 성폭력피해 및 기관 이용자 등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진료 및 상담의 질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활동이 요구됨
-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함. 이처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 가능한 새로운 기관 탐색 활동이 필요함

• 목표: 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의료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비대면 소통

: 사례 진행 상황에 따라 유선을 이용한 소통

- 신규 기관 탐색

: 기존 의뢰 기관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여성폭력방지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

- 대면 소통

: 1년 중 약 3회(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기 의뢰 기관 - 점검회의를 통한 개선 사안 등의 논의

: 신규 의뢰 기관 - 기관 안내를 통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 높임

• 진행내용 :

- 3/25 정신분석센터 판도 미팅

- 장소: 정신분석센터 판도

- 참여자: 정신분석센터판도 2인(홍성희 대표, 이주하 매니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3인(김이, 유량, 경진)

• 평가 :

- 기관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개별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상담사례에 따른 고민 지점을 공유하며 역량강화.

- 연초 사업계획 시 식대비를 예산에서 누락하여 활동가 사비로 식대비를 지출함. 내년 사업계획 시 출장 시 소요 될 비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한 의료기관에 연계가 쏠리는 경향을 보임. 하반기에 네트워킹 활동으로 해당 기관 방문을 위해 2~3차례 직원과 통화를 하여 제안을 하였으나, 기관장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추후엔 제안서 형식의 문서를 직접 기관장에게 발송하는 방식 등 고려할 필요 있음. 의료기관에서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가 낮다면 슈퍼비전, 강의 방식으로 의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1 성문화운동팀 활동 보고

팀별 실천방안	
<p>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비전 선언,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작업을 비롯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p>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함.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에 함께함.
<p>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합의’ 개념을 정립·확산함. - 비동의 강간죄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활동을 함.
팀 활동 목표	
<p>목표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목표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 목표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 목표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 아직은 낯선 개념인 ‘적극적 합의’를 확산하기 위해 여러 사업 속에서 ‘적극적 합의’ 관련 내용을 녹여내고 계속 알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적극적 합의’ 관련 성문화운동팀 활동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연대 활동을 결합하여 법과 문화의 인식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작년부터 온라인 기반 회의, 모임, 행사 등을 활성화함. 작년에 비해 올해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캠페인에 도전, 실시간 중계 장비 및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 활동가가 직접 유튜브 중계를 하는 등 기획력, 기술력 등 역량이 강화됨. - 기존 2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바뀌었으나, 회원홍보 관련 업무가 담당자와 함께 성문화운동팀 사업계획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체 성문화운동팀 사업 규모도 증가함. 이로 인해 역할 분담에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각 팀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조임. 그럼에도 각 팀원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상황과 정기 회의를 통해 상호 피드백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팀 문화 덕분에 3인 체제에 맞는 역할 분담과 협업이 잘 이루어졌음. - 각종 TF 활동과 사무국 사업에 함께하고, 예년보다 예술가, 자원활동가, 자문위원 등과 더 활 	

발하게 교류하였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는 변화된 사회 조건에 대응하여 연대활동 신설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업함. 활동가들의 연차와 경험이 쌓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음.

- 네 가지의 팀 활동 목표가 활동 전반에 걸쳐 충실하게 수행되었음. 성문화운동팀 활동의 결과물로 매년 양질의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알리기 위한 후속적 홍보 활동이 부진하여 추후 보완이 필요함.

목표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1-1.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극적 합의’

• 배경/필요성:

- 전 사회적인 성폭력 말하기 흐름 속에서 성폭력이 협소하게 인정되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새로운 판단 기준 ‘적극적 합의’를 통해 바꿀 필요가 있음. 공론화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은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활용하여 명백한 폭행·협박 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음. 실제 성폭력 사안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속임수나 신뢰 등 피해자와의 관계, 저항할 수 없는 맥락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실정임.
- 다가올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을 통해 사회적 견인할 필요가 있음.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19대 국회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5개 정당에서 10개의 형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서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두 개의 강간죄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음. 국제적 수준에서도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임.
-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언어가 반영된 ‘적극적 합의’ 개념이 필요함. 상담소는 그동안 2017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발간, 2018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및 워크북 발간, 2019년 <의심에서 지지로> 사업과 <적극적 합의>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적 합의’ 담론화 작업을 진행해왔음. 2021년에는 ‘적극적 합의’ 담론의 현 흐름을 확인하고 기본 개념을 정립·확산하고자 함.

- 목표: 성폭력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자 미투 운동 이후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적극적 합의’ 개념을 심화 및 확장하고 대중화함.

• 방법 및 계획:

1. 성교육, 성폭력 지원 현장에서 활용될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워크북 제작
 -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제작하며, 기획부터 활용의 전 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합의’ 개념 및 담론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자료 및 대중 인식 조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현장 가이드라인/워크북 제작
2. ‘적극적 합의’ 담론 심화 및 확산하기 위한 연속집담회
 - ‘적극적 합의’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함. 개인들의 성적 관계 및 실천을 보다 입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함.

- 연속집담회 진행, 집담회 심층 취재 및 언론 기고, 사후 자료집 배포
- 3.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합의' 대중 콘텐츠 제작
- 자칫 이론적일 수 있는 '적극적 합의'라는 개념을 대중이 더 가볍고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성평등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홍보함.
- 대중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개념의 시청각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진행
 - 담당자: 달별, 신아, 앞
 - 진행내용: 여성가족부 2021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구분	진행내용						
해외 자료 아카이브	<p>'consent(동의, 합의)' 관련 해외 캠페인 자료 조사 및 아카이브(3~5월)</p> <p>방법:</p> <p>① 자원활동가 김하윤의 도움을 받아 미국캐나다영국 등 영미권 'consent' 관련 해외 캠페인을 조사 및 아카이브함.</p> <p>② 해외 캠페인 사례 발표 및 활용 논의</p> <p>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6시-18시</p> <p>발표: 김하윤(자원활동가)</p> <p>참석: 김신아, 박아름, 한소망(성문화운동팀), 김하윤(자원활동가)</p> <p>- 이후 다양한 해외 캠페인 사례를 '적극적 합의' 관련 기획회의, 사전모임, 강의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함.</p>						
대중 인식 조사	<p>제목: '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p> <p>내용: 설문조사를 통해 '성적 동의'를 둘러싼 개인들의 경험 및 인식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의 성문화를 분석함.</p> <p>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p> <p>진행과정</p> <table border="1" data-bbox="299 1112 1200 1750"> <thead> <tr> <th data-bbox="299 1112 436 1151">내용</th> <th data-bbox="436 1112 1200 1151">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9 1151 436 1325">설문조사 내용 구성</td> <td data-bbox="436 1151 1200 1325"> <p>① 4월 설문지 내용 구성 및 조사 업체 검토</p> <p>② 5/6~5/15 설문지 구성을 위한 서면 자문 3회 진행</p> <p>- 김백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리산(상담소 이사), 파이(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p> <p>③ 온라인/모바일 기반 설문조사 업체 '오픈서베이' 통하여 설문틀 제작.</p> </td> </tr> <tr> <td data-bbox="299 1325 436 1750">온라인 설문조사 진행</td> <td data-bbox="436 1325 1200 1750"> <p>① 6/16~6/17 업체 보유 패널 대상 600명(남녀 각 300명, 10~40대 각 150명 균등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p> <p>② 6/8~8/2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상담소 자체 홍보 채널(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대중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반성폭력/여성인권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 총 428명 참여(10대 30명, 20대 147명, 30대 148명, 40대 83명, 50대 17명, 60대 이상 2명)</p> <div data-bbox="450 1634 1177 175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설문지 구성</p> <p>- 총 29문항</p> <p>-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을 묻는 4점 척도 문항(5개), 상담소가 제시</p> </div> </td> </tr> </tbody> </table>	내용	세부 내용	설문조사 내용 구성	<p>① 4월 설문지 내용 구성 및 조사 업체 검토</p> <p>② 5/6~5/15 설문지 구성을 위한 서면 자문 3회 진행</p> <p>- 김백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리산(상담소 이사), 파이(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p> <p>③ 온라인/모바일 기반 설문조사 업체 '오픈서베이' 통하여 설문틀 제작.</p>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p>① 6/16~6/17 업체 보유 패널 대상 600명(남녀 각 300명, 10~40대 각 150명 균등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p> <p>② 6/8~8/2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상담소 자체 홍보 채널(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대중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반성폭력/여성인권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 총 428명 참여(10대 30명, 20대 147명, 30대 148명, 40대 83명, 50대 17명, 60대 이상 2명)</p> <div data-bbox="450 1634 1177 175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설문지 구성</p> <p>- 총 29문항</p> <p>-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을 묻는 4점 척도 문항(5개), 상담소가 제시</p> </div>
내용	세부 내용						
설문조사 내용 구성	<p>① 4월 설문지 내용 구성 및 조사 업체 검토</p> <p>② 5/6~5/15 설문지 구성을 위한 서면 자문 3회 진행</p> <p>- 김백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리산(상담소 이사), 파이(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p> <p>③ 온라인/모바일 기반 설문조사 업체 '오픈서베이' 통하여 설문틀 제작.</p>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p>① 6/16~6/17 업체 보유 패널 대상 600명(남녀 각 300명, 10~40대 각 150명 균등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p> <p>② 6/8~8/2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상담소 자체 홍보 채널(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대중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반성폭력/여성인권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 총 428명 참여(10대 30명, 20대 147명, 30대 148명, 40대 83명, 50대 17명, 60대 이상 2명)</p> <div data-bbox="450 1634 1177 175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설문지 구성</p> <p>- 총 29문항</p> <p>-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을 묻는 4점 척도 문항(5개), 상담소가 제시</p> </div>						

	<p>한 적극적 합의 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4점 척도 문항(5개), '성적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 및 의견을 묻는 4점 척도 문항(6개), 동의 여부 및 상대방의 의사 확인 방식,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 수락한 경험 여부 및 이유, 성적 행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동의 과정의 형태, 인적정보(성별 및 성별경체성, 연령, 성적지향, 장애여부), 심층인터뷰 참가자 모집 안내</p>
심층인터뷰	<p>① 상담소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인터뷰 참가자 모집 - 심층인터뷰 참여자 연령: 10대(1) 20대(3) 30대(4) 40대(0) 50대(1) 성별: 시스젠더여성(5)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2) 젠더퀴어(1) 고민중(1) 성적지향: 이성애(4) 양성애(1) 동성애(1) 범성애(1) 무성애(1) 바이로맨틱(1)</p> <p>② 9명 대상 심층 인터뷰 진행 - 방법: 온라인(ZOOM) 비대면 - 시간: 1시간 내외 - 7/11(진행: 신아, 앵) 7/13(진행: 신아, 앵) 7/15(진행: 신아, 달별) 7/23 1차(진행: 신아, 달별) 2차(진행: 신아, 앵) 7/24 1차(진행: 신아, 달별) 2차(진행: 신아) 7/27(진행: 신아) 7/28(진행: 신아, 달별)</p> <p>질문지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관계에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고 계시나요? 위의 관계에서 성적 동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매과정마다? 성적행위 장소 도구 등에 대해서 다 이야기 나누는지?)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일상에서도 자주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상대방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밖의 관계에서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과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성적 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적 동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경험 내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경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3 227 436 548"></td> <td data-bbox="440 227 1211 548"> <p>10. 내가/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p> <p>11.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p> <p>12. 성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하시나요? (과거/현재)</p> <p>13. 성적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p> <p>14. 이상적인 성적 동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p> <p>15. 오늘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p> </td> </tr> </table>		<p>10. 내가/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p> <p>11.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p> <p>12. 성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하시나요? (과거/현재)</p> <p>13. 성적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p> <p>14. 이상적인 성적 동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p> <p>15. 오늘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p>					
	<p>10. 내가/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p> <p>11.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p> <p>12. 성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하시나요? (과거/현재)</p> <p>13. 성적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p> <p>14. 이상적인 성적 동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p> <p>15. 오늘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p>							
가이드라인 제작	<p>제목: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내용: 가이드라인 1종(A5 기준 약 120쪽) 및 보드게임 1종(A3) 제작(2022년 1월 발간 예정) - 목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3 722 1211 1373"> <p>들어가며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1. 알아보기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1) 조사 배경 2) 조사 및 분석 방법 3) 분석 -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4) 결론: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2. 준비하기 적극적 합의 보드게임을 위한 워크숍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1. 나의 성적 동의 유형 테스트 해설 부록2.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부록3.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설문지</p> </td> </tr> </table> <p>진행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93 1450 485 1495">내용</th> <th data-bbox="489 1450 1211 1495">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3 1501 485 1634">대중인식조사 자료 정리</td> <td data-bbox="489 1501 1211 1634">7/20~8/11 심층인터뷰 녹취록 작성 (자원활동가 민지, 은혜) 8/5~8/17 심층인터뷰 녹취록 연구참여자 검토 (참가자1인은 10/14 검토 완료)</td> </tr> <tr> <td data-bbox="293 1640 485 1763">원고 작성 및 1차 검토</td> <td data-bbox="489 1640 1211 1763">10/12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초안 (작성: 김신아) 10/12~10/15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성문화운동팀 및 소장단 검토</td> </tr> </tbody> </table>	<p>들어가며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1. 알아보기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1) 조사 배경 2) 조사 및 분석 방법 3) 분석 -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4) 결론: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2. 준비하기 적극적 합의 보드게임을 위한 워크숍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1. 나의 성적 동의 유형 테스트 해설 부록2.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부록3.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설문지</p>	내용	세부 내용	대중인식조사 자료 정리	7/20~8/11 심층인터뷰 녹취록 작성 (자원활동가 민지, 은혜) 8/5~8/17 심층인터뷰 녹취록 연구참여자 검토 (참가자1인은 10/14 검토 완료)	원고 작성 및 1차 검토	10/12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초안 (작성: 김신아) 10/12~10/15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성문화운동팀 및 소장단 검토
<p>들어가며 성적 동의 유형테스트 1. 알아보기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1) 조사 배경 2) 조사 및 분석 방법 3) 분석 -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 -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4) 결론: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2. 준비하기 적극적 합의 보드게임을 위한 워크숍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1. 나의 성적 동의 유형 테스트 해설 부록2.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부록3.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설문지</p>								
내용	세부 내용							
대중인식조사 자료 정리	7/20~8/11 심층인터뷰 녹취록 작성 (자원활동가 민지, 은혜) 8/5~8/17 심층인터뷰 녹취록 연구참여자 검토 (참가자1인은 10/14 검토 완료)							
원고 작성 및 1차 검토	10/12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초안 (작성: 김신아) 10/12~10/15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성문화운동팀 및 소장단 검토							

		10/13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보드게임 초안 (작성: 앎)								
	자문 진행	<p>‘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보드게임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대면 자문(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19시-21시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 참가자: 김신아, 박아름, 한소망(성문화운동팀), 보통(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팀동), 김소희(유니브페미), 사슴(인권교육센터 ‘들’ 10대 남성청소년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교육팀), 여름(장애여성공감) <p>‘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 분석 원고를 검토하는 서면 자문(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11/4~11/15 - 자문: 배은경(서울대 여성학/사회학 교수), 김백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리산(상담소 이사),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원고 2차 검토	<p>11/18 ‘성적 동의에 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자문 의견 및 ‘적극적 합의’ 개념에 대한 상근자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소장단(오매, 란), 성문화운동팀(김신아, 앎, 닷별) <p>11/29~12/6 가이드라인 전체 검토</p>								
	디자인 및 배포	<p>11/5 무난한(우미숙) 디자이너 섭외</p> <p>11/16 무난한(우미숙) 디자이너 계약</p> <p>2022년 1월 발간 예정</p>								
릴레이 토 크쇼	<p>제목: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p> <p>목적: ‘적극적 합의’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성적 관계 및 실천을 보다 입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p> <p>1) 1부 관계편</p> <p>일시: 2021년 6월 3일 목요일 19:30~22:00</p> <p>장소: 온라인(패널: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p> <p>방법: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p> <p>내용:</p> <table border="1"> <tr> <td>사회 : 적극적 합의 개념과 연속집담회 취지 소개</td> <td>앎(한국성폭력상담소)</td> </tr> <tr> <td>발표1. 잃어버린 합의를 찾아서 - 합의의 진짜 의미를 중심으로</td> <td>한채윤(『여자들의 섹스북』 저자)</td> </tr> <tr> <td>발표2.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 친밀한 관계에서의 합의를 중심으로</td> <td>이성경(엄마페미니즘 ‘부너마’,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기획 및 공저)</td> </tr> <tr> <td>발표3. 손목잡기, 벽치기, 기슭키스, ‘심쿵’ 아닌 ‘폭력’ - 미디어에 묘사되는 합의를 중심으로</td> <td>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td> </tr> </table>		사회 : 적극적 합의 개념과 연속집담회 취지 소개	앎(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1. 잃어버린 합의를 찾아서 - 합의의 진짜 의미를 중심으로	한채윤(『여자들의 섹스북』 저자)	발표2.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 친밀한 관계에서의 합의를 중심으로	이성경(엄마페미니즘 ‘부너마’,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기획 및 공저)	발표3. 손목잡기, 벽치기, 기슭키스, ‘심쿵’ 아닌 ‘폭력’ - 미디어에 묘사되는 합의를 중심으로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사회 : 적극적 합의 개념과 연속집담회 취지 소개	앎(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1. 잃어버린 합의를 찾아서 - 합의의 진짜 의미를 중심으로	한채윤(『여자들의 섹스북』 저자)									
발표2.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 친밀한 관계에서의 합의를 중심으로	이성경(엄마페미니즘 ‘부너마’,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기획 및 공저)									
발표3. 손목잡기, 벽치기, 기슭키스, ‘심쿵’ 아닌 ‘폭력’ - 미디어에 묘사되는 합의를 중심으로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으로	
Q&A 토크	다같이

참여인원:

- 조회수 755회(순 시청자수 525명, 최대 동시접속자 162명) *당일 기준(행사 후 비공개 전환)
- 사전신청자 총 229명
- 사회자 및 발표자 3명(상근활동가 1명 포함)
- 문자통역사 1명
- 현장 스태프 7명, 외부 스태프 1명(상근활동가 8명)
- 언론 취재 1명

2) 2부 주체편

일시: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19:30~22:00

장소: 온라인(패널:ZOOM)

방법: 유튜브와 ZOOM을 병행한 온라인 생중계

내용:

사회 : 적극적 합의 개념과 연속집담회 취지 소개	얌(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 1. 누가 나만 빼고 합의했지? - 사회적 합의와 섹스	은하선(『이기적 섹스』 저자, 은하선토이즈)
발표2. 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관계와 욕망, 망한 섹스를 말하기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발표3.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누가 정했을까?	열록(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Q&A 토크	다같이

참여인원:

- 유튜브 조회수 434회(순 시청자수 235명, 최대 동시접속자 94명) *당일 기준(행사 후 비공개 전환)
- ZOOM 최대 동시참여자수 69명
- 사전신청자 총 157명
- 사회자 1명 및 발표자 3명
- 문자통역사 2명
- 스태프 2명
- 언론 취재 1명

3) 3부 응용편

일시: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19:30~22:00

장소: 온라인(패널 및 참여자: ZOOM)

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내용:

사회 : 적극적합의 개념과 연속집담회 취지 소개	얌(한국성폭력상담소)
----------------------------	-------------

	발표 1. 파트너와 STI(성매개감염) 말하기	윤정원(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소녀×몸 교과서』 저자)											
	발표 2. 이상성욕자? 선량한 변태들의 목소리	희정(기록노동자)											
	발표 3. 연애 계약서 새로 쓰기 : 독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홍승은(집필노동자,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저자)											
	Q&A 토크	다같이											
<p> 참여인원: - ZOOM 최대 동시참여자수 94명 - 사전신청자 총 154명 - 사회자 1명 및 발표자 3명 - 문자통역사 1명 - 스태프 2명 - 언론 취재 1명 </p> <p> 4) 자료집 발간 제목: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내용: 3부에 걸친 릴레이 토크쇼 속기록 전문을 수정·보완한 자료집(B5 기준 약 157쪽) 1층 제작(12월 발간 예정) 차례: </p> <div data-bbox="289 977 1181 115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들어가며 1부 관계편 2부 주체편 3부 응용편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릴레이 토크쇼 스케치 기사로 만나기 </p> </div> <p> 방법: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자료집 PDF 온라인 배포(12월 발간 예정) 디자인: 오늘의풍경(신인아) </p>													
<p>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연속 기사 </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9 1232 385 1261">날짜</th> <th data-bbox="385 1232 481 1261">언론사</th> <th data-bbox="481 1232 797 1261">제목</th> <th data-bbox="797 1232 1215 1261">링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9 1261 385 1503">5/27</td> <td data-bbox="385 1261 481 1503">일다</td> <td data-bbox="481 1261 797 1503">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① 릴레이 토크쇼를 시작하며 </td> <td data-bbox="797 1261 1215 1503"> 일다 https://www.ildaro.com/9050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794 </td> </tr> <tr> <td data-bbox="289 1503 385 1767">6/17</td> <td data-bbox="385 1503 481 1767">일다</td> <td data-bbox="481 1503 797 1767"> 성관계에서 '합의'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②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 편 </td> <td data-bbox="797 1503 1215 1767"> 일다 https://www.ildaro.com/9069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813 </td> </tr> </tbody> </table>	날짜	언론사	제목	링크	5/27	일다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① 릴레이 토크쇼를 시작하며	일다 https://www.ildaro.com/9050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794	6/17	일다	성관계에서 '합의'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②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 편	일다 https://www.ildaro.com/9069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813
날짜	언론사	제목	링크										
5/27	일다	성적 행위에서 YES or NO를 넘어 '적극적 합의'로!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① 릴레이 토크쇼를 시작하며	일다 https://www.ildaro.com/9050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794										
6/17	일다	성관계에서 '합의'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②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 편	일다 https://www.ildaro.com/9069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813										

	8/1	일다	나의 섹스에 사회적 선입견과 통념이 관여하고 있다!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③ 합의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일다 https://www.ildaro.com/9109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853
	10/6	일다	성관계에서 '좋았어?' 질문 대신 묻고 말해야 할 것 :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④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 탐색하기	일다 https://www.ildaro.com/9166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7&aid=0000006910
- 2022년 1월 가이드라인 발간에 맞춰 마무리 기사 연재 예정				
대중콘텐츠 제작	사업 1-4. 예술인 협업을 통한 대중콘텐츠 제작 (신규) 참고			

• 평가:

구분	평가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로서 '적극적 합의' 개념을 알리고 '적극적 합의'에 관한 언어와 담론을 만들어 감. - 올해는 '적극적 합의' 개념을 알리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대중 인식 및 실태를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각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적극적 합의' 개념을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로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적극적 합의' 개념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이 많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음. '적극적 합의'가 일상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합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익년에는 올해 생산한 언어와 자료를 토대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 합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대중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합의' 사업을 시작해 가는 과정에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조사를 통해 성적 동의에 대해서 대중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추후 적극적 합의를 알러가는 데에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더불어 대중들의 성적 동의에 대한 응답과 인터뷰 속에서 '적극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기도 하였음. - '적극적 합의' 및 '성적 동의' 용어 설정, 모집단 및 표본집단 선정 등 초기 설문조사 설계에서 전문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또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동의' 인식과 경험과 관련하여 성별, 성별 정체성, 연령,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의 사회구조적 차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주로 성별, 연령 외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이(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이주 배경, 학력, 지역 등)를 고려한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임. 향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가이드라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합의 개념 소개, 대중인식조사 결과, 다양한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형식의 워크숍, 유형 테스트 등을 통해 '적극적 합의'가 무엇인지 여러 방식으로 제시함. 그러나 조사 결과 분석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보고서의 성격이 강해짐. -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 합의' 및 성적 동의 개념에 대해서 상담소 내부에서도 정의 및 개념 관계도가 정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자문위원의 의견 및 활동가 토론을 통해 모순된 지점을 해결하고 입장을 정돈하였음. 이를 통해 개념적으로 강간죄 개정 운동과 적극적 합의 담론 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긴밀한 연관성을 마련하였음. - 토론, 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 규모의 조사 및 분석을 양적 조사 비전공자인 1인이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음. 활동가가 진행함으로써 상담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만 추후 양적 조사 진행시 조사업체 의뢰, 전문연구자 결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릴레이 토 크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패널로 초대해 '적극적 합의' 개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관점과 언어를 함께 찾아감. 적극적 합의는 단지 성적 행위를 하는 순간에 한쪽이 제안하면 한쪽이 수락 또는 거절하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성적 주체들이 관계, 욕망, 안전 등 다양한 층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호 합의하는 과정, 더 나아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조건, 문화, 구조를 만드는 지향이자 이상임을 다양한 발표자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림. - 1부 관계편은 적극적 합의를 소개하고 적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관계 중 특히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여 일상에서의 합의와 성적 상황에서의 합의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평등한 관계 실현이 적극적 합의의 필수 조건임을 밝힘. 2부 주체편은 다양한 성적 주체들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이 적극적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하며, 적극적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을 확인함. 제3부 응용편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적극적 합의의 범주를 넓힘. - 각 행사 전 패널과의 사전모임을 진행해 '적극적 합의' 개념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각 발표 방향을 논의함. 이러한 과정이 있어 패널들도 '적극적 합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로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고, 각 발표에 상담소가 담고 싶은 '적극적 합의' 개념이 잘 녹아들었음. -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공간 제약이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고, 지역 또는 해외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온라인 행사 특성상 참여자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계 담당자 또는 개별 참여자의 인터넷 환경, 사용 기기 등에 따라 중계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계속해서 방역 지침이 변동되어 그때 그때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안정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유튜브 송출 또는 화상회의(ZOOM)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웠음.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연속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와 협업으로 연속 기사를 연재함. 여는 글은 담당 활동가가 작성하여 적극적 합의 개념과 기존 활동을 알렸고, 각 토크쇼 스케치 기사는 일다 박주연 기사가 행사를 취재해 핵심적인 내용을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연재함. - 일다 사이트뿐 아니라 네이버뉴스에도 동시 연재되어 기사의 노출도를 높임. 똑같은 내용의 기사임에도 각 사이트에 달린 댓글이 극명하게 달라 대중 사이에 존재하

	는 인식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네이버뉴스에는 각 패널을 향한 악성 댓글도 많았는데, 행사 주최단체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대중콘텐츠 제작	사업 1-4. 예술인 협업을 통한 대중콘텐츠 제작 (신규) 참고

1-2.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 배경/필요성: 상담소는 그동안 2006-2007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2015-2017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사업’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과 판결을 분석·비판해왔음. 2019년에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발족, 성폭력 관련 법의 기본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개정하기 위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음.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안, 류호정 의원안 등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대중적 여론화가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활동가, 회원, 대중 등과 공유함.
-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국회 및 대중에 구체적으로 알림.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사무국과 협업)

• 담당자: 닷별, 앞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필요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례, 언론보도, 공포·시행법령, SNS 등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단호한시선, 이슈대응 집담회 등 활동으로 연계 - 전국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후보 상시 기록·공유 - 성폭력 관련 법 개정에 대응 	
	구분	내용
상근 활동가 대상 단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7109 판결(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 3/4 대법원 2021.2.25. 선고 2016도4404 판결(장애인 성폭력 처벌조항에서 장애의 판단 기준) - 3/31 대법원 2020도18285 판결(텔레그램성착취사건 주동자 외 피싱사이트 운영한 공범 처벌 판례) - 6/23 대전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20노295 판결(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반복된 사건) - 6/23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4042 판결(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도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 인정) - 6/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7.13 시행되는 개정법 주요 내용 - 9/1 군사법원법 8.31 통과된 개정법 주요 내용 - 9/15 청소년성보호법 9.24 시행되는 개정법 주요 내용(이른

구분	진행내용	
		바 '온라인그루밍법' - 10/27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직장내성희롱 사용자책임 관련 판례) - 12/1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도7342 판결,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판결, 대법원 2021.11.25. 2019도 6730 판결(경찰이 특정 불법촬영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된 기기에서 다른 불법촬영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들)
	이슈 대응 활동으로 연결	- 2/15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준강간 블랙아웃 관련 판례) →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공동성명 발표 - 3/24 스토킹방지법 본회의 가결 → 10/21 단호한 시선 발표
'강간죄' 개정 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평가 1-1 참조	
	구분	내용
	회의	사무국 회의(2/1, 4/6, 4/26) 전체회의(2/4, 2/24, 3/16, 4/8, 5/14, 5/31, 6/10, 7/1, 7/23, 8/31, 9/24) 기획팀 회의(2/19, 2/26, 3/7, 5/18) 1/6 강유가람 감독 영상 인터뷰(얇) 2/22 한국여성상담센터 서면 인터뷰(얇) 5/3 국회의원 류호정 면담 5/20 국회의원 소병철 면담, 국회의원 권인숙 면담
	성명/논평/카드뉴스	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29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강의/발제/토론/원고/인터뷰	1/6 강유가람 감독 인터뷰(얇) 2/3 서울대 로스쿨 실무수습 강의 <비동의강간죄와 적극적 합의> (얇) 2/22 한국여성상담센터 서면 인터뷰(얇) 6/15, 6/1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 강의 <형법상 강간죄 왜 개정되어야 할까 : 강간죄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10/25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얇)
	아카이브	2/2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아카이브 블로그 개설 및 기존 자료 아카이브
3/8 세계여성 의날 맞이 강간죄 개정을	제목: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일시: 2021년 3월 8일(월) ~ 현재 주소: https://wonderful-law.korea.wtf/	

구분	진행내용	
위한 게임 오픈		<p>방법: 1) 플레이어가 직접 판사가 되어 강간죄 사건에 대한 폭행협박 여부, 동의 여부, 유/무죄 등을 판단하고 실제 판결 결과와 비교(총 4개 사건)</p> <p>2)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플레이어가 “강간죄,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에 괜찮아요/개정해야해요 두 가지 선택지 중 응답하게 함</p> <p>3) 응답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음 (서명 페이지 :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p>
교육의제 활성화 위한 내부 워크숍		<p>일시: 2021년 4월 16일(금) 13시 30분~18시</p> <p>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p>내용: 비동의 강간죄 개정 강의를 위한 워크숍안 공유, 비동의 강간죄 개정 관련 쟁점 검토, 자유 토론</p> <p>참여 인원 :</p>
2021 서울퀴어 문화 축제 온라인 부스		<p>제목: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p> <p>일시: 2021년 6월 26일(토)~7월 18일(일)</p> <p>장소: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https://www.sqcf.org/sqp2021_booth50)</p> <p>내용: ① 퀴어운동 관점으로 바라보는 강간죄 개정 OX퀴즈, ②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홍보, ③ 강간죄 개정 서명운동 홍보</p>
연속 특강 및 토크 콘서트		<p>1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19시 30분~21시 30분 장소: 온라인(ZOOM)</p> <p>2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강사: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일시: 2021년 8월 20일(화) 19시 30분~21시 30분 장소: 온라인(ZOOM)</p> <p>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19시 30분~22시 장소: 온라인(유튜브 https://youtu.be/MuOkHAR74gk) 진행: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출연: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류호정 의원(정의당),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참여 인원 조회수 765회(최대 동시 시청자수 142명) 사회자 및 패널 5명 온라인 송출 업체 1명 문자통역사 2명 현장 스태프 5명</p>
UN 강간예		~8/31 자원활동가 복서회 1차 번역

구분	진행내용	
	관한 특별 보고서 및 입법 틀 번역	9/24 전체회의 검토 및 토론 9/24 ~앞 2차 번역 진행 중

• 평가:

-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필요 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를 모니터링하여 상근활동가들과 상시적으로 공유함.
- 상반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됨.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의 등에서 소개하여 해당 판례의 취지를 널리 알림.
- 하반기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를 짚는 단호한 시선을 발표함. 여성주의상담팀에서 초안을 쓰고 성문화운동팀, 소장단과의 회람 및 토론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는 등 협업이 잘 이루어짐.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 자세한 평가는 사무국 평가 1-1 참조
- 사무국 오매와 성문화운동팀 앎, 달별 총 3인이 협업하여 전체회의 운영, 국회대응활동, 교육의제활동, 기획팀 활동, 성명/논평/기고 작성, 아카이빙 등 연대체 활동 전반에 주도적으로 함께하였음. 그러나 각 담당자의 여타 업무 과중으로 인해 3인 협업 체제가 효율적이지는 못하였음.
- 상반기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기존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게임을 제작·공유해 대중이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을 체감하고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함. 하반기에는 연속 강좌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 대중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강간죄 개정 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함.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강간죄 개정 운동에 필요한 법적·역사적 지식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특히 소속단위 활동가 중심으로 교육의제 활동을 추진함. 그 결과 하반기에는 외부 단위에서도 자발적으로 ‘비동의 강간죄’ 또는 ‘성적 동의’를 주제로 강의를 요청하고 대중 행사에 수백 명이 참여하는 등, 교육의제 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함.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대응

- 배경/필요성: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관계가 사회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함.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나 성폭력 사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가 성평등하게 변화해야 함.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는 성폭력만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임. 이를 위해 반성폭력 현장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목표: 시시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알려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 형성.
- 방법 및 계획:
 1. 단호한 시선: 월 1회 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단독 성명/논평, 카드뉴스 등으로 법제도, 담론, 성문화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함.
 2. 연대성명 및 논평: 여/성/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성명과 논평 등에 연대하고, 이를 확산함.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카이빙하고 알림.

3. 온/오프라인 이슈대응활동: 적극적 대응이나 토론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집담회, 온라인 액션,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추진함.

- 담당자: 닷별, 신아, 앞
- 진행내용:

월	구분	제목	작성/제작	참여	2~6월: 6/29 기준, 10월: 12/09 기준
2월	단호한시선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2/25)	신아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1,682 참여 104 공유 9 공감등 64
				트위터	리트윗 33 마음 20
				홈페이지	조회수 206
	추모논평	고인의 용기를 기억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가겠습니다(3/4)	신아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2,074 참여 164 공유 9 공감등 104
				트위터	리트윗 30 마음 28
				홈페이지	조회수 213
3월	단독성명	행진을 멈추지 말자 : 3.8세계여성 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를 제안하며(3/8)	신아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710 참여 36 공유 2 공감등 13
				트위터	리트윗 18 마음 7
				홈페이지	조회수 267
4월	영상제작	성평등 정책 실증! 보궐선거, 어떻게 생각해?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께 말하기(4/1)	앞, 자원활동가 모임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945 참여 42 공유 7 공감등 26
				트위터	리트윗 4 마음 2
				유튜브	조회수 152 좋아요 12
	영상 다시 보기	[다시보는 10년 전 추억의 영상]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1년부터 걸어온 길((4/13)	개소 20주년 기념 영상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1362 참여 58 공유 9 공감등 48
				트위터	리트윗 9 마음 11
				유튜브	조회수 105 좋아요 8
5월	단호한시선	성평등을 위한 '성희롱 문제제기'인가, 성평등을 막는 '백래시'인가?: 연예인 박나래씨 정보통신망법상	신아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9,701 참여 1,015 공유 91

		불법정보 유통 고발 사태에 부처 (5/4)		트위터	공감등 166 리트윗 281 마음 115
				홈페이지	조회수 1198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4,514 참여 150 공유 21 공감등 129
영상 다시 보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영상 [시간을 거스르다:법의 시간 너머](5/7)	2020 예 인 지 원 사 업 협 업 예 술 인	트위터	리트윗 32 마음 17	
			유튜브	조회수 210 좋아요 16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2,344 참여 280 공유 12 공감등 170	
단 호 한 시 선	앗! '일부'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양심, 타이어보다 싸다!(5/18)	달 별	트위터	리트윗 18 마음 2	
			홈페이지	조회수 186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7,389 참여 336 공유 54 공감등 283	
6월	추모논평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6/1)	앞	트위터	리트윗 342 마음 134
				홈페이지	조회수 947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2055 참여 190 공유 21 공감등 26
10월	영상 다시 보기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10/19)	열 림 터 20 주 년 기 념 영 상	유튜브	조회수 22 좋아요 2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2055 참여 190 공유 21 공감등 26
	단 호 한 시 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10/20)	경 진	트위터	리트윗 18 마음 9
				홈페이지	조회수 191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1,141 참여 78 공유 9 공감등 34
	성명	[성명]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조항 신설”? ‘안티 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 당신에게 줄 표는 없다.	오 매	트위터	리트윗 8 마음 5
				홈페이지	조회수 250
				페이스북 (참여:좋아요+공유+클릭)	도달 1,141 참여 78 공유 9 공감등 34

• 평가:

- 상반기에는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성문화운동팀 또는 상근할

- 동가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제와 필요한 메시지를 확인, 상담소의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였음.
- 보궐선거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독하거나 논평 작성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과 의견을 나누는 등 상담소 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단호한시선, 추모논평, 다른 사업과 결부한 성명 등 논평 형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줄글,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였음. 보궐선거 기간에 만들었던 영상 콘텐츠는 올해 새롭게 시도한 이슈대응 형식이었음. 상담소 생일에는 20주년 기념 영상을, 어버이날에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특별한 시기에 맞춰 기존 영상 콘텐츠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하반기 30주년 기념 사업과 적극적 합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이 이슈를 확인하고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고 논점을 구성하고 작성하여 발행하는 등 팀 자체적으로 논평 생산을 이어가지 못함.

1-4. 예술인 협업을 통한 대중콘텐츠 제작 (신규)

- 배경/필요성: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세상을 바꾸고 대안적인 관점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예술인과 협업해왔음. 2003년부터 시작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나 생존자의 이야기를 영화 라는 매체를 통해 확산해왔음.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예술로 기획사업에 단체로서 참여하였고, ‘온라인 가상 공간 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의제를 확산함.
- 올해에는 ‘적극적 합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과정에서 예술인들과 협업하고자 함.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수 있는 ‘적극적 합의’ 개념을 예술인의 관점에서 콘텐츠로 제작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목표: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 합의’ 내용을 알리는 대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확산한다.
- 방법 및 계획:
 - 예술인 복지 재단의 ‘예술로 기획 사업’ 신청
 - 상담소 채널을 통하여 온라인 무료 배포
- 담당자: 신아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예술로 사업 신청 및 선정	3/12 예술로 기획사업 신청 4/5 예술로 기획사업 pt 면접 5/11 예술로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6/14 예술로 기획사업 기관 워크숍		
대중콘텐츠 기획	참여예술인: 다이브, 존박, 노랑, 아오리 5/18 기획회의의 1차 : 적극적 합의 개념 및 사업 소개 및 브레인스토밍 6/8 기획회의의 2차 : 예술인 기획안 브리핑 및 검토 6/8 상담소 내부(성문화운동팀X소장단) 기획회의 6/17 기획회의의 3차 : ‘적극적 합의 메시지 만들기’ 워크숍 상담소 진행 : 포스트잇 붙이기 활동으로 “~일 때 동의할 수 있다” “~는 동의가 아니다” 문장들 도출. 추후 대중콘텐츠 내의 ‘메시지’로 활용		
	‘적극적 합의’의 세 가지 측면	관계	평등한 관계인 경우 불평등한 관계인 경우
		소통	상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신	스스로가 존중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스스로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div> 7/6 기획회의 4차 : 기획 중간 점검 및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 7/13 기획회의 5차 : 영상 구성안 상담소 브리핑 및 논의 7/26 기획회의 6차 : 영상 구성안 예술인 디벨롭안 검토 1차 8/3 기획회의 7차 : 영상 구성안 예술인 디벨롭 검토 2차 8/4 상근자회의에서 촬영장소 협조 및 최종 구성안에 대한 의견 취합 8/10 예술인 회의 참석 및 구성안에 대한 상담소 의견 전달 8/26 적극적합의 영상 구성안(시나리오) 확정																													
대중콘텐츠 제작 및 배포	9/9~11 배우 중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발생하여 촬영 취소 9/11 도마뱀픽처스와 계약 및 제작회의 10/2~4 영상 촬영 10/27~11/2 영상에 대한 피드백 및 예술인 수정 11/9 영상 발행 및 공유 (유튜브,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영상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편</th> <th>썸</th> <th>메시지1</th> <th>메시지2</th> <th>메시지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관계편</td> <td>가정, 맞벌이 부부 사이에 가사노동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음.</td> <td>평 등 했 나요?</td> <td rowspan="2">서로 평등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td> <td rowspan="3">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td> </tr> <tr> <td>직장. 회식 자리에 참여하라고 함.</td> <td>거절할 수 있었나요?</td> </tr> <tr> <td>직장. 부하직원이 상사의 커피를 타야 함</td> <td></td> </tr> <tr> <td rowspan="2">소통편</td> <td>연인관계. 운전자 혼자만 신나있고 조수석에 앉은 연인에게 어디가는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td> <td>알고 있었나요?</td> <td>충분히 알아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td> <td rowspan="3">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입니다</td> </tr> <tr> <td>연인관계. 소파에서 즐기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찍음.</td> <td>의식이 있었나요?</td> <td></td> </tr> <tr> <td rowspan="2">자신편</td> <td>연인관계. 출렁다리에서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자고 조름.</td> <td>존 중 했 나요?</td> <td>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친구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는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함.</td> <td>스스로 선택했나요?</td> <td></td> </tr> </tbody> </table> · 영상 링크 및 조회수 FULL버전 https://youtu.be/HU2AeeRXgb4 (조회수435회, 21.12.09. 검색) #관계편 https://youtu.be/k1vyu-q8Y4 (조회수237회, 21.12.09. 검색) #소통편 https://youtu.be/vpCOKCDr-nc (조회수90회, 21.12.09. 검색) #자신편 https://youtu.be/lBaBijnTvuY (조회수122회, 21.12.09. 검색)	편	썸	메시지1	메시지2	메시지3	관계편	가정, 맞벌이 부부 사이에 가사노동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평 등 했 나요?	서로 평등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직장. 회식 자리에 참여하라고 함.	거절할 수 있었나요?	직장. 부하직원이 상사의 커피를 타야 함		소통편	연인관계. 운전자 혼자만 신나있고 조수석에 앉은 연인에게 어디가는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알고 있었나요?	충분히 알아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연인관계. 소파에서 즐기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찍음.	의식이 있었나요?		자신편	연인관계. 출렁다리에서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자고 조름.	존 중 했 나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는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함.	스스로 선택했나요?	
편	썸	메시지1	메시지2	메시지3																										
관계편	가정, 맞벌이 부부 사이에 가사노동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평 등 했 나요?	서로 평등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직장. 회식 자리에 참여하라고 함.	거절할 수 있었나요?																												
	직장. 부하직원이 상사의 커피를 타야 함																													
소통편	연인관계. 운전자 혼자만 신나있고 조수석에 앉은 연인에게 어디가는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알고 있었나요?	충분히 알아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연인관계. 소파에서 즐기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찍음.	의식이 있었나요?																												
자신편	연인관계. 출렁다리에서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자고 조름.	존 중 했 나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는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함.	스스로 선택했나요?																												
예술로 사업 및 예술인 협업 평가	12/3 예술로 기획사업 평가보고서 제출 12/6 예술인 평가 회의																													

- 결산: 사업 1-1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극적 합의’ 예산에 따름
- 평가:
 - 교육 활동 및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 활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제작됨. 적극적 합의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질문, 슬로건을 이번 활동을 통해 만들 수 있었음.

- '적극적 합의에 대해 알리는 영상'에 대한 필요성 및 기획의 골자는 상담소의 운동 현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술인들이 없었다면 실제 영상으로 구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예술인과의 공동제작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예술인들이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해주었음.
- 상담소가 적극적 합의에 대해 말할 때 대중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술인들의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음.
-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기에는 상담소의 입장에서 적절한지 자체 검토하게 되었고,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의 기획에 핵심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지 '교육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피드백을 하였음.
-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상 상담소가 기획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추후 협업 진행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외주'형식처럼 느껴지게 됨. 또한 초기 기획 과정이 다소 길어지며 촬영 및 편집 과정에 약간의 지체가 발생했음.
- 젠더감수성을 갖고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야 하며, 기획에 맞는 협업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과제로 남음.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협업 방식 자체에 대한 합의를 초반에 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목표2. 더 나은 활동을 위한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한다.

2-1. 상담소 30주년 기념 사업 수행

- 배경/필요성: 2021년 상담소는 개소 30주년을 맞이함. 이에 그동안 상담소가 연 주요 전략과 의제, 성취를 소개하고 변화한 지형을 진단하며 새로운 과제를 짚어보는 '반성폭력 운동 발자취' 사업, 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고 공공적으로 공유하는 '비전 선포' 사업 및 '기념식' 사업, 상담소 활동을 이론회하는 '단행본 발간' 사업,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사업,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음. 성문화운동팀도 다년간 축적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30주년 이후의 상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고자 함.
- 목표: 성문화운동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타 팀과의 협업을 통해 30주년 기념 사업을 수행함.
- 방법 및 계획 : 비전 선포 및 기념식 사업, 홈페이지 및 SNS 리뉴얼 사업 등에 기획·실무 담당으로 협업, 단행본 제작 사업에 저자로 참여, 그 외 상담소 30주년 기념 사업 실무 참여
- 담당자: 달별, 신아, 앓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비전 선포 및 기념식 사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활동가(전원) 1/6 FGI 결과 1차 공유 3/10 30주년 기념 발자취 워크숍 - 30주년 준비 비전TF(앓, 신아, 오매, 란) 3/5 비전 논의 및 30주년 기념 발자취 워크숍 준비 회의 7/5 비전선언문 작성 논의 7/14 비전선언문 주요 골자 작성 7/30 비전선언문 초안 검토 회의 - 30주년 모금기획팀(앓, 달별, 오매, 란, 백목련, 감이, 낙타)

구분	진행내용
	점검회의(7/26, 8/17, 8/24, 8/31, 8/24, 9/9, 9/14, 9/28, 10/5) 평가회의(11/4) - 비전선언영상 주 담당(얏) 8/19 비전선언영상 논의(얏, 란) 9/3 연분홍치마 이혁상 미팅 9/6 비전선언영상 촬영
30주년 기념식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활동 참조) 제목: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일시: 2021년 10월 7일 19시 30분~20시 30분 장소: 온라인(유튜브 https://youtu.be/g4i6mlp1HYQ) 한글 자막: 안은혜, 김민지(자원활동가), 박아름(성문화운동팀) 영어 자막: 장재원, 박주현, 김하윤(자원활동가) 10/7 [선언문 및 카드뉴스][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선언문]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단행본 발간 사업	미추진

- 결산: 해당없음
- 평가: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활동 참조
- 비전TF에서는 얏, 신아가 비전선언문 논의 및 작성에 참여함. 이후 구성된 모금기획팀에서는 얏, 달별이 30주년 기념식 전반을 함께 논의하며 특히 달별은 홍보 총괄, 얏은 비전선언영상 주 담당으로 참여함. 특히 하반기에는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 마무리와 30주년 기념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 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였음.
- 30주년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영상 녹취, 한글 자막 제작, 자막 한영 번역 등에 여러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음. 한편, 자원활동가 소통 및 연계 담당자가 30주년 기념식 영상의 주 담당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자원활동가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음.

2-2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 배경/필요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지지자 그룹·개인과 만나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담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연결오류, 모바일 최적화가 되지 않는 문제, 가독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가독성 좋게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모바일 최적화를 달성함
 - 상담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페이지의 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1. 모바일 최적화
 - 현재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는 업체 탐색 및 기타 플랫폼 미팅
 - 전반적인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회의 진행
 2. 아카이브 체계 마련
 - 스마트워크TF 아카이브 체계 관련 인수인계 회의 진행
 - 시민단체 아카이브 사이트 탐색 및 자문

- 아카이브 전문 업체 미팅 및 선정
 - 담당자: 닷별
 - 진행내용:
- 여성주의상담팀 유랑, 파랑, 사무국 오매 활동가와 함께 TF 구성하여 활동.
-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계약한 업체 와이빈 측의 문제로 개발 일정이 두달 정도 늦어져 내년 2월 초 오픈을 목표.

구분	진행내용
회의 일정	3/23, 3/25, 4/7, 4/22, 4/26, 5/14, 6/1, 6/21, 6/29, 8/17, 8/27, 9/27
홈페이지 보완점 및 사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 활동가들이 느끼는 보완점, 성문화운동팀이 느끼는 불편한 점, 2020년 아카이브TF 제언사항, 이전 홈페이지 개편 시 참고사항 토대로 보완점 논의 - 직접 홈페이지 세팅 가능한 '캠페이너스'로 홈페이지 개설한 단체에 이용경험 문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위티, 빌라선샤인, 거꾸로캠퍼스) - 참고할 만한 타 시민단체 홈페이지 탐색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여성성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이용경험 설문	<p>4/9~4/20 홈페이지 이용경험 설문 배포 및 분석(총 7문항, 41명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검색 통해 홈페이지 접속(47.4%) - 성폭력 이슈에 대한 상담소 의견 및 성명 참고 위해 이용(55.3%) - 주로 발간자료 / 성명 및 논평 / 공지사항 게시판을 이용함 - 상담소 홈페이지의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으로 동시에 가장 높게 꼽힌 것이 "상담소의 최근 활동이 한 눈에 잘 보인다(70.6%) / "상담소 최근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37%)". - 기타 의견은 주로 모바일최적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음.
카테고리 구조화 및 필요 기능 정비	<p>메인페이지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안내 탭에 상담 상세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이퍼링크 -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배너 삭제 - 최근활동 이슈/의제별로 모아서 정렬 - 후원/교육문의 사이드바 상시노출
	<p>게시판 카테고리 재정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게시판을 활동 대분류별로 정렬 - 부설기관 카테고리에 게시글 기능 추가, 소개/공지사항/소식으로 분할하여 노출
	<p>필요 기능</p> <p>: 키워드 검색 기능, 비밀댓글/비밀글 기능 적용</p>
업체 미팅	<p>와이빈, 슬로워크에 미팅 제안</p> <p>6/29 와이빈 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페이지 세부기획 더 필요, 엑셀 테이블 통해 게시판 분류작업 및 기능 정리하여 견적 미팅 다시 진행하기로.
홈페이지 요구기능 도식화	<p>와이빈과 미팅 내용 바탕으로 게시판별 타입, 필요 기능, 도메인 등 새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A - 개발 과정에서 바로바로 문의 필요한 내용 체크 - 요구사항 정리 - 검색기능을 편리하게, 홈페이지 부팅 속도 빠르게, 해시태그 기능 도입 등

구분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개편안 체크 기존의 활동 성격 중심 게시판에서 활동 분야별로 활동파트 게시판 재편 이미지 중심, 글 중심, 이미지+글 혼용 등 활동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게시판 세팅 변경 - 사이트맵 체크 영문페이지명, 신설페이지명 지정 - DB 별도로 운영되는 블로그 글까지 이관 가능한지 확인 - 현재 서버 상황 검토 카페24 서버 사용량이 한계수치인 상황,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IT기업 의 서버로 이관 필요성 제기
콘텐츠 정리	<p>게시판 소개, 상담소 소개 전반 정리, 성폭력 관련 개념 토론 및 재정비</p> <p>9/29 20차 상근활동가 회의 - 홈페이지에 들어갈 개념 전체 피드백</p> <p>10/13 21차 상근활동가 회의 - 성폭력 개념 1차 토론</p> <p>10/28 홈페이지 리뉴얼팀 최종수정 및 피드백 전달</p> <p>11/10 23차 상근활동가 회의 - 성폭력 개념 2차 토론</p>

- 평가:
-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없지는 않으나, 저마다 개편에 대한 상이 조금씩 달라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음.
- 개편 과정에서 상담소가 성폭력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다시 한 번 토론하며 2021년 버전의 성폭력 개념 만들기를 할 수 있었음.

목표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에 상담소가 연대하는 의의를 알린다.

3-1.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

- 배경/필요성: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자로 효력을 잃었음.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뤄낸 것임. 2021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등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 목표:
-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사회문화 조성
-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 확산
- 방법 및 계획 : 연대활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입법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견 개진
- 시의성 있는 이슈대응 및 대중인식 개선 활동
- 모낙폐 사업비 모금과 집행 위탁 처리
- 담당자: 앞

- 예산안: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회의	<p>공동집행위원장 회의(1/7, 2/3) 집행위원회 회의(1/13, 2/18, 3/11, 3/23, 3/30, 5/25, 6/29, 7/20, 8/31, 9/14, 10/19) 전체회의(2/5, 4/23, 11/16, 12/13) 보건의료계 단체들과의 간담회(1/22, 2/23) 설문조사TF(4/2, 6/1, 7/16, 9/10) ‘낙태죄’ 폐지 활동가 검찰수사 대응 변호인단과의 면담(3/16, 5/25)</p>
성명/논평/입장	<p>1/1 [카드뉴스] ‘낙태죄’ 없는 2021년 선포 및 신년인사 3/8 [3.8세계여성들의날 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7/1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처 7/29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피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p>
강의/원고/발제/토론	<p>3/8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강의 <여성의 몸:임신중지와 임신의 경험> (얌) 3/31 젠더리뷰 봄호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얌) 7/19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낙태죄 폐지 운동을 통해 보는 성재생산권>(얌)</p>
‘낙태죄’ 폐지 활동가 검찰 수사 대응	<p>‘낙태죄’ 폐지 활동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탄원서 기간: 2021년 1월 21일~1월 31일 참여: 2,250명</p>
3.8 세계여성들의날 맞이 기자회견	<p>제목: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일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발언: 1) ‘낙태죄’ 없는 2021년! ‘모낙페’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 사회자 2)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한 시민 발언 - 로리, 승은, 혜영 3)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4)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5)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하라! - 나무(장애여성공감) 6) 기자회견문 낭독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얌(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비고: 기자회견 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대의런데이 참여, 2019년 ‘낙태죄’ 헌법불</p>

구분	진행내용
	합치 결정 직전 3.30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행진했던 서울파이낸스센터-광화문-헌법재판소 왕복 3.8km 걷기 및 인증(얌, 나영, 보영)
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p>제목: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일시: 2021년 4월 11일 오후 3시-5시 장소: 종각역 '누구나' 12층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영상 공개 : 우리가 이룬 낙태죄 폐지,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사회: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발표: 1.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라일락(박김예림, 예술창작활동가) 2.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이제 글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Q&A토크 피켓액션 참여자 : 오프라인 30명, 온라인 조회수 436회</p>
검찰 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유에 대응	<p>4/21 검찰 기소유에 통보 4/22 불기소이유서 발급 4/28 상근자회의 1차 논의 5/11 상근자회의 2차 논의 → 헌법소원 제기 결정 : 2020년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2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 검찰이 기소유에 결정을 통보함. 이는 수사기관이 인권운동단체가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선별적으로 집회 및 시위로 간주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선례로 남을 것이어서 문제임. 당사자와 각 소속 단위, 변호인단 등이 논의한 결과 얌 활동가는 기소유에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함. 7/16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소송대리인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박한희, 서선영)</p>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p>-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방법: 구글 설문지 기간: 2021년 6월 9일 ~ 7월 16일 응답자: 370명(임신중지 경험 있는 응답자 79명) - 심층인터뷰 방법: 온라인 ZOOM 개별 인터뷰 기간: 2021년 7월 21일 ~ 9월 9일 대상자: 14명</p>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참고인 진술	<p>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절차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참고인 진술 일시: 2021년 9월 2일(목) 오후 16시~18시 장소: 서울역 인근 회의실</p>

구분	진행내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참고인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p>제목: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p> <p>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14시 ~ 15시</p> <p>장소: 온라인(유튜브 https://youtu.be/202bVhb0pBU)</p> <p>사회: 얌(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p> <p>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지 경험 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대표) -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안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p><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간배포</p> <p>방법 : PDF 홈페이지 등 게시, 인쇄본 100부 복지부·여가부 소속 국회의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단위 등 배포</p>

• 평가:

-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해 임신중지를 공공 의료서비스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① 임신중지 관련 건강보험 적용, ② 유산유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활동하고 있음. 낙태죄 폐지 전후 의료 현장에 변화, 임신중지 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중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고서로 발간배포함.
-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되었으나 여전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은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식약처는 제약사의 유산유도제 수입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상반기에 미프지미소 허가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하반기에 불필요한 가교 임상 시험을 검토하는 등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음.
-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명확하게 공식화하지 않고 관련 법·정책의 추진을 더디게 하는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라는 단명명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중 인식과 향후 논의 진전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평가가 있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활동 종료를 결정함. 향후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연대체의 전반적인 정비와 재조직이 필요함.
- 담당 활동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집행위 운영, 재정 관리, 실태조사 기획 및 실행, 언론 인터뷰,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낙태죄’ 폐지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왔다는 성취감도 큰 반면, 그 과정에서 검찰 기소유예 결정, 그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안티페미 유투버의 행사 방해 및 모욕 등의 백래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어 심리적 어려움도 컸음.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일종의 ‘놀이 문화’로 소비되고 있는 백래시를 제지하고

활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3-2. 반차별운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배경/필요성: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안과 함께 국회 입법을 권고하였음.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고자 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발의 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발의 준비 중으로 알려졌던 종교기관예외조항이 명시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이 마주한 장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공공영역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차별 및 혐오를 예외로 만드는 여지가 발생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확인하고 종교기관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며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대중의 더욱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함.
 - 여성인권운동 및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관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림.
- 담당자: 신아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서 활동, 집행위 참여
- 진행내용:
 - * 상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직체계 변동이 있었음. 집행위원회와 별도로 책임집행위가 신설되었음. 책임집행위원회는 각 팀 팀장 및 공동집행위원장이 모여 진행하던 회의체가 이름을 변경한 것임. “집행위원회의 수임을 맡아 실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전략조직팀, 정책담론팀, 미디어팀이 폐지 또는 활동 중단하고 사업에 따르는 팀체제로 변동됨. 상담소는 전략조직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팀활동 중단 후에는 만인선언준비팀, 여성단위기사회견준비팀, 10만행동확대상황실에 결합하여 활동했음.
 - 작년 장혜영 의원안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의 발표와 함께 국회 권고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음. 그 이후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고 지지부진하게 정체되어 있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함.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지 4주 째에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함. 이후 6/16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고 8/9 박주민의원 ‘평등법’을 8/31 권인숙의원 ‘평등법’을 발의함.
 -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심없이 활동하였고, 상담소도 주요 투쟁활동들- 10만행동 캠페인, 온라인 농성, 시민대행진, 국회앞 농성 등에 참여하였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까지 연기하겠다고 응답하고, 경기국회 회의가 12월 9일 종료되는 상황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전은 없었음. 임시국회가 열릴지 미지수인 상황임.
 - * 아래의 진행내용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일부에 한해 정리함.

구분	진행
회의	- 전체회의 2/19 5/7(불참) - 집행위원회 3/19 4/23 6/16 - 전략조직팀 회의 3/12 - 만인선언팀 회의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위 기자회견 준비 회의 5/6 5/20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3/24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활동가 시국회의 “14년 유예를 멈추는 평등의 발걸음” 10/20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전체회의 1차 10/27 2차 12/2
이슈 대응	<p>1/21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 대상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p> <p>1/21 [논평]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p> <p>2/3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차별 진정 및 정책 권고를 위한 공동 진정</p> <p>2/5 [논평]군산시, 충청남도, 이제는 대한민국 : 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p> <p>3/4 [논평]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p> <p>3/6 변희수 하사 추모 행동</p> <p>3/16 [논평]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p> <p>3/18 [논평] 차별은 방역이 아니다</p> <p>3/21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p> <p>4/26 [논평] 국회가 평등을 공부할 방법, 차별금지법 제정 -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에 부쳐 -</p> <p>6/6 [논평] 반복되는 군대내 성폭력, 차별의 구조를 알아 얹어라 - 故 이중사의 명복을 빌며-</p> <p>6/11 [논평] 불공정을 공정으로 은폐하는 대신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부쳐 -</p> <p>6/16 [논평]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p> <p>7/1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의 글(6/29)에 대한 입장</p> <p>8/9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p> <p>8/12 [공동논평]‘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p> <p>8/18 [논평]아직도 차별금지법을 논의할지말지 고민인 국회에게</p> <p>9/1 [논평]국회는 평등을 약속할 책무 즉각 이행하라 -권인숙 의원 평등법 발의에 부쳐</p> <p>9/14 [논평]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교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라</p> <p>9/9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p> <p>9/29 [논평]그건 차별이 맞다 -9.28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임금차별에 대한 입장에 부쳐-</p> <p>10/7 [논평]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합니다</p> <p>10/15 [논평]국민의힘은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론인가. 회피 말고 정확히 답하라.</p> <p>10/28 [논평]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 이미 모두 지났다 이제는 ‘제정할 때’</p> <p>10/29 [논평]발전이라곤 없는 홍준표 의원에게</p> <p>11/3 [논평]국회 안팎의 요구를 담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제정하라</p>

	11/5 [논평]국민의힘은 차별이 당론인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대응	2020/12/28~2021/1/8 연말연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평등법 발의 촉구 문자 행동 1/12~3/22 이상민의원 대상 평등법 발의 촉구 문자 행동 4/15~ 국회 앞 목요행동 5/25~6/23 국민동의청원 :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당사자가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청원 등록 : 6/14 10만명 청원 달성 6/16 이상민의원 '평등법' 발의 8/9 박주민의원 '평등법'발의 8/31 권인숙의원 '평등법'발의 12/9 정기 국회 종료
집회/캠페인/ 행진 등 투쟁	4/8~5/2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 선언 "평등하다" 5/21 평등의 예코100 홍보 : 상담소 이미경 이사,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작가 참여 6/21 오픈닝 챌린지 9/1~9/17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9/11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온라인 진행) 10/12~11/10 [도보행진]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평등길1110 11/8 국회 앞 농성 돌입 - 상담소 12/22 농성장 지킴이 및 평등수크린 <살인자, 그리고 살인자들> 이야기 손님 참여 11/10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11/11 영화<너에게 가는 길> 시사회 12/4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토론회	4/6,13,27,5/11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5/9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기자회견	4/8 대국회 투쟁 계획 선포 기자회견 5/25 국민동의청원 시작 기자회견 5/26 여성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6/15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11/8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11/16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2/9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목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평등에 합의한 사회,평등을 외면한 국회>기자회견

• 평가:

- 차제연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실행한 10만행동 캠페인, 소속단위들의 적극적인 활동,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지 4주 째에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함. 작년 국민동의청원이 2만명대에 그쳤던 것에 비하여 볼 때, 사회적 절실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후 활동에서도 시민사회 및 대중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제연 차원에서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활동을 가시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하지만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실제 동성애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2024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미루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21대 국회에서의 제정,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현재 해당 목표 달성은 불확실해졌음.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실망감, 무력감, 회의감으로만 제정활동의 의미가 남지 않도록, 전국 각계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온 지금까지 활동 의미를 잘 정리하고 송년문화제를 통해 다시 한번 비전과 목표를 확인함. 대선 정국에서 어느 후보도 차별금지법을 이야기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라는 기조로 직접 유세단을 꾸려 시민들을 만나고자 함.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8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를 함께 발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대응해왔음.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사실상 동성 간 합의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축소 처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음. 그동안 3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2002년, 2011년, 2016년), 2차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2014년, 2017년)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로 이어지는 못하였음.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으나 수년간 계류 중이므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목표:
 - 헌법재판소에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 결정을 촉구함
 - 군형법상 '추행죄'가 어떻게 왜곡된 성문화·인식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
 - 변호인단과 소통 및 연대
 -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대중과 시민사회 연대·조직
- 담당자: 앞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회의 및 인터뷰	전체회의(1/21, 2/26, 4/20, 5/11, 6/8, 7/6, 7/30, 9/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카드뉴스	Q1.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가요? Q2.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려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지 않나요? Q3. 설령 강제성이 없는 합의한 성적 행위라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요? Q4.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는 군 기강과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아닌가요? Q5. 그래도 남성 비율이 높은 군대에서 무분별한 남성 간 성적 행위를 억제하려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지 않나요? Q6.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에이즈 감염을 확산하는 것 아닌가요? Q7. 이미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Q8. 2013년 법 개정으로 '계간(닭의 성교)'이라는 차별적 용어를 '항문성교'로 바꾸었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요?

구분	진행내용
	Q9. 미국도 ‘소도미법’으로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나요? Q10. 우리나라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친필 탄원서 쓰기 워크숍 <To. 헌법재판소>	내용: - 1부. 군형법 제92조의6 알아보기 - 2부.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 촉구 탄원서 작성하기 일시: 6월 29일(화) 오후 19시 30분~21시 30분 장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교육장 참가자 : 2명 (진행)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기진(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라인 농성장	일시 : 2021년 9월 6일(월) 12시 ~ 13시 장소 : 온라인(ZOOM) 사회 : 앓(한국성폭력상담소) 강연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계게밍아웃의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제목 :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일시 : 2021년 10월 11일(월) 11시 ~ 12시 장소 : 국방부 앞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음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군인권센터, 유니브페미,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언니네트워크 발언 :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앓(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서영(베이직페미)

- 평가: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을 2021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다호(5/17)와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A대위 유죄 선고일(5/24) 시기에 맞춰 카드뉴스를 총 10회 연재함.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친필 탄원서 쓰기 워크숍 <To. 헌법재판소>를 진행하고자 3번에 걸쳐 일정을 잡고(6월 중 2회, 8월 중 1회) SNS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참가자 수가 너무 적어 2번은 취소되고 1번만 진행하였음. 특히 6월에는 공군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더욱 참여 신청이 부진하였음. 대중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 발굴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해 보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5/20), 공동 발의 최소 의원수를 모으지 못해 무산됨.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이 4년째 계류 중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행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연대체 활동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및 국회 대응에 국한되어온 점이 아쉽다는 내부 평가가 있음. 앞으로는 네트워크의 취지에 맞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면 좋겠음.

3) 서울퀴어문화축제

- 배경/필요성: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된 지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퀴어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혐오세력의 목소리와 제도권의 차별 또한 지속되고 있음. 코로나19로 혐오의 확대-재생산이 심화된 요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함께 목소리 내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목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와 상담소의 의제를 알림.
- 방법 및 계획: 온라인부스 참여 및 캠페인 기획·실행, 자원활동가 및 인턴 참여 독려
- 담당자: 닷별
- 진행내용: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온라인부스 형식으로 진행되어 ‘적극적 합의’를 주제로 부스 프로그램 진행.

구분		진행내용
사전	기획 및 실무	3/15 1차 기획회의 4/4 온라인부스 기획안 제출 완료 4/12 온라인부스 선정메일 수신 4/29 온라인부스 신청비 이체
	개최 축하영상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퀴어플래그 6색에 맞게 활동가들이 옷을 입고 축하멘트 읽는 영상을 발송. 서울퀴어문화축제 개회식에서 송출. 5/17 영상 기획회의 5/24 촬영
	온라인부스 제작	① <적극적 합의> 개념 설명 카드뉴스 2019년 3.8. 여성의날 맞이 발표한 5가지 원칙을 정리, 해설하는 카드뉴스 제작하여 개념적 이해 돕기. ② 성적 동의 설문조사 퀴어&앨라이의 성적 경험을 질문하여, 이론적 사회문화와 실제 자신의 경험에서 성적 동의가 어떻게 상상되고 실행되는지 확인. ③ <나의 적극적 합의 유형은?> 적극적 합의 유형테스트 총 6가지 질문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적극적 합의 유형 테스트를 진행, 참여자 개인 SNS 공유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합의 개념에 대한 궁금증과 이해를 높임. - 총 122명 참여, 86명 완료. (참여율 70.5%)
본행사	6/27 서울퀴어문화축제 오프라인 퍼레이드 참여(성문화운동팀 앞) 6/27 ~ 7/18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부스 오픈 6/27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진 게시글 업로드 6/28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부스 오픈 게시글 업로드 7/7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부스 프로그램 상세소개 게시글 업로드 6/27 ~ 7/18 참여자 메시지 좋아요 누르기(상시)	
후속	7/25 <나의 적극적합의 유형은?> 테스트 홍보 8/31 2021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하게 적극적 합의! 후기 업로드	

② 닷페이스 온라인행진

진행상황	6/28 활동가, 생활인 행진캐릭터 제작 7/6 캐릭터 수합 완료 7/6 한국성폭력상담소 SNS 게시
------	--

• 평가:

- 2019년 서울핑크닷에서 진행한 <나의 적극적 합의 점수는?> 부스에 이어 연속성 있게 사업을 구상·진행하여 상담소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속성 있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퀴퍼 부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서, 상담소가 생산한 양질의 콘텐츠가 오프라인 행사만큼의 확산력을 갖지는 못했음. 그러나 부스를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등의 이미지는 이후 강의, 프로젝트 홍보 등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하여 확산성을 높이고 있음.
-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긴만큼 <성적 동의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패널 심층인터뷰에 도움이 되었음.
- 유형테스트라는 콘텐츠 자체가 상담소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메시징 방법이라 신선한 점이 있었음. 콘텐츠의 문턱도 낮아 낯선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함. 온라인 기반의 대중적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다른 사업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겠음.
- 적극적 합의 개념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4가지 유형을 만들기 다소 어려웠으나, 이상적 형태의 적극적 합의를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발상의 전환이 되었음.
-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투박하지 않고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만큼 세련되게 제작되었음. 특히 유형테스트의 경우,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인식되어야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훌륭한 결과물이었음.

3-3.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 여전히 2015 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힘.
- 방법 및 계획: 제147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성유정, 정민정 인턴활동가(씨티-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및 수요시위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사전 답사 진행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둘러싼 성폭력 통념 및 피해자상에 대한 균열을 도모
 - 활동 후 실무자 및 상근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여 상호 평가 진행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1년 2월 10일(수) 오후 12-13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참가 단체 소개
 : 문화공연
 :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신아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수요시위	<p>: 씨티-경희 인턴십 유정, 민정 인턴 활동가와 기획 및 진행. :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하여 바위처럼 및 문화공연 등 대폭 축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고 당일 현장에는 주최측 요청에 따라 실무 담당자 3인만 참석. 상담소 활동가들 및 열림터 생활인은 이안젤라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음.</p> <table border="1" data-bbox="326 627 1195 1406"> <thead> <tr> <th data-bbox="326 627 426 678">일정</th> <th data-bbox="426 627 1195 67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6 678 426 832">1월</td> <td data-bbox="426 678 1195 832"> 1/12 1차 회의 : 수요시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읽기, 영상 시청) 1/18 2차 회의 : 제목 및 홍보 컨셉, 역분 확정 1/21 3차 회의 : 포스터 점검 및 역할 변경 1/27 수요시위 온라인 사전 답사 </td> </tr> <tr> <td data-bbox="326 832 426 1406">2월</td> <td data-bbox="426 832 1195 1406"> 2/1 뉴스레터 홍보 2/4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물 업로드 2/5 정의연 성명 및 순서지 피드백 완료 및 확정 2/9 피켓 제작 완료 2/10 수요시위 진행 <table border="1" data-bbox="436 1020 1157 1335"> <thead> <tr> <th data-bbox="436 1020 738 1070">순서</th> <th data-bbox="738 1020 1157 1070">담당</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6 1070 738 1147">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td> <td data-bbox="738 1070 1157 1147">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47 738 1186">정의연 활동보고</td> <td data-bbox="738 1147 1157 1186">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86 738 1263">참가자 연대발언</td> <td data-bbox="738 1186 1157 1263">-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r> <td data-bbox="436 1263 738 1302">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td> <td data-bbox="738 1263 1157 1302">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td> </tr> <tr> <td data-bbox="436 1302 738 1335">성명서 낭독</td> <td data-bbox="738 1302 1157 1335">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body> </table> 2/24 후기 홈페이지, 블로그에 업로드 </td> </tr> </tbody> </table>	일정	내용	1월	1/12 1차 회의 : 수요시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읽기, 영상 시청) 1/18 2차 회의 : 제목 및 홍보 컨셉, 역분 확정 1/21 3차 회의 : 포스터 점검 및 역할 변경 1/27 수요시위 온라인 사전 답사	2월	2/1 뉴스레터 홍보 2/4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물 업로드 2/5 정의연 성명 및 순서지 피드백 완료 및 확정 2/9 피켓 제작 완료 2/10 수요시위 진행 <table border="1" data-bbox="436 1020 1157 1335"> <thead> <tr> <th data-bbox="436 1020 738 1070">순서</th> <th data-bbox="738 1020 1157 1070">담당</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6 1070 738 1147">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td> <td data-bbox="738 1070 1157 1147">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47 738 1186">정의연 활동보고</td> <td data-bbox="738 1147 1157 1186">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86 738 1263">참가자 연대발언</td> <td data-bbox="738 1186 1157 1263">-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r> <td data-bbox="436 1263 738 1302">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td> <td data-bbox="738 1263 1157 1302">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td> </tr> <tr> <td data-bbox="436 1302 738 1335">성명서 낭독</td> <td data-bbox="738 1302 1157 1335">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body> </table> 2/24 후기 홈페이지, 블로그에 업로드	순서	담당	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의연 활동보고	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참가자 연대발언	-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성명서 낭독	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일정	내용																		
1월	1/12 1차 회의 : 수요시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읽기, 영상 시청) 1/18 2차 회의 : 제목 및 홍보 컨셉, 역분 확정 1/21 3차 회의 : 포스터 점검 및 역할 변경 1/27 수요시위 온라인 사전 답사																		
2월	2/1 뉴스레터 홍보 2/4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물 업로드 2/5 정의연 성명 및 순서지 피드백 완료 및 확정 2/9 피켓 제작 완료 2/10 수요시위 진행 <table border="1" data-bbox="436 1020 1157 1335"> <thead> <tr> <th data-bbox="436 1020 738 1070">순서</th> <th data-bbox="738 1020 1157 1070">담당</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6 1070 738 1147">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td> <td data-bbox="738 1070 1157 1147">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47 738 1186">정의연 활동보고</td> <td data-bbox="738 1147 1157 1186">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td> </tr> <tr> <td data-bbox="436 1186 738 1263">참가자 연대발언</td> <td data-bbox="738 1186 1157 1263">-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r> <td data-bbox="436 1263 738 1302">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td> <td data-bbox="738 1263 1157 1302">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td> </tr> <tr> <td data-bbox="436 1302 738 1335">성명서 낭독</td> <td data-bbox="738 1302 1157 1335">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td> </tr> </tbody> </table> 2/24 후기 홈페이지, 블로그에 업로드	순서	담당	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의연 활동보고	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참가자 연대발언	-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성명서 낭독	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순서	담당																		
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의연 활동보고	포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참가자 연대발언	- 박승배 고등학생 - 수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성명서 낭독	뿌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평가	<p>3/3 상근자회의 평가 3/18 정의기억연대에 '수요시위 평가 및 제안서' 송부</p> <p>〈수요시위 평가 및 제안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시위에 대한 소감 및 전반적인 평가 <p>: 상담소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여성주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는지, 여성주의적 토론 및 해석의 장을 넓게 형성하는 데에 주체로서 활동해왔는지 평가함</p> <p>: 여성인권침해이자 전시성폭력 문제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더욱 역할 수 있기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시위 주관단체로서의 평가 																		

구분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와 세팅 등에서 주관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면 함 : 집회/기자회견 실무자가 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더욱 꼼꼼하게 소통해 주었으면 함 : 극우 세력의 방해 행동이 안타까웠음 등 - 수요시위의 방향, 내용, 형식에 대한 제언 : 매뉴얼 제작에 위의 평가 내용이 담길 것
	<p>4/8 정의기억연대 답변서 회신</p> <p><답변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의 자율성에 대하여 <p>다양한 단체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이 수요시위를 풍요롭게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다양성이 소극적으로 나타난 면이 있는 것 같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더욱더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가 담긴 수요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및 매뉴얼 제작에 대하여 <p>주관단체와 더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소통하여 주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여 준비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시위 현장 상황에 대하여 <p>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시위와 평화로가 역사왜곡,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광폭한 공격과 횡행으로 방해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p>내부 조직 정비와 성찰비전위원회를 통하여 정의연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성찰하겠음. 수요시위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 데에 연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음.</p>

- 평가:
- 작년 평가 및 올해 계획에 따라 상담소 자체적인 수요시위 평가를 정의기억연대에 전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으며 상호 평가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으며, 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 수요시위의 방향에 대해 연대단체로서 고민하고 아이디어 낼 수 있었음.

2) 3.8 세계여성의날

- 배경/필요성 :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는 날임. 그동안 상담소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2018 ‘세계여성인권운동지도’ 제작·배포, 2019 ‘ONE BILLION RISING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전국 공동 퍼포먼스 진행 및 뮤직비디오 제작·배포, 2020 ‘SNS 발언대:3.8 말하기’ 온라인 액션 등 여성 연대를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음. 올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새로운 연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목표: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함.
- 방법 및 계획 :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함.
- 담당자: 닷별, 앞
- 진행내용:
- 코로나19와 3.8.여성대회 미개최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워져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해

시태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약 1주일간 3.8km를 달리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여 참여 독려함.

- 한겨레, 여성신문에 각 1회씩 기사화되었음.
- 트위터코리아 공익광고 사회공헌사업 <애즈포굿>에 선정되어 10만달러 상당의 광고비를 협찬받아 캠페인 정리영상을 광고로 내보낼 수 있었음.
- 자원활동가 은희님과 함께 캠페인 정리영상 제작을, 자원활동가 지민/은희님과 함께 캠페인 참여자 인증샷을 정리하였음. 참여방법 안내영상 제작은 활동가 앓과 자원활동가 세린, 이름님이 함께해 주심.

구분	진행내용		
사전준비	2월	2/2 1차 회의: 캠페인 아이디어 논의 2/8 2차 회의: 연대의 런데이 기술적 검토 및 홍보방안 논의 2/15 3차 회의: 기획안 및 참여&인증 안내 카드뉴스 피드백, 사전러너 조직 및 섭외 2/23 4차 회의: 캠페인 실무 분담 및 사전캠페인 진행상황 체크 2/24 트위터코리아 <애즈포굿> 신청완료 2/26 여성신문 여성의날 맞이 기획기사 <연대의런데이> 소개글 송부	
	3월	3/1 연대의런데이 캠페인 티저 공개 3/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연대제안 수락 3/8 트위터코리아 <애즈포굿> 선정	
본행사	3월	3/8 3.8.연대의런데이 캠페인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카드뉴스 업로드 논평 <행진을 멈추지 말자: 3.8.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런데이를 제안하며> 공개 첫 번째 사전러너 공개: 활동가 오매, 조은희, 이사 지리산의 산행 3/9 연대의런데이 참여방법 영상 공개 두 번째 사전러너 공개: 이사 윤정원 세 번째 사전러너 공개: 활동가 낙타와 눈 덮인 산 등반 3/10 연대의런데이 추천 플레이리스트 공개 네 번째 사전러너 공개: 활동가 앓의 희망뚜벅이 연대행진 3/11 다섯 번째 사전러너 공개: 자문위원 양수안나&위밋업스포츠 신혜미 대표의 여성체육 홍보 3/12 여섯 번째 사전러너 공개: 자문위원 이산과 추모의 런데이 일곱 번째 사전러너 공개: 회원 푸른나비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3/15 여덟 번째 사전러너 공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활동가 오매, 주리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의 런데이 3/8~3/15 상시: 참여자 인증샷 공유	
후속활동	3월	3/15 연대의런데이 후속영상 1차 기획회의 3/17~3/31 연대의런데이 인증샷 수집작업 3/22 연대의런데이 후속영상 2차 기획회의: 기획안 피드백 및 인증샷 모으기 3/22 트위터 <애즈포굿> 집행안내 및 광고시기 조율	
	4월	4/6~4/22 연대의런데이 후속영상 편집 4/26 캠페인 후속영상 SNS 업로드	
	5월	5/21 트위터코리아 <애즈포굿> 집행 중간점검 회의	
SNS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분	진행내용		
게시글 수	45	213	46
언론보도 (총 17건)	한겨레	[3/7] 3.8 여성의 날, '#연대의러너' 3.8km 달리기 어떠세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719.html	
	여성신문	[3/4]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들 온라인서 '성평등' 외친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37	
	뉴스시스	[3/8] 트위터, '여성의날' 맞아 시민단체 광고비 지원... 라이브 방송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8_0001362301&clD=13001&pID=13000	

• 평가:

-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연대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여성대회가 없어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었음. 본래 기획의도였던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연결되는 감각을 주었고, 연대감을 심어준다' 가 충실히 실현된 좋은 캠페인이었음.
- 3.8km라는 거리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러닝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의미있는 거리로 참여할 마음을, 러닝을 안 하던 사람들에게는 부담없이 시도해 볼 만한 거리였음.
- 사전러너 구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상담소와 연결된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상담소 활동에 참여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상담소와 연결된 다양한 주체를 부각하고 홍보할 수 있었음.
- 후속영상 작업이 늦어져 캠페인 참여 이후 전체를 보는 동력은 다소 떨어져 아쉬움이 남음.
- 트위터 애즈포곳 광고비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노출되어 공간성을 뛰어넘은 연대의 정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 상담소 세계여성의날 고정행사처럼 시그니처 캠페인으로 시도해보면 좋겠음.

3) 다양한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방법 및 계획: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 활동 및 신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연대체	내용	담당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철회시키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신아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전환치료의 문제를 알리고,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한다.	얌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가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다.	신아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맞서기 위한 여성단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감이

- 담당자: 신아, 얌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1/21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라!” 성명 발표 4/6 서울시교육청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환영 현수막 게시 및 화환 액션 (혐오세력 대응) 5/20 포성넷 교육부 공개 질의 6/02 교육부 답변
다양한 연대활동	2/7 김진숙 희망뚜벅이(34일차) 연대 행진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5/28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 평가:

-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에서는 상반기에 시의적절하게 혐오세력 대응 활동과 교육부 질의 활동을 했으나 긴밀하게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음. 올해에는 별도의 회의도 열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 합의’ 등의 성문화운동팀 사업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자 하였으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함.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이하 생리대행동) 차원에서 2019년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에 가입하여, 상담소도 참여단체로 소속되어 있으나 그동안 논의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생리대행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이슈 관련한 상황을 공유받고, 운동본부 논의방에 들어가 이슈를 따라가고자 함.

4) (신규) 백래시대응을위한범페미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미투운동 이후 선출직 정치인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 및 연대활동 현장 등에서 백래시를 접함. 한편 손가락 사건 등 페미니스트에 대한 백래시가 대두되고 온/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차별·성폭력 피해로 이어짐. 역차별론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해석하고 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무력화 시도,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이어짐.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폭력 문제제기 등에 대한 담론을 후퇴시키고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후퇴한 행보가 이어짐.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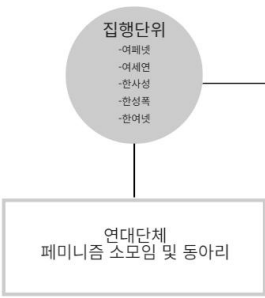
- 성평등 운동 및 제도와 문화를 축소시키는 백래시에 대응함.
- 백래시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에 대응함
-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담론과 법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함.
- 백래시를 조장하거나 비판적 관점을 상실한 정치권 공공기관 언론 등의 책임있는 대응과 행보를 요구함

• 방법 및 계획: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집행위원회 결함

• 담당자: 달별, 신아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1차~8차 진행 (8/5, 8/10, 8/18, 9/16, 10/1, 10/15, 11/2, 11/11) 연대체 체계와 활동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연대체 활동 목표
	2. 조직도(집행위 연대단위)

구분	진행내용	
	<p>1) 여성인권운동의 성과와 그 메시지를 퇴색시키고 호도하는 방식의 여성혐오를 규탄한다.</p> <p>2) 기울어진 정치판을 페미니즘을 균형 추로 다시 맞춘다.</p> <p>3) 성차별/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하는 언론환경 개선을 요구한다</p>	
국회 토론회	<p>제목: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p> <p>일시: 2021년 8월 26일(목) 오후 1시 - 3시</p> <p>장소: 온라인 줌</p> <p>주최: 백래시대응을위한범페미니네트워크,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p> <p>발표:</p> <p>[발제1] 남성연대부터 신남성연대까지: 프레임과 전략 변화 양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p> <p>[발제2] 백래시 정치에 성평등을 고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p> <p>[발제3] 페미니스트, 교차하는 연대전략이 필요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p> <p>[토론] 여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F.N 권예원 활동가</p> <p>한국성폭력상담소 신아 활동가</p> <p>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p>	
온라인 집회	<p>제목: 스트릿 페미 파이터</p> <p>일시: 2021년 11월 19일 저녁 7시30분</p> <p>장소: 백래시대응을위한범페미니네트워크 유튜브 생중계</p> <p>사회: 은하선,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p> <p>공연: 이반지하</p> <p>발언: 이가현(페미니스트 정치인), 김희경(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자문위원), 익명의 계약직 교사, 김정지원(대학 내 페미니스트), 권순택(언론시민개혁연대), 앞(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익명의 페미니스트</p>	

• 평가:

- 초기에 백래시 및 연대체에 대한 상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두 담당자와 백범넷 다른 단체들과 상이한 측면이 있고 후발 결합했기 때문에 논의를 파악해야 했음. 그 과정에서 상담소가 백래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등에 대해서 나누고 다른 단체들의 경험과 입장을 알아가며 백래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초반에 업무 진행 방식 등을 처음부터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원활하게 진행됨.
- 백범넷의 지난 1년 활동은 정치권 대응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이러한 활동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 정치권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시도들이 이어지는 바, 상담소의 이슈 및 입장을 향후 백범넷 활동에 녹여낼 필요가 있음.

목표4.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회원 및 지지자에게 다가간다.

4-1. 후원회원 확대 및 예우

1) 정기후원

- 배경/필요성: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회원예우에 공을 들일수록 후원회원이 느끼는 효능감이 커짐. 반성폭력 운동의 영역으로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이 필요함.
- 목표: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후원 유도,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후원회원과 신뢰 관계 형성,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방법 및 계획
 - 신규회원관리: 스마트레이저 확인 및 개별 전화 소통, 신규회원 웰컴키트 발송, 신규회원 굿즈 개발
 - 기존회원관리: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3/5/10년 지속후원자 특별예우 시스템 정비
- 담당자: 달별
- 진행내용:
 - ① 신규회원 관리 (2022. 1. 10 기준)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 인원
신규 및 증액	29	31	55	40	36	48	47	46	29	24	19	26	430
활동가 권유	0	2	1	0	0	2	1	0	2	1	0	0	9
중단 및 탈퇴	14	10	16	8	8	11	9	14	15	11	17	14	147
(정기) 납입회원수	1,380	1,415	1,426	1,450	1,477	1,485	1,502	1,607	1,592	1,595	1,587	1,577	
정기후원회비 (천원)	22,314	22,619	22,486	22,435	23,703	23,490	23,407	25,386	24,961	24,960	25,017	24,867	
일시·평생 후원금 (천원)	1,175	7,189	8,209	2,480	11,534	8,912	7,590	2,070	1,295	5,919	2,866	16,225	

- 2020년부터 정기납입회원이 1000명을 돌파하여 현재 1,590명 가량이 평균 15,800원씩 납부하고 있음.
- 매달 새로이 후원을 시작하는 후원회원 월평균 36.7명(2020년 특정 이슈 증가월 제외 35.75명). 그러나 후원프로그램 변경 이후 평균치는 9월~11월 평균 24명. 후원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며 '감경후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장치를 가입 단계에서 추가하였는데, 확인되지 못한 가해자 추정치(30%)만큼의 신규 정기후원회원이 줄어들었음.
- 기존에 진행하던 모든 신규회원 가해자여부 확인절차를 하지 않고, 먼저 상담소로 연락이 걸려오는 회원 위주로 가해자 여부 확인.
- 우편물 수신 허용한 후원자 대상으로 신규회원 웰컴키트 발송하였음.
- 신규후원회원을 위한 웰컴키트를 개편하여 30주년 선언문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디자인한 엽서 3종, 30주

년 슬로건 스티커 1종을 세트로 제작 중에 있음.

② 기존회원 관리

- 목표: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진행내용:

- 회원정보 수정 메뉴얼 홍보
-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에 후원 안내
-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 기대효과 : 상담소와의 거리감을 허물고 상담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 증가

- 진행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감형을 목적으로 후원한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쉽게 할 수 있어 아직은 시도하지 않고 있음. 아직은 시범도입기간이라, 이후 정책 변동 상황에 따라 사무국과 논의하여 도입 예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계
중단 및 탈퇴	14	10	16	8	8	11	9	14	15	11	17	133
가해자/추정인	1	1	1	3	4	4	5	2	1	1	3	26
트랜스젠더와의 연대 반대	0	0	1	0	1	1	0	0	0	0	0	3

- 소수지만 성소수자 이슈(특히 트랜스젠더 인권)와의 연대에 반대하는 후원회원의 탈퇴가 조금씩 관측되고 있음.

- 변경된 후원관리프로그램 이용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여 상근활동가들의 쉬운 활용을 도움.

- 평가:

- 후원관리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관리 측면에서 업무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되었음. 자동메세지 기능, ARS 수동발신기능 등을 활용해 번거로운 과정 없이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알아서 회원들에게 회신이 가도록 한 점, 변경한 시스템에서 후원자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진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2) 일시 및 특별후원

- 배경/필요성 : 정기적인 후원을 부담스러워하는 후원자,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하는 후원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후원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일시 후원자가 장기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가 필요함.

- 목표: 상담소 활동과 후원을 연결하고, 후원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일시후원: 감사인사 및 연말정산 안내
- 특별후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후원사례 발굴하여 이미지와 함께 후원스토리 SNS 게시

- 담당자: 닷별

- 진행내용:

- 기업후원

후원일시	후원내역	후원금액(원)
21.01.01. ~ 21.12.31.	한샘 정기후원	5년간 월 200만원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후원 진행 중.

- 특별후원

후원일시	후원내역	후원금액(원)	SNS 업로드
21.01.07.	드림캐처 데뷔 4주년 기념 해외 팬클럽 후원	925,246원	21.01.07.
21.01.25. ~ 21.02.05.	AV장비 지정후원(이공계 종사자 9인)	1,780,000원	21.02.09.
21.02.08.	이윤택사건 피해자 2차피해 배상금 후원	3,000,000원	21.02.19.
21.03.08.	마인크래프트 여성서버 <매화특별시> 후원	300,000원	21.03.08.
21.05.15.	유튜버 알간지&알맹스 후원	8,154,079원	21.05.17.
21.09.06.	에브리마인드 강의수익금 후원	240,000원	21.09.09.
21.11.01	바이올리니스트 성린 공연수익금 후원	1,616,000원	감사선물로 대체

- 정기후원 감사 메일링 시스템을 정비하며 일시후원 감사 메일링 역시 유사한 컨셉으로 바꾸었음.
- 적극적으로 특별후원 사례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시후원 시 후원사연 홍보 신청을 할 수 있는 구글폼을 감사 이메일/문자로 발송하여 홍보 중.
- 결산: 해당없음
- 평가: 잠재적 정기후원회원 적극 유치를 위해 일시후원자 및 특별후원자에게 뉴스레터 구독, 상담소 알게 된 경로 등 다양한 경로 추적이 필요함.

3)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전통적 후원방식인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원자들이 다수 존재함. 문자후원 업체의 리뉴얼이 완료되어 문자후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지금, 일회성으로-여유통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낯선 사람들에게 가벼우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이 필요함.
- 목표: 주기적인 문자 내역 체크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빈도수 증가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문자후원 홍보
 - 문자후원 이벤트 진행
 - 연 2회 문자후원 후기 발행
- 담당자: 달별
- 진행내용:
 - 나눔플러스 2020년 상반기 문자후원내역 유실의 건 대응
 - : 문자후원 기능 제공업체인 나눔플러스에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2020년 1월~6월 문자후원내역을 유실함. 추후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를 공지하며 11월 경 담당자가 요청하자 상담소에 유실 사실 고지.
 - : 문자 데이터는 통으로 남아있지만, 어느 단체에 발송한 것인지 개별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로 해당 월에 해당하는 만큼의 문자후원 요금 상담소에 지불함. (총 2,600,000원)
 - : 상담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원금 입금하거나 문자후원내역 유실 정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사항 있었으나, 타 업체로 이전하기보다는 문제를 공식화하여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사건 해결하기로 논의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계
--	----	----	----	----	----	----	----	----	----	----	----	----	---

										월	월	월	
문자후원 (건)	7	3	135	27	5	6	7	45	8	7	4	0	254

- 결산: 해당없음
- 평가: 담당자의 다른 2021년 상반기 문자후원 후기 발생 미진행. 문자후원 안내 및 독려도 떨어져서 예년대비 문자후원의 동력도 떨어짐. 문자후원 이벤트나 재미있는 후기 작성 등 후원 요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 있음.

4) 회원예우TF(신규)

- 진행내용:
- 사무국 오매, 란, 성문화운동팀 달별, 열림터 낙타 활동가와 함께 TF 활동 진행.

구분	진행내용
회의 일정	3/30, 4/9, 5/4, 6/2, 6/15, 6/25(디자이너 미팅), 7/20, 7/28(도너스 미팅), 10/19, 11/29(디자이너 미팅)
쓰레기 없는 회원예우 : 지하철 광고 프로젝트	<p>상담소 신규회원 웰컴굿즈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행사 때 제작한 굿즈를 랜덤하게 발송하는 형태. : 우편물 수신 거부하는 회원이 매달 새로 후원을 시작하는 회원 중 절반 : 기후위기가 주요 화두가 된 요즘, 환경파괴에 일조하는 것 아닌지 회의감 듬.
	<p>설문조사 발송(뉴스레터, SNS), 총 77개 응답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중 39%(30명)만 굿즈 경험 있고, 그 중 42.4%(14명)가 보통이었다고 응답. 굿즈 받아보지 않은 61%(47명) 중 47.9%(27명)이 굿즈 포장에 드는 여력으로 다른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응답. - 대안으로 제시한 지하철 광고 아이디어는 긍정응답 74.1%(58명)으로, 상담소 소속감 고취 및 상담소 활동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부정응답한 9.1%(7명)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느껴지거나 비용 문제, 후원회원을 위한 예우로 느껴지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 '예우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반갑게 맞아주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등이 있었음.
	<p>광고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정역 2/6호선 내-외부로 광고 건적은 확인하였으나, 회원예우TF 2차 회의가 늦어지면서 실제 광고 집행은 진행하지 못함.
가해자 감경후원 방지	<p>기부금영수증 수기발급 감경거부 안내문구 삽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등 고과평가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요청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와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 문구 삽입 가능여부 국세청 온라인상담 통해 질의. 세법상 과소신고 등의 사안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 받음. (정확한 판단 위해서는 국세청 서면질의 할 것을 권유함) '본 증명서를 형사처분 및 징계를 감경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의자·피고인·피신고인 등에 의해 경찰·검찰·법원·신고 기관 등에 제출될 경우 반성의 근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p>후원페이지에서 '가해자 아님' 확인하는 체크박스 도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시 ①상담소 후원회원으로 가입 동의 체크박스, ②성폭력 가해자 아니

구분	진행내용
	<p>며 감경목적 후원 아님 확인 체크박스가 출력되도록 후원페이지 삽입하고,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않을 시 후원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발 요청. 체크된 데이터는 둘 다 회원정보 서버에 저장되며, 활동가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p> <p>- 스마트레이저 견적문의(작업시간 4일, 작업비용 200만원)</p>
경기/일시 메일링 변경	<p>현재 첫 후원 감사 메일링이 경기/일시 구분없이 발송되고 있어 재정비.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을 먼저 시작한 우주비행사가 새로운 동료로 초대하는 컨셉으로, 일상적이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여 재정비.</p>
신규회원 굿즈	<p>아코디언 엽서 형식의 엽서 3종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슬로건 이미지를 메인으로, ①일터, 학교 등 어디든 붙여둘 수 있는 예쁜 디자인 ②주변인에게 후원권유하며 선물 가능한 디자인을 주요 골자로 함. - 경기/일시 메일링과 유사한 맥락에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동료를 상담소 활동에 초대하며 안내하는 문구로 작성. - 김리원 디자이너 제안으로, 30주년 선언문에서 3개 문구 발췌하여 각기 다른 사이즈의 엽서 형태로 그래픽 디자인하고 30주년 포스터 스티커와 함께 세트 구성. <p>컨셉 이미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이미지에 대한 토론 및 레퍼런스/디자이너 탐색. - 고요히 흐르지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의 느낌으로, 유하게 흐르는 형상에 착안하여 레퍼런스 검색. - 시민단체와의 협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이해가 있는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검토하여 김리원 디자이너와 미팅 잡기로 결정.
후원관리 프로그램 검토	<p>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레이저는 서비스 업데이트가 느림.(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 가능, 데이터 추출 시 MS 엑셀 2003 버전으로만 다운로드 가능) → 업데이트 빠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의 다른 관리프로그램 도입 논의 (도너스)</p> <p>8/10 도너스 이용신청</p> <p>8/10~19 활성 상태인 정기후원회원 데이터 이전</p> <p>8/20~8/22 기관정보 입력 및 도너스 초기세팅</p> <p>8/25 도너스에서 첫 출금 진행</p> <p>~ 8/31 출금오류 체크</p>
후원데이터 이관	<p>스마트레이저에 있던 구성원 정보와 납부 정보 전체 이관 필요하여 자원활동가 민지, 채원님과 함께 이관작업 진행.</p> <p>11/1 데이터 이관 가이드라인 제작</p> <p>11/2~11/17 자원활동가 채원, 민지 작업</p> <p>11/17 정기 활성회원 납입데이터 정리 완료</p> <p>11/22 정기 활성회원 납입데이터 검수 및 업로드 완료</p> <p>11/26 상담소-열린터 데이터이전 회의</p> <p>11/27~12/1 정기 중단회원, 일시후원 납입데이터 정리 완료</p>
외부 전문가 미팅	<p>6/25 30주년&신규회원 예우 키트 디자이너 미팅(김리원)</p> <p>30주년 기념식 작업과 함께 진행.</p>

• 평가:

- 회원예우TF가 활동을 시작하며 상담소에 후원하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 상담소에 바라는 것, 새로운 회원예우 캠페인의 시도 등 상담소의 회원관리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상담소 주 후원회원이 관심 갖는 다양한 이슈, 의제 등을 고려하여 단순 후원 물품 고민보다 더욱 깊이있는 고민을 할 수 있었음. 특히 상담소의 후원회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로서 우리의 활동에 초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며 '후원회원이 된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을 끌어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냄.

4-2. 온라인 소통 및 홍보

- 배경/필요성: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요즘 다양한 의제가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함.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
- 방법 및 계획:
 - SNS 상시 관리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상시 관리
 - 카드뉴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담당자: 달별
- 진행내용:

현황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2020	2021 (12/9 기준)	2020	2021 (12/9 기준)	2020	2021 (12/9 기준)	2020	2021 (12/9 기준)	2020	2021 (12/9 기준)	2020	2021 (12/9 기준)
게시물	423	383	115	89	375	324	6,777 (누계)	7,634 (누계)	5	24	64	286
구독자	-	-	-	-	8,524	8,540	8,711	8,927	231	611	1,304	1,701
증감율	-		-		▲0.19%		▲2.48%		▲164.5%		▲30.44%	
방문자 (월평균)	약 253, 854	약 190, 140	7,040	5,448	-	-	-	-	-	-	-	-

- SNS 메시지로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메시지로 상담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함.
- 여전히 SNS의 주요 팔로워는 18~44세 사이의 여성.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팔로워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SNS에서도 유의미한 팔로워 증가가 있었음. 3.8연대의런데이 캠페인, 인스타그램의 본격적인 이용 등이 팔로워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유튜브 팔로워가 크게 증가하였음.
- 평가:
 - 상담소 활동가들의 SNS 활용 이해도가 높아지며 특정 SNS에 지나치게 쏠려있던 정보격차가 줄어들었음. 특히나 망고보드를 연간결재하면서 이미지가 기반이 된 게시글이 증가하며 SNS에 올라가는 이미지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담소 SNS채널을 관리한다면 상담소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담소 SNS 사용빈도가 높아지며, 사람들이 집중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별도 분석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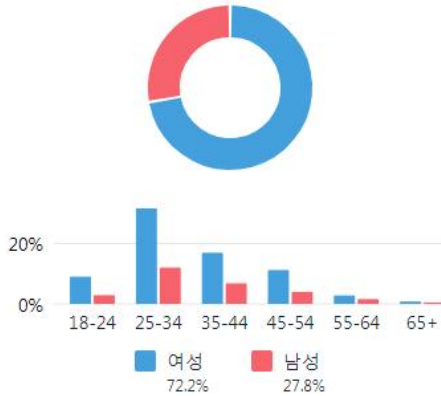
Facebook 페이지 좋아요 ①

8.1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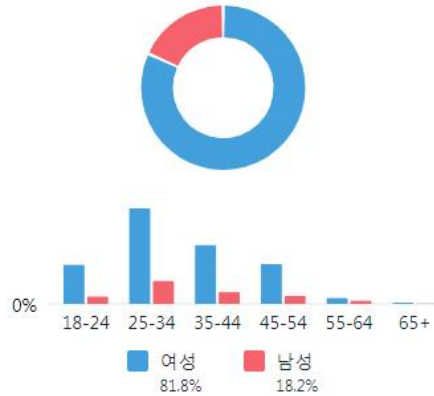
Instagram 팔로워 ①

1.7천

연령 및 성별 ①



연령 및 성별 ①



제기되고 있음.

4-3.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 방법 및 계획: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21년 1월호~12월호, 총12회)
- 발송 대상: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 담당자: 신아
- 진행내용:

호수	발송일	제목	발송건수	오픈율	클릭률
1월호	12/31	[똥다!상담소_1월호] #낙태죄없는2021년 떨어는 가슴으로 맞이하며	4,078	22.1%	4.7%
2월호	2/1	[똥다!상담소_2월호] "희망·활력·환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4,102	21.0%	3.4%
3월호	2/26	[똥다!상담소_3월호] 연대의 런데이, 커밍쑤!	4,119	20.2%	3.7%
4월호	4/1	[똥다!상담소_4월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4,163	21.3%	2.7%
5월호	4/30	[똥다!상담소_5월호] 2020년 크게 증가한 '카메라이용촬영' 상담 통계 발행	4,198	21.1%	3.4%
6월호	6/1	[똥다!상담소_6월호] 적극적 합의가 뭔가요? 릴레이 토크쇼로 알아보기!	4,252	20.5%	3.5%
7월호	7/1	[똥다!상담소_7월호] 성적 동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315	21.3%	3.0%

8월호	7/30	[똥다!상담소_8월호] 상담소도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4,360	22.8%	3.7%
9월호	8/31	[똥다!상담소_9월호] 평등을 수확하는 가을로, 차별금지법	4,384	19.1%	1.9%
10월호	10/1	[똥다!상담소_10월호] 10월 7일(목) 저녁 7시 반 3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요! 성적 동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378	19.1%	1.9%
11월호	11/1	[똥다!상담소_11월호] 30주년 후원과 참여 감사합니다!	4,620	22.7%	3.0%
12월호	12/1	[똥다!상담소_12월호] 평범한 우리의 비범한 일상	4,440	19.0%	2.2%

• 평가:

- 이메일 소식지를 매 월 1일(휴일이면 전일)에 모두 발송하였음.
- 이메일 소식지 가독성, 오픈율, 클릭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있음. 버튼을 없애고 사진을 누르면 바로 링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 발송 후 pdf 파일로 아카이빙 진행 중임.
- 도너스로 후원 프로그램 이관되면서 뉴스레터 주소록 정리 필요함.
- 열린터 블로그의 활동 후기 및 사업 홍보도 뉴스레터에 신고 있음.
- 담당하는 활동에 따라 후기 작성 여부의 필요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문화운동팀과 사무국에 후기 작성 업무가 치중되어 있음. 후기는 상담소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현장 스케치와 활동가의 시선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활동임. 다양한 시선이 외부에 전달되고 각 팀의 활동들이 블로그에 고루 기록될 수 있도록 다른 팀 활동가들도 후기 작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람.

4-4.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매호마다 상담소의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담소의 연간 상담통계를 공유하고 있음.
- 목표: 상담소의 활동을 기록·홍보하고,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나눔터 87호 발간(1월), 88호 발간(7월), 89호 발간 준비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 원고 청탁 및 수합
- 편집 및 편집 디자인(외주 제작), 교정
-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 반송분 처리
- 담당자: 달별(하반기), 앞(상반기)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나눔터 87호	◎ 발간일: 2021년 3월 8일

구분	진행내용		
발간	◎ 제작부수: 총 1,300부, 발송부수 : 1,087부 ◎ 담당: 신아		
	<진행 내용 : 87호 기획 및 세부 목차>		
	코너	내용	담당/필진
	표지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표지 안쪽	새대표단 취임사 “환영, 활력, 희망으로”	
	목차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① 선축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력성폭력’ 대응 활동의 의미 ② #낙태죄없는2021년 “낙태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③ “원칙보다 큰 예외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④ 나와 당신의 권리를 위한 싸움: 여성주의 자기 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 후기 ⑤ 등대지기들의 시간 :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후기	① 지리산 ② 앓 ③ 신아 ④ 신희누리 ⑤ 감이
	뭔다!상담소 (2020 하반기)		신아
	열린터 다이어리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토리
	생존자의 목소리	① True Survivor ② #미투 ③ 투고(홍보)	① WR ② 이레 ③ 신아
	성문화읽기	①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 인터뷰 ② 류호정 의원 인터뷰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야죠” ③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간을 거스르다> 온라인 전시장 오픈 그 후	① 신아/유랑 ② 오매 ③ 아오리
	시골시골상담소	① 상담소 최초 시도. ‘온라인’ 한해보내기 ② ‘동료를 인터뷰하다’ : 격월 활동가 인터뷰 후기	① 수수 ② 달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훈훈한 기부	명단	
뒷표지 안쪽	발간자료 소개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뒷표지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		

구분	진행내용		
나눔터 88호 발간	◎ 발간일: 2021년 8월 19일 ◎ 제작부수: 총 1,300부, 발송부수 : 1,104부 ◎ 담당: 얏		
	<진행 내용 : 88호 기획 및 세부 목차>		
	코너	내용	필진
	표지	-	-
	표지 안쪽	새 BI 소개	담당자
	속표지	-	
	속표지 안쪽(발간 정보)	-	담당자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 다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얏
		우리의 행진을 멈추지 말자!	달별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후기	명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세 번째 임시총회가 열리다	오매
	똥다!상담소	2021년 상반기 월별 주요 활동	담당자
	열린터 다이어리	나를 돌보는 음식 : 카레	돌고래
	생존자의 목소리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선이
	성문화읽기	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유랑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김지은
	시끌시끌 상담소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든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최란
재충전이란 무엇인가		백목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 후원방법 안내	담당자	
훈훈한 기부	주요 현물 기부 명단	담당자	
뒷표지 안쪽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홍보	담당자	
뒷표지	단톡방 십계명 새 BI 버전	담당자	

구분	진행내용				
	코너	내용	필진	분량 (A4)	
나눔터 89호 발간 준비	표지		-	-	
	표지 안쪽	활동 사진 / 기획의도	담당자	0.5	
	속표지			-	
	속표지 안쪽(발간 정보)		담당자	-	
	목차			1	
	30주년 기념	1. 슬로건/ 비전선언문		달별	1.5
		2. 30주년 기념식 스케치 /30주년 스피커들 발언 모음&영상QR코드		낙타	1.5
		3. 생존자말하기 1회 기획자 인터뷰		달별, 경진	3
		4.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전 상근활동가 인터뷰		란, 낙타	3
	성문화 읽기	1. 국방부 성폭력 사안 대응-출속으로 법개정, 내부불통 사퇴이유, 공군성폭력 2차가해		오매	2
		2.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시장화 이슈를 기준으로. 증인 억고소 등		파랑	1.5
	뭔대!상담소 (하반기) 상담통계	2021년 하반기 월별 주요 활동		담당자	1
	열린터 다이어리	주제: 나의 자립, 휴식에 대해		열린터	2
	생존자의 목소리			(투고/ 의뢰)	5
	시골시골상담소	1. 서울대 공익변호사 펠로우십 활동을 상담소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		도경	2
		2. 건물관리의 비애		사무국	1.5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 후원방법 안내 30주년 특별후원 명단		담당자	8
	훈훈한 기부	주요 현물 기부 명단		담당자	1
	뒷표지 안쪽			담당자	0.5
	뒷표지			담당자	
총 분량(A4*1.6배=나눔터 분량)				3.5 - 4 0	

- 저자 원고료 문화상품권은 작년 지출이므로 결산에서 제외함.

• 평가:

- 87호, 88호 모두 상담소의 주요 활동 및 의제를 알 수 있게 내용을 풍성하게 담았음. 88호에는 이미 마무리한 활동 후기 외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원고를 실어 계속 이어질 활동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독려함.
- 상담소의 일상을 드러내는 것과 활동 후기를 촘촘하게 담아내는 것 사이에서 적정선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매월 발행하는 뉴스레터와 반성폭력이슈리포트와 블로그 후기와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 더욱 고민이 필요함. 목차의 개편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활동 후기는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과 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87호는 친족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저자 인터뷰, 강간죄 발의한 류호정의원 인터뷰가 구성 및 내용적 측면에서 의미있었음.
- 88호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활동가, 『김지은입니다』 저자 등 외부 필진에게 원고를 요청해 상근활동가 외 상담소가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다양하게 드러냄.
- 코로나로 인하여 실물 배포 기회가 적어져서, 인쇄부수를 각 1300부로 최소화함. 비용, 보관, 환경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종이 소식지 발간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형식이나 전자책 형식 같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더 논의가 필요함.
- 불필요한 발송과 반송율을 줄여나가기 위해 연구소와 함께 반송우편물 처리 및 주소 확인 방법을 정하고, 주소가 불확실한 회원들에게 우편물 수신 여부 및 주소 확인 문자를 발송함.

4-5. 회원 참여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1. 회원 놀이터(연 2회)
 - 상반기(4월)와 하반기(11월)에 각 1회 진행
 - 비혼 여성 유언장 쓰기 워크숍,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성폭력 판결문 쓰기 워크숍 등 진행 상담소가 만나고 싶은 그룹들과의 활동 기획·추진
 - 다양한 생존자, 주변인, 페미니스트 회원들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채널(ZOOM,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
 2. 회원소모임(연중)

소모임명	성격	담당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여성주의 수다 모임	성문화운동팀 앞
내가 반한 언니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성문화운동팀 신아/달별
매서운 눈초리	2019년 기본교육 후속 법정모니터링 소모임	여성주의 상담팀 감이
싸우기위해읽는다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연구소 파이
자원활동가 소모임	반성폭력 활동 기획 및 실행	성문화운동팀 앞

• 담당자: 달별, 신아, 앞

• 진행내용:

1) 회원놀이터

구분	진행
상반기	<p>KSVRC 회원 공방 <반려식물키워볼까?> 일시: 4월 24일 토요일 2시~3시30분 장소: 온라인 ZOOM으로 진행</p> <p>-내용: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식물을 분갈이 하고 비질 씨앗을 심는 활동을 함. 자연 분해되는 코코넛껍질 화분, 씨앗, 흙이 담긴 키트를 미리 발송함. : 상담소 활동가들이 자체 진행을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고자 했으나 온라인 소통과 식물심기활동 두 가지에 모두 집중하기 불가능하여,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p>

구분	진행
	<p>을 맞추어 진행함. : 상담소의 옥상텃밭도 소개하고 조은희 활동가의 농사 지식을 전달함. 신청자: 7명 참가자: 5명 (회원 4명, 활동가 1명) (진행) 신아, 은희 (스텝) 앞, 달별</p>
하반기	<p>페미니스트 자기방어자 수다모임 <나의 자기방어 말하기> 일시: 2021년 11월 6일 14시~17시 장소: 카페 슬금슬금 내용: - 자기소개 with 자기표현카드 - 공포 굴리기 - 이야기 나눔 - 나의 자기방어자 선언 신청자: 7명 참가자: 4명(회원 2명, 비회원 2명) (진행) 앞, (스텝) 신아, 달별 *참가자 전원에게 2018 <Feminist Self-Defence for Daily Life> 자기방어훈련 티셔츠 증정</p>

2) 회원소모임

일자	내용	참석 인원	담당
여성주의 수다 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1	자유주제: 가해자의 반성, 남성 페미니스트, 사회적으로 구성된 연애 감정, 스토킹 대응 등	7	앞
2/18	자유주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느끼는 어려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억압,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분노, 성폭력 피해 이후 회복 과정, '오빠'라는 언어의 정치성 등	12	앞
3/18	자유주제: 피해자도 내면화하고 있는 성폭력 통념, 주변인으로서 답답함과 분노, 일본의 성차별 현실, 남성문화, 성매매	6	앞
4/15	자유주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 20대 남자 현상, 추천 웹툰, 무상의료와 기본소득, 채용성차별, 군대 등	6	앞
5/20	자유주제: 남성 페미니스트, 여성/소수자 관련 영화 추천,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성별권력, 탈코르셋 후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등	5	앞
6/18	자유주제: 여행, 백래시, 대학 강의 중 페미니즘 주제로 토론하면서 겪은 일, 젠더표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3	앞
7/15	자유주제: 페미니즘과 트랜스혐오, 안티페미 유투버, 성폭력 무고 신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생리컵 사용법 등	5	앞
8/19	자유주제: 백신, 도쿄올림픽, 머지포인트 사태, 더치페이, 가스라이팅,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등	5	앞
9/16	자유주제: 게임 내 여성혐오, 조직 내 성폭력 문제해결의 어려움 등	3	앞

10/21	자유주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젠더프리 캐스팅의 아쉬움, 미디어에서 다양한 여성이 노출되고 있는 변화 등	4	없
11/18	자유주제: 가치관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젠더와 섹스토크이, 여성의 나이들	5	없
12/16	자유주제: 여성인권영화제 소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여성/소수자가 부당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 등	5	없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내가반한언니>			
2/8	2021년 계획 논의	5	신아,달별
3/15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나누고 싶은 문장 읽고 이야기	6	신아,달별
4/13	보궐선거 국면을 지나며 <서프러제트> 감상하고 이야기	5	신아,달별
5/1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디스클로저> 감상하고 이야기	4	신아,달별
6/15	내가 사랑했던/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5	신아,달별
8/17	영화 <블랙위도우> 감상하고 이야기	5	신아,달별
10/13	영화 <엘르> 감상하고 이야기	4	신아,달별
11/9	올해의 땡땡 이야기 나누기	5	신아,달별
법정지원모임 <매서운 눈초리>			
4/15	공판 참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1	감이
5/4	공판 참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1	감이
자원활동가 소모임			
2/16	유튜브 활성화 방향 논의, 연대의 런데이 캠페인 홍보 논의	3	없
3/19	보궐선거 대응 유튜브 콘텐츠 제작 논의	4	없
5/3	유튜브 영상 콘텐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5	없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3/30	<아주 오래된 유죄> 읽고 토론	9	파이
4/27	<페미니즘을 퀴어링!> 읽고 토론	6	파이
5/25	<며느라기> 읽고 토론	6	파이
6/29	<멋있으면 다 언니> 읽고 토론	5	파이
7/27	<육구들> 읽고 토론	4	파이
8/31	<여성, 정치를 하다> 읽고 토론	4	파이
9/28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읽고 토론	5	파이
10/26	<동의> 읽고 토론	4	파이
11/30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읽고 토론	5	오매

• 평가:

1) 회원놀이터

- <반려 식물 키워볼까?>는 상담소의 여타 활동들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들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심과 돌봄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진행하였음. 참여자 수는 적었으나, 참여한 활동가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을 보내었음.
- <나의 자기방어 말하기>는 일상 속에서 자기방어를 실천하고 있는 여성/소수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음. 회원, 작은말하기 참여자, 자원활동가, 회원소모임 참여자 등 상담소와 일정 정도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참여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음.

- 7월 말 <우리는 매일매일> 공동체상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부득이 취소함. 상담소 활동이 잘 드러나는 영화인 만큼 향후 기회가 생기면 다시 추진해 보면 좋겠음.

2) 회원소모임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회원 소모임 활동을 지속함.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한 회원소모임 운영일지를 마련해 각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각 담당자가 스프레드시트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후기에도 정확한 날짜와 참석 인원수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함.
-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는 상반기 제작한 홍보 이미지와 매월 후기를 통해 꾸준히 참여 신청이 들어 오고 있고, 신규참여자 중 대부분이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 주로 그때그때 이슈에 관한 토론, 페미니스트 또는 생존자로서의 경험, 여성/인권 관련 콘텐츠 추천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며 매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가반한언니>는 올해 매월 기념일이나 이슈에 맞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보고 감상을 나누었음. 3년째 활동을 지속하며 각자의 활동 또는 일상으로 환류되는 비평 및 토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워크를 다졌음. 신규참여자 1명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며, 기존참여자들이 올해 초 취업함에 따라 점점 출석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점점 저조해져서 내년 활동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매서운 눈초리>는 상반기에 2회 공판 참관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직으로 인한 소모임 참여자 수 감소 등 사정으로 현재 공판 참관과 모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하반기에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소모임 홍보 및 충원 예정.
-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는 연구소 평가 참조

4-6.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리고자 함.
- 목표:
 - 코로나19 시국에서 자원활동가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함.
 -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원활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격월 1회(총5회)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담당자: 앎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자원활동신청자 모집 및 소통	- 상시 자원활동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현재 자원활동가 29명, 활동가 2인 참여 중) - 상시 자원활동 신청 확인 및 소통

구분		진행
자원활동신청자OT		3/5 김하윤 4/9 임영선, 안은혜, 윤채영 7/20 김미현, 허수빈, 장채원, 진보영, 김희원
이름		비고
1	남지민	2020.12.09.~ 2021.06.25.(주1회) 상담소 통계 분석 및 인포그래픽 작업, 열림터 업무보조 등.
2	박주현	2021.2.3.~ 12.16. 사무국 및 연구소 업무 보조
3	정은희	2021.2.16. ~ 2021.06.29. 총회 준비, 서울시장공동행동 활동보조, 안희정성폭력사건 언론대응 실무 등
4	김하윤	2021.3.5. ~ 주1회 '적극적 합의' 해외 자료 아카이빙,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속기록 보완, 친족성폭력에 맞서는 액션 워크숍 보조, 연구소 업무보조 등
5	안은혜	2021.8.2. ~ 2021.10.25. 주1회 적극적 합의 토크쇼 녹취, 30주년 기념식 녹취 등
6	김민지	2021.7.20. ~ 주1회 적극적 합의 인터뷰 녹취, 30주년 기념식 자막 제작, 후원데이터 이관 등
7	장채원	2021.11.1. ~ 주2회 상담매뉴얼 편집, 30주년 기념식 자막 한영 번역, 후원데이터 이관 등
8	권세린	2021.2.20. 연대의 런데이 홍보영상 촬영 2021.03~04 보궐선거 대응 영상 제작 등
9	양금아	2021.2.20. 연대의 런데이 홍보영상 촬영보조
10	신승은	2021.3.8. 모낙페 기자회견 발언문(현장 불참 대독)
11	예은	2021.03~04 보궐선거 대응 영상 제작
12	나영	2021.03~04 보궐선거 대응 영상 제작

• 평가:

- 상담소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주1회 이상 일상업무지원을 하는 자원활동가가 많아 큰 도움을 받았음. 각 자원활동가가 성폭력 사건 관련 언론대응, 'consent' 관련 해외 캠페인 자료 조사 및 아카이브, 행사 녹취 및 자막 제작, 사무국 또는 열림터 자료 정리, 후원데이터 이관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책임 있게 완수함.
- 상반기에는 온라인 서명운동,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때마다 자원활동가 오픈채팅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짐. 또한, 비정기적으로 자원활동가 소모임을 진행해, 자원활동가가 생각하는 그 시기의 중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활동을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함.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는 연대의 런데이 티저 영상을,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보궐 선거 어떻게 생각해?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께 말하기> 영상을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촬영, 제작함.
- 하반기에는 이미 일상지원업무를 부탁할 자원활동가가 충분한 상황에서 성문화운동팀 활동이 30주년 기념 사업 및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자원활동가들과 오픈채팅 또는 소모임을 통해 상시 소통하지는 못하였음.

4-7.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성문화운동팀의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긴밀한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익숙한 혹은 낯선 시선으로 성문화운동팀의 2021년 활동 방향, 특히 '적극적 합의'와 온라인 활동을 중점에 두고 점검함.
- 방법 및 계획: 상반기 내 1회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온라인/서면 자문회의 개최
- 담당자: 달별, 신아, 앓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정기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일시: 2021년 3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 온라인 줌 회의 - 참석자: 앓, 신아, 달별(성문화운동팀), 오매(사무국), 자문위원: 권김현영, 김다미, 김백애라, 김홍미리, 로리주희, 박현이, 배은경, 신상숙, 아오리, 허민숙 - 안건 ①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극적 합의' 사업 계획 공유 및 논의의 건, ② 성문화운동팀 비전 및 활동 방향 모색의 건, ③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건에 대한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상담소 운동의 원칙, 과제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상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행사 실시간 중계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자문 : 강유가람 자문위원 - 2월 단호한 시선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자문: 윤정원 이사 -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 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설문조사지 자문: 김백애라 자문위원, 이미경 이사 -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 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분석 글 자문: 김백애라 자문위원, 배은경 자문위원, 이미경 이사

• 평가:

- 자문회의를 통해서 적극적 합의 사업을 외부적 시선으로 보면서 당연했던 부분을 다시 보고 고민을 심화해볼 수 있는 계기였음. 적극적 합의 단어를 2017년부터 써왔는데, 자문위원들도 생소한 것이라면 일반 대중에게는 더욱 낯설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하는 것이 우선임을 확인함. 뿐만 아니라 성문화운동팀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자문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많은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한편 안건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여 3번 안건은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음.
- 자문위원 명단이 홈페이지, 총회자료집, 자문위원 명단 파일이 달라서 착오가 있었음. 다음 총회 때 명단 재확인하고 자문위원에게도 어느 팀 자문위원인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음.
- 활동 과정에서 상시 자문을 받음으로써 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2021 부설 열림터 활동 보고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p>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일상지원으로 생활인의 삶을 안정시킨다. - 교육과 모임, 홍보활동을 통해 생활인·퇴소인과 상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눈다.
<p>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상황을 유의하며 비대면모임과 물품지원 등의 새로운 방안으로 유대를 넓힌다.
<p>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의 다양한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p>팀 활동 목표</p>	
<p>목표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목표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목표4.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p>	
<p>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활동가가 신규채용되었고 한 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생활인 지원을 할 수 있었음. -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에 맞춰 다양한 정서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치유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생활인 호응도도 높았음. - 열림터 활동가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소생활인과의 소통이 용이해졌고, 퇴소자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퇴소생활인 개별면담, 또우리모임, 나눔터 “열림터 다이어리” 코너의 필자 공개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함. - 다양한 퇴소생활인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퇴소생활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함. - 열림터 시스템과 생활인 지원 현안에 대해 활동가들이 깊게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돋보이는 한 해였음. 입·퇴소가이드라인 워크숍을 통해 입·퇴소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숙지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온라인×섹슈얼리티 스터디를 통해 일상이 된 온라인공간과 청소년생활인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를 하며 촘촘한 지원방법을 모색함. - 예년에 비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초빙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상담소 활동가들과도 열림터 지원 사례를 나누면서 생활인지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생활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게 됨. - 여러 여성성폭력피해자지원생활시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활인 지원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생활시설 특성상 생활인지원이라는 현안이 압도적인 나머지, 법·제도·정책적 변화 모색에 대한 풍부한 논의나 적극적 의견개진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목표1.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열림터 특성상 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름.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정하여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목표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할 생활인들에게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구분	내용
입소의뢰	의뢰 단계에서부터 연계기관에 열림터의 생활규칙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용 공간 확보로 입소인의 수에 제한을 둠. 공동생활이 어려운 입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입·퇴소 지원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여 안전한 입소를 도움.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소 절차를 진행함.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도록 함.
생활지원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등 지급. 외식(명절,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생활상담지원	열림터 생활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별 개인 상담 진행.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돕고 사례에 따라 팀미팅 진행.
법률지원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의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학교·학습지원	사례별로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부족한 학습 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사례별로 진로 및 자립계획을 구상하는데 조력.
정서문화지원	문화누리카드 신청으로 문화생활비 사용 범위 확장.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진행내용

1. 입소의뢰

- 1) 상반기입소의뢰현황: 총 30건 중 입소 5건, 단순문의 10건, 입소면접 4건(본인 거절1, 시설거절3), 본인거절1, 시설거절8, 입소예정 1건, 입소의뢰서 대기 1건
 - 연령대: 10대(16), 20대(9), 30대 이상(4), 미상(1)
 - 파·가해자 관계: 친족(11), 온라인(5), 지인(4), 쉼터 내 입소자(3), 직장(3), 데이트관계(2), 법조인(1), 목사(1), 모르는사람(1) 등 (중복피해 있음)
 - 중복피해 파·가해자 관계: 5명{10대(2), 20(2), 30세 이상(2)}중 3명은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있음. 이외 피해사유는 친족(2), 지인(2), 직장(1), 법조인(1), 쉼터 내 입소자(1), 성매매(1)
 - 연계기관: 성폭력상담소(11), 아동보호전문기관(4), 청소년쉼터(4), 시/구청(3), 1366(2) 등
 - 입소면접 시 동행지원자를 개별면담 진행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도움.
 - 코로나19로 인한 입소인원 감축으로 거절했던 입소의뢰를 다시 받아 입소함.
 -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입소 의뢰가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연계처 안내를 위해 연계기관리스트를 만들고 입·퇴소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진행.
 - 코로나19 심각도가 낮아짐에 따라 입소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
- 2) 하반기입소의뢰현황: 총 20건 중 입소 4건(6월 의뢰1), 단순문의 11건, 본인거절2, 시설거절4
 - 연령대: 10대(11), 20대(3), 30대 이상(3), 미상(3)
 - 파·가해자 관계: 친족(11-양부2포함), 학교(2), 데이트관계(2), 서비스제공자(1), 미상(6) (중복 피해있음)
 - 중복피해 파·가해자 관계: 10대(1) 양부·학교, 20대(1) 데이트관계·미상.
 - 연계기관: 성폭력상담소(5), 아동보호전문기관(1), 시/구청(3), 1366(2), 해바라기(1), 범죄피해자지원센터(2), 경찰서(1), 학교(2), 병원(1), 개인(2)

2. 입·퇴소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입소 전에 코로나검사를 확인하여 입소인의 안전을 도모함.
-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열림터 운영과 기존 생활인 보호를 위한 입·퇴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함.

3. 생활상담지원

- 작년 하반기에 지원한 생활인 8명에 비해 상반기 지원한 생활인이 11명으로 많지만 2021.1~3월에 7명이 퇴소하여 생활상담지원 건수가 감소함.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이 다수.

4. 지원현황

	상담 지원	정서 문화 지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및 학습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자립 지원	퇴소자 지원	생활 지원	합계 (건)
상반기	152	56	49	25	97	128	1	13	439	147	1,107
하반기	225	68	32	39	224	314	3	4	266	260	1,433

- 지원현황의 구체화를 위해 2021년부터 직업훈련 및 자립 지원을 각각 분리함

• 평가

1. 입소의뢰

-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입소의뢰건수 동일하지만 입소인원이 적음. 이것은 본인의 입소의사보다 지원자의 입소권유가 큰 경우였고 동행지원자를 개별면담하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입소거절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
- 입소면접 후 본인거절사유는 개인일정상 열림터 규칙을 지키기 어려움, 타 쉼터가 본인 정서에 더 맞는 경우. 시설거절 사유는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정신증, 장애가 다수.

- 상반기 입소면접 전 시설거절 사유는 연령차(3), 장애(3), 가해자(1), 성매매지원연계(1)
- 하반기 입소면접 전 시설거절 사유 4건 중 3건은 입소인원 만원으로 10월 중순 입소 가능할 것임을 안내함. 입소면접 후 입소하지 않은 사례가 없음. 개인이 직접 문의한 사례있어 기관연계만 가능하므로 상담소에서 상담 후 기관측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입·퇴소지원

-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입소인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소기간(1개월)동안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원방법을 권유하기로 함.
- 또우리모임과 또우리풀썩기금으로 퇴소 후 지속적으로 교류함.

3. 생활상담지원

- 생활인들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열림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심신회복에 도움이 됨.
-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 코로나19로 인해 외박·외출이 종전처럼 자유롭지 않아 생활인의 불만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적인 위기사항이므로 코로나19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박·외출 및 밀집시설 방문자제, 손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음.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외출을 자유롭게 하여 답답함을 해소함.

4. 지원현황

- 상반기에 입소인원이 감소하여 퇴소자지원 외 지원 건수가 대체로 감소함. 크게 증가한 건은 퇴소자지원으로 입소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퇴소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함.
- 하반기에 입소인원이 증가하여 퇴소자지원은 감소되고 의료, 학교 및 학습, 생활지원이 크게 증가함.

1-2. 입·퇴소 가이드라인 워크숍

- 배경/필요성 : ① 현재 입소 상담을 하고 입소여부 판단에 필요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음 ② 최근 들어 타인과 소통이 어려워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생활인들의 입소가 증가했고, 다른 생활인과 활동가를 공격하는 상황도 발생함. ③ 입소의의를 받고 입소를 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 열림터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를 확립함.
- 방법 및 계획 :

회기	시기	내용
1회기	1월21일	2020년 입소의의 자료 분석 및 계획 수립
2회기	2월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3회기	3월	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공유 및 자문
4회기	4월	상근활동가와 가이드라인 작업 공유 및 논의
5회기	4월	가이드라인에 대한 객관성 논의 후 가이드라인 완성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진행내용:

회기	시기	내용
1회기	2월10일	2020년 입소의의 자료 분석
2회기	3월15일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3회기	3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4회기	4월7일	활동가 매뉴얼 작업
5회기	4월21일	매뉴얼 초안 전체 활동가 공유 및 자문
6회기	6월 16일	운영위원회 공유 및 수정의견 자문

7회기	7월~	완성후 열림터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

• 평가:

- 입소와 퇴소에 관련되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이전에는 열림터의 상황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았으나 매뉴얼을 만들면서 활동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어 입·퇴소에 따른 활동가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열림터 생활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신입활동가의 불안도를 낮출 수 있고 활동가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음.
- 상담소 활동가들과도 함께 공유하여 생활인 및 열림터 활동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열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음.

1-3.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① (자기방어훈련) 입소 전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생활인들의 위기상황대처 능력 계발과,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회복이 필요함. ② (성교육) 페미니즘 관점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③ (심신회복캠프)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자기방어훈련, 성교육,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자기방어훈련(위팅업스포츠) : 상반기 강의 15회기 진행.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대일 수업 진행.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하반기 개별 교육 각 6회기 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 심신회복캠프 : 하반기 진행 예정하되,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하지 않을 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경제교육/유스크리에이팅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예산 변경 예정.
- 담당자 : 수수
- 진행내용

1) 성교육

회	일시	주제	내용
생활인 A			
1	2/2	성교육 욕구 살펴보기	- 주제 관심 파악과 경험 살펴보기
2	2/9	젠더와 성차별	- 성차별의 이해
3	2/16	성차별과 나이차별	- 경험에서 이해하는 성차별과 나이차별의 관계
4	2/23	차별과 폭력의 관계	- 친밀한 관계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 살펴보기
5	3/7	친밀성과 연애	- 연애에 대한 기대와 욕망 점검 - 평등한 관계 맺기를 살펴보기
6	3/21	성인식 점검	- 페미니즘 관점에 성 바라보기
생활인 B			
1	3/13	성교육 욕구 살펴보기	- 주제 관심 파악과 경험 살펴보기
2	3/20	인권에서의 존엄 개념과 문제인식	- 인권·존엄 개념과 역사
3	3/27	존엄의 침해 : 존재부정, 대상화	- 경험으로 이해하는 존엄 침해 장면
4	4/3	존엄의 침해, 차별	- 존엄과 차별의 관계, 성차별의 문제

5	4/7	존엄에 대한 공격 : 폭력	- 차별과 혐오, 폭력의 관계성 - 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
6	4/16	젠더와 성차별,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 경험으로 이해하는 젠더와 성차별
7	4/21	젠더와 섹슈얼리티 연애	-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연결성 -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해
8	5/7	성지식 점검 및 성폭력 이해	-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지식 점검 - 성폭력 고정관념 다시 보기
생활인 C			
1	4/7	성교육 욕구 살펴보기	- 주제 관심 파악과 경험 살펴보기
2	4/16	성지식 점검	- 성/섹스하면 떠오르는 단어 적어보기. - 성지식 관련 단어 설명하기
3	4/22	성 인식 살펴보기	-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지식 설명
4	5/7	젠더와 성차별	-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 개념
5	5/21	섹슈얼리티	- 젠더 이분법의 한계 - 다양한 성적지향과 다양성 존중
6	6/5	성폭력의 이해	- 성폭력 고정관념 다시 보기
생활인 D			
1	9/4	성교육 욕구 살펴보기	- 주제 관심 파악과 경험 살펴보기
2	9/11	존엄과 나의 삶	- 나의 삶과 존엄의 문제를 연결하기
3	9/18	나이차별 :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 청소년 인권의 이해 - 나의 경험에서 나이 차별 찾아보기
4	10/2	나이차별 & 성차별	- 나이와 성차별의 관계를 살펴보기 - 차별에 대한 소수자들의 문제제기와 그 변화
5	10/16	성차별과 페미니즘	-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경험과 연결하기 -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차별의 문제
6	10/23	성지식 점검	-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관념 비판하기 피임 등 성지식 점검하기

2) 자기방어훈련

회	일시	주제	내용	참여자
1	4/3	파워업은 무엇인가	- 자신을 지키는 파워업 - 운동 전 나의 모습(상황,감정,기분) 그리기 - 몸풀기: 달리기, 사이드스텝 - 친해지길 바래: 가위바위보 게임 (팔벌려뛰기,팔굽혀펴기,뒷몸일으키기) - 상대와의 거리두기: 기본 쉬림프동작, 다리왔다갔다 동작(바닥에서, 상대골반을 집으면서) - 운동 후 달라진 나의 모습(상황,감정,기분) 그리기	3인
2	4/10	상황판단에 대한 이해 낙법의 필요성	- 운동 전 나의 신체 상태 체크 - 말이 바뀐 얼음땡 놀이: 하지마&고마워/싫어&좋아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 가위바위보 뛰기 - 상황판단: 줄 피하기 - 낙법의 필요성: 후방낙법,측방낙법 - 상대와 거리두기: 상대가 밀었을 때 낙법 후 방어 하면서 일어나기 - 운동 후 달라진 나의 신체상태 체크 	
3	4/17	거리두기와 클로즈가드(상대를 묶어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바이오리듬: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 쉬림프 빨리 가기 게임 - 가위바위보 기초체력 기르기 - 넘어진 상황에서 상대와 거리두기 연습 (밀에서) - 넘어진 상황에서 상대가 펀치를 하려고 했을 때 상대를 묶어놓고 공격하기 (클로즈가드 상황에서 암 트라이앵글) - 운동 후 나의 바이오리듬은? 	2인
4	5/1	상대에게 제압당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바이오리듬: 컨디션이 쥔 좋았던 때는? - 말이 바뀐 얼음땡 놀이: 하지마&고마워/싫어&좋아 - 골반컨트롤 하면서 거리두기 복습 - 상대에게 제압당했을 때 (사이드포지션) 방어하기 - 드릴 빨리하기 - 운동 후 나의 바이오리듬은 어떻게 되었을까? 	2인
5	5/8	상대방이 제압 시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힘들었던 점 듣기 싫은 말: 예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상대방이 제압시(주짓수에서 마운트 포지션) : 쉬림프 동작으로 탈출, 브릿지를 통한 탈출 - 스트레칭 	2인
6	5/15	실전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은? - 워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을 트랙처럼 달리기 - 스프린트달리기 게임 - 실전 태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겨룸새와 스텝 익히기 - 양손 가드와 보폭 유지하며 걷기 - 기본 앞지르기 동작 익히기 - 앞차기(기본동작), 파트너와 미트차기 	2인
7	5/22	기본 주먹 지르기과 앞차기, 돌려차기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가사와 마음에 들었던 이유 나누기 - 워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움직임 따라하기 - 왕복 달리기 - 앞차기, 돌려차기 복습 - 미트를 이용하여 차는 감각 익히기 - 발차기와 함께 지르기 배우기(사각백) 	3인
8	5/29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간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분 명상: 깊은 호흡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 보기 	2인

		방어 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밍업 게임: - 스텝 응용: 태권도 스텝을 활용해, 두 명씩 짝을 지어 어깨를 먼저 탭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 V스피드 트레이닝 - 방어/반격기로서 앞밀어차기 배우기 - 바깥막기 - 10초 근력운동 	
9	6/5	피하기, 효과적인 반격하기(하단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밍업 게임: 피하기 기술에 필요한 순간 반응 능력과 관련된 준비 운동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신호에 따라 자세를 바꾸며 도장 달리기 - 피하기: 젖혀 피하기 (몸을 뒤로 젖혀 얼굴로 오는 공격을 피하기) - 하단차기: 피하고난 뒤, 바로 상대방의 무릎 뒤쪽을 돌려차기로 차서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 연습: - 파트너와 짝을 지어 피하기 연습 - 파트너를 교체해가며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하단 돌려차기 연습 	2인
10	6/12	익힌 기술 사용해보기 (실전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밍업 게임: - 플라이오메트릭 서킷 - 8자 달리기 - 그동안 배웠던 기술을 활용해 겨루기: - 지르기, 앞차기, 돌려차기 등 기본동작 복습 - 움직이는 샌드백 이벤트: 강사가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참여자는 그동안 배운 모든 동작을 활용해 강사에게 총공격을 가한다 - 노컨택 스파링(서로 공격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공방을 하는 겨루기) 	2인
11	6/19	호신술 배우기 (손목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런 달리기: 왕복지구력 달리기 49회 - 스트레칭 - 주먹지르기, 몸통/얼굴/아래막기 - 발차기-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뒷차기 - 품새연습 1~6장 - 호신술: 손목빼기 - 2인1조 : 안손목, 바깥손목, 목살 - 명상 	1인
12	6/26	호신술 배우기 (목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달리기 30개 - 스트레칭 - 주먹지르기, 몸통/얼굴/아래막기 - 발차기-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뒷차기 - 품새연습 1~7장 - 호신술: 손목빼기 (반복연습) - 2인1조 :안손목, 바깥손목, 목살 - 명상 	2인

13	7/3	상대방 제압하기 (테이크다운-상대를 넘어뜨리기)	- 체조 - 기초체력 달리기 - 폼롤러를 이용한 근육풀기 -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고 도망가기: 테이크다운-더블렉에서 싱글렉 - 낙법 익히기 - 스트레칭	2인
14	7/10	야외활동 패들보드	- 패들보드 이론 강의 및 수중 안전교육 - 준비 운동 - 패들보드 기초 - 패들링으로 이동 - 패들보드 명상 - 패들링 연습-자유시간	3인
15	7/17	수료식		3인

3) 심신회복캠프

일시	장소	내용	참여인원
10/9	강원도 평창 리조트	- 워터파크 물놀이 - 글램핑 바비큐 - 리조트 액티비티 (1)	5인
10/10	강원도 평창 리조트	- 조식뷔페 - 리조트 액티비티 (2)	5인

• 평가

1) 성교육:

- 성교육 진행 과정동안 수시로 강사와 소통하며 교육 방향을 의논하였으며, 이후 개별 평가 회의를 하여 생활인 지원에 도움이 되게 함.
- 작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교육 회기를 연장하여 생활인들의 욕구에 맞추었음.
- 같은 강사가 열림터에서 5년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림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교육 방향 설계와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2) 자기방어훈련

- 매 수업마다 주강사와 보조강사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일대일 훈련이 가능했음. 덕분에 매 수업마다 자신이 가진 체력 100%를 사용할 수 있었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됨.
- 자기방어, 주짓수, 태권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해볼 수 있었으며 수업의 전문성 역시 높았음.
- 수업 시작 전과 후에 현재 감정과 몸 상태를 체크하는 다양한 내용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자신의 몸경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또 수업마다 게임을 활용한 체력증진프로그램이 많이 배치되어 생활인들의 흥미도도 높았음. 하지만 몇몇 수업에서는 체력증진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고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수업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아쉬웠음.
- 상반기 입소 생활인 수가 너무 적어 집단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활동가들이 매 수업에 참여자로 참여하였음.
- 치료회복프로그램 회계 기준 상 보조강사의 강사비 지급이 불가능하여 강사진과 사전 논의를 거쳐 양해를 구함. 그러나 적절한 강사비 지급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2022년 프로그램 운영지침에는 강사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함.

3) 심신회복캠프

- 코로나19로 여행지가 제한되어 생활인 대상 캠프 공모전을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사전에 어떤 테마의 캠프를 가고 싶은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반영함.
- 생활인과 활동가가 여유롭게 신나게 놀며 즐거운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음.
- 예상보다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예약했던 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이 아쉬움.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사전답사를 진행하여 교통 상황, 기타 놀거리를 미리 파악하면 좋겠음.
- 참여 생활인 5인 중 2인은 후기 글을 작성해주었으며, 이를 열림터 블로그에 게시함. 나머지 생활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버스가 너무 길었고 재밌긴 했는데 시간이 적었고 너무 멀었다. 다음에도 호텔을 갔으면 좋겠다.
- 1박2일동안 그동안 오래 가보지 못한 곳들을 갈 수 있어 좋았고 모든 열림터 생활인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즐겁게 놀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캠프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1박2일이 되었습니다.

1-4.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
 - 생활인들이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예방함.
 -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
- 목표 :
 - (1) 공동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지켜 나가야할 약속과 규정 이해
 - (2)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 바라보기
 - (3)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 증진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진행하며 마지막 5회기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발표하고 평가의 시간을 마련함.
 - 교육 진행 전에 사전미팅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 진행에 대해 효율성을 증진함.
- 상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목련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란
3회기	여성주의란?	주리
4회기	디지털성폭력	감이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하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신아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오매
3회기	여성주의란?	파이
4회기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얏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 담당자 : 조은희

• 진행내용:

1) 상반기

회기	일자	주제	강사	참여인원
사전회의	4/26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란, 백목련, 감이, 주리, 은희	
1회기	5/3	이 공간의 약속	백목련	2인
2회기	5/10	상담소의 역사, 활동	란	2인
3회기	5/17	여성주의란?	주리	2인
4회기	5/24	디지털성폭력	감이	2인
5회기	5/31	정리 및 평가	은희	2인

2) 하반기

회기	일자	주제	강사	참여인원
사전회의	10/26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오매, 파이, 앎, 신아, 은희	
1회기	11/8	상담소의 역사, 활동	앎	5인
2회기	11/15	여성주의와 이 공간의 약속	오매	5인
3회기	11/22	여성들의 협력과 연대	오매	5인
4회기	11/29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신아	5인
5회기	12/6	정리 및 평가	은희	5인

• 평가:

[생활인평가]

- 혼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고 그런 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닮고 싶었음.
- 적별남을 응징하기 위한 지하철 캠페인 얘기 등 현실적인 얘기들이 통쾌하였음.
- 상담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음.
- 수업 장소와 대상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이 너무나 잘 느껴졌음.
-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음.
- 평가하면서 한번 더 나누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음.
- 일상에서는 쉽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스스로도 모르게 강요된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

[활동가 평가]

- 생활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생활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홍보와 의미를 사전에 전달하는 준비가 부족하였음.
- 생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교육상황에서 생활인이 불편함을 느꼈고 강사와 생활인 모두 당황하는 시간이 있었음. 피해 상황에 대한 섬세한 안내와 작업이 부족하였음.
- 하반기 교육에서는 좀 더 촘촘한 사전회의를 거쳐 진행하였고 활동가들의 준비와 열정이 돋보였음.
- 생활인들이 상담소의 활동과 이슈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성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였음.

1-5.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① 공동생활공간인 열림터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과 청결한 환경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자신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생활인들 대부분이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강 저해의 위험이 있고,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는 영양불균형 및 비위생적인 식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함. ③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④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개인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생활인과 함께 주제를 탐색한 후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하여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안전교육: 연간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재난체험 1회 진행.
- 화재예방교육 : 격월 1회.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
- 생명존중교육 : 연간 2회(상반기 : 지희, 하반기 : 은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하반기만 시행. 열림터 내의 자해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 진행내용

일자	진행내용	참여인원
1/28	개인위생 : 건강하게 겨울나기	3인
2/18	화재예방교육	3인
3/11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4인
4/28	화재예방교육	2인
5/21	여름철 식생활 관리	2인
6/18	화재예방교육	2인
7/11	생명존중교육	3인
8/5,6,7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온라인 안전체험	4인
9/29	분리배출 모의고사	5인
10/29	화재예방교육	5인
11/16	베이킹소다 활용법과 주방청소	6인
11/24	쉼터 비밀유지 교육	5인

• 평가

- 환경·식생활교육: 계절마다 주의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알고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시 한 번 환기하는 시간이었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헛갈리는 분리배출 다시금 정리. 모르는 걸 알게 되어 좋았다는 평가 피피티에 첨부된 사진 화질과 세균을 귀엽게 표현한 그림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분리배출 모의고사를 통해 재미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평가 모의고사는 좀 아니라는 평이 있었음. 친환경 세제인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다양한 청소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음.
- 안전교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보라매안전체험관이 운영되지 않고 2분기부터 온라인 체험으로 대체되었으나 시간대가 주중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만 진행되어 생활인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예약의 어려움도 있었음. 또 온라인으로 재난체험을 하는 것이어서 '체험'의 실효성 부족.
- 화재예방교육: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 대피요령 등을 습득하는 시간.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관심을 높여보려 하였으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주의 사항과 대피요령 내용에 조금씩 흥미를 잃고 지겨워하는 모습. 그래도 화재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시간이었음. 완강기 사용법을 직접 익혀보는 훈련도 필요해 보임.
- 생명존중교육: 상반기 미시행. 자해행동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함. 위기상황이 일상화되는만큼,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내년에는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자해자살관련 전문가 섭외를 모색해볼 필요 있음.
- 심터 비밀유지 교육: 평소 교육을 진행하던 거실이 아니라 이안젤라홀에서 진행하여 경청하는 태도를 보임
- 열림터가 비밀시설인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음. 위치 노출 사례를 정리해서 생활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다시금 짚어보았음.
-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위치노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위치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인의 외출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기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금 더 펼쳐놓고 토론해 보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 올해는 열림터의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있어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었음
- 내년에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위치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어놓고 토론하며 바운더리를 정해보는 것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

1-6. 생활인 운영평가·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배경/필요성 : ①매주 생활인 주도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호건 의의 이루어지고 있음. ②열림터 운영 전반에도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반기 열림터 생활인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생활규칙개정에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생활인 운영평가 : 7월, 1월 1회씩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
 -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7월, 1월 1회씩 진행. ① 생활규칙 변경 논의 및 워크시트 배부 , ② 열림터 업무회의 논의, ③ 가족회의에 변경 생활규칙 안내.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진행내용

일자	진행내용	참여인원
6/13	상반기 생활인운영평가 진행	2인
6/20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 및 방바꾸기 의견 수렴	2인
6/27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안 공지	2인
1월	하반기 생활인운영평가 진행	진행예정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 및 방바꾸기 의견 수렴	
	2022년 상반기 생활규칙 변경안 공지	

- 1) 생활인운영평가: 열림터 운영 중 6개 항목(생활환경, 열림터운영, 인권침해, 상담지원, 학습지원, 자립지원, 취미여가지원)에 대한 생활인들의 평가를 받음. 평가는 익명 설문지 형식으로 취합함.
-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현행 생활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3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함. 의견은 활동지 형식으로 취합함.

• 평가

1) 생활인운영평가

- 총평: 열림터 운영상 생활인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도 간혹 어떤 이유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활동가들이 분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설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활환경: 예년에 비해 기본적인 생필품에 관한 평가가 급격히 하락함. 2016년부터 동결 상태였던 생활인 의류비 지원금액을 확충하고, 속옷 등 필수유류 구입은 의류비와 별도로 활동가와 논의 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함. 음식에 관한 평가도 매우 낮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식생활도움활동가의 방문이 불가능해져 오랜 기간 배달반찬으로 식단표를 구성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생활환경 평가 중 생활규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생활인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는 상황이 반영된 평가로 보임.

- 열림터운영: 열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 비해 높은 편임. ‘생활인-활동가 간의 소통’과 관련한 여러 항목들이 평균 상을 기록하여, 생활인-활동가 간에 적절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열림터 프로그램 사전공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고, 하반기 운영 때 유의할 필요 있겠음.
- 인권침해: ‘방 배치의 변화, 담당 활동가 교체, 룸메 변동이 있을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적이 있나요?’ 란 질문에 1개의 ‘네’ 응답이 기록되었으나, 현재 방 배치나 담당 활동가, 룸메 변동이 없었으며, 특히 생활인 감소로 인해 1인 1실을 사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체크했는지 파악이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나요?’ 는 2019년에도 해당되었는데, 당시 샤워실 칸막이가 반투명했기 때문이라 판단해 불투명 칸막이로 교체한 바 있었음. 개별 샤워실이 존재하지만, 탈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샤워실 문을 잠글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하였을 것이라 추측함. 외부소통권 보장에 관한 3개 질문에 각 1개씩의 답변을 받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외박 제한으로 생활인들의 외부소통권 보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공동생활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부방역지침이 전달되는지라, 전염병과 시설 생활인 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올해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데, 이 지점 때문에 외부 통신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정됨. 작년에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던 시설 생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함.
- 상담지원: 현재 열림터 생활인 모두 자해/자살위험이 높아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지원이 필수적임. 상담을 가기 싫어하는 생활인이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생활인의 욕구에 맞는 상담 형태로 연계함. 상담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점수는 높으나, 상담 만족도와 관련한 점수는 평균을 넘는 것이 다 행임.
- 학습지원: 학생인 생활인의 경우 학습지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직장인 생활인의 경우 학습지원에 흥미를 느끼는 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자립지원: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주거 관련 정보 안내와 퇴소지원금의 존재가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취미여가지원: 취미여가지원의 경우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열림터에 와서 하게 되었다고 답변 경우가 많았음.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소개하여 생활인들의 경험의 폭을 넓힐 필요가 느껴짐.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통해 (1)현행 생활규칙 변경방향, (2)생활규칙 변경 시 일어날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 (3)이에 대한 보완점을 작성하도록 하여 생활인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촉진했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목표2. 퇴소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①친족성폭력 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퇴소 이후 안정적 자립

이 어려우므로 개별적인 열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② 타기관연계 시 지속적인 약물치료비용,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률지원, 타시설 연계등의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움.

• 방법 및 계획 :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대학학자금 지원: 대학합격 시 등록금 일부 지원.(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 퇴소자립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20만원)

- 개인면담 : 필요시

- 약물처방비용지원 : 시설연계 퇴소 시 의료지원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물치료 비용지원

- 법률지원 : 퇴소이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 물품지원 : 연간 1회이상 물품지원을 시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진행내용 : 개인면담 14+3건, 퇴소자택배발송 6건, 대학장학금2+2건, 생계급여환급1건, 퇴소인터뷰1건, 공판모니터링1건, 진술동행1건, 정신과약제비지원1건, 의견서제출1건, 출산축하선물1건, 퇴소자자기방어훈련참가지원1건, 특별위문금(2018~2020) 15명 930,800원, 퇴소지원금(국고)1인 500만원지원, 추석맞이 물품지원 39명 3,190,580원

항목	내역	건수
개인면담	개인면담, 퇴소인터뷰, 프로그램참가	17
자립생활지원비	택배발송, 출산축하선물	8
대학입학지원금	대학장학금	4
의료법률부대비용	공판모니터링, 진술동행, 정신과약제비, 의견서제출	4
특별위문금	2018~2020년도 미지급 특별위문금	15
퇴소지원금	국고지원 퇴소지원금	1
Go! 261 Fund	여성신문사기금지원'일상회복'	1
청소년 성인지감수성업(up)업(up)!! 청소년 지원 『토닥토닥』	성폭력피해청소년 치유회복 지원금(운전면허시험 교습비)	1
물품지원	추석맞이 물품지원	39
계		90

• 평가

- 예전 활동가가 열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그 당시 생활했던 퇴소자들과 교류가 원활하게 됨. 기존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퇴소자들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개인면담이 활발하게 진행됨. 하반기 코로나단계강화로 인해 개인면담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으나 점차 개인면담이 재개되고 있음.

- 연락이 유지되던 퇴소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대학입학금 지원이 용이하게 지급되었음.

- 퇴소자가 열림터 자기방어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퇴소자지원을 하기로 함.

- 공판모니터링, 진술동행, 의견서제출 등 법률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됨.

- 퇴소 이후의 의료지원공백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소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

- 퇴소 전 병원입원기간동안의 생계급여금액을 개인으로 환급함.

- 퇴소생활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자원(여성신문사 기금 Go! 261 Fund, 서대문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지원토닥토닥)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퇴소생활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함.

- 2018~2020까지의 생계비에 포함된 특별위문금을 개인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했던 퇴소자 15명에게 930,800원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4월에 일괄 지급함.
- 작년(22명) 훨씬 많은 39명의 또우리들이 물품지원을 신청하였고 잘 받았다는 연락을 줌. 물품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의견을 받아 물품을 선정하였음.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 ①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② 열림터에서 퇴소생활인(또우리)들의 친밀감과 유대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③ 성폭력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생활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고충, 피해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와 연대를 꾀할 장이 필요함.
- 목표 : 또우리, 전·현 활동가들이 함께 또우리모임을 진행한다.
- 방법 및 계획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10월 말)
 - 또우리모임 실행 (3, 5, 7, 11월 평가계획 모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에 또우리모임을 계속 취소한 바 있기에, 2021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모임의 방식을 계획할 필요 있음.
- 담당자 : 수수
- 진행내용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진행	참여인원
3/26 (금)	19:00 ~	온라인	- 원격식사모임 - 코로나 시대의 근황 공유 - 주제별 수다떨기	수수	또우리 12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2인
5/28 (금)	19:00 ~	온라인	- 안부나누기 - 친족성폭력공소시효전면폐지 경기1인시위 공유 - 주제별 수다떨기 1. 첫 독립, 첫 자취 2.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 3. 요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 또우리오픈카톡방 개설	지희	또우리 9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3인
7/30 (금)	19:00 ~	온라인	- 마음열기: 나의 물놀이 관련 에피소드 - 의견받아요: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 - 다 같이 하는 온라인 수영게임 - 주제별 수다떨기: 1. 최근 혼내주고 싶은 사람 뒷담까지 2. 솔직히 이거 자랑하고 싶다!! 3. 요즘 나의 걱정거리	은희	또우리 13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3인
11/26 (금)	19:00 ~	온라인	- 마음열기: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 의견받아요: 오늘 참여하고픈 이야기모임은? - 도전! 열림터 골든벨! - 주제별 수다떨기: 1. 올해의 '잘 샀다'	낙타	또우리 6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3인

			2. 올해의 '잘 한 일'		
			3. 올해의 '후회'		

• 평가

- 코로나로 인해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또우리모임을 진행함. 온라인 모임이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또우리들이 있어 아쉬웠지만,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짧은 시간만 낼 수 있는 또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이었음.
- 초기 모임에서는 온라인 특성상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거나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으나, 참여한 또우리들의 의견을 받아 점점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모임의 재미와 유쾌함을 확보하였고, 대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
- 또우리모임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립정보, 상담소활동, 주거지원정보를 나누었으며 많은 또우리들이 관심을 보였음.
- 총괄과 사회를 한 담당자가 맡았는데, 사회를 보면서 참여 문의를 받느라 진행이 다소 어수선했음. 5월 모임부터는 총괄과 사회를 별도 활동가가 담당하여 이 지점을 개선함.
- 온라인모임이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참여자에게 음식배달비나 식재료 구입 실비를 지급함. 덕분에 각자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모임에 참여하였고, 다 같이 음식을 나눠먹는 느낌도 낼 수 있었음. 식비지급에 필요한 현금영수증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또우리들이 있어 사전에 상세한 안내를 했으며, 그럼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또우리에게는 열림터에서 해당 또우리의 주소를 받아 대신 배달주문을 하였음.
- 또우리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오픈카톡방을 개설함. 같은 시기에 함께 생활했으나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또우리들이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음.
- 모임이 끝나고 구글 설문지 기능을 이용해 참여자 평가를 받았으며, 또우리들의 평가 의견을 통해 모임 운영을 개선할 수 있었음.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3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비지원과 코로나를 신경써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했다는 점! - 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식사비를 지원받은 것, 자유롭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환영받는 자리였던 것, 좋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나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확인한 것 - 모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 배울 점이 있어서 좋았다 - 메뉴선택의 자유로움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더 어색하고 말 사이에 공백이 많은 것 같았다 - 처음에 인사할 때 어수선했어서 새로 본 사람들과 더 많이 인사하고 알지 못한 것 - 먼가 실제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색한 점이 많고 미션이라던가 게임 못해서 아쉬웠어요 - 오디오가 너무 겹치는 것?? - 인터넷 장애 + 어색한 분위기...ㅎ
다음 또우리모임 땀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알고있는 팁 공유하기 ! 장기자랑 ! - 인사하기 친해지기 고민이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 게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1시간은 다같이 이야기 하고 1시간은 4-5명씩 방을 파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음에는 소회의실로 또 묶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우리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공간 만들기, 어땠으면 좋겠어요?	- 카톡에서 오픈채팅 방을 만들어서 신상을 밝히지 않고도 서로 채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공기계라서 카톡이 안되는 또우리분도 있으려나요,, - 밴드 어떨까요 아님 네이버 카페나 카톡도 좋을 것 같아요. - 만들자 - 저는 카톡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ㅎㅎ
열린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	- 감사합니다♡ - 좀더 많은 모임을 가지면 좋겠어요 - 폴짝기금부터, 이렇게 연대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고맙고 또 저도 그렇게 먼저 손뼉고 유대에 대한 좋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걸 늘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 서로에 대한 얘기 나눔 - 시간이 정해져있다 - 오랫동안 하게 된 모임이라 모임 자체로 좋았어요. - 소통모임 - 자기속 - 관심 있는 주제로 소통할수 있다는 것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 없당 - 먼가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줌으로 하다보니 대화가 끊기고 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 온라인이라서 아쉽 - 줌이여서 좀 아쉽다 나는 카메라빨이 안받는사람이라 슬프다ㅠ그리고 모여서 소모임주제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는거 너무 짧다! - 참석인원이 적은것
다음 또우리모임 땐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 음 쌤들이 노래 불러주는거 ?? - 만들기 이런거 - 이런저런 게임과 소통이 많았음 좋겠다. - 음 잘모르겠지만 선물같은거 랜덤돌리기해도 재밌을꺼같다. - 여름기념 사이버 물놀이
열린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	- 사랑해요 - 약간 비용이 늘었으면 좋겠어용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설마..있으려나?! 있다. 정신적,물질적,공간적 등등 다양한 버팀목이 되어준 열린터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빨리 모든일이 속행되었으면한다! 그리고 열린터에서 만난 인연들도 모두 소중한다! 모두에게 도움을 준 열린터는 상담소와 함께 우리같은피해자들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보면 여가부폐지,메갈,폴페미 등등 뭐라고 욕을해서 보기 अच्छ다. 그런거보고 주눅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사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가부폐지 이런말은 많이 슬프다. 상담소도 슬플것이다.. 그치만 더 당당하자 위상을 떨쳐주자! 그리고 말투 숨기느라 힘들었다. 고맙다

	:)
7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 본 게임 - 캐롤의 입담, 이전 모임보다 훨씬 스무스해진 진행력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 소모임 시간 - 수영게임 2등하는 저의 손가락
다음 또우리모임 땐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 올해 내가 잘한 일 나누기
열림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	- 히히 감사합니다♥□ - 기획해주시고 진행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u—u(꾸벅!)
11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 퀴즈 - 다 재밌었지만! 골든벨퀴즈요! - 서로 근황 토크 및 퀴즈를 통한 자립, 주거 등의 정보 얻기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 퀴즈 - 비대면인게 제일 아쉬웠어요ㅜㅜ - 없었습니다!
다음 또우리모임 땐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 작은운동회 - 열림터에서 나온지 오래되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당 1박2일로 캠프하고싶어요ㅋㅋ -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각오 나누기!
열림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	- 없습니당 - 매년 행사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 항상 감사합니다♥

2-3. 퇴소자지원기금 “또우리폴짝기금” 운영

•배경/필요성 : ①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피해를 경험 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② 기댈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부재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삶의 불안정성을 강화함. ③ 또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립 과정의 불안정성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목표 :

- (1)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
- (2)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심터 퇴소생활인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림터 퇴소생활인들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 1회 지원선정 시 이듬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 당해연도 폴짝기금참여자 발표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

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외화하고,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생활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4월	- 홍보 및 모집	
5월 중순	- 지원대상 발표 - 폴짝기금참여자 사전인터뷰	개별 진행
6월 ~ 10월	- 폴짝기금 사용기간	
11월	- 폴짝기금참여자 평가인터뷰	집단/개별 진행 고민 필요함.

• 담당자 : 수수, 조은희

• 진행내용

일자	진행내용	
3월	- 3/26 홍보 시작	
4월	- 기금 참여자 모집	
5월	- 선정자 발표 - 선정된 또우리 10인과 개별 사전인터뷰	
6월	- 기금 지급 - 사전인터뷰 온라인 발행	
	발행일	인터뷰 제목
	06/01	(폴짝기금) ‘드디어 나에게도 왔다!’ 자립의 과정을 거치는 마미
	06/01	‘소송 과정을 다 마무리 짓고 나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긴 진주
	06/07	‘서럽지 않은 집,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직장,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은서
	06/10	열린터를 떠나 빵을 만들며 여행을 준비하는 당근
	06/22	모든 학박청(학교박청소년)들과 연대하는 토리
	07/06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않아도 돼” 버팀목의 필요성을 말하는 은이
	08/09	다른 생존자들과 연결된 끈이 되어주고 싶은 만두
	08/16	지하철에 구겨져서 출근하지만, 재밌게 일하고 있다는 정이
	08/23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이걸 깨닫고 놀라웠어요” 도전하는 율이
08/30	‘외로울 때는 움직여야 한다’, 운전면허를 따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는 구구	
7월~10월	- 기금 사용 관련 문의 응대	
11월	- 영수증 제출 독려 - 11/28 폴짝기금 평가모임 진행 (온라인, 6인 참여) - 모임 비참여자 대상 서면평가 수합 (4인)	

• 평가

- 작년에는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었으나, 올해는 참여자 모집 기간을 1개월로 늘린 덕분인지 작년보다 많은 인원(10인)이 신청하여 계획대로 10인을 기금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었음.

- 풀짜기금을 안내하며 그간 연락이 끊겼던 또우리들과도 새롭게 연결될 수 있었고,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근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었음.
- 풀짜기금 사용은 꼭 '나를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단서 덕분인지, 또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규모 있는 예산 계획과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기금 신청을 독려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 '쓸 곳이 없다'고 거절하는 또우리들이 있어 안타까웠음. 작년에 같은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기력이 나서 신청했다는 기금참여자도 있어 매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음.
- 기금참여자 사전인터뷰를 통해 기금 사용 방법을 세밀하게 안내할 수 있었음. 올해는 시설 퇴소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또우리들의 제언을 받는 질문을 새롭게 배치했음. '주거', '생계', '관계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추후 또우리지원 시 고려할 필요 있음.
- 올해는 참여자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 다함께 기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음. 서로 기금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이었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림터와 연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고마웠고 지지가 된다는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 사정상 함께 모이기 어려운 참여자는 별도의 서면평가자료를 받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올해는 각자의 자립생활과 일상루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많았고, 기금 참여를 위한 각종 서류 제출과 영수증 제출에도 어려움이 없었으며 기금 사용에 대한 더 명확한 가이드를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개선의견을 제안해주어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었음.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최근 자해, 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생활인들의 입소가 많아지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생활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할 필요 있음.
 - 생활인들이 퇴소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목표 :
 - (1) 자해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상황에 대처
 - (2) 생활인들이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 (3) 생활인들의 안정된 자립을 조력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내용	강사
4월	디지털 문화와 십대 섹슈얼리티	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6월	사례관리 경제교육	관찰아요 협동조합
9월	자해와 약물 복용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송지혜

• 담당자 : 조은희

• 진행내용

일시	내용	강사	참석
6월16일	사례관리 경제교육	관참아요 협동조합/ 한선경	조은희, 박지희, 이수, 낙타, 상아, 앞
8월18일	십대생활인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	십대인권센터/ 조진경	조은희, 박지희, 이수, 낙타, 상아, 앞, 유랑, 파랑, 경진
12월2일	자해·자살 예방교육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송지혜	조은희, 박지희, 이수, 낙타, 상아, 파랑, 앞

• 평가

1) 사례관리 경제교육

-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잘 마무리함.
- 생활인의 소비가 통상적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도 지지해줘야 한다는 지점이 유의미했음. 생활인의 소비에 대한 해석과 비판적 평가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생활인의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명쾌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빚을 지거나 돈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는 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됨. 부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계기였음.
- 일회성 교육의 한계로 인해 현재 생활인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촘촘하게 설계할 수는 없어 아쉬웠음. 추후 생활인 경제교육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함.
- 물가상승과 현실적인 생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열림터 생활지원금액(용돈, 의류비, 미용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을 알게 됨.

2) 십대생활인들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

- 섭외할 때 강사와 직접소통이 안되었고, 강의전 확인 과정에서도 원만하지 않는 등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 앞으로 강의 섭외를 할 때 강사와 직접소통이 안될 경우 섭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강의의뢰서에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의전 확인작업도 필요함.
- 성착취나 온라인 관련교육을 기대하였으나 성매매피해사례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랐으나 나쁘지 않았음.
- 성매매 상황에서 포식자, 피식자 중간에 끼어있는 청소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됨.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등 열림터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음.
- 성매매에 대한 접근방법이 짧았지만 명쾌하게 전달되었고 성착취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인과는 다른 일탈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줌.
- 스마트기기에 대한 생각 정리해주었고 청소년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못하게 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은 아니고 기다려주고 만약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 부분이며 활동가는 믿고 기다려주어야 함을 인식하게 됨.

3) 자해·자살예방교육

- 자해·자살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서 생활인 지원에 도움이 되었음.
- 지원자의 한계와 지원자 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하여서 활동가들의 소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됨.
- 자해·자살을 얘기하는 내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의 태도, 상담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음.
- 매년 다른 주제와 다른 강사의 교육을 받음으로 열림터에 맞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음.
- 미리 질문지나 사례를 제시하여 좀 더 실제적이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
- 교육 준비작업을 미리 역분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만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
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예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방법 및 계획 :
 - 대상자는 1인 활동가로 11월 이후 진행
 - 담당자 : 조은희
 - 진행내용 : 미진행

3-3. 생활인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방향과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생활인 중 선별된 사례에 대해 상근활동
가들과 사례연구를 진행.
- 방법 및 계획 :
 - 지원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은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의 공백 및 보완점을 발견하여 향후 다른 사
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음.
 - 생활인 사례연구를 통해 상근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 방향을 찾도록 함. 열림터 지원의 경
험 공유를 위해 연 1회 진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진행내용 :

일시	내용	발표자	참석
12/02	퇴소생활인 2인 사례	수수	조은희, 박지희, 수수, 낙타, 상아, 오매, 란, 얌, 달별, 감이, 유랑, 경진, 파랑.

- 평가
 - 모든 활동가들이 최근 열림터 생활인지원 동향과 이슈에 대해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됨.
 - 발표하는 활동가도 지원했던 사례를 정리해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활동가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 지원하면서 공유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원하는
활동가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강화 되는 계기가 됨.
 - 열림터 지원 내용을 항시 공유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상담소와 나누는 자리는 열림터가 고립되지
않게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사례지원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최근 지원에서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가출팜, 온라인)
활동가들과 나누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전체 활동가들의 역량도 강화됨.

3-4. 청소년 생활인의 온라인 공간×섹슈얼리티 경험 스테디

- 배경/필요성 : ①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열림터 청소년 생활인들 역시 온라인을 통
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증가함. ② 이 과정에서 친밀함과 폭력의 줄타기가 이루어지기도 함. ③ 생
활지원자로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인들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이해하고 고민을 확장하여 지원방향을 정
립할 필요 있음.
- 목표 :
 -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성과 섹슈얼리티를 이해함.
 - (2) 열림터 생활인 사례를 통해 온라인 공간의 친밀성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개별성교육 강사 호연과 협업하여 스터디 기획회의를 진행함.
- 세미나, 강의, 사례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하반기에 스터디를 실행함.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7월	- 스터디 기획회의	
8월 ~ 10월	- 스터디 진행	

- 담당자 : 수수
- 진행내용:

일자	진행내용	참여	
07/14	스터디 기획 회의	조은희, 박지희, 수수, 낙타, 추상아, 경진(상담팀), 호연	
08/11	인터뷰 질문지 준비 회의	조은희, 박지희, 수수, 낙타, 추상아, 경진(상담팀), 호연	
09/11	인터뷰 질문지 확정 회의	수수, 낙타, 추상아, 경진(상담팀), 호연	
	인터뷰 질문지 요약		
	주제		세부주제
	시작		- 안부묻기 - 최근 나와 온라인 세상
	SNS와 일상		- 이용 SNS 종류 - SNS별 특징과 사용 목적 - 온라인 공간의 일상화 과정
	온라인공간과 친밀한 관계		- 온라인 VS 오프라인 -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관계 맺기 전략 -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하는 관계 특징
	위험들		-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감수하고 있는 위험 - 위험 경고에 대한 감상 - 위험 경험 이후 온라인 관계 변화
성폭력피해와 온라인 관계	- 피해의 상황이 온라인에서의 관계와 연결되는 지점		
10월 ~ 11월	-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 진행 : 열림터 및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청소년 선정. 1. 열림터 퇴소 청소년 A (인터뷰 2회차 진행) 2. 열림터 퇴소 청소년 B (인터뷰 2회차 진행) 3. 열림터 퇴소 청소년 C (인터뷰 1회차 진행) 4.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퇴소 비청소년 (인터뷰 2회차 진행) 5.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생활 청소년 (인터뷰 1회차 진행)	수수, 박지희, 호연	

• 평가

- 사업 계획 당시에는 온라인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의 친밀성/섹슈얼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았음. 기획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외부강사 초빙 및 연구물 읽기로는 스터디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이에 열림터 및 씬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폭력피해 청소년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방식의 연구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 계획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어 다소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열림터 생활인을 지원 하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주제에 대해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고 기록하며 연구하는 포맷은 매우 중요하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는 활동가들의 용기가 빛났으며, 이 탐구에 조력해준 청소년 당사자들의 지원도 빛났음.
- 스터디를 진행하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세대별, 집단별로 너무나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열림터 청소년 생활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함.
-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상황으로 인터뷰 일정이 예정보다 뒤로 미뤄지고 있음.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사업을 이어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5. 사례관리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자의 고민 지점이나 지원방향과 전략을 슈퍼바이저와 함께 나누고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례를 나누면서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료활동가들 역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역량강화 할 수 있음.

• 목표 : 사례의 지원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1회기(총2회)
- 사례에 맞는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섭외하여 진행

• 담당자 : 조은희

• 진행내용

일시	내용	발표자	슈퍼바이저	참석
9/19	퇴소한 생활인이지만 여전히 소통을 이어가는 내담자	수수	마인드빅 김미량	조은희, 박지희, 수수, 낙타, 상아

• 평가

- 사례회의의 담당자가 사례회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례의 상황을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더불어 사례지원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음.
- 슈퍼바이저가 사례당사자의 담당 상담자가 아니어서 또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음.
- 열림터의 이슈 중에 자해/자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지원하는 활동가의 자해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
- 지원자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지원자 보호에도 힘써야 함을 알게 됨.
- 연 2회 예정하였으나 적절한 사례의 부재 및 적극적 발굴에 미진하여 하반기에 1회만 진행하였음.

목표4. 여성주의 씬터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

4-1.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 ① 보호시설이 32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②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③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 과제,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 블로그: ① 분기별 1회 이상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반기 혹은 연간으로 1회 이상 게시,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하며 홍보함.
 - 이메일 소식지(열림터 편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률을 높이고 구독율을 파악할 수 있는 메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
 - 해피빈 공기부함: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 기부함을 진행.
 - 후원예우: 후원자와 연결감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행사의 후원예우에 동참.
- 담당자 : 낙타
- 진행내용
 - 블로그 방문자수: 상반기 대비 포스팅과 방문자 수 감소. 인기글은 풀짜기금 인터뷰와 후기.

기간	전체 방문자(명)
2021년 상반기	4,549
2021년 하반기	3,251

- 포스트 현황

월	포스팅(개)	내용
1월	2	12월 열림터 소식, 후원 소식
2월	1	1월 열림터 소식
3월	4	2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모임 초대 안내, 또우리풀짜기금 신청 안내, 또우리모임 후기
4월	2	3월 열림터 소식, 여성마라톤 기금 지원 후기
5월	4	4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모임 초대 안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대 안내, 숙직일기
6월	9	5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풀짜기금 인터뷰 5건, 숙직일기 2건, 또우리모임 후기
7월	2	6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풀짜기금 인터뷰 1건
8월	8	7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풀짜기금 인터뷰 4건, 숙직일기, 또우리모임 후기, 나눔터88호 열림터다이어리
9월	1	8월 열림터 소식
10월	4	9월 열림터 소식, 캠프후기 2건, 또우리모임 안내
11월	2	10월 열림터 소식, 또우리풀짜기금 평가모임
12월	3	11월 열림터 소식, 숙직일기 2건

- 해피빈 공기부함 : 퇴소자 중 특별후원금이 필요한 사례가 없어 진행하지 않음. 일시 기부함을 열기 위해 이전 기부함 후기와 정보를 기록해야 하나 양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어 정기 기부함만 진행함.
- 블로그: 또우리모임, 또우리풀짜기금, 열림터 소식, 숙직일기 등 열림터의 활동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블로그에 후원링크를 연결하여 후원을 독려함.

- 나눔터: 또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나눔터 원고모집 방식을 변경하여 또우리 대상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원고료를 5만원으로 상승함.
- 후원: 전 활동가를 통해 책, 노트북 2대 후원받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활동가 줌 회의에 활용함.
- 신규후원자 중 가해자의 감경목적 후원이 의심될 경우만 전화하여 후원 동기, 가해자 여부를 확인함.
- 입소자 감소로 메일, 팩스, 우편으로 기관대상 열림터 홍보함.
- 입소문의 시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후원시스템 변경으로 후원페이지에 감경후원 관련 메시지를 추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킴.
- 새로운 후원시스템 도너스에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 중임.
- 평가
 - 블로그: 열림터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 풀짜기금 인터뷰와 생활인 캠프 후기가 인기글로, 메일 소식지에 링크를 첨부하여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임.
 - 나눔터 88, 89호를 공개적으로 선착순 모집하여 또우리와 교류를 활발히 함. 원고료를 상승하며 피드백 과정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 및 완성도를 높임. 2020년 또우리풀짜기금으로 구입한 태블릿PC를 활용한 그림을 2021년 나눔터에 두고 받음. 원고료 상승으로 두고 마감이 빨라졌고, 다음 호 두고 대기자도 생김.
 - 후원: 열림터, 상담소 도서 및 활동으로 인해 후원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소식지에 특별한 후원을 소개하며 감사를 전하고 장기적인 후원을 독려함.
 - 신규후원자 전화시 가해자를 판별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고 가해자의 감경목적 후원이 의심된 경우는 모두 가해자였으며 즉시 후원금 반환함. 가해추정자의 후원동기의 동향이 2020년에는 ‘와이프가 추천해서’, 2021년에는 ‘가해자로서 재판이 끝났으며 반성의 의미에서, 그냥 인터넷에 검색’로 변화하고 있음.
 - 새로운 후원시스템 도너스에 기존데이터 이관 작업을 2021년 내에 완료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열림터 나이스페이 부재하여 상담소로 받은 뒤 열림터에서 정산받고 있는 카드후원에 대해 정비하여 2022년에는 즉시 열림터로 받도록 나이스페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자녀가 친족성폭력피해자이며 생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주변인이 되고 싶다는 후원자, 본인 생일 축하금을 열림터를 생각하며 30주년 기념식에 후원한 사례가 있음.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 열림터가 하는 활동을 열심히 외화할 필요가 있음.
- 후원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규 및 증액	3	4	5	0	1	5	2	5	6	10	5	11	46
정기후원 납입회원수	202	210	212	212	208	206	207	216	219	222	227	228	
정기후원 회비(천원)	4,032	3,492	4,342	4,212	4,192	4,232	4,342	4,522	4,612	4,592	3,982	4,782	
일시·평생 후원금(천원)	1,200	1,165	310	2,570	10	210	246	80	110	1,466	0	800	

4-2.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쉼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관 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쉼터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목표 : 열림터를 알리고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키움
- 방법 및 계획 :
 - 전국시설협의회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과 연대
 - 전국시설협의회: 2월 총회, 워크숍 1회, 보수교육 1회, 3월,5월,7월,9월 임원회의 예정.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1/26, 2/23, 3/23, 4/27, 5/18, 6/29 전체회의 예정.
- 담당자 : 조은희, 박지희, 수수
- 진행내용

연대활동 명칭	진행내용	담당자
전국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 1차 전시협 임원회의 (안건: 21년총회, 종사지역량강화사업, 정책토론회 논의) - 3/29 2차 전시협 임원회의 (안건: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소진예방프로그램) - 4/12 여가부,한국노동연구원 직무분석 회의 - 4/15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간담회/여가부 - 5/11 3차 전시협 임원회의 (안건: 직무분석응답자료 공유 및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 6/22 전시협 정기회의 및 노무교육 안 건: - 8/3 4차 전시협 임원회의 (안건: 21년 하반기 사업 계획) - 11/23 4차 전시협 임원회의 (안건: 22년 사업계획) 	조은희
마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2021년 여성복지분과 사업계획 논의 - 4/22 6월 여성복지 공개 특강 기획 및 준비 - 6/8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6/15 코로나상황에서의 여성의 일자리현황과 과제 교육 - 9/2 14:00~16:00 (가칭)마포여성센터 역할에 대한 집담회 - 16:00~18:00 10월 기후위기 공개특강 기획 논의 - 11/24 여성복지분과 워크숍 	조은희
청소년주거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캠페인팀 회의 - 2/23 캠페인팀 회의 - 2/23 <집 밖에서 집을 찾다 - 청소년주거권보장을 위한 온라인 정책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오후1시 ▶발제: 수정, 이인, 정계형 ▶토론: 강선주, 최은영, 서준균, 허민숙 - 3/2~3/14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내나라! - 청소년 주거권 짓기 인증샷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년 3월 2일 ~ 3월 14일 ▶초기게시자: 타리(장애여성공감), 김운영(빈곤사회연대), 이은선(청소년인권연대 지음), 김도현(노들공리소),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양지혜(위티), 김정하(장애인발바닥행동) - 3/5 캠페인팀 회의 	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 캠페인팀 회의 - 3/17 기자회견준비팀 회의 - 3/23 전체회의 - 4/2 <우리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한다!> 기자회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사전투표소(청와대 인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동청소년 주거권 정책 요구안 낭독 https://drive.google.com/file/d/1E_YYIaNbebB8CF5TnxQNEXJZETuEZFDY/view?usp=sharing - 4/27 전체회의 - 5/18 전체회의 - 6/15 실태조사준비팀 회의 - 6/29 전체회의 - 5/18 전체회의 - 6/15 실태조사준비팀 회의 - 6/29 전체회의 - 7/20 전체회의 - 7/27 실태조사준비팀 회의 - 8/31 전체회의 - 9/28 전체회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사자보수교육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 사전워크숍 - 8/26 <자살위기 피해자 지원 역량강화 2차>모니터링 - 9/16 <여성폭력 방지기관 사무행정: 스마트워크를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모니터링 - 11/11 평가워크숍 	박지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생활시설 대상으로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추진 및 결과보고’에 협조하라는 여가부 지침에 대한 질의서를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여성지원시설협의회 소속 생활시설들과 연대하여 공동 발송함. 	열림터

• 평가

1)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회원단체들 간에 유사한 문제상황을 공유하여 해결방법을 모색 (직무분석, 근로기준법 개정)
- 여가부의 직무분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구체적 대안이나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움.

2)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단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열림터를 알리는 기회가 됨.
- 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할 여력부족과 관심분야에서 조금 벗어나는 관계로 관계망만 유지하고 있음.
- 관내 단체들과 친목을 도모하여 열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계기가 됨.

3)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상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차원의 요구를 정책의 형태로 정비하여 정책 발표회,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청소년의 보편적 주거권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음.
- 해쉬태그 캠페인,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배포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주거권 개념과 필요성을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주거권에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SNS에 모아볼 수도 있었음.

- 하반기 청소년주거권실태조사팀에 결합하여 가정과 시설에서도 거주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음. 열림터 역시 공동생활시설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으며, 열림터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청소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 의의가 있었음.
 - 다만 캠페인 일정이 생활인 긴급지원과 맞물릴 때는 연대체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져 아쉬웠음.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활동은 가정폭력·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피해에서 벗어날 권리, 원가정 이탈 후의 주거보장의 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청소년주거권이라는 의제와 상담소 및 열림터 활동의 연결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연대할 필요 있음.
-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사자보수교육모니터링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진행되었음.
 - 온라인교육과 회의의 진행이 매끄러웠으며 워크숍을 진행할 때 모니터링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 교육연수팀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였음.
 - 모니터링 평가워크숍에서 모니터링한 강의에 대한 의견을 촘촘히 청취하였고, 교육해당기관의 활동가가 아닌 다른 기관 활동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교육을 풍성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였음.

4-3.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절실히 필요함. 운영위원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전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열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받아들여 향후 열림터 운영에 반영하고 열림터의 심터 운동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열림터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 운영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성주의 심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음.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1회 진행(총 2회)
 - 신규운영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여유 있게 일정을 안내하고 업무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함.
- 담당자 : 조은희
- 진행내용: 상반기

월	구분	일정 및 시간	진행내용
3월	정기	3월23일 오후 7시	참석: 정정희, 문숙영, 송지혜, 김혜정 운영위원/ 조은희, 박지희, 류수민, 추상아 활동가 안건1/ 신규 운영위원 위촉 안건2/ 열림터 입·퇴소가이드라인 계획 논의
6월	정기	6월16일 이메일 서면진행	참석: 정정희, 문숙영, 송지혜, 이호연, 김혜정 운영위원/ 조은희 활동가 안건1/ 열림터 입·퇴소가이드라인 최종본 공유 및 의견 수렴
9월	정기	9월24일 오후 7시30분 1층	참석: 정정희, 문숙영, 송지혜, 이호연(zoom), 조은희(지자체위촉 운영위원) 배석(김혜정, 류수민) 안건: 지자체 승인 운영위원회 안내(임기 등) 및 상담소 30주년 기념식 홍보 및 안내

- 신규운영위원 위촉명단

이름	경력	위촉기간	비고
정경희	평생회원(2005년 9월1일 ~ 현재), 전 열림터 시설장	2021.09.14.~2024.09.14	후원자 대표
이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2021.09.14.~2024.09.14	지역주민
문숙영	전 열림터 시설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팀장	2021.09.14.~2024.09.14	시설운영전문가
송지혜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2021.09.14.~2024.09.14	시설운영전문가
오예진	마포구 여성가족과 주무관	2021.09.14.~2024.09.14	담당 공무원
조은희	현 열림터 원장	2021.09.14.~2024.09.14	시설의 장

• 평가:

-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정경희(전 열림터 원장 - 후원자대표), 송지혜(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 시설운영전문가), 이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인권교육센터 들 - 지역주민)문숙영(인권진흥원팀장 - 시설운영전문가)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음.
- 열림터 활동과 피해자지원에 관심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감과 소통이 원활하였음.
-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운영위원 섭외가 필요함.
- 열림터의 큰 과업인 입·퇴소 매뉴얼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음.
-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운영위원들의 분기별 위원회 참석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메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운영위원회 진행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음.
- 운영지침상 운영위원의 지자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기존 운영위원들을 지자체에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식 임명장을 받은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됨.
- 운영위원회가 분기별 진행으로 회기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2021 부설연구소 활동 보고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p>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p>	<p>-30년간 축적한 반성폭력운동의 시각으로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담론을 확산할 수 있는 단행본을 발간한다. -반성폭력운동의 이론을 만들고 담론을 확산할 수 있는 탄탄한 연구 기반을 모색한다.</p>
<p>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p>	<p>-연구뿐 아니라 각종연대활동 및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의 관점과 시각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p>
<p>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p>	<p>-친족성폭력에 대한 법·정책·제도·문화적 이론과 담론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p>
팀 활동 목표	
<p>목표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 목표2.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목표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연구소는 상반기에는 책임연구원의 박사 논문 작성을 위한 반상근 및 연구원의 병가, 사직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웠음. 하반기에는 책임연구원 1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축소된 인력 속에서 연구소 평가와 비전을 찾는 미래 전망 모색 사업에 힘을 쏟고자 일부 사업 계획들이 보류 및 중단되기도 하였고, 11월 중순 경부터는 책임연구원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주년 TF의 일환으로 진행된 상담윤리규정 제정과 내외부 연대사업,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을 위한 상담일지분석, 동향분석 등의 준비작업 등과 매달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이 꾸준히 진행되어왔음 - 책임연구원과 소장단이 7월부터 연구소 활동 평가, 비전 논의 초안작업을 진행함. 그러나 연구소의 운영, 구성, 위상, 역할, 체계 등에 대한 역사와 조건이 다른 활동가들과 적절하게 이해 및 소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소에 누적되어 왔던 운영상 어려움이 연구원 사임 사유 문제로 축소되어 논의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조직적 분위기로 남아 있는 연구소 구성원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 향후 연구소 운영과 비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목표1. 상담소 반성폭력운동 30년의 의미를 정리하고 확산한다.

1-1. 30주년 단행본 발간사업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서 2006년에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가 발간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 최근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상담소 30주년에 맞춰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상담소 운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섹슈얼리티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최신의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 관련 논의에 관한 현장기반 이론의 논의를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진행방법

- 2020년 진행한 활동가 세미나 및 회의를 바탕으로 주제 및 필진 확정
- 필자들과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용 구성에 적극적으로 피드백 진행
- 연구소는 상담소 필진들과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 고민
- 연구소 및 상담소 필진의 경우 일정 정도의 연구비 마련
- 발간 이후 2022년 경 단행본 내용 바탕으로 연속강좌나 기획포럼 등 외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예정

(2) 진행계획/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1~2월	기획	세부 챕터 주제 및 필진 논의, 출판사 탐색
3월	섭외	주제 확정, 필진 섭외, 출판사 확정
4월	연구 준비	필진 및 출판사 기획회의
5~6월	원고 집필	연구 진행/원고 집필
7월	원고 취합	원고 취합 및 사전교열, 출판사 전달
8~9월	교정/교열	출판사와 함께 교정/교열
10월	인쇄/홍보	인쇄 및 배포/ 홍보
11월	북토크/홍보	저자들과 함께 하는 북토크 진행 및 홍보

- 목차(순서 및 내용/필진 미정)

챕터	주제	내용
	책 머리에	- 상담소 소개 - 감사의 말
1	여는 말	- 책 발간의 목표, 의미 - 책의 구성과 소개
2	성폭력 판단기준과 개념	-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재분석 - 적극적 동의
3	온라인/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성의 구성/재구성 - 디지털성폭력과 온라인 알고리즘과 여성 이미지의 산업화 관련
4	피해와 생계사이	- 성폭력과 여성의 노동/사회경제적 조건

		- 성폭력 피해와 역량접근법
5	반성폭력운동의 사법화/개인화 비판	
6	온라인 액티비즘/제4물결과 미투운동	- '영영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 평가와 가능성 - 미투운동과 온라인, sns를 통한 말하기 - 피해자 페미니즘의 강화와 미투운동의 의미
7	재생산권리운동	-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리운동의 역사, 의미, 쟁점
8	'진보'와 '페미니즘'	-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과 민주당 - 정의연 사건 - 페모크라트 평가 - 페미니스트의 '보수화'
9	여성주의 상담운동	- 치유와 회복의 의미 - 피해자 병리화/지원의 제도화 - 공대위 활동의 의의와 쟁점 - 기타 상담운동 30년 동안의 변화와 의미 등
10	여성주의 쉼터운동	- 보호와 돌봄사이/ 자립과 자활사이 - 여성 빈곤과 기본소득

• 진행내용:

- 섭외할 출판사 리스트를 뽑고, 원고를 의뢰할만한 저자들의 최신 연구 리스트를 정리하였음

• 평가:

- 상반기 평가, 계획 회의 시 단행본 발간의 시의성 및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보류 혹은 중단을 결정하였음

1-2.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및 발간자료 정리

• 배경/필요성 :

- 서고 공간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신규 서적, 자료집 등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함
- 개별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관과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음.

• 목표: 상담소가 30년간 축적한 자료들을 정리, 공유함으로써 여러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진행방법

- 각층의 자료보관소 및 공간 정돈
- 내부 발간 자료의 데이터서버 및 홈페이지 공유
- 구입하기 어려운 책이나 원서 등의 경우 제본하여 보관
- 활동가들의 구입희망도서 및 참석한 행사 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
- 구입도서 및 추천도서를 상시적으로 상근자회의에서 공유하고 1층에 전시

(2) 진행계획/일정

일정	주요내용
1~3월	자료보관소 정돈 및 라벨링

상시	구입희망도서 구입 및 입고도서/자료 관리
----	------------------------

• 진행내용:

일정	주요내용
4월	자료목록 및 자료대출관리 전산화(구글 드라이브 공유), 상담소 전체 계정 및 각 팀계정에서 접근 가능
4월-6월	자료보관/서고체계 개편 계획, 내부자료집 재고 파악
5월-7월	외부자료집 라벨 교체(자원활동가 주현님)
상시	<p><활동기희망도서 구입 및 입고도서> - 입고도서목록(정기간행물 제외) 『N번방 이후, 교육을 말한다』, 2020, 김동진 기획, 학이시습 출판사. 『미투가 있다/있다』, 202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기획, 이미경 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한국 사이버성폭력을 진단하다』, 201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기획·지음. 『여성을 위한 셀프 디펜스 핸드북』, 2020, 최하란 지음, 충북여성재단 『나는 오늘도 내가 만든 일터로 출근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 이노베이터 8인의 창작 스토리』, 2018, 홍진아 지음, 북하우스. 『케냐 민주화 시대의 젠더, 종족 갈등, 폭력』, 2019, 린오شم 지음, 나지원 역, 좋은땅. 심선희(202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분석 연구』,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2020), 『비영리단체 조직변화 실험해보기』, 서울시NPO지원센터. 강민구(2021),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박영사. 조선화(2021), 『나는 나와 놀아주기로 했다』, 서울: 바이북스. 박정훈(2021),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왜 평범해 보이는 남성도 여성혐오에 빠지는가』, 서울: 한겨레출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2021),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파주: 글항아리. 서울대학교사회학과형제복지지원연구팀(2021),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손병돈(2021), 『한국의 비공식 복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더케어컬렉티브(2021),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서울: 니케북스. 민서영(2018), 『쌍년의 미학』, 고양: 위즈덤하우스. 민서영(2019), 『쌍년의 미학, 플러스』, 고양: 위즈덤하우스. 리타 펠스키(2010), 『근대성의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김영옥(2021), 『힘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 페미니즘』, 서울: 교양인. 캐럴라인 냅(2021), 『욕구들』, 파주: 북하우스. 장영은(2021), 『여성, 정치를 하다』, 서울: 민음사. 장화 외(2021), 『죽고싶지만 살고 싶어서』, 파주: 글항아리. Brodsky, Alexandra(2021), 『Sexual Justice』, MetropolitanBooks. 바네사 스프링고라(2021), 『동의』, 서울: 은행나무.</p>

• 평가:

- 자료목록 및 자료대출관리를 전산화하여 상근활동가들이 자료내역 및 대출내역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라벨 교체를 통하여 미관 및 보존성을 향상하였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향후 라벨 교체 마무리 및 신규도서 라벨링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 3층 책장 확장 공사로 자료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되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1-3. 연구소 미래전망 모색

• 배경/필요성 :

- 1997년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2009년 해소, 그리고 2013년 연구소 울림 개소 이후, 2015년 하반기에 잠시 문을 닫았지만, 2016년 2월부터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1인과 비상시적 연구원(현재는 정규) 1인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간 자문위원 위촉, 인적 구성, 예산 독립,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들이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 따라서 2021년 상담소 30주년과 2022년 연구소 25주년을 준비하며 자문위원, 인적 구성 확대, 예산 및 공간, 연구비 지원 등의 리뉴얼 방향에 대한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함

• 목표:

2022년 연구소 25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모색한다.

• 방법 및 계획:

- (1) 자문위원 위촉 : 현장기반 연구활동에 도움을 받고 연대할 수 있는 자문위원 탐색 및 위촉 준비(2022년부터 임기 시작)
- (2) 인적 재구성 : 조직 구성 재정비 및 신입연구활동가 채용 (2022년 1월부터 업무 시작)
- (3) 조직 운영방법 논의 : 공간 이전, 독립적 예산운영, 법인 차원에서의 연구비 마련 계획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4) 미래비전 모색 : 시민단체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연구활동가 등을 면접하여 현장 기반 연구소의 운영, 정체성, 활동 영역 등에 관한 미래비전을 모색

• 진행내용:

(1) 진행 일정

- * 7월부터 소장, 부소장, 책임연구원이 논의 진행
- 7월 20일 1차 논의 : 하반기 계획 및 향후 평가, 전망 항목 방향 논의
- 7월 27일 2차 논의 : 29일 하반기 계획회의 시 활동가들과 공유할 내용, 방식 검토
- 8월 3일 3차 논의 : 연구소 독립과 관련한 전반적 브레인스토밍
- 8월 19일 4차 논의 : 평가항목 수정 필요성, 연구소 소속 구성원들의 역할배분과 타연구기관 및 연구진행 과정의 비교검토
- 8월 26일 5차 논의 : 타국책연구기관, 기업 및 대학부설연구소, NPO 조직평가항목 등을 바탕으로 연구소 평가항목 논의
- 10월 20일 6차 논의 : 평가항목 수정
- 10월 21일 7차 논의 : 여성주의적 이론 운동의 전문성 부분 평가
- 11월 3일 8차 논의: 각 항목에 따른 논의 진행
- 11월 4일 9차 논의: 각 항목에 따른 논의 진행
- 11월 9일 10차 논의: 각 항목에 따른 논의 진행

(2) 평가항목

*평가의 전제

-2016년부터 현재를 중심으로 하되 과거 연구소 활동기록도 참고 (1기:1997~2009, 2기:2013~2015, 3기:2016~현재)

-평가와 비전 모색이 함께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고자 함

1. 지속가능한 비전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2. 여성학적 전문성과 여성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

3.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주제	세부항목
조직의 비전	여성주의적 이론 운동의 전문성
	현장기반 연구수행의 조건과 노력
	조직의 지향과 목표
조직의 지속가능성	법인과의 안정적, 독립적 관계 (법인의 지원 및 기대)
	연구비 마련과 재정운영, 급여의 안정성, 적합성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교육, 연수 프로그램 참여, 학위 취득을 위한 독려 등)
	연구활동가의 역할과 위치성
	조직의 규모 및 인력 수
	연구공간 및 연구환경의 적절성
여성학 전문성과 현장성	여성학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확보
	현장성 반영을 위한 노력
	정기적인 연구 및 연구물 발행
	프로젝트 연구 참여
	연구 확산 노력 및 기여도(언론홍보, 학술지 게재, 발표 등 연구 성과에 대한 환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연구자 네트워킹, 피해자 등)
연구수행 및 조직 운영방식	리더십 및 책임 이행 정도
	의사결정체계와 절차
	직책/학위에 따른 역할 차이와 기준

• 평가:

- 애초 진행하고자 했던 연구소 미래전망 모색 사업에 기간 부설연구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7월부터 소장, 부소장,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10회 진행하였음. 중간에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등으로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최대한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평가와 비전 모색을 위해서는 평가의 시기, 내용, 범위, 항목 및 지표 등을 논의, 발굴하고,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었음. 이에 타기관의 평가항목 등을 비교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투여하여 연구소의 평가 및 비전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였음
- 평가 주체들은 본 평가와 비전 모색의 목적과 이유, 연구소가 개소했던 1999년부터 연구소 1기(1999~2007), 2기(2013~2015), 3기(2016~)를 구분하여 그간의 주요 활동이나 논쟁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리해나갔음. 3기의 경우 2021년 동료상담원이나 전 연구소 활동가 등의 의견도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책임연구원의 질병 발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음
- 그러나 소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운영과 체계에 관한 과거와의 역사성이나 현재 문제의 어려움 등이 활동가들과 공감되거나 논의되지 못했고, 상근자회의 때마다 비슷한 논점들이 반복되면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주체들이 소진되는 과정들이 계속되었음
- 향후 연구소의 평가, 비전 및 구조적 변화나 존폐 여부 등에 관하여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2-1.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담론적 이슈를 발굴하고,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결과를 발제,

학회지 게재, 강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려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여성주의 연대활동을 통해 국내/외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동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현장기반 반성폭력운동 이론과 담론을 대중과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학회, 토론회, 이슈 포럼, 자문, 강의, 해외연구자/활동가 교류, 원고 집필, 기타 연구활동 등에 연대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의 상담일지분석연구를 학회지에 게재

• 진행내용:

<강의, 총 13회>

일시	주최단체	강의제목	대상
1 30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장애 인성폭력상담소	성차별 조직문화 실태와 대응	성폭력전문상담원
3 30	미디어데모스	온라인 방송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일반 대중
4 2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성폭력의 유형별 쟁점과 사례	폭력예방강사교육 보 수교육
4 21	(사)평화캠프	성평등 교육	자원활동가
7 7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의 개념과 쟁점	성폭력전문상담원
7 1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성폭력전문상담원
7 28	인천 의심많은여자들	페미니즘과 성폭력을 둘러싼 주요 쟁 점	의심많은여자들 회원
8 13	인천 의심많은여자들	페미니즘 운동의 과거와 현재	의심많은여자들 회원
9 23	정의당 강혜영의원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강혜영 의원실 보좌 관 및 정의당 당원
9 2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성폭력전문상담원
10 6	포항 한마음상담소	여성학과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성폭력전문상담원
10 25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의 이해	학교 고충상담원
11 6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추 계학술대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성인지감수성	학회원, 산부인과 의 사

<자문, 총 6회>

일시	주최단체	회의명/자문명
1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차 동향분석위원회 자문(서면)
4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차 동향분석위원회 자문(서면)
5 10	땡땡은협동조합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자문회의(서면)
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차 동향분석위원회 자문(서면)
10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차 동향분석위원회 자문(서면)
11 1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코스프로파일 연구, 개발 (서면)

<발제, 총 2회>

일시	주최단체	제목
9 15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발표
9 30	충북여성정책포럼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쟁점과 조직문화 점검

<원고, 총 2회>

일시	주최단체	글 제목
1 4	한국여성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미투가 있다/있다
11 1	협동조합 청풍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 토크아보기

<외부연대활동>

활동	세부활동내용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협업)	2/26 공대위 운영위원회 회의 4/8 공대위 운영위원회 회의 5/10 공대위 운영위원회 회의 6/1 공대위 운영위원회 회의 6/2 오거돈 엄벌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홍보이미지 제작 6/17 한국성폭력상담소명의 오거돈 엄벌촉구 탄원서 작성 및 제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사무국 협업)	1/7 공동행동 전체회의 1/18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0차 회의 1/25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및 피켓시위 1/27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1차 회의 2/8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2차 회의 2/15 공동행동 담당활동가 내부회의(오매,주리) 4/8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4/16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6차 회의 4/29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7차 회의 5/13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8차 회의 6/2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9차 회의(평가 초안 문서 작성) 6/30 전체단체 평가와 연대의 밤(연대단체공유용 평가서 작성)

<30주년 사업 준비 내부협업>

활동가	소속 TF	활동 내용
파이	규정 TF	-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상담소 내부 규정 및 매뉴얼 점검 및 수정, 상담가 윤리규정 신규작성 등 진행
주리	스마트 워크 TF	-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협업

- 평가:
 - 30주년 사업 TF와 관련해서 책임연구원이 윤리규정 초안을 작성하였고 상담매뉴얼 작성을 돕고 기타 상담소 내부 규정 등을 정리함. 스마트워크TF는 연구원 장기 휴가 후 진행되지 못함
 - 오거돈공대위의 경우 지역 간 거리 및 코로나 상황으로 적극 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운영위 참여, 홍보제작, 탄원서작성 및 제출 등 연대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함. 서울시장위력성폭력 사건공동행동의 경우 연구원이 평가문서 초안부터 완안까지 작성을 담당함으로써 공동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 평가에 기여함. 하반기에는 담당자 사직으로 진행되지 못함
 - 예년과 같이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연대 활동이 진행되었음. 하반기에는 특히 책임연구원의 박사논문과 관련한 발표 등이 진행되었고, 미디어 오늘(“성범죄 감형 톱” 인기 카페에 1타 감사…‘돈 되는’ 가해자 시장을 해부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4>), 한겨레 신문(“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릴게요”…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이 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8662.html#csidx28023aabab86b7b9b92ee5ae15235fd>, 변호사 강용석의 ‘고발 폭력’…‘피해자 악질적 괴롭히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522.html#csidx3544901110615d2aa4c5bb23f6991b8) mbc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룸으로써 운동현장과 이론의 환류에 기여하였음

2-2.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 제2회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 배경/필요성 :
 - 여성학계에서 젠더폭력 및 현장기반 연구자가 적고, 소통할 기회도 부족함. 이에 신진 여성주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2회 개최를 통해 현장기반 연구의 중요성 및 상담소/연구소 활동을 알리고 실천학문으로서 여성학과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미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 최신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소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주체들과 연대한다.

• 방법 및 계획:

(1) 진행방법

- 8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경 이안젤라홀,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가안)
- 프로그램 예상안
 - : 여는 말 및 상담소/연구소 소개, 사회(파이)
 -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분석 연구발표(주리)
 - : 신진연구자 발표 (서강대, 성공회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최대 3명)
 - : 각 발표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 및 전체토론

(2) 진행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5월	기획	2회 책뚫페 컨셉, 최근 학위 및 학회 논문 검색
6월	섭외	발표진 섭외
7월	자료집 제작	홍보물 디자인 및 자료집 제작
8월	홍보 및 행사	8월 초부터 홍보 및 참가신청 / 8월 말 행사 진행

- 진행내용:
 - 진행사항 없음
- 평가:

- 상반기 평가, 계획 회의 시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논의함

2-3.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 페미니즘 신간 읽기 소모임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의 활동을 지지하고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있는 회원/시민들과 페미니즘 관련 도서 및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각자의 위치와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대항적 감각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목표: 최신 페미니즘 논의를 학습하고, 회원들과의 소통 장을 넓힌다.
- 방법 및 계획 :

일정	주요내용
2월	홍보 및 신규참여자 모집
3월~11월	-월 1회 소모임 개최,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7시 -온/오프라인 병행 -1차 모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아주 오래된 유죄』(김수정 저)

- 2월: 홍보 및 신규 참여자 모집
- 3월~11월: 월 1회 소모임,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시 (온/오프라인 병행)

• 진행내용:

일정	텍스트	참가자
3/30, 19시	김수정(2020), <아주 오래된 유죄>	파이, 주현, 도담, 진선, 유진, 지희, 한량, 수경, 예은
4/27, 19시, 온라인	미미 마리누치(2018), <페미니즘을 쿼어링!>	파이, 지희, 한량, 수경, 도담, 진선
5/25, 19시, 온라인	수신지(2018), <며느라기>	파이, 강예은, 지희, 주현, 한량, 진선
6/29, 19시, 온라인	황선우(2021), <멋있으면 다 언니>	파이, 주현, 지희, 한량, 진선
7/27, 19시, 온라인	캐럴라인 냅(2021), <육구들>	파이, 주현, 지희, 한량
8/31, 19시, 온라인	장영은(2021), <여성, 정치를 하다>	파이, 주현, 예은, 한량, 지희
9/28, 19시, 온라인	김보영, 김보화(2019),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파이, 주현, 한량, 지희, 진선
10/26, 19시, 온라인	바네사 스프링고라(2021), <동의>	파이, 한량, 주현, 예은
11/30, 19시, 온라인	장화 외(2021), <죽고싶지만 살고 싶어서>	주현, 한량, 진선, 지희, 오매

- 평가:
 - 올해 신규참여자 10명도 빠른 시간 안에 마감되어 책읽기 소모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있음을 알게 됨
 -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참여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갈수록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음
 - 3월부터 10월까지 세미나 전체 진행, 속기록 작성, 후기공유 등을 책임연구원 1인이 담당하면서 당일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 후기작성을 회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음

- 3월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11월 마지막 모임에서는 오매와 주현님의 도움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였음. 해당 월의 텍스트(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의 저자 중 1인(푸른나비)이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고, 모임 참여자들 중 일부는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였는데 향후 더욱 연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 지난 2년여 동안 매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페미니즘 신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의 풀을 확장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음

목표3.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과 담론을 생산한다.

3-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5호 발간

- 배경/필요성 :
 - 국내에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 논의를 담은 정기적 간행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반성폭력 이슈들을 생산하고 담론화하기 위하여 일지분석, 연구동향, 주제별 리뷰 및 이론적 고민이 담긴 정기적인 이슈리포트가 필요함
 - 친족/아동성폭력 이슈와 함께 상담소 개소 후 초기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그 후로 30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 및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가조치, 엄벌주의 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과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고, 지난 해 조두순의 석방 등과 관련하여 법·정책·제도적 이슈가 많음
 - 성폭력 관련 분야에서도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는 드물고, 여성학 관점의 연구는 특히 더 적음. 따라서 그간 상담소에서 주장해 온 친족/아동성폭력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 운동과 이론에서의 쟁점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 핵심주제: 친족성폭력의 현황과 치유 과정

• 진행내용:

<진행일정>

일정	주요내용	추진내용
7~8월	기획	세부목차 및 저자 논의
8~9월	섭외	내외부 저자 섭외
7~10월	원고 준비	최근 5년간 친족성폭력 국내외 연구리뷰(김미현님, 김하윤님) 2019-2020년 친족성폭력 상담통계 리뷰(박주현님)
10월	원고 작성	해외 연구동향 원고 작성(김미현님) 2019-2020년 친족성폭력 상담통계 초안 작성(박주현님)
11월	원고 취합 및 교정 교열	구혜완, 푸른나비, 김미현, 허민숙 원고 취합 및 교정교열 중

<목차>

분류	주제	필자(안)
연구동향분석	친족성폭력 국내외연구동향	김보화(+김미현, 하윤)

상담일지분석	친족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김보화(+박주현)
쟁점과 입장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친족성폭력	지리산
	친족성폭력의 현황과 과제	조은희
	친족성폭력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허민숙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구혜완
기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과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푸른나비
	또우리의 활동 속에서 '가족'에 대한 고민	백목련
서평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상아

• 평가:

- 자원활동가 김미현, 김하윤님과 함께 해외 연구리뷰를, 박주현님과 함께 2019-2020년 2년간 상담 일지 초벌 분석을 진행하였음. 조은희, 허민숙, 구혜완, 푸른나비님, 상아님의 원고를 받아 수정 중이었고, 이미경, 백목련님의 원고는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소 업무 중단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함
- 향후 상담소 활동에서 해당 원고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바램

3-2. 연구동향분석

• 배경/필요성 :

- 친족성폭력과 관련하여 그간에 진행되어 온 반성폭력운동의 이슈를 파악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관련 주제들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친족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법·정책·제도·운동의 지형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 방법 및 계획:

- 친족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를 선행 리뷰하고 핵심키워드를 도출한 후 분석기간과 세부주제 결정
-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진행내용:

- 7월부터 10월까지 자원활동가 김하윤, 김미현 님의 도움을 받아 친족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를 검색, 리뷰하였음

(1) 연구리뷰 방법(2015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국내외 연구 및 기사)

	국내	국외
키워드	- 친족성폭력, 근친성폭력, 아버지 성폭력, 가정 내 성폭력, 근친상간 등	- incest, Sexual victims by their own family members,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intrafamilial sex abuse(sexual violence, sexual crime), Sexual Assaults by Kin etc.
검색기관	- DBPIA, RISS	- JSTOR, SAGE journals, Wiley Online Library, Taylor & Francis Online, Heinonline etc.

(2) 분석 진행 내용

- 국내외 연구 리뷰를 진행하였고, 김미현님이 연구소와 논의 하에 해외 연구를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치유 경험에 관한 연구,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가해자 연구, 법제도 연구, 남매 간 성학대, 어머니에 의한 성학대, 비범죄로서의 근친상간 연구, 기타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동향 초안을 정리함
- 김하윤님이 해외의 친족성폭력 관련 연구, 법, 정책, 제도, 관련 기사, 운동단체 및 피해생존자들의

활동들을 정리함

• 평가: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5호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관련 운동 및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3-3.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 이론 생산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의 활동을 지지하고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있는 회원/시민들과 페미니즘 관련 도서 및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각자의 위치와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대항적 감각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목표: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을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 2019~2020년 친족성폭력 관련 일지 분석
- 양적, 질적 방식의 일지분석 진행
- 필요시 생존자 인터뷰 등 진행

• 진행내용: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를 “친족성폭력의 현황과 치유 과정(가안)”으로 정하고 2년간 친족성폭력 사례(2019년 96건, 2020년 104건)를 리뷰하고 기초 통계를 작성함
- 박주현님이 2020년을, 파이가 2019년을 리뷰하였고, 박주현님이 기초 데이터를 작성함
- 리뷰내용 : 기본정보(최초상담번호, 상담일련번호, 차수, 상담방법, 상담의뢰인), 친족유형(친족:친부/의부/친형제, 4촌이내혈족:조부/삼촌/사촌, 2촌이내혈족:형부/제부/의형제, 친족외인척), 피/가해자 정보 및 관계(피해자 성별·나이, 피해가 시작된 시점/끝난 지점, 피해자 현재 직업, 피해자 특성:신체장애/정신장애/전과/외국인/성소수자 등), 가해자 성별·나이, 가해자 직업, 가해자 특성:신체장애/정신장애/전과/외국인/성소수자 등), 피해의 내용(피해 유형, 피해장소, 지속피해·횟수, 피해시 상태, 피해가 중단된 계기, 성폭력 외 가해자로 인한 다른 피해, 가족 내 구성원에 의한 다른 피해,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의 다른 피해, 피해를 바로 말하거나 고소하지 못한 이유, 피해를 인지하거나 문제제기하게 된 계기, 현재 가해자와 관계/거주상태, 가해자 반응/인정여부, 가해자에 대한 감정, 엄마의 포지션:지지/방관/비난/모름 등, 엄마/다른 가족과 관계, 다른 성폭력 피해), 2차 피해(2차 피해의 가해자, 2차 피해 발생시점, 2차 피해 내용), 후유증(신체적, 심리정신적, 심리정신 치료여부 및 평가, 사회적/경제적), 피해 이후 조치 및 대응(상담 전 조치 및 대응, 법적 절차/진행단계/결과, 공소시효, 개인적 대처, 왼쪽의 대처방안을 선택한 이유, 피해자 요구, 상담원 지원 내용:피해자, 가족 등), 대외/치유활동(대외/치유활동의 종류/실행여부, 대외 치유활동의 이유, 미투/작말/1인시위/공폐단단/글쓰기 등, 그동안 망설인 이유), 사건 개요, 인상깊은 지점, 기타 및 상담일지 오류

• 평가: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5호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관련 운동 및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2021 사무국 활동 보고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p>개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록, 정리하고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운동의 방향과 좌표를 만들기 - 이미지 리뉴얼 공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롭게, 친근하게, 명확하게 다가가기 - 상근활동가 및 자문위원, 이사회, 회원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참여자의 성장과 소통을 위한 과정 실행
<p>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넘어 다른 목소리들과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운동, 반성폭력 운동 단체, 연대체들의 성찰 작업, 운동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 네트워크 마련
<p>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죄 개정,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위력성폭력 사건 정의 실현을 향한 활동
팀 활동 목표	
<p>목표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 목표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 목표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 목표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주년 사업을 온라인으로 차분하고도 단단히 준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치러내고, 목표를 상회하며 모금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지지의 연대를 확인함. 온라인 사전 제작으로 현장의 성취감이 부족하였던 점, 계획 대비 전체 실행 미비는 아쉬움 - 연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전달, 유출 등 사안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 등의 과정으로 상담소 활동가로서의 위치와 역량, 지향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됨. 임시총회 의결사업을 통해 사건 지원 방향, 네트워킹, 정치세력화에 대한 지향 등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소장단이 변경되면서 안착하는 한해였는데, 부설 기관 운영, 업무 로테이션, 인사노무-근무환경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됨. 대외 활동과 내부 조직운영의 권한 및 역할 나눔 등이 향후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함. 	

목표1.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성찰과 비전으로 함께 열기

1-1.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발자취 _반성폭력 운동의 아카이빙 <균열을 일으킨 용기, 그 순간과 역사>

• 배경/필요성 :

- 1991년 4월 13일 개소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젠더폭력으로서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며 공론장으로 이끄는 반성폭력운동을 30년간 지속해왔음. 개소 초기 잇달아 발생한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함께하며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문제라는 대중적 인식 전환에 앞장섬.
- 특히 성폭력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구조적 문제를 법·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와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엮어 성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해온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옴.
- 개소 30주년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0년간 제시해온 성폭력 관련 주요 전략과 의제를 아카이빙하고 이를 역사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를 잇고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의 지형에서의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목표:

- 30년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정리, 의미화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공유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전략과 의제, 투쟁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비전 마련.

• 방법 및 계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발자취, <균열을 일으킨 용기, 그 순간과 역사> 제작
-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0년간 제시한 주요 전략과 의제 정리 및 소개하고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를 정리하는 대중 출판물 제작
- : 시기별 주요 사건, 운동전략 및 투쟁역사, 성폭력 관련 의제별 챕터 구성, 당시 활동사진 + 줄글을 담은 도록 형태로 제작

• 진행내용

시기	내용	세부내용
3~4월	기획논의	3/9 아카이빙 팀 첫 회의 진행 (참석: 란, 감, 지희, 경진) - 20주년 기념 도록 자료 리뷰, 타 단위 기념 도록 내용 검토, 브레인스토밍
	기획안 초안	4/6 아카이빙 팀 워크숍 - 전체 기획 초안 작성 (Part1~5. 30년간 상담소의 활동 목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추출, 생존자/성폭력/강화/지원/운동)
5월	기획사 컨택	5/4 가나출판사 프로젝트 P 미팅 - 기획 초안 바탕으로 단행본 제작 관련 미팅, 제작 기간이나 원고 준비상황에서 올해 내 단행본 제작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움 - 기존계획대로 펀딩, 리워드 형식으로 제작 배포하기로 함
	세부기획 논의	5/14 파트별 담당 지정, 데이터 정리 - 파트별 담당 지정하여 내부 데이터 선별, 정리 후 내용 생산 진행 예정
6월	데이터 정리	6/7 파트별 데이터 정리

8월	기획논의	8/5 전체 진행 기획 조정 - 담당자 변경 및 기존 생산물 발문 기획으로 변경 [변경 기획 내용] : 균열을 일으킨 일상에 스며든 반성폭력의 말들 (가) : 앤솔로지, 아포리즘 : 사진+문구, 100매 : 책자 형태(날장으로 뜯으면 엽서가 되는 엽서북, 홈페이지 등 향후 아포리즘으로 활용)
	발문진행	8/12 성명서, 토론문, 발제, 단행본, 나눔터 등 자료 기반으로 발문 (오매, 지희, 경진, 란) 9월~10월 발문 내용 토대로 기획안 및 세부 내용 정리
9월	영상제작	9/16 영상 스크립트 전달 (연분홍치마) 1) 1991년~2021년 당해연도 기록에서 거의 직접 인용한 문구로 구성 당시의 상황/기록/판단/활동 전달 2) 성폭력 반대운동이 교차적인, 사회 맥락적인, 과정상의 여정이 드러나도록 → 전년도의 상황이 다음 다다음 연도로 이어짐 3) 볼 만한, 저장할 만한, 인용할 만한, 소개할 만한 자료 (활용) → 숫자, 고유명사, 개념어, 표현 등이 잘 보이게 4) 감동, 감사, 연대, 자랑스러움, 용기, 힘, 사려 깊음 → 음악과 분위기로 고양감과 즐거움 전달
		[86,549번의 말하기가 만든 어떤 사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4:04) 영상 제작 : 3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 및 이후 유튜브 업로드 (조희수 77, 2021.12.9. 현재)
10월		
11월	기획논의	11/29 아카이빙 책자 사업 진행 어려움으로 진행 종료 확정 (디자이너, 오매, 란, 달별)

• 담당자: 란 (기획팀: 감이, 지희, 경진)

• 평가

- 3~4월 기획논의에서 지난 30년간의 상담소 활동 목표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 도록 목차를 구성, 상담소 활동을 범주화하는 등의 논의로 기초적인 틀거리를 만들었으나, 이후 진행이 다소 느슨하게 이뤄지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도록 형태로 묶는 것과 관련, 어떤 사업과 주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정리할 것 인지를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5~6월 진행했으나, 여러 사업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공성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출판사 프로젝트그룹 미팅을 진행했으나, 기념 사업 책자 발간의 대중성, 판매 가능성 등의 검토에서 여의치 않음을 확인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클라우딩 펀딩의 리워드 등으로 해당 사업의 골자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 미팅이 추진되는 등의 업무 진행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음.
- 8월 30주년 기념사업 전체 기획 조정 논의하여 담당자 변경 (란->오매) 이후 기존 생산물 발문 기획으로 변경 논의하였고, 기존 자료집, 단행본, 나눔터 등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만든 언어’들을 채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기존 자료에서 구절을 채록하는 책자의 당시 저자 동의 확인 작업, 대량 인쇄, 텀블벅 판매 등을 타진했을 때 수요와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검토되고 일정이 지연되어, 결국 진행 중료를 결정함. 기존 자료를 채록하고 연도별 정리한 과정은 30주년 발자취 영상 제작의 스크립트가 됨. 시대 상황에 따라 반성폭력 운동이 한국 사회의 환경에 저항하며 형성해온 운동의 흐름을 기록, 편집함.

1-2.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 논의 및 선포

- 배경/필요성 :
 - 2020년 상근활동가를 중심으로 30주년 TF를 구성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인식 설문조사 및 4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상근활동가들의 슬로건 워크숍을 통해 현재 운동 지형과 상담소의 정체성, 역할을 논의하였음
 - 현재 반성폭력 여성주의 운동이 놓인 지형은 다양한 운동 주체의 형성,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러나 조직화된 형태와 운동 방향성에 대한 차이 형성,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적, 권력적 성폭력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저항, 피해자에 대한 역공격과 2차 피해 심화, 법과 정책 역할의 필요 증대, 그를 배반하는 무력감과 진영론에 소구되는 정치화 등 꼽힐 수 있음
 - 여성주의 운동단체이자, 반성폭력 전문 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로서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체성, 역할, 비전을 새로이 논의하고 발표함으로써 본 상담소의 미션 수행을 활성화, 현재화함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맞이 운동의 방향 논의, 비전선언문 논의 및 선포
- 활동계획 :
 - 비전 기획팀 구성 : 오매, 앎, 신아, 란
- 진행내용

시기	내용	세부내용
1월~9월	상근활동가 회의	1/6 내일을 위한 FGI 결과 공유 및 초벌 토론 (신아 정리, 발제) 2/3 내일을 위한 FGI 결과 관련 토론, 논의 8/4 비전선언문 초안 검토 9/1 비전선언문 최종본 검토 및 영상기획안 논의 확정
3월~7월	비전팀 브레인스토킹	3/2 임시총회 준비과정 평가, 00주년 행사에 대한 재점검, 이정표 비전, 지난 회의 자료 확인, 향후 일정 논의
	비전팀 회의	3/5 비전의 형식, 용도, 쓰임에 대한 논의, 비전의 내용 (조직역할미션) 7/5 상근활동가 워크숍 워딩 점검, 초안 작성, 기념식 공표 준비 7/30 초안 검토
	비전팀 종일 워크숍	7/14 초안 작성 워크숍
3월	상근활동가 전체 워크숍	3월 10일 오전 10:30 ~ 오후 17:00 WS1)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나요 (과정, 원칙, 활용) WS2) FGI에서 나온 문장들 내가 밀출 친 부분 나누기 WS3) 반성폭력운동, 여성운동/주의, 상담소와 함께하며 제일 좋았던 당신의 장면은? : 그때 어떤 균열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 그 균열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나요? : 그 장면은 어떤 일상의 변화로 스며들었다고 생각하나요?

		WS4) 앞으로 반성폭력운동, 여성운동/주의, 상담소와 함께 당신이 만나고 싶은 균열/변화는 무엇인가요? : 그것을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요? :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나요? : 그것이 가능하도록 상담소/조직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월	비전선언 영상 기획 및 촬영	8/23 비전선언영상 콘티 논의 (담당: 앓, 편집: 연분홍치마 이혁상PD) : 6명의 상근활동가의 낭독 방식 (파랑, 감이, 앓, 란, 은희, 달별) : 단단한, 단호한, 힘 있는 느낌으로 : 비전선언문 전체는 자막으로 배치 : 마지막 단락은 교차하며 활동가들이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구현 : 상담소 활동영상 인서트 영상으로 활용 9/4 비전선언영상 촬영
10월	후속 작업	9월~10월 비전선언 영상 피드백, 최종 완성

• 평가

- 2020년 진행한 30주년 TF 상근활동가 워크숍에서 도출한 슬로건 안들을 2020년 설문조사와 FGI에 녹여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2021년 총회와 함께 30주년 슬로건을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로 선정하여 출발하였음. 이후 홈페이지 및 BI 개편, 이후 임시총회나 방향 논의에서 30주년 슬로건이 내용상 상징상 좌표가 되고 있음
- 임시총회 등으로 인해 비전논의가 연기되고, 30주년 행사가 하반기로 바뀌면서 상반기 밀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3월 10일 활동가들이 장면과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낸 균열/용기/일상/변화에 대해 비전 TF 구성원들이 정리하여 하나의 선언문으로 모아서 작성하는 과정이 하반기에 이어짐. 힘들 때 꺼내보고, 좌표가 되고, 서 있는 위치를 직시하는 방향의 비전선언문은 활동가들과 회원, 지지자, 30주년 참여자들의 지지도가 높았음
- 영상 제작과정에서 비전선언문의 결기를 상근활동가들의 표정에 담고, 배경 영상, 편집 스타일에 담아 전달력이 높은 영상 콘텐츠로 생산됨

1-3.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기념식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4월 13일 개소식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기념, 축하,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함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의 기록, 감사, 축하에 걸맞은 행사 이미지를 도출하고, 코로나19 언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캠페인을 기획한다
 - 모금 및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 활동계획 :
 - 기념식 기획팀 구성 : 오매, 낙타, 백목련, 은희, 란 + 자원활동가 2인
 - 30주년 기념 캠페인 기획 : 발자취 기록 콘텐츠 활용, 새로운 슬로건과 BI 소개, 비전 소개, 모금, 참여해야 할 분 초대 및 소개, 후기 등 순차적으로 오픈
 - 진행내용 :
 - 전체 진행 기획팀 구성 (란, 오매, 백목련, 낙타, 감이, 앓, 달별)
- : 8월~10월 주 1회 실무 점검 진행

- 30주년 전체 홍보디자인 및 기념식 (담당: 감이, 낙타)

시기	내용	세부내용																							
5월~9월	기획	5월 이사회 및 상근활동가 회의 : 상반기 행사를 미뤄 10월 7일로 진행 결정 6/14, 21, 28 30주년 모금/행사 회의 : TF(오매, 백목련, 낙타) 6/23 상근활동가회의 전체 기획안 논의 6/25 30주년 통합디자인 의뢰 회의: 김리원 디자이너> 8월 말 시안 도출 8/3 영상 촬영 및 편집 의뢰 회의: 연분홍 치마																							
	섭외	8월 초 출연진 섭외 완료 8/17 출연자 원고 마감, 피드백 후 8/20 최종마감 8/18 공연섭외, 슬릭 공연 8월 사전촬영 장소 섭외 완료 : 비범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수어통역	9/8 수어통역 관련 회의 : 한국농인LGBT 줌 미팅 (기획 단계에서 논의했으면 좋았을 듯, 농어권 접근권에 대한 고민 없이 수어통역만 담아내는 방식, 사회자 2명이라 통역사도 2명 배치, 자막 넣을 때 누가 말할 때 발화자 표시, 비용 추가배정, 3분 정도 사전 안내, 공연은 가사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																							
9월~10월	기념식 촬영	9/5 스피커 촬영 : 푸른나비, 은유, 이미경, 변영주, 박정훈, 유랑 9/6 촬영 : 비전선언 영상, 사회자 토크 영상, 공연-슬릭, 권김현영 촬영 9/15 촬영본 구성 콘티 전달, 강조 메시지 및 참고 자료 송부																							
	편집 및 업로드	9/20 1차 편집본 수령 9/27 최종본 수령, 유튜브 srt용 녹취 자원활동 요청 10/5 수어통역촬영 @ 영상다방 황금단추																							
10/7	기념식 당일	[30주년 기념 행사 진행] 전체사회: 오매, 백목련 스피커: 총 7인/ 푸른나비(친족성폭력생존자, 공폐단단 활동가), 은유(작가), 이미경(본 상담소 이사), 변영주(영화감독),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활동가),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유랑(본 상담소 활동가) 공연: 래퍼 슬릭 총 러닝타임: 60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순서</th> <th>내용</th> <th>시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오프닝</td> <td>사회자 인사</td> <td>2.5분</td> <td></td> </tr> <tr> <td>30주년 기념영상</td> <td>30주년 기념 영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 86,549번의 말하기가 만든 '어떤' 사회</td> <td>3분</td> <td>1991년~2020년까지, 연도별 상담소의 활동 사진과 당시의 기록들</td> </tr> <tr> <td>소개</td> <td>사회자 멘트</td> <td>2분</td> <td></td> </tr> <tr> <td rowspan="2">스탠드업 말하기</td> <td>생존자인 나는 말할수 있다 @푸른나비</td> <td>5분</td> <td>친족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공소시효 폐지의 운동까지 : 생존자가 만드는 변화</td> </tr> <tr> <td>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 @은유</td> <td>5분</td> <td>말하기와 글쓰기, 말하기가 불러오는 또 다른 말하</td> </tr> </tbody> </table>	순서	내용	시간	비고	오프닝	사회자 인사	2.5분		30주년 기념영상	30주년 기념 영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 86,549번의 말하기가 만든 '어떤' 사회	3분	1991년~2020년까지, 연도별 상담소의 활동 사진과 당시의 기록들	소개	사회자 멘트	2분		스탠드업 말하기	생존자인 나는 말할수 있다 @푸른나비	5분	친족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공소시효 폐지의 운동까지 : 생존자가 만드는 변화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 @은유	5분	말하기와 글쓰기, 말하기가 불러오는 또 다른 말하
순서	내용	시간	비고																						
오프닝	사회자 인사	2.5분																							
30주년 기념영상	30주년 기념 영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 86,549번의 말하기가 만든 '어떤' 사회	3분	1991년~2020년까지, 연도별 상담소의 활동 사진과 당시의 기록들																						
소개	사회자 멘트	2분																							
스탠드업 말하기	생존자인 나는 말할수 있다 @푸른나비	5분	친족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공소시효 폐지의 운동까지 : 생존자가 만드는 변화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 @은유	5분	말하기와 글쓰기, 말하기가 불러오는 또 다른 말하																						

			기, 들을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의 조건, 여성/소수자의 위치 드러내기, 사회적 현상의 진단, 문화적 해석의 과정, 최초의 다큐에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변화까지
	법을 바꾸는 생존자의 목소리 @ 이미경	6분	남성성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흐름의 변천, 반성폭력운동이 일깨워주는 성찰의 렌즈, 연대와 실천, 참여의 중요성
	낮은 목소리들이 바꾼 것들 @변영주	5분	94년 제작된 낮은 목소리 1,2,3탄을 통한 전시성폭력 피해와 성폭력 발생률에 대한 고민, 영화를 통한 말하기의 울림과 상담소 30주년을 맞아 대중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브릿지 공연	사회자 멘트	2분	
	공연 1팀 - 슬릭 (2곡)	7.5분	ma girls(3:38), 걸어가(3:52)
스탠드업 말하기	우리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김현영	5분	반성폭력운동이 만든 논의의 의미와 방향 - 공론장 중요성
	가해자도, 유니콘도 아닌 @박정훈	5분	남성성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흐름의 변천, 반성폭력운동이 일깨워주는 성찰의 렌즈, 연대와 실천, 참여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운동, 함께 그리고 더 많이 말하기 @ 유랑	5분	지속적인 운동과 초기운영에 대한 고민, 자기돌봄과 조력/지지, 운동의 동력, 실패와 도전에 대한 활동가의 이야기
클로징	사회자 멘트	1.5분	
비전선언	30주년 비전선언문 영상 -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5분	
크레딧 영상	크레딧	0.5분	후원자명단 (9월 30일까지 후원자)
		60분	
<p>- 기념식 송출 : 10/7, 19:30~ (총 러닝타임 1:09:58) : 총 조회수 1,093회 (12/10 기준), 실시간 스트리밍 최대 141명, 순시청자 수 532명, 재방문시청자 115명 : 평균 시청시간 14:55 / 구독자: +52명</p>			

- 모금 기획 및 진행 (담당: 백목련)

시기	내용	세부내용												
8월	모금 기획	<p>- 30주년 행사 목표 : [모으기] 상담소에 대한 사람, 돈, 신뢰, 애경, 고마움 : [알리기] 상담소의 새로운 비전과 비전 이미지 : [펼치기] 기존 후원자층 외에 너른 범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위상, 의미, 존재, 역할을 알리기 : 여성운동 NGO로서 향후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 : 모금액은 발자취 도록 제작, 리브랜딩, 홈페이지 리뉴얼, 30주년 기념영상 제작 등에 사용</p> <p>- 모금 및 굿즈</p> <table border="1"> <tr> <td></td> <td>모든 후원회원</td> <td>10만원 이상</td> </tr> <tr> <td>굿즈</td> <td>슬로건 엽서</td> <td>나무도마 혹은 머그 플레이트 세트</td> </tr> <tr> <td>디자인</td> <td>30주년 메인이미지</td> <td>슬로건 각인</td> </tr> <tr> <td>공통</td> <td>사전 발송</td> <td>후원하신 분들 이름 표기</td> </tr> </table> <p>- 후원자 예우 : 모든 후원자명단은 30주년 기념식 영상,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 (단, 영상의 경우 9/30 결제완료 건까지 게시) : 10만원 이상 후원자의 경우 상담소 리뉴얼 앰블럼 로고 각인 나무도마 증정</p>		모든 후원회원	10만원 이상	굿즈	슬로건 엽서	나무도마 혹은 머그 플레이트 세트	디자인	30주년 메인이미지	슬로건 각인	공통	사전 발송	후원하신 분들 이름 표기
	모든 후원회원	10만원 이상												
굿즈	슬로건 엽서	나무도마 혹은 머그 플레이트 세트												
디자인	30주년 메인이미지	슬로건 각인												
공통	사전 발송	후원하신 분들 이름 표기												
9월~10월	모금 진행	<p>9/3 도너스 모금함 개설 : 모금함 페이지(https://box.donus.org/box/ksvrc/ksvrc_30th)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후원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공 않고, 익년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업로드 10/17(마감일) 전체 모금액 59,499,000원, 415명 참여</p>												
10월	리워드 발송	10/18~ 10만원 이상 후원자 나무 도마 리워드 (총 232개 발송)												

- 홍보/이벤트 (담당: 달별)

시기	내용	세부내용
9월	홍보기획	<p>9/9 회원 사연 모집 공고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잊지 못할 사연을 찾습니다 :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게시 9/10 30주년 기념사업 전체 안내 이메일링 9/10 트위터 애즈포굿 홍보 시작 9/16 기념식 안내 문자 발송 9/17, 21, 22, 24, 26, 27, 29, 10/1 말하기 스피커 카드뉴스 발행 9/27 기념식 안내 문자 2차 발송 10/6 30주년 기념식 보도자료 배포</p>

		10/7 기념식 안내 문자 3차 발송(유튜브 링크 공유)
9월~10월	참여이벤트 기획 및 실행	9/9 후원이벤트 기획회의 (달별, 서현, 지희) : N번째 후원자를 찾아라! (N번째 후원자 총 25명에게 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은님의 커피백 세트 증정 이벤트) : 이벤트 당첨자 해시태그 제안 #n번째_후원자를_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_30주년 #균열을_일으키는_용기_일상에_스며드는_변화 : 매주 수요일 당첨자 체크, 주소지 확인 및 리워드 배송 9/14 N번째 후원자 이벤트 홍보 카드뉴스 발행 10/7 기념식 당일 퀴즈 이벤트 진행
10월	리워드 발송	10/12 N번째 후원자 리워드 발송 완료

• 평가 :

(전체 평가)

- 임시총회 등으로 30주년 기념식을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4월 13일 개소기념일부터 약 2달간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서 아쉬움. 그러나 4월 13일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 상태여서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였음도 확인함
- 코로나19 시기 언택트로 행사나 참여, 캠페인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말하기’라는 컨셉으로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의미가 있었음.
- 유튜브 송출을 위해 사전 촬영으로 기획,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간 함께했던 분들이 감사, 기억, 비전을 나눔으로써 향후 활동에 새롭게 참여함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회적 의미, 위상, 가치, 방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활력을 확산함

(전체 진행 관련)

- 7인의 기획팀으로 빠른 호흡으로 진행하여 기념식 전체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다른 기획팀에 소속되지 않은 활동가들의 참여 독려 또는 역할 분담 요청 등이 원활하지 않았음.
- 2020년 TF 활동과 연속선을 가진 상태에서 30주년 전체 기념사업이 진행되었고, 100% 사전 촬영으로 완성도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 사전 촬영 영상을 예약 송출하는 방식으로 기념식 당일에는 각자 접속하는 공간이 달랐고,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소회를 나눌 수 있는 별도 시간이 없어서 함께 행사를 치러냈다는 호능감이 낮아 아쉬웠음.
- 타 단체의 경우, 사전 촬영과 당일 라이브 진행방식을 절충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차후 온라인 행사 시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가 모두 행사 진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고려가 필요함.
- 향후 온라인 콘텐츠 장점을 반영한 활용 방안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함.
- 30주년 슬로건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에 어울리는 메인디자인 제작으로 슬로건과 상담소 30주년을 더 많이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됨

(30주년 기념식 평가)

- ‘말하기’라는 주요 운동 방식과 의제를 가져와 7명의 스피커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기획적 요소 및 내용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상의, 협의가 필요하였는데 스피커로 참여한 인원 모두 사전 원고 작성 및 의견 교환 등 적극적인 준비과정에 동참하였음.
- 기념식 전체 기획 관련 기관 특성상 다소 진지하고 무겁다는 평도 있었으나 개별 클립 영상 등을 향후 강 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념식 영상 촬영과 편집이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고, 자막이나 자료영상 등이 적절히 배치되었음.

- 기념식 말하기 패널분들께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모금 및 후원 리워드)
- 모금 목표가 다소 적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온라인 행사라는 특성상 적극적인 후원 독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별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1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가 많았고, 리워드(애플러 각인 도마)가 만족스럽다는 주변 평가가 많았음. 그러나 새로운 후원 방식 (모금페이지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을 생소해하거나 오류로 후원하는데 어려움을 전달하는 후원자가 있었음. 홍보 엽서 및 안내 과정에서 후원 계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기념식 막바지에는 후원 계좌를 안내하기도 하였음. 이후 후원 행사 때 후원 계좌 오픈에 대해 고려할 필요 있음
(비전선언)
- 활동가들이 등장하여 비전선언을 낭독함으로써 울림이 있는 선언문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음.
- 작년 설문조사와 슬로건 선정 논의와 워크샵, 비전선언문 작성을 위한 워크샵 진행 등 한 문장 한 단어를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한 명이 작성할 수 없는 선언문을 작성하였음. 이런 집단작업의 과정을 통해 힘 있고 단단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비전선언문 작성이 가능했음.
- 이전 영상 또는 사진 기록 등을 활용하는 영상 편집 과정에서 활동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었음.
(전체홍보)
-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회원사연 모집을 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웠음.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기획 및 실행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디자이너와의 협업 과정이 원활하여 30주년 슬로건을 시각적 자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슬로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

1-4.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맞이 리뉴얼

- 배경/필요성 :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여 상담소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상담소 활동에 통일감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도구, 디자인, 규정 등을 리뉴얼 함
- 목표 :
 - 자료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소식을 일상적으로 나누는 홈페이지 및 SNS 개편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정체성을 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BI 리뉴얼 및 공개
 -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체계에서의 규정 등 공개 자료 정리 및 공유
- 활동계획 :

내용	담당	세부 계획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SNS 개편	성문화운동팀 홍보담당활동가 및 기획팀	-주요 이용필요 조사, User Needs 설계 -모델사이트 서치, 유용한 기능들 러닝 -업체 및 개발자 미팅 -상담소 자료 아카이빙 새로운 소개들 작성, 코너 기획 -상근활동가 논의, 자문회의
로고 및 BI 리뉴얼	30주년 TF 홍보팀	상근활동가 논의, 이사회 논의 의견반영 최종 확정 및 활용 시작
운영규정	30주년 규정팀, 사무국	홈페이지상 정관 및 규정, 총회 자료 정돈 및 공개, 공유

- 진행내용

팀명	일정	내용
스마트워크TF(달별, 주리, 수수)		아카이브 매뉴얼 작성 (진행중)
홍보/BI팀 (감이, 낙타, 백목련)	1/11,19,25 2/1,3 3/16 4/2 5/4, 13, 31	1월 BI 리뉴얼 업체 미팅 2월 상담소 BI 리뉴얼 기획 및 제안서 수령 3월~6월 각종 어플리케이션 원고 취합 및 수정, 디자인 검토 6/23 최종 작업물 납품 완료 7월부터 새로운 BI 적용
조직 및 비전논의 팀 (신아, 앵, 오매, 란)	1/10 3/2, 3/10	FGI 결과에 대한 상근활동가 토론 설문조사 결과 및 슬로건 투표 결과 공유, 통합 토론 ▶ 10월 7일 비전 선언문 발표
규정 및 원칙작성 팀 (유량, 지희, 은희, 파이, 란)	1/19, 3/9, 16, 23 4/20, 5/25, 6/7	3월 상담자문위원 의견 반영 윤리규정 수정 4월 상담 매뉴얼 작성 완료 5월 상담 매뉴얼 확정 및 디자인 의뢰 7월 디자인 완료 8월 말 윤리규정안 최종 상근자회의 논의 11월 정기이사회 상담원 윤리규정(안) 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SNS 개편 (달별, 유량, 파랑, 오매)	3/23, 25 4/7, 4/22 5/14 6/1, 9	홈페이지 문제점 아이디어 회의 캠페이너스 이용 단체에 후기 문의 홈페이지 이용경험 설문 배포 및 분석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세부 카테고리 구조화 홈페이지 제안서 작업 및 상근활동가 논의 홈페이지 리뉴얼 카테고리 재논의 및 미팅업체 결정 8/23 제작업체 와이빈 계약 8/23~9/30 홈페이지 세부 기획 10/5 홈페이지 콘텐츠 전달
회원관리 프로그램 변경 (달별, 낙타)	8/11, 9/30	8/11 신규 회원관리프로그램 이관 절차 진행 9/30 기존 회원관리프로그램 해지 및 데이터 이관

• 평가

- 상담소와 부설기관들의 이미지 통일성의 부족, 홈페이지 및 콘텐츠의 검색 어려움, 상담 매뉴얼의 미비로 상담자나 내담자 보호의 방안들 체계화 부족 등 상담소 운동의 운영과 확장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30주년 TF로 목록화하여 2020년부터 작업을 이어와 신뢰성과 효율 높이기에 다가가고자 노력함
- 모든 상근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0주년 TF에 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상담소 운영과 이용에 대한 여러 미비한 점들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실무를 하며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협력적 노력을 만들어냈음. 그러나 기존 팀별 개인별 업무량과 견주어 업무량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30주년 기념식 실무로 연결되어 2020년부터의 개별 TF팀이 평가모임과 뒷풀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홈페이지, BI, 윤리규정 등 새로운 정비된 내용이 필요한 관계자 및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상담소의 가치지향과 노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잘 보이게, 들리게' 배포되도록 앞으로도 홍보할 예정임,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SNS 개편, 회원관리 프로그램 변경 관련 평가는 성문화운동팀 평가 참조.

목표2. 반성폭력 운동 의제, 더 너른 연대와 참여로 실행하기

2-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2020년 21대 국회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 및 약속, 개원 이후 다양한 의제 홍보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본 상담소가 사무국을 맡아옴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반성폭력 레짐의 방향과 시민적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합의’를 폭넓게 운동으로 만들고자 하며,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주제화함으로써, “동의/적극적 합의”의 의미, 적용기준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가고자 함
 -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통해서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당연하고 근본적인 여성 인권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의 법사위 및 본회의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 목표:
 -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 홍보 및 대중적 의제화
 -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본회의의 논의
- 활동계획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운영 (성문화운동팀 협력, 공동)
 - 연대회의 내 기획팀 활동 :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기획 및 시행
 - ‘적극적 합의, 동의로의 법적 패러다임 전환’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 전국 ‘강간죄 개정’ 관련한 강좌 및 토론회, 발표 지원 (상담원 교육 등)
 -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위한 압박 활동 :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여성가족부
 - 본회의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 류호정 의원실 협력, 함께 하는 전 방위적 홍보 활동
- 진행내용

진행내용	세부내용 및 일정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운영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집행단위(총 12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2/4	23차 회의	12개 운영위원회 단체 출석 요청 법안개정 / 교육의제화 / 홍보기록아카이브 / 기획팀 4개 팀체제 제안
	2/19	기획팀	기획팀X널채움 회의 (게임, 설문조사)
	2/24	24차 회의	연간 계획 논의 및 역할 나눔 (미참단체연락)
	3/7	기획팀	게임 최종 점검 등
	3/16	25차 회의	이상한나라의강간죄 배포 현황, 평가 강사팀 워크숍 제안 결정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신청 결정
	4/8	26차 회의	강사워크숍 계획 논의 21대 국회대상 입법활동 TF 회의 결정

	4/22	입법TF	대선/지방선거전, 20년 9월까지 담론/정책화 류호정, 권인숙, 정춘숙, 백혜련, 소병철 의원 면담 추진 전국 캠페인화
	5/14	27차 회의	강사워크숍 평가 의원실 면담시 제안할 사항 논의 (연구용역, 공동토론회 등). 전국캠페인 필요 제안
	5/31	28차 회의	전국 활동가들의 논의 워크숍 진행 필요 의견조각, 캠페인과 - 국회 입법 대응 투트랙
	6/10	29차 회의	대중 강연 기획 결정 (민우회, 전성협, 위티 등) 국민의힘 포함 입법 발의 제안 진행 (한국성폭, 여전 등)
	7/1	30차 회의	대중강연 기획안, 역할분담 민변 여성인권위, 한국여성변호사회 미팅 계획
	7/23	31차 회의	대중강연회, 라운드테이블 세부역할분담 국회 토론회(안) 검토 전주 젠더공감 토크 패널 추천 결정 / 경향신문 공동기획 제안 (전수조사) 논의
	8/11	32차 회의	대중강연회, 토크콘서트 홍보, 진행점검, 역할분담 예산안 검토, 분담금 결의
	8/31	33차 회의	연속특강, 토크콘서트 평가 퀴어문화축제 온라인버스 카드뉴스 업로드 결정 전국활동계획 / 자료 생산 공유 (유엔보고서)
	9/24	34차 회의	유엔보고서 및 입법 가이드라인 초고 번역본 회람 및 토론 - 향후 수정 및 해제 발행 결정, 토론회 타진
언론기고	<p>한겨레신문 토요일 연속 4개 원고 기고</p> <p>-----</p> <p>1월 9일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미투가 있다/있다> 공저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009.html#csidx3407e3ff52f67c1b7a54c8d80700a5a</p> <p>1월 23일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csidxca022af6a845411b2e62d0a38961561</p> <p>2월 6일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82121.html?fbclid=IwAR2C-_7mjmlYSGzphkTQJMo3f7DKz8R3PvqjasqyLB0NWO017vzrAeUEI-M#csidx4c3c28862c62d68a5a78dbfd7ee95c4</p> <p>3월 7일 '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이경환 변호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692.html#csidx32b82eb118d9cd39bae854259c8d0ad</p>		
교육의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안 마련 및 업데이트 : 사무국 한국성폭력상담소 - 4/16 강사워크숍 (전성협, 탁틴내일, 민우회성폭력상담소, 위티, 한국성폭력상담소 18명 참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13:30-14:00 서로 소개</div>		

	<p>14:00-16:30 강의안 공유, 질의응답, 수정보완 토론 (한국성폭) 카테고리별 소개 1) 현행법의 문제 (유형력-최협의설-강간신화-다른 조항 해석, 적용에서도 문제) 2) 성폭력 통념, 피해자다움, 무고 반론 + 토론, 보완 3) 한국 성폭력법 제/개정 역사 (강간죄 개정 흐름) 4) 판례의 변화, 사회의 변화 (부부강간, 강제추행, 진술신빙성, 준강간) (입법안들 : 동의없는 성폭력) + 토론, 보완 4-1 옵션) 강간죄 '개정' FAQ / 반론에 대한 토론 4-2 옵션) 해외사례 - 법, 개념, 쟁점 5) 동의 등 대중캠페인과 의미 + 토론, 보완 16:30-16:45 쉬는 시간 16:45-17:30 워크숍 및 모둠토론 제안 및 해보기 - 내가 바라는 동의 (섹슈얼리티워크숍) - 적극적 합의 점수 - 이상한나라의강간죄 활용 - 키워드 뽑고 조별로 대화 나누기 (경험나누기) - "~할까?" "~해도 돼?" 물으면 분위기가 식어? 왜? - 그 외 교육목표 카테고리별 워크숍 아이디어 제안 17:30-18:00 종합토론, 향후 계획 (시연, 강의안 보완, 추가 스터디 등) - 전국 교육 '강간죄 개정운동의 현황과 과제' 3/9 수원여성의전화 상담원교육 (김혜정) 4 탁틴내일 상담원교육 (이미경) 5/14 전주예방치료센터 상담원교육 (김혜정) 6/1 수원여성회 (김혜정) 6/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교육 (김혜정) 5/22 한국다양성연구소 포괄적 성교육 토론회 (김혜정) 6/15, 1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 (얌) 7/8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교육 (김혜정) UN 2021년 General Assembly 'rape' 특별보고서 및 "A framework for legislation on rape (model rape law) - 자료 번역, 세미나</p>
블로그 운영 (+천주교성폭)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아카이브 블로그 콘텐츠 업로드 블로그 오픈 및 업데이트 진행
대중 캠페인 (기획팀)	3/8 이상한나라의강간죄 오픈 https://wonderful-law.korea.wtf/ 오픈 캠페인 : 스티커, 카드뉴스 온라인 서명운동 : 현재 36,087명 바뀌야해요, 괜찮아요 839, 개정서명 23,384 (12.10현재)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블로그, 이메일 응답 진행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부스 : 5월 신청 및 선정, 6/4 원고 제출, 6/27-7/18 온라인부스 내용 카드뉴스 발행 : 9월 29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p>[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8월17일(화) 19:30~21:30 (250명 신청, 170명 참석)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_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8월20일(금) 19:30~21:30 (279명 신청, 160명 참석) [특강]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강사 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8월24일(화) 19:30 (321명 신청, 150명 참석)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진행 _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패널 _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_ 류호정 의원(정의당) _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법률사무소) _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p>
21대 국회	<p>4/22 입법 TF 회의 (여성연합, 전국연대, 탁틴내일, 한여전, 한국성폭) 5월 3일 류호정 의원(정의당/입법대표발의) 면담 5월 20일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여가위) 면담 5월 20일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법사위) 면담 5월 26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여가위) 면담 7월 6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인권이사) 면담 8월 19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 제안 예정 7월 6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입법운동 제안 미팅 7월 15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 : 입법운동 제안 9월 15일 소병철 의원 비동의 강간죄 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p>
성명/논평	<p>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p>
자료생산	<p>2021년 UN특별보고관 보고서 '강간', 입법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복서희 자원활동가 번역, 앞 초벌 번역중)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41/17에 따라 특별보고관 Dubravka Šimonović가 202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p>

• 평가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3년 차 사무국을 맞이하였고, 소장단 변경에 따른 사무국 담당자 변경 및 확대(오매, 앞, 달별)이 진행됨. 사무국으로서 3인이 연간 계획안, 전략수립이나 필요한 논의를 별도로 하며 전체 진행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이해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성협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 그동안 문제적이었던 사안에 대한 판단력 고양, 캠페인 참여 등을 이끌어내고 있음
- 집행위 단체들이 단체 사정들로 인하여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동으로 넓혀가거나 개별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방안을 찾으며 참여력과 실행력을 함께 높이며 노력함
- 21대 국회 입법발의를 1개 추가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권외제 전반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제협약의 권고에 대한 답변 등을 아예 누락하고 있음. (법무부 주관 고문방지협약 한국정부 보

고서 초안에 강간죄 개정 관련 내용 누락, CEDAW 국가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 답변 중 해당 내용 상세 내용 없음) 의원실 면담, 변호사 단체 면담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전략 논의를 진행중이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정의당과 안철수 후보측이 형법 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음

- 성매매, 청소년, 장애, 아내 강간, 친밀한 관계, 술이나 약물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에서 비동의의 강간죄 개정의 의미를 교차적으로 분석, 토론하는 토론회 조직이 필요함.

2-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부터 시작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작은말하기, 미투운동에서의 말하기, 자주적 액션, 책 발간 등을 통해 친족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구조적, 입체적으로 알려오고 법적 시간과 법적 권리 제한에 맞서는 정의실현의 문제가 제기 되어옴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연대, 협력, 액션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필요와 수요가 존재함

• 목표 :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료와 의제활동 도구, 기획, 소스의 생산
-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자치적으로 액션그룹으로 성장

• 활동계획 :

- 사무국(오매), 성문화운동팀(얌), 여성주의상담팀(감이) 기획 및 추후 상담소 지원 역할 논의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생존자와 지지자들의 그룹 '공폐단단' 워크숍 진행
- 이후 상담팀 생존자들의 신나는 외출 등 공개적 액션 기획 및 진행 프로그램과 연결
- 공폐단단 자체 활동 계획 수립 이후 진행을 지지, 지원 : 상담소 소모임 혹은 독립모임 관련 5월에 논의

• 진행내용

- 1)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 기획회의 : 1차 기획회의 앞, 오매
2차 기획회의 앞, 오매, 푸른나비, 명아, 민지님
3차 기획회의 상근활동가 전체 논의
 - 캠페인 실무에 대한 꿀팁 보다 친족성폭력을 말하는 언어를 더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강연이 포함된 기획으로 변경함
 - 온라인 중계를 하고, 강연이 가능한 패널들을 많이 섭외하면서 규모가 큰 2회 행사로 변경됨.

[액션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열기

청주 두 십대여성의 죽음은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 '현장'을 더욱 말하고 싶습니다. '뭉쓸 갓'의 대상으로 소비되어 왔던 친족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속 '주체들'의 권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연대와 대응운동을 넓히는, '광장'을 여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2021년 6월 10일(목) 19:30-21:30

▶ □ '가정폭력' 측면 _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 '아동학대' 측면 _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 '친족성폭력' 측면 _ 조은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 질의응답과 토론 : 그 현장에 어떻게 맞설까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

2021년 7월 1일(목) 19:30-21:30

- ▶ □ 사회운동 만들기, 연대하기 _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 □ 언론대하기, 언론되기 _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 ▶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액션 소개
 - 질의응답과 토론

참여신청 <https://forms.gle/3cULThiv7iUyU9sv5> (문자 알림제공, 사전 질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진행인력 : 오매 (기획, 섭외), 앓(홍보, 참여신청), 하윤 (당일 스태프) + 중계, 당일 참석자 확인 등

- 참여자 : [신청] 1강 80명 2강 108명 / [유튜브 조회수] : 1강 456회 2강 138회 (7/2 현재)

2) 친족성폭력 생존자 생존기념축제

○ 공동추천_ 매마토 일인시위 모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공폐단단, 한국성폭력상담소

○ 기획 및 준비과정

- 11월 5일(금) 이번달 매마토 1인 시위를 집회/행진으로 제안
- 11월 7일(일) (기획팀 1차 회의-중) 참석_푸른나비, 단단, 오매, 지안, 앓, 명아, 미셀, 영서, 하윤, 심 (10명) : 11월 담당자 단단의 '칼라베라 카트리나 - 죽은자의 날' 컨셉트 제안 / 일정 확인
- 11월 11일(목) (집회/행진신고) 푸른나비, 하윤, 단단, 오매 + 준비회의 (홍보안, 역할분담, 행진 사전답사) ※ 종로경찰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PCR 확인 의무 불필요한 99명 제한으로
- 11월 16일(화) (기획팀 2차 회의) 푸른나비, 단단, 오매, 지안, 하윤 : 구호 및 선언문 주요 메시지 토론, 일정 확인
- 11월 21일(일) (기획팀 3차 회의) 푸른나비, 단단, 오매, 지안, 풀, 행복 : '너에게 가는 길' 함께 관람, 꽃 장식 만들기
- 11월 25일(목) (기획팀 4차 회의) 단단, 낫달, 지안, 행복, 오매 : 가면 장식 제작, 역할분담 및 동선, 최종 확인

○ 집회, 행진 기획 및 진행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

2021년 11월 27일(토) 12:00 (11:00 사전부스 및 방역 체크 13:00 행진) 세종문화회관 앞
사전 신청 _ <https://bit.ly/2021Catrina>

"친족성폭력 생존자가 여기 있다."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깔려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우리는 망자이지만 우리를 죽인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세상 앞에 섰다.

더 나은 미래는 죽은 자의 현현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그만죽자 #나와같이말하자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양면성을 구현하기 위해 '망자의 날'의 주요 인물인 칼라베라 카트리나로 세상에 우리 존재를 알리려 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축제를 열어주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드레스코드 _ 블랙 □ 필수장식 _ 꽃

* ‘칼라베라 카트리냐’를 구현하는 의상과 장식 대환영!

* 얼굴가면은 주최측이 준비합니다.

* 방역마스크 위에 행사 가면을 착용하므로 평평한 형태의 방역마스크 착용을 권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_ 마스크 필수, 현장 발열체크시 37.5 이상이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행진 일정에서 별도 식사가 어려우니 아점을 든든히 먹고 오세요!

[행사 일정]

11:00 사전 부스 및 방역 체크 (세종문화회관 앞)

12:00 본 행사 (세종문화회관 앞)

13:00 행진 시작 (광화문 앞)

14:30 마무리 집회 (종각 인근)

[행진 루트]

광화문 정문 ▶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경찰서 ▶제동로터리 ▶낙원상가
▶종로2가 교차로 ▶종각 SC제일은행

- 참여자 : 사전 신청자 62명, 현장참여자 50명

• 평가

-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은 미투운동 이후 3-4년차를 맞이하여,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성명문 배부, 광화문 1인 시위 등을 진행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작은말하기에서 최초 동력이 형성된 면도 있었지만 담당팀 확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는 워크숍을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 기획 단계에서 공폐단단 활동가들과 논의하여 ‘친족성폭력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깊게 하는 필요가 제기되었고, 가정폭력-아동학대-친족성폭력이라는 분절화된 운동과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훑아보는 내용의 워크숍 진행됨.
- 하반기 매마토 1인 시위 진행의 결절점, 사회적 확산을 고민하던 차 11월 여성폭력추방주간 집회 및 행진을 제안하였고, 상담소 예산 및 실무 결정을 통해 공동주최로 진행함. 친족성폭력 당사자들이 집회의 주체가 되고, 대사회적인 구호와 선언 마련, 대중적 행진 등을 통해 의제를 제도화하는데 더욱 나아감
- 친족성폭력 당사자들이 가부장적인 피해의 위계와 외면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 과정에서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조력, 동료적 관계를 맺으며 온 과정이 의미 있으며, 향후 관계와 운동의 전면화에 대한 상담소 계획이 필요함

2-3.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2018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이 현재 진실규명과정, 형사처벌을 위한 쟁투, 피해자 2차 피해에 대응하는 활동 등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전체 팀별 고르게 대책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래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 존재

• 목표 :

- 위력성폭력 사건에서의 진실규명, 피해자 보호 등의 기본적인 목표의 실현
- 보궐선거 등 국면에서 젠더없는 민주주의 비판 및 성평등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활동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성찰 논의 진행

• 진행 내용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사무국 연구소 (장주리 활동가 공동) 피해자 지원	<p>[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17차 회의 - 1.5.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18차 회의 - 1.7.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전체 회의 - 1.13.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19차 회의 - 1.18.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0차 회의 - 1.22. [성명]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 1.25.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2021년 1월 25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앞</p> <p>사회 최원진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p> <p>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 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p> <p>발언 2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p> <p>발언 3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p> <p>발언 4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p> <p>발언 5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p> <p>발언 6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p> <p>질의응답</p> <p>1인시위 _ 오후 12-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1차 회의 - 2.8.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2차 회의 - 2.19. [성명]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 3.2.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3차 회의 - 3.12. [면담]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 3.19.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4차 회의 - 3.23. [기자회견]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 입니까?</p> </div>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p>3월 23일(화)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 주최 _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사회 이소희_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p> <p>1. 경과보고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_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p> <p>2. 발언 1)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_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2)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_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3)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달별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4)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p> <p>3. 퍼포먼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4.7. [성명/액션] 시민 공동성명 및 프로필 액션 “성평등 공약 실종상태, 이제는 성평등한 서울을, 성평등 정책 내나라” - 3.31.~철거 시까지 [액션] 현수막 액션 “4월 7일, 버거가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 4.1.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5차 회의 - 4.8. [기자회견]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계/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p>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계/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p> <p>4월 8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도서관 앞 사회 :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 발언</p> <p>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p> <p>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p> <p>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p> <p>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p> <p>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p> <p>★ 퍼포먼스 <성평등, 시민의 목소리로 광장을 채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6차 회의 - 4.29.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7차 회의(집행위원회 내부 평가토론회 1차)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3.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8차 회의(집행위원회 내부 평가논의 2차) - 6.2.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29차 회의(집행위원회 내부 평가논의 3차) - 6.30.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전체 단체 평가와 연대의 밤 - 12.14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전체 단위 회의 <p>[피해자 지원단체 및 변호인단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2차 피해 중단, 진실 규명, 책임 추구를 위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문 - 1.21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1.25. [입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2.10 이상호 의원에 대한 피해자의 글 배부 - 3.17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p> <p>▶일시_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0시</p> <p>▶사회_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p> <p>▶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2. 김혜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가 처음 직접 말하기까지 _ 정치영역 내 성폭력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일상회복과제 3. 서해진 (피해자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라이트하우스)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지법의 사실인정과 제도개선 권고까지 4. 이대호 (피해자 전 직장동료,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 비서관) 피해자의 예전 직장 동료가 다음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부탁 5.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20-30대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 가장 정치가 필요한 곳에 가장 정치가 부재하다면 6.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7.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자 관점, 수사기관과 사법부만의 역할인가? 정치가 제일 공백이다 8.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서울시민은 미래를 원한다 - 박원순 성평등 정책이 멈춰선 자리에서, 그 이상을 시작하라 9.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일터로 돌아가려던 그 길에 멈춰서서 10. 기자 간담 및 질의응답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0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에 대한 현 서울시장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 5.13 [서명운동]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 성폭력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 구속 수사,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 피해자 실명, 사진 온라인 유포 > 디성센터 삭제지원연계중 - 서울시청 내 2차 가해자 감사 > 서울시 인사와 논의 진행 - 8/12 성특법 24조위반 형사고소, 피해자 진술 - 8/1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통망 명훼손 추가 - 8/12 보배드림 등 펌글 블라인드 처리 등 - 8/12 민사상 페이스북 글 가처분 신청 - 8/20 가처분 재판 - 의견서 제출 (결정 아직) - 8/23 피해자 실명공개 1심 재판 (최OO) - 8/23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시간 (지원 단체 보도자료) - 9/3 경찰승 '사실관계' 글 삭제 가처분 결정 - 9/9 실명공개 최OO 1심 집행유예 유죄 - - 10/6 16:00 경찰승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 10/6 정OO : 이슈에디코 인터넷 신문사 피해자 실명편지 업로드 (11/5 10:00 선고) - 10/12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1차 공판 : 본안전 항변(원고 적격, 처분성, 소의 이익) 처분대상은 망인이나 원고가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 보임 / 원고 측 인권위 일체 자료 제출 신청 - 11/3 경찰승 글 게재에 대한 강제간접 결정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연구소 장주리 활동가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 오거돈 기소촉구 및 검찰규탄 기자회견 - [성명] 검찰은 2차가해 중단하고 오거돈을 즉각 기소하라 - 1/22 공대위 회의(온라인) - 1/28 오거돈 불구속기소 - 2/16 [성명] 권력형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변성완 예비후보는 2차가해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2/26 공대위 운영위원회 - 3/17 공대위 운영위원회 - 보궐선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질의서와 요청서 발송 완료 - 3/26 오거돈 공대위 기자회견 : 1, 2번 후보 서약 진행(사과 및 재발방지, 성평등 정책 약속) - 3/26 [성명] 오거돈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울,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오거돈 변호 입장 관련 질의 - 구두 답변 - 정확한 연관성 없다, 변호사 개인 판단임 - 윤호중 현충원 사과에 대한 피해자 입장문 발표 - 5/10 공대위 운영위원회 - 6/1 1심 1차 공판 - 6/1 공대위 운영위원회 - 6/8 1심 2차 공판 - 6/8 오거돈성폭력 결심공판에 따른 기자회견(피해자 입장문 발표) - 6/8 오거돈 결심공판 연기에 따른 입장 발표 - 릴레이 1인시위, 릴레이 탄원서 제출 - 오거돈 실형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진행 - 한국성폭력상담소 탄원서 작성 제출 - 6/21 1심 3차 - 결심 공판 - 검찰구형: 7년,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성범죄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p>취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거돈 측: 강제추행이 아니라 기습추행이다, 치매 흡수, 상해예견 가능성 없었다, 2차피해를 오거돈이 책임지명 형사법정주의가 무너진다, 피해자는 합의하려고 하는데 진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등 - 6/23 긴급 공대위 운영위 회의 - 6/28 부산성폭력상담소 내 공대위 기자회견 - 6/29 선고공판 (실형 3년, 법정구속) - 9/15 오거돈 2심 재판 시작 <p>: 오거돈 : 기습추행=강제추행 헌법과잉금지위배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해인정 어렵다 : 재판부: 진료기록감정촉탁 - 의사 많은정보 있어서 / 피해자 PTSD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사례나 판례 제출해달라,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으면 치상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자료 제출해달라 : 오거돈 측 피해자 진단서 감정신청에 재판부가 공판 2일 전에 허가 > 문제제기 의견서 발송 (공대위) - 민주당 보궐선거 당시 2차 피해 문제제기 관련 징계 요청 : (김두관 윤리심판원, 변성완 윤리심판원) 10/29 [성명][성폭력사안에 해결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조속히 공식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라!</p>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및 추후 과제 실행, 일지 정리 - 공동대책위원회 백서 정리(진행중) - 충남도청 성폭력 및 비위 제보 : 국가인권위원회 이메일 발송 > 직권조사 계획 없고 제기 대상과 기간이 아니라는 구두 답변 받음 - 포털사이트, 뉴스에 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진 삭제 요청 및 확인 작업 (정은희 자원활동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에 "안희정 비서"등 키워드들 검색 시 노출되는 이미지 중 피해자의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사진이 포함된 언론기사와 블로그, 카페 게시물에 대하여 사진 삭제 또는 게시중단 요청을 진행. 원본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하여 검색제외 요청을 진행.</p> <p>1. 언론기사 사진삭제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기간 : 3개월 / 소요시간 : 약 7일 - 1차 컨택 : 이메일 또는 팩스로 공문 발송 / 2차 컨택 : 전화 - 이메일이나 팩스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응답률이 낮음. - 33건 요청하여 24건 삭제조치됨 <p>2. 포털사이트 게시중단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기간 : 1개월 / 소요시간 : 약 5일 - 게시중단 요청 시 요구하는 서류들 : 마스킹된 당사자 신분증, 신고요청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 단체 사업자등록증, 마스킹된 대리 단체 대표자 신분증 - 답변 소요시간 : 1~2일 - 네이버 블로그/카페 : 33건 요청하여 33건 임시조치됨 </div>

대책위원회 명칭	역할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티스토리) 블로그 : 11건 요청하여 11건 임시조치됨 3. 포털사이트 검색제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제외 요청 시 요구하는 내용들 : 사진캡처 파일 - 원본이 게시중단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다수 요청하였으나, 원본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검색제외 조치 불가능하다고 함. - 답변 소요시간 : 네이버(1~2일), 다음(2~3일), 구글(3주째 답변 없음) - 네이버 : 게시중단되지 않은 게시물을 포함한 8건에 대하여 검색제외 요청을 하였으나 3건 검색제외됨 - 다음 : 게시중단되지 않은 게시물을 포함한 38건에 대하여 검색제외 요청을 하였으나 11건 검색제외됨 - 구글 : 게시중단되지 않은 게시물을 포함한 78건에 대하여 검색제외 요청을 하였으나 3주째 답변 없음 - 민사소송 진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비서에 의한 댓글 민사소송 법률지원(변호사 소통) : 도청,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측면 지원 : 공판 모니터링, 의견서 작업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신체 재감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피해 대응 : 댓글러 형사대응 민사진행 (조정, 사과문 업로드) -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 피해자 사진 게재 정정 공문 발송 -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결성 추진 : 12/12 1차 모임 - 피해자 상담소 30주년 커피백 후원 진행

• 평가

-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으로 2차 가해, 공공기관의 책무, 성차별적 비서 노동, 성희롱까지 깊어질 수 있었으며 향후 정책적 개선 과제를 이끌어 냄. 보궐선거에 대한 피해자의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을 수차례 논의하여 피해자 지원단체는 ‘함께 말하기’ 행사를 치러냈으며, 이는 보궐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침. 진영론을 넘어서 질문을 던졌으며, 보궐선거 결과 이후 피해자 일상 복귀의 조건들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보편적인 진일보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되지 않음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은 보궐선거를 거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피해자 2차 피해, 실명 공개 등 사안이 진행되어 형사고소 등이 계속 대응으로 진행됨. 피해자의 업무 복귀 과정이 정치적인 2차 공격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가치 있는 대응이 고민되고 있으며 - 안희정, 오거돈 사건과의 유사한 맥락에서의 공동 대응도 필요함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2020년말 경찰 및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여성단체를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 건이 알려진 후 공동행동 사무국으로서 1월 첫주 발빠르게 전체 단위 회의 소집과 공유를 진행하였고, 공동행동 집행단위 평가 등을 통해 상이한 인식, 평가를 드러내며 토론하다가 6월 30일 전체 공동행동 참여 단위와 평가의 연대의 밤에 이르게 됨. 이후 여성연합 혁신논의, 시민사회연대회의 내 성평등 관련 논의 등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공유를 12월에 진행함
- 안희정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일상회복 과제에 어려운 난점들을 확인하고, 가해자 출소가 피해자 일상 회복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속 지원 모임을 결성 진행하고 있음
- 오거돈공대위에서 사건 진행에 대한 판단, 전략 논의 등을 함께 수행함. 지연된 기소에도 불구하고 빠른 1심 진행 끝에 3년 실형과 PTSD 치상 인정 등의 성과가 이어졌으나, 기습 추행 위헌,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 등 피고인 측의 백래쉬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지난한 대응을 이어감. 민주당 젠더폭력심의위가 고발된 자들에 대해 2차 가해 및 징계결정을 했으나 부산 윤리심판원이 기각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 대응 중임

2-4. 반성폭력, 성평등 법 정책 생산, 비판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성폭력 판단 및 양형기준,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 처분 정책 등 새롭게 논의되는 관련 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2차 피해 양산 및 위력 성폭력 사안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마련, 감시의 필요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따른 유기적인 활동 수립 및 진행
- 방법 및 계획
 -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성폭력 관련 의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대
 - 학계, 운동계, 정책, 법률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여 필요한 반성폭력 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
 - 토론, 발제, 정책 제안, 국정 감사, 보선 시기 활용 등으로 해당 과제 활동 진행
 - 법 개정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개진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정책위원회 논의)
- 담당자: 란
- 진행내용

의제	진행 내용
해바라기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서울지역 통합형 해바라기 2개소 폐쇄 앞두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대응방안 논의 - 2/17 권인숙 의원실 협의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현안질의 - 4/8 전성협 서울권역 긴급 증 회의 (14개 단체 18명 참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공유] 서울지역 중부해바라기 운영 사실상 중단상태에서 긴급 연계된 피해자가 경찰 임시숙소에서 사망 사건 최근 발생 >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에서 상담소에 야간심리 상담 체제 요청</p> <p>[논의] 통합형 해바라기 2개소 중단 이후 피해자 연계망 공백 및 미비 상황에 대한 연계망 전체의 공유 및 비상망 논의 필요</p> <p>(북부해바라기의 경우 꿈터 성폭력상담소에서 직접 면담으로 사례지원 연계했고, 구청과 인근 서울의료원에 요청하여 키트 3개 전달, 사용방법 아직 몰라 간담회 제안했으나 회피중임)</p> <p>[결정] 간담회 제안 _ 서울시경찰청, 1366, 여가부, 진흥원, 해바라기센터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여성가족부, 서울시 간담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일시_2021.4.19(월) 10시</p> <p>참석_여가부 권익증진과장, 담당 사무관 주무관(4) 서울시 인권권익담당관(과장) 팀장 주무관 (3) 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1) 전성협 서울권역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 (2)</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 2개소 업무 중단에 따른 공백 사례들 나눔 - 서울시 향후 역할 : 연계망 재정비 - 상담소에도 공유

의제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찰과 당분간 권역 넘어 서울 전체 중 해바라기 3곳에 우선 연계 : 응급키트 가능한 병원 몇 곳이라도 더 섭외 (현재 주간 16곳, 야간 해바라기+인정 병원 목동병원 2곳 가능) : 전담병원 들 응급키트 등 교육 관리 : 중부해바라기 사례 연계시 상담소와도 협의 : 서울 경찰에 상담소 연계, 1366 긴급쉼터에서 개인 폰 사용 어려우나 기관폰 등으로 연락 가능함을 피해자들에게 안내 - 여성가족부 향후 역할 : 해바라기센터 전체 운영 점검 : 해바라기 시설 보강 등 필요 점검(대기공간 확보, 환체어 공간 협소, 산부인과 체어 노후화) : 해바라기센터 중 임신중단 시술 종교상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곳 있는지 확인, 지침대로 해야 함을 안내 - 그 외 진행사항 점검 : 서울대병원 해바라기 운영 애로 해소중임 (공간 사용료 지급), 운영의지 등 확인함 : 서울대병원 해바라기 인력 총원 4인 조치함 - 신규 해바라기 선정시 임신중단 시술 종교상 이유로 불가한 기관 배제중임 - 7월 11일 윤정원 이사의 국립중앙의료원 중부 해바라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논의 예정 : 이미경 이사, 김혜정, 최란 등 참여
선거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 여성신문 젠더위원회 주최 4/7 보궐선거 무엇을 남겼나? 성평등 사회로의 담대한 도전 : 성폭력 관련 발표 - 한겨레신문 대선 대응 젠더 정책 전문가단 참석 - 6/21 민주당 대선 준비 시민사회간담회 : 여성, 안전 분야 - 성폭력 발표
공군 여성 부서관 성폭력 사망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추모논평]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 6/3 [긴급촉구]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6/3 [해군성폭력공대위]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 6/9 '군대 내 성폭력피해자와 연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의 건 관련 상근활동가 논의 (결성 불발) - 6/17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6/2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민주당 TF 시민단체 간담회 : 군대내 성폭력 사건 관련 문제점과 대응 방향 (성폭력 전담 대응 기구 ex) 미국 SAPRO 구조적 신설 필요 - 현재 보건복지국 소속 양성평등정책과 내의 업무) - 6/25 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위촉 및 1차 회의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CHR 코로나19 시기 성과 재생산 권리 현황 관련 보고서 참여 UN OHCHR 제출 [Report from the South Korean Civic Society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during COVID-19]

의제	진행 내용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2차가해 징계 재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태백경찰서 신입여성경찰관 사건 관련 기자 연락, 사건파악, 멘트 진행 - 6월 경찰청 주의, 경고, 타 지역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경징계 결정 (16명) - 7월 2일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성폭력 분과에서 질의 (이경환 이사) 피해자 변호사 협력으로 자료 확인 및 문제지점 지적 예정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비판 (논문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0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박사논문발표회 기획 1차 논의 - 8/18 상근자회의 논문발표회 기획 확정 논의 - 논문발표회 기획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 강화가 가져온 법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둘러싼 페미니즘의 정치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p> <p>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의 등장,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피해자 책임과 고통의 증명으로 이전되고 가해자의 역고소를 통해 역전되는 상황들.</p> <p>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법시장에 종속되는 매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이에 맞서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의 정치학을 고민해봅니다.</p> <p>일시_ 2021. 9. 15. (수) 저녁 19시 30분 ~ 21시 30분 장소_ 온라인 플랫폼 줌 (zoom) 사전신청링크_ https://forms.gle/hdeTQKvc8yoZobpG9</p> <p>발표_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김보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논문 링크 : https://url.kr/twdaf3) 토론_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청 129명, 당일 참여 100여명
[시리즈 집담 회]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 에 맞서는 로우 (Law) 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의 백래시 주요 쟁점 2회차에 걸친 집담회 기획 (기획팀: 오매, 란, 유랑, 경진, 도경) - 12/1 시리즈집담회 전체 홍보물 발행 (뉴스레터, SNS 홍보 게시) - 12/10 1차 집담회 홍보물 발행 - 집담회 기획(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차 집담회]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5시, 줌(Zoom)</p> <p>-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p> <p>-발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문제, 실태와 문제점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김혜정 활동가)</p> <p>-토론: 성폭력 피해 치료와 법적 입증 과정의 문제 (장형운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거점) 소장)</p> <p>-토론: 성폭력 민형사상 판단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의 취급 (미정)</p> </div>

의제	진행 내용
	<p>[2차 집담회]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가공·유포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2022년 2월 8일(화) 오후 2시~5시, @미정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p>

• 평가

- 정책대응은 연간계획을 넘어, 현안이 발생하면 여건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NGO의 역할이 배제되었다가 결국 아무도 책임있는 입장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개입하였고, 결국 상담소 이사의 책임 고민에 이르고 있으며, 다시 해바라기 혁신안에 대한 여가부 정책논의와 만나야 하는 상황임. 공군 사건의 경우 군대내 성폭력 관련 개입해온 경험과 그동안의 정책적 흐름에 대한 군인권센터와의 협력 등으로 국방부 위원회를 통해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을 이루어야 할 역할에 놓임. 이외 전성협 정책대응팀 활동, 여성연합 활동 등 다양한 카테고리 분포되어 있음.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펠로우십 관련 기금으로 성폭력 법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백래시 상황의 쟁점으로 시리즈 집담회를 기획함. 연속 집담회로 주요 쟁점인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수사재판 자료의 가공 및 유포 피해에 대해 다루기로 하고, 펠로우 변호사가 집담회 사회 및 실무 진행으로 협업하는 기회를 만들.
- 책임연구원 박사논문 발표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과 변호하는 전문 로펌, 법 시장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환기를 도모함. 상담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와 활동가의 연구물을 공유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문제의식을 환류하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음. 또한 활동가와 주변인, 피해자 등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과 고민, 맞서기 위한 다양한 대응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해당 논문은 이후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감경목적 후원이나 양형기준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분석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소장단과 사무국, 전체 상근활동가들과의 공유, 역할참여, 역할논의, 공동 판단 및 평가, 기록 등에 있어서 안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

2-5.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법정책 영역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률가 양성과정에 상담소가 일정 정도 개입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 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방법 및 계획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법무실습 2/2(화)~2/8(월) 40시간 (5명)
내용 - 상담소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쟁점, 팀별 활동 (교육)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적용 판례 분석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 담당자: 란

• 진행내용

-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실무 : 총 5명 배정 (임은지, 이린, 이에림, 홍기정, 원충연)
- 2/2 전체 및 팀별 오리엔테이션 진행
- 2/3 <비동의강간죄와 적극적합의> 강의 (강사 : 란)
- 2/4 <의제화간의 매커니즘> 세미나 (진행 : 오매)
- 2/8 강간 무죄 사건 판례평석 발표 및 종합 토론

• 평가

- 여력상 2주일 소요되는 하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은 진행하지 않고, 1주일이 소요되는 서울대학교 공익 법률센터 의무활동을 진행하기로 논의, 결정함
- 그러나 1주일간의 활동은 짧아서 오리엔테이션, 특정 주제 소양교육, 특정 주제 과제 진행 및 발표 토론 까지 이어지기에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반성폭력 NGO운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참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배정된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상호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문제 발생함
- 반성폭력 운동 참여하는 법률가를 만나고 연결되는 계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투트랙으로 대중적으로 1) 일 주일 프로그램을 NGO알기, 반성폭력운동 알기, 관계 맺기의 내용으로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진행하거나 2) 초기 변호사 교육, OT, 설명회, 스터디 등을 통해 변호사 진입 그룹과 관계 맺는 등의 향후 개선 방향 이 있겠음

2-5-1. [신규] 공익펠로우 변호사 활동

• 배경/필요성 : 피해자 법률지원, 의견제출, 정책, 연구 활동등을 많이 진행하는 상담소는 법률적 인적 자 원을 필요로 하며, 여성주의 법률가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해당 활동을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이를 긴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고려하게 됨

• 진행내용

- 2월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를 통해 이도경 예비 변호사의 펠로우 활동 희망 소개받음
- 2월 이도경 예비 변호사를 통해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전달 받음
- 2월 초벌 줌미팅 : 이도경, 김혜정, 최란, 감이, 유랑 참석 (기대 역할 및 진행 방식 타진)
- 3/3 상근활동가 회의 논의
- 3/3 논의 내용 전달 및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 신청서 제출
- 이도경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제2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채용
- 4/29 기관대 기관 미팅 진행, 연수 및 변호사 단독활동 일정, 기관별 역할 확인

: 공익펠로우변호사 활동 일정: 2021. 5. 3 ~ 2022. 4. 29 (기본 1년, 심사 후 1년 연장 가능)
 : 1차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2차 실무연수기간 종료 이후인 2021. 11. 1부터 단독 소송수 행 가능
 : 공익법률센터 소속(근로계약)으로 주 1일 1/2, 또는 주2일 1/2 상담소 내근
 : 한국성폭력상담소 출근 및 역할

5, 6, 7월	8월 - 2022년 4월
주 1회	주 2회~2.5일
- 고소장 검토 의견 작성(서면)	상동

- 업무 회의, 슈퍼비전 등 참석	+ 성폭력 관련 판례변화 아카이빙 및 해제
- 월법 배석 및 일지 작성 + 후속 지원 가능	+ 강간죄 개정연대 자료 생성
- 의견서 작성	+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참석
- 판례 검토한 의견서 기초자료 작성	+ 월요법률상담 배석 및 단독 진행
- 규정 및 매뉴얼 정비 (감수)	+ 사건 서면 작성, 단독 수임

- 서울대공익법률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MOU 체결 : 8월

- 평가
- 지난 상담소 자원활동, 법률실무수습, 상담원교육이수를 진행했던 인적 자원이 변호사라는 전문 역할로서 상담소와 협업하게 된 과정으로 연결됨.
-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감수성과 피해자 지원 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나눠서 하여 상담팀, 열린터, 사무국 등 여러 방면 활동에 큰 협력을 하고 있으며 연말 토론회 기획, 진행, 예산 사용까지 이어지고 있음
- 향후 일상 소통, 평가, 상호 성장 및 환류 체계를 더욱 안정화, 개선해나 갈 필요가 있음

2-6.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목표:
- 다양한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계획 :
- 강의, 발표, 자문, 심의위원회 등 요청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 후 수락, 진행
- 방송,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언, 기획 참여, 출연 및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유 등 진행
- 집계 및 평가
-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보완계획으로 환류
- 진행내용
- 1) 강의 (총 82회, 수강인원 약 3,267명)
- 2) 자문 (총 58회)
- 3) 발표 발제(16건)
- 4) 원고 (12건)
- 평가
- 강의 요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 교육의 특성으로 더 많은 교육 대상이 참여하여 전년도 대비 참여인원은 다소 증가(2020년 교육 총 81회, 약 2,466명 대상 교육)함.
- 활동가별 주요 강의 주제가 선정되면서 강의 경험과 자원이 쌓이고 있음.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강의료 환급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어 강의 수당 신설 및 강의료환급 사안에 있어 적정성 검토 및 관련 내부 규정 변동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 완료할 예정임.
- 자문 활동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0년 총 114회 진행), 이는 기관별 컨설팅 자문, 연구자문 등의 의뢰처에서 전임 소장 및 책임연구원 등 개별 활동가가 가진 자원과 경력에 비취 요청되던 자문 사안들이 감소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목표3. 함께 성장,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 지속성 높이기

3-1. 회원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총회

- 목표 :
 -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결정, 그리고 평가되는 총회개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멤버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반성폭력운동 장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 신임 임원 선출 및 퇴임에 따른 법인 행정 수행
 - 코로나19시기 변화된 조건에 따른 안정적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진행
- 방법 및 계획 :
 - 총회 안내, 홍보 : 2020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명부 확정 및 참석 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및 정비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확인 및 후원회원 전환, 정회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내부 원칙 정비 및 공유
 - 일정 및 내용
 - : 2021. 1. 28(목)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
 - : 주요 사업 계획, 반성폭력 활동 방향 및 당면과제 등 공유 및 평가, 논의
 - : 2021년 상담소 30주년 주요 목표 도출 및 사업 공유, 확산
 - 공증 : 변호사 입회 공증 방식으로 편의도모
 - 온라인 총회 :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무관청 사전 문의에 따른 유의 사항 준수하며 진행
- 담당자: 란
- 진행내용
 - (1) 사전 준비
 - 11/26(20년) 이사회 30차 정기총회 결의 (21.1.27), 1/26 이사회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 12/23(20년) 30차 정기총회 공고
 - 1/20까지 총 6명 후원회원 전환, 6명 신규 정회원 등록, 최종 정족수 79명
 - 온라인 총회 진행 주무관청 사전 문의,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 안내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 진행 가능 확인
 - (2) 일정 및 내용
 - 2021.1.28(목) 저녁 7시, 온라인 zoom으로 진행, 총 79명 중 53명 출석 (참석 43명, 위임 10명, 참관 5명)
 - 회순 (29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2020년 활동 보고/ 특별 보고1. 인권침해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특별 보고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소의 성찰과 입장/ 2020년 감사보고/ 제1호의 안 2020년 결산 승인/ 제2호의 안 임원 및 대표단 선출/ 제3호의 안 2021년 사업 계획 승인/ 제4호의 안 2021년 예산 승인/ 기타안건/ 신입 활동가 소개/ 공로상 및 감사패 시상/ 폐회선언)
 - (3) 공증
 - 법무법인 원 원민경 변호사 입회 공증
 - (4) 온라인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사용 신청했으나, 단선으로 만장일치 선출로 미사용
 - (5) 임원 아취임식

- 기획팀(란, 앞, 경진, 파랑, 낙타, 달별, 유랑, 인턴 뿌리, 수이)
- 상담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https://www.youtube.com/watch?v=41uK7nmlBDc>
- 1/28 저녁 9시~ 9시 40분 (총 40분간 진행)

구분	영상 내용	임원
이임식	활동사진 및 영상 (2분) + 떠나보내는 마음 나누기-주요 인사 사전 인터뷰 영상 (각 3명씩, 총 6분) + 소감 나누기 (3~4분) + 실시간 댓글 공유 (5분) + 활동가 집단 퍼포먼스 (영상)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2015. 1. 취임, 2018. 1. 중임, 임기만료), 정정희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2018. 3. 취임, 임기만료)
취임식	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소개말(30초)+ 활동사진과 영상(30초)+ 비전 제시(1분)	김혜정 (소장, 전 상담소 부소장), 최란 (부소장, 전 상담소 사무국장), 조은희 (부설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전 여성주의 상담팀장)

(6) 후속 사업

- 후기: 1월 쉼다 뉴스레터에 정기총회 후기 업로드 및 홈페이지 결과 공지
- 임원변경 등기: 3/14, 15 임기 만료에 따라, 3/23 임원변경 등기 완료
- 평가
- 공증센터 통해, 민법 제71조상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회원 제명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이 일주일 전 명시되지 않아 정기총회에서 의결 불가함을 확인하여 2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음. 사전에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해 추가적인 물리적·재정적 지출을 초래함.
- 상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새로운 정회원이 추가적으로 등록된 것은 고무적이거나, 1년 이상 회비 미납 등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어떠한 원칙과 근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과제가 남음.
- 온라인 총회 진행 관련, 사전 리허설 등 모든 활동가들이 당일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었음.
- 이취임식 관련, 온라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인터뷰 및 활동가 참여 영상 제작 등으로 이취임식에 걸맞는 행사를 진행함.

3-1-1. (신규) 2021년 임시총회

• 진행내용

(1) 사전 준비

- 1/20 1월 임시이사회 2021년 임시총회 개최 의결
- 1/28 30차 정기총회, 2/25 임시총회 일정 공고
- 2/10 2021년 임시총회 홈페이지 공고
- 2/16 정회원 우편 발송
- 2/16 임시이사회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 2/17 회원 처분의 건 대상회원 소명 요청
- 2/3, 2/9/ 2/25, 2/16 상근활동가 안건준비 회의
- 2/22 사전 의견 수렴 링크 발송 (정회원 이메일링)

(2) 일정 및 내용

- 2021.2.25(목) 저녁 7시, 온라인 zoom으로 진행, 총 79명 중 52명 출석 (참석 40명, 위임 12명)
- 회순 (성원 보고/ 개회선언-임시총회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내/ 서기선출/ 회순채택/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 안건2. 회원 처분의 건/ 기타 안건/ 의사록 승인 절차 안내/ 폐회선언)

(3) 온라인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사용 신청했으나, 회원 처분의 건 의결 안건 상정 불가로 미사용

(4) 후속사업

- 후기: 2월 쉼다 뉴스레터에 임시총회 후기 업로드
- 3/31 의사록 확인 절차: 정회원 3명 (김여진, 노주희, 유승진)의 의사록 확인절차 진행
- 4/5 의사록 이사회 소위원회 회람
 - 평가
 -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전달 과정에 대한 토론 및 관련 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논의 안건으로 제안되어 총회 전 총 4차례의 상근활동가의 집중적인 안건 준비 회의와 1차례의 임시이사회 및 1차례 이사회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내부적으로는 밀도 있는 논의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당일 안건 토론의 내용에 있어 회원의 의무, 권리, 역할 등의 논의와 해당 사안의 성격 규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논의로 인식되어 충분히 평가 토론되지 못함.
 - 회원 처분의 건 대상 회원의 소명 과정에서 후원회원 가입 경로 및 가입서 관리 필요성 등에 관해 인지하게 되어 회원가입서 내용 변경 및 확인 절차 마련 등의 과제를 이행중에 있음.
 - 회원 규정 및 가입시스템 및 가입서류 보관, 관리, 체계 정비 등의 과제를 남겼으며, 비판적 태도와 건강한 견제, 피해자지원단체와 정부 기관 내의 여성정책, 정치가와의 관계, 협력의 모델 등 여성주의의 거버넌스란 어떤 모습과 관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필요성의 과제를 남김.
 - 임시총회 직후 탈퇴한 회원이 있으며, 대다수는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NGO로서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탈퇴 의사를 밝힘.
 - 임시총회 단일 안건으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전달 과정에 대한 평가를 조직적 평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고, 이를 계기로 상담소의 정체성과 활동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3-2. 이사회

- 목표 :
 - 상담소 의사결정체계인 이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논의 활성화
 - 다양한 영역의 활동 기반을 가진 새로운 신임 이사를 선출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역할 재고
- 방법 및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별도 오리엔테이션 진행
 - 퇴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상시적이고 친근한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담당자: 란
- 진행내용

월	구분	일정 및 시간	진행내용
1월	정기	1월 26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박부진,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이사/ 김혜정, 최란, 정정희, 조은희, 전해영 활동가 안건1/ 2021년 3차 총회 안건 검토 및 부의 안건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소 입장 및 논의 과정 공유 안건 안건3/ 재정 내규 변경 안건4/ 신입 활동가 인준
2월	임시	2월 17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김혜정, 윤정원,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홍순기 이사/ 조은희, 최란, 전해영, 윤경진, 김현지 활동가 안건1/ 2021년 임시총회 안건 검토, 논의 안건2/ 2021년 임시총회 진행 순서 및 참석 확인
3월	정기	3월 16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김혜정, 윤정원, 이미경, 장다혜, 홍순기 이사/조은희, 최란, 전해영 활동가 안건1/ 신규활동가 인준 안건2/ 2021년 임시총회 진행 및 평가 안건3/ 30주년 사업 논의
5월	정기	5월 24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김혜정, 이미경, 박부진, 이경환 이사 / 조은희, 최란, 전해영 활동가 안건1/ 서울대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십 활동 공유 안건2/ 상담소, 열림터 회계 및 노무 자문 내용 공유 안건3/ 30주년 사업 논의
9월	정기	9월 7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김혜정, 이경환, 이미경, 윤정원, 장다혜 / 조은희, 최란, 전해영 활동가 안건1/30주년 사업 및 모금 계획 안건2/ 추경 예산안 의결
11월	정기	11월 16일 저녁 7시	참석: 이명숙, 김혜정, 이경환, 이미경, 윤정원, 장다혜 / 최란, 전해영 활동가 안건1/ 제31차 정기총회 개최 의결 안건2/ 상담원 윤리규정(안) 승인 안건3/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사업 평가 안건4/ 2021년 이사회 활동 평가 및 향후 계획 안건5/ 신규 이사 추천

• 평가

- 신입 이사 충원으로 새로운 인적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상담소 운영과 방향에 대한 너른 이해와 안목으로 조언을 하고 함께 실행할 역량을 모으는 과정을 만들.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준비과정에서 이사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역할 수행으로 상담소 내외부를 둘러싼 변화하는 지형속에서도 상담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연 4회 및 정기이사회 등 참여로 상담소 전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하였으나 연간 참석이 저조한 이사의 경우 참여를 더욱 독려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반성폭력정치의 장에서 역할을 하고있는 이사들의 활동 소식과 상시적인 소통, 조언 등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심지를 두텁게 할 수 있었음.

- 신규 이사 추천 및 선임 등 새로운 이사 총원으로 상담소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확보 필요함.

3-3.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은 반성폭력운동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활동가를 만나는 기회
 -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담소 활동의 실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활동의 고민을 환류
 - 인턴 및 자원활동 기록, 평가, OT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속성을 도모.
- 목표 :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계획가능한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법 및 계획
 - 학기 중 : 서울대학교(하반기)/고려대학교(상/하반기)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방학 중 :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겨울)
 - 기타 개별 실습 및 연구, 정책 자원활동 신청자 면담 및 활동 배치
 - 사전에 주요 업무/활동 및 일상 지원활동에 대해 분명한 안내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종료 시 활동 나눔 진행 및 후기 공유
- 담당자 : 백목련
- 진행내용

구분	활동인턴	기간 및 활동업무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수이, 뿌리	2021.1.4~2021.2.10 (총 192시간) 30차 정기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 실무, 성폭력 주요 지원사례 백서 정리, 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획 및 실행, 그 외 상담소 일상 업무 보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프로그램	홍서현, 박지희	21.6.24.~2021.12.16.(매주 목요일) 30주년 기념사업 실무, 나눔터 기획 및 진행, 그 외 상담소 일상 업무 보조

- 평가
 - 여성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코로나 상황으로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으나 처음 계획했던 업무보다 더 많은 기량으로 함께 활동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 정기총회, 30주년 기념사업 등 상담소의 주요 사업에 밀접하게 결합하여 실무 의견을 나누면서 NGO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함.
 - 큰 사업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을 때 배치할 업무를 발굴하거나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학습 요소 등을 제공하여 업무 시간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4.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법 및 계획 :
 - 자문위원회 체제 및 변동에 따른 새로운 인적 구성 마련 (회계, 비영리 조직 운영, 모금 홍보 분야 등)

- 새로운 인적 구성에 따른 자문회의 연내 진행, 2022년도 자문위원 신규 위촉
- 자문위원 활동 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30주년 사업 계획에 따른 상시적 자문회의 진행

- 담당자: 란
- 진행 내용

구분	내용
신임 자문위원 위촉	운영자문위원: 김지영 (공인회계사)
회계 자문 진행	일시: 2021.4.23. 참석: 오매, 란, 백목련, 조은희, 지희박/ 김지영 운영자문위원 내용: ① 비영리 법인 회계 원칙, 지향 (감사, 자문, 전문가 풀) ② 회계구조 및 2021년 공익법인 회계 공시 내용 검토 의견 ③ 특별회계 운용 건전성에 대한 자문 ④ 정부 지원 인건비 환급 방식의 적절성 ⑤ 외부 강의수익 집행 원칙 및 방식

- 평가
 - 회계 분야에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상담소 내 회계 투명성, 운용 건정성에 대한 이슈와 고민을 정리하고 자문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운영자문위원의 경우 선임되지 오랜 기간이 도과하였고, 회계뿐 아니라 인사노무, 단체운영파트, 조직문화 파트의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연간 정기모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개별 사안에서 좀 더 원활한 자문, 고민 나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삭제) 신규 운영자문위원 위촉 제안자 논의 필요 (회계 : 김지영 / 노무 : 최미진 등 / 단체운영파트 : 배진경 / 조직문화 : 서진(민주주의기술학교))

3-5. 전체 논의 및 팀별 회의 지원

- 목표 : 2021년 활동 방향과 핵심 목표에 따른 팀별 사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 2021년 팀별 활동 방향 및 핵심 목표에 따른 사업 수립 및 실행 지원
 -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체계 마련
 -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애로사항 해소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팀별 인원 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평가 계획 회의 : 1월 계획 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 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 회의 진행
- 담당자: 란
- 진행상황

시기	내용	세부내용
연간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체계 마련	- 팀 업무 회의 격주 참여 - 부설기관 업무 회의 대직 - 각 팀별 주요 사업 논의 참여 (프로젝트, 민원 대응 등)
연간	평가 계획회의	- 7/2 상반기 평가회의, 7/29 하반기 계획 회의 - 12/10 하반기 평가회의, 12/21 22년 1차 계획회의

6월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6/18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프로젝트 응모 (최종 미선정)
1월~3월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부설기관 열림터 야간활동가 채용 : 1/11 1차 공고, 2/9 2차 공고, 2/24 면접(채용) : 연수 일정 3/4~3/12, 7일간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보고회 : 3/17 신입활동가 2인 활동 보고회 진행
4월~12월	연구소 운영 평가 및 비전 논의	- 연구소 사안 대응 : 4월~6월, 연구소 조직/운영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구성원의 소진 및 갈등 상황 발생, 이에 대한 동료상담원 제도 활용 및 소장단 면담 진행 (4/7, 4/13, 4/19, 4/20, 4/21, 4/23, 4/25, 4/27, 4/29, 4/30, 5/10, 5/25, 6/12, 6/22, 6/24, 6/25, 6/30, 7/1) : 7월, 해결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하며 연구원 퇴사 : 7월~11월, 연구소 조직운영 평가 및 비전 논의 진행 : 7월~11월, 동료상담원 면담 및 전 연구소 활동가 면담 진행 (7/27, 7/28, 9/28, 11/18) : 11/24 상근자회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묻고 답하기 - 평가와 전망논의 (책임연구원+소장단) : 7/7 평가 및 비전 계획 변경 사항 정리 : 7/20 1차 논의(하반기 계획 및 향후 평가, 전망 항목 방향 논의) : 7/27 2차 논의 : 29일 하반기 계획 회의 시 활동가들과 공유할 내용, 방식 검토 : 8/3 3차 논의 : 연구소 독립과 관련한 전반적 브레인스토밍 : 8/19 4차 논의 : 평가항목 수정 필요성, 연구소 소속 구성원들의 역할 배분과 타 연구기관 및 연구진행 과정의 비교검토 : 8/26 5차 논의 : 타국책연구기관, 기업 및 대학부설연구소, NPO 조직평가항목 등을 바탕으로 연구소 평가항목 논의 : 10/20 6차 논의 : 평가항목 수정 : 10/21 7차 논의 : 여성주의적 이론 운동의 전문성 부분 평가 : 10/27 상근자회의 : 연구소 평가항목 검토 : 11/3 8차 논의: 평가항목에 따른 토론 : 11/4 9차 논의: 연구소1기, 2기 평가자료 검토 : 11/10 상근자회의 연구소 평가 비전 논의
6월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6/18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프로젝트 응모 (최종 미선정)
9월~11월	활동가면담 및 팀 로테이션 논의	· 목적 : 내년도 상담소 전체 계획 및 조직개편을 위한 활동가 개인 면담 / 전체 면담을 통해 활동가의 고민과 조직 피드백을 소통 · 면담 담당 : 소장 · 내용 : 지난 1-2년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 성장 포인트 등 자기평가, 조직 생활에 대한 피드백, 향후 개인 및 상담소 관련

		<p>전망과 고민, 신입소장단에 대한 피드백, 팀 이동 의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유량(9/9), 파랑(9/9), 앞(9/23), 경진(9/23), 상아(9/23), 감이(9/24), 수수(9/27), 달별(10/12), 신아(10/14), 지희(10/19), 파이(10/20), 백목련(10/22), 낙타(10/26), 란, 은희(11/9, 18) · 활동가면담 정리 리뷰 및 제안사항 논의 : 2021.11.24. 24차 상근자회의
--	--	---

• 평가

- 팀 업무 회의에 격주 참여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과 상시적인 논의 체계를 운영할 수 있었음.
- 책임연구원 공석에 연구소 업무 회의를 대직하여 연구소 운영을 함께 점검하며 향후 사업 진행 방향과 새로운 업무 제안 등을 할수 있었음.
- 상담소 전체 운영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 구입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동의 기금 사업에 응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과 활동가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음.
- 신규활동가 채용 및 연수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초기에 상담소 활동에 어려움 없이 진입/적응하여 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 연구소 조직운영 체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인과 부설기관의 위치, 업무 배분 및 협업 등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비전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 과정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차년도 조직문화 점검 계획으로 이행해갈 필요 있음.
- 하반기 상근활동가 면담을 통해 개인 활동가와 팀 업무, 팀워크, 전체 조직적 기반과의 협력과 비전에 관한 대화가 모이고, 조직적인 상황과 활동가 개개인의 조화의 상태가 깊어짐. 활동가면담 결과 팀 로테이션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되어 전체 논의, 2022년 계획이 이어짐.

3-6. 활동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목표 : 활동하기 좋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산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처무 규정 개정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제 도입, 기본급 계산 방법 개선 포함
- 재정대규 개정 논의 : 급여 인상안 포함 이사회 검토 및 의결
- 상근활동가 소진예방비(상담비 지원 등) 기준 및 예산 논의
- 업무환경 개선 : 조명 등 시설환경 개선, 탕비실 기기 교체,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노트북 추가 렌탈, 불필요 비품 폐기처리 등
- 상근활동가 워크숍 :
 - : 워크숍 준비위원회 구성, 전체 프로그램 및 역할 분담 등 구상
 - : 워크숍 2박 3일 진행(하반기 진행 예정)
- 공통업무 : 공통업무의 적절한 배분 및 운영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첫째 주중 영역별로 일과 시간 중에 시행(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곳, 냉장고 정리 등)
- 휴가 운용 :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휴가 사용 독려 / 월차, 연차, 대체 사용 확인 및 독려 /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 성실 이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수행(재택근무, 소독 등)
- 월별 나눔 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 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담당자: 란, 백목련
- 진행내용

구분	내용			
규정 정비 및 활동비 인상	1월 정기 이사회 통해 기본급 5만원 인상			
활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 자문	<p>일시: 2021. 5. 10</p> <p>참석: 오매, 란, 조은희, 지희박/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노무사)</p> <p>내용: ① 내부 급여 테이블 (수당간소화 등 급여테이블 정비) ② 정부 등록 급여 후 원 방안 ③ 강의로 환급 및 강의 수당 신설 여부 ④ 근무시간 및 시간 외 수당/보상휴가제 도입 여부</p>			
인사노무 컨설팅 진행	<p>- 수행기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홍시내 사무국장</p> <p>- 컨설팅 요청 내용:</p> <p>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나 운영지침/ 상담소 내부 규정 지향 사이에서의 기준 제시</p> <p>상담소 운영의 지향과 방향에 근거하여 변경이 필요한 지점 또는 소명을 하면서 지속해나갈 부분 등 고려할 지점에 대한 제안을 요청</p> <p>-진행 시기: 7월 ~11월</p> <p>-진행 내용</p>			
	구분	일자	내용	방법
	자료 조사	~ 7/15	인사노무 관련 제 규정 근로계약서, 조직도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 검토	서면 검토/작성 담당자 유선 통화
	근로 현황 점검	7/14 9시~14시/ 30분 단위	실근로시간 및 근로 실태 조사 열림터(야간/주간), 상담팀, 성문화운동팀, 연구소	각 직무대표자 인터뷰
		7/28	제약사항 및 추가정보 파악	소장단 인터뷰
	개선안 제출	8/4	개선 방향 (안) 제안	이메일 제출
9/1		개선(안) 설명회	상근활동가 설명회	
9/15		개선(안) 내부 토론	상근활동가 회의	
12월		추가 검토 및 각 규정 개정 제안	담당자 미팅	
22년도 상반기		확정 및 공유	이메일 전달	
재충전데이 시행	<p>일시 : 2021. 4. 13.</p> <p>내용 : 상담소 개소일을 맞아 특별후원금을 활용하여 활동가들의 업무 피로도 해소 및 소진 예방을 위해 4인 1조로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p>			
팀별 활동 내용	참여자			
손과 입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알차게 보내는 재충전의 날 (채식요리 팀)	백목련(제안자), 지희, 파랑, 앞			
스티커와 마스크테이프로 함께하는 마음돌봄 (다이어리	수수(제안자), 달별, 주			

	<table border="1"> <tr> <td>꾸미자 팀)</td> <td>리, 유랑</td> </tr> <tr> <td>진관사&북한산 걷기 (도심속 힐링 팀)</td> <td>신아(제안자), 은희, 낙타, 상아</td> </tr> <tr> <td>따릉이와 함께 개소의 런데이 (술과 남이 해준 음식 팀) X 음악감상 & 플레이 (일렉기타와 베이스 팀)</td> <td>감이/경진(제안자), 란, 파이, 오매</td> </tr> </table>	꾸미자 팀)	리, 유랑	진관사&북한산 걷기 (도심속 힐링 팀)	신아(제안자), 은희, 낙타, 상아	따릉이와 함께 개소의 런데이 (술과 남이 해준 음식 팀) X 음악감상 & 플레이 (일렉기타와 베이스 팀)	감이/경진(제안자), 란, 파이, 오매
꾸미자 팀)	리, 유랑						
진관사&북한산 걷기 (도심속 힐링 팀)	신아(제안자), 은희, 낙타, 상아						
따릉이와 함께 개소의 런데이 (술과 남이 해준 음식 팀) X 음악감상 & 플레이 (일렉기타와 베이스 팀)	감이/경진(제안자), 란, 파이, 오매						
시설 및 기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비실 수납용 철제 캐비닛, 식기 건조대 등 비품 구입 및 전자레인지 교체 - 정화조 청소 (6/23) - 상시적인 시설 정비 (LED 등 교체, 주방 후드필터 교체 등) - 불필요 비품 정리 및 추가 기기 렌탈(노트북 3개) 						
환경정비 및 코로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기 대청소 실시, 1일 1회 소독당번제 유지, 코로나 대응 조치에 따른 방역 지침 적용 						

· 평가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와 5/10 노무 상담 후 처무 규정 및 재정 내규 변경 방안 마련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을 진행함. 이를 통해 팀별 직무분석, 실 근로시간 및 근로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내부 규정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개선안을 토대로 더 활동하기 좋은 조직 환경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었음.
- 개선방안 주제마다 활동가별 이해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수렴하며 이를 하나의 규정안으로 정비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있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별 주제별 토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 탕비실 정수기는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소형으로 교체하고 수납력을 높이기 위해 철제 캐비닛 구입, 기능 저하된 전자레인지 교체, 불필요한 비품 등 정리, 소독당번제 유지, 월 1회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로 사무실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하반기에는 30주년 기념식 등의 일정으로 대청소를 소홀히 하여 환경미화가 필요한 상황임.
- 연차 사용 촉진으로 활동가별 휴가 사용 현황을 알리고 잔여 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쉼이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상담소 개소일에는 전 활동가들의 생일맞이 후원금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4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하루 일정으로 소진을 예방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활동가 소진 예방비 기준 및 예산 마련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음. 동료상담원 및 인권 규정 운용을 사무국 2021년 문서에서 누락함. 동료상담원 운용과정에서의 보완점 등 새롭게 보완 정비되어야 하는 조건 형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 있음.

3-7. 사무국 문서 기록 및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진행내용

1) 기존 계획 내용

분류	계획	진행내용
건물 관리 및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건물 돌봄 - 안전점검 및 구청 보고 - 안전매뉴얼 및 장치 점검 (소화기, 대피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6/22 각층 비상대피로 및 유도문 부착 6/30 마포구청 지도점검 10/29 안전대진단 점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수발신문서철, 각종 계약서철 관리, 인사기록철, 인턴/자원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양식과 연동하여 관리 등 - 상담소 발간물 관리 등 - 2021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확인 및 적용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및 관리 - 행정 업무 전달연수 진행(공문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법정 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4/22),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8/11), 장애인식개선의무교육(10월 예정) 등은 활동가 교육으로 진행
각종 요청 사항	- 공통메일 관리 및 강의, 자료 요청 응대	상시진행
법인 행정 실무	-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및 주무관청 보고	1/12 법인 임원 변경 등기 3/23 법인 임원 변경 등기

2) 지하1층 침수사안 대응

시기	내용	세부내용
8/30	침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세면대 아래 상수도를 틀어놓고 호스와 연결한 밸브를 추가로 설치(밸브로 개폐조절) 호스가 찢어지면서 상수도 물이 누수 - 지하 하수도(화장실과 싱크대)를 모아 지상으로 올리는 배수 펌프 2개 기설치, 하나는 미작동, 하나는 전원공급 불량상태. - 지하 배수펌프 고장 여부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함 (지하에서 물 쓰는 양이 적고,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지연)
10월~11월	복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7 엘리베이터 보수 및 안전 점검 11/3 천장형 냉/난방기 신규 설치 11/3 지하 배수 펌프 교체 11/5~11/20 책장 가구 및 바닥 난방 재설치 11/15 지하 인터넷 재연결 11/15~22 지하 중계기 재설치 ~11/24 기타 비상구유도등, 옥외 완강기, 엘리베이터 방수피트 설치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평가

- 분장되어 있는 행정업무는 누락이나 지체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공통 메일의 경우, 하루에 3회 이상 스크리닝을 통해 최대한 빠른 회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 공용 메일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외 단체에서 협업하자는 요청이 간간히 도착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국내 연관 단체 안내 등으로 회신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사항인지 사무국 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음.

- 강의, 자료 요청 응대의 경우, 적절하게 배분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활동가들마다 관련 주제나 사안에 따라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음.
- 하반기 지하1층 침수 사안 대응 및 안전대진단 점검 경과하며 내부 건물에서의 화재 및 침수 등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모의훈련등을 실시하는 등의 계획 필요성을 느낌. 건물관리의 중요성과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체계(책임자, 담당자, 사전 체크, 정기점검)등에 대해 구체화를 이행할 예정임.

3-8. 회계 및 공익법인 공시

- 목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운용과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내역 공개로 회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 계획
- 일상 회계 업무 총괄 및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을 위한 업무 협조, 회계감사 지적 사항 반영
- 공익법인공시(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 내역 공개 포함)
- 기부금 내역 공개 : 상담소 홈페이지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 19호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지자체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세청 2회(3월, 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 서식)

※ 2021년 회계 관련 변경사항

1. 여비 중 교통비 증빙양식 도입(출장기록부 등), 교통비 후불 지급
2. 사업비에서 회의비 지출 시 회의록 첨부, 팀별 회의비 연간 10만원 배정
3. 교육문화비 청구 방식 변경 : 현행은 개인 명의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로 지출, 상담소 카드지출 혹은 사업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처리

- 진행내용
- 기부금 내역 공개 절차 중 지자체 요구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통하여 결산보고서 붙임양식으로 제출(3/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7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공익법인 공시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생략 가능하다고 하여 시행하지 않음. 공익법인공시는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포함하여 국세청에 등록 및 홈페이지 공고함(4/30).
- 공익법인공시의 경우,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한 국세청 결산공시 등록방법에 관한 강의 참석 후 추가 질의할 점을 갈무리하여 김지영 운영자문위원과 추가 검토 후 진행하였음. 같은 내용에 대해 공시 양식마다 다른 형식으로 입력을 요구해 번거로운 지점이 있지만 내부 지침 설정 및 엑셀 함수 활용으로 내년에는 보다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통비 및 교육문화비 청구에 대한 지침 변경으로 활동가들의 혼선이 있었으나 변경된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신규 지침대로 이행중임.
- 예결산 양식 변경에 따라 2021년 예산안을 새롭게 구성하고 깔끔하게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예산항목이 있어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2020년 관항목 체계 변경 후 계속해서 세세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신규 예결산서 역시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세세한 예산안에 편입되지 않은 지출 내용, 변경된 사업 계획 등을 갈무리하여 9월 이사회에 추경 예산안으로 승인 받음.

3-9. 활동가 교육

- 목표 : 법정 의무교육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및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진행
- 진행내용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외 법정업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개별 인터넷 수강 예정

일시	내용	세부내용
4/2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4/21 14시~17시 (강사: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참석: 오매, 백목련, 란, 파랑, 감이, 유랑, 경진, 신아, 앵, 달별) 내용: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유형, 사례
8/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8/10 14시~17시 (강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참석: 오매, 백목련, 란, 파랑, 감이, 유랑, 경진, 신아, 달별, 파이 내용: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준, 아동학대 정의와 판례, 아동학대 대응체계, 신고자 의무 등
11/17	장애인식개선 교육	11/17 14시~17시 (강사: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참석: 오매, 백목련, 란, 파랑, 감이, 유랑, 경진, 신아, 앵, 달별 내용: 시설화와 장애인 탈시설 운동, 반차별 운동의 역사 및 쟁점, 섹슈얼리티의 시설화와 인권침해 사안대응, 상호의존과 돌봄의 운동

• 담당자 : 란

• 평가

- 애초 법정업무교육을 활동가 개별로 인터넷 수강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에서 3가지 주제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함.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평가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시 필요한 법적 내용 등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자율적 해결 원칙에 근거한 사내 대응 및 활용 방법의 이점등을 제시해주어 앞으로 관련 상담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3시간 배정을 하였으나, 준비된 강의안을 모두 마치지 못해 아쉬웠음.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 사안 대응의 실효성보다는 현재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들의 개정 필요성을 짚어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단위별로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가

- 아동학대 사안 대응을 직접으로 하고 있는 강사의 경험에 근거한 생동감 넘치는 대응 체계 및 사례 등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동의 권리 확대와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넘어서 평등하고 존중받는 한 존재로서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음.

3) 장애인식개선 교육 평가

- 시설화된 사회에서 탈시설운동의 의미와 인식 변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특히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생활인들과의 관계 설정, 자립과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실제 현장에서 지원했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권운동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장애유무로 위계가 설정되어있는 사회에서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됨.

3-10. [공동사업] 한해보내기

- 배경/필요성 : 상담소의 한 해 활동을 함께 회고하며,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송년행사를 준비한다.
- 목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상담소와의 친밀도를 키운다.
- 방법 및 계획 :

10월	행사 전체 기획
11월	행사 준비 실무
12월	행사 진행 (12/3) 담당: 여성주의상담팀

• 기대효과 : 상담소의 1년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 진행 내용:

진행	내용		
기획	1차 기획회의(10/25): 작년 한해보내기 평가 참조, 전체 컨셉 및 콘텐츠 구상		
	2차 기획회의(10/28): 전체 구성 및 세부 기획, 편집자 섭외(유태훈)		
	3차 기획회의(11/5): 섭외, 대본구성, 콘텐츠별 세부 기획, 역할분담		
	4차 기획회의(11/12): 대본 검토 및 확정, 섭외현황 공유, 홍보 기획		
촬영	재충전휴가(11/13) 장소: 김신아활동가주택 촬영: 파랑, 출연: 신아, 도레		
	비건지향런치타임(11/16) 장소: 백목련활동가주택 촬영: 파랑, 출연: 백목련, 감이		
	KSVRC뉴스<물난리>(11월 중)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촬영: 파랑, 출연: 유랑, 상아, 파랑, 감이, 오매, 란		
편집	편집회의(11/19): 콘텐츠 기획 내용 전달		
	1차 편집본 검토(11/25)		
	2차 편집본 검토(11/29)		
홍보	SNS 및 홈페이지 상 웹자보, 카드뉴스 게시 (11/3,8,12,24,12/3)		
	회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11/29, 12/3)		
	유튜브 예약 게시(12/2)		
본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2021 온라인 한해보내기: 평범한 우리의 비범한 일상 • 일시: 12월 3일 저녁 8시(실시간 송출) • 장소: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채널(youtube.com/ksvrc91) • 사회: 낙타, 경진 • 세부순서 (총 러닝타임 42:41) 		
	순서	코너명	시간
	1	광고: 가장 확실한 성적동의, 적극적합의	3:33
	2	오프닝	2:17
	3	비건지향 런치타임: 합정동 백목련의 비건요리교실	9:10
	4	휴식의 방식 : 시나의 재충전휴가 활용법	3:00
	5	장소의 상태 : '이런 물난리는 처음', 활동가들을 경악하게 한 지하 1층 이안젤라홀 침수사건	3:20
	6	2021 잊지못할 순간: 지은, 새지, 단단	7:06
	7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 : 비하인드 30주년	2:34
	8	2021 안젤라어워드 : 김하윤, 예술인(노랑, 아오리, 다이브, 존박)	6:00

	9	다 퍼주는 퀴즈퀴즈	3:03
	10	클로징+엔딩크레딧(NG영상)	2:38
* 실시간 시청자 및 댓글 참여: 40여명, (12/8 현재) 289views			
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발송 (안젤라어워드, 잊지못할 순간 사연자, 퀴즈 응모자) • 블로그 후기 작성 • 영상 후속 편집: 카드 삽입 등 		

• 평가:

- 일시, 장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온라인 진행 유효하였음. 실시간 송출 시간이 금요일 저녁이라 실시간 시청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 수가 크게 늘고 있음. 향후 오프라인 진행 혹은 실시간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요일보다는 수, 목 등의 평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기획 및 구성, 편집: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많지 않아 한 해 활동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는 코너가 빠졌는데, 전체 구성에서 <30주년>, <물난리> 등 올 한 해 상담소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었고, <재충전 후기>와 <런치타임>을 소개하면서 활동가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음.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탁월한 편집 덕분에 다소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봤다는 주변 반응이 많았음.
- 역할분담: 영화 관련 문화 사업이나 회원참여 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가 각자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였음. 홍보와 회의내용 정리, 섭외, 코너 등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잘 되었음.
- 회원참여: 신입활동가가 담당해왔던 예년과 다르게 팀으로 사업을 배당한 첫 해였음. 상담팀에서 맡게 되어 예년에 비해 존생신의 등 사업내용이 직접 언급되었고, 사건 지원 중인 내담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상담팀의 활동이 외화되는 기회가 되었음. 사례담당 활동가가 내담자에게 <잊지못할 순간>에 사연을 보내줄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 외에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음. 이후에 한해보내기 담당 팀이 아니더라도, 지원 중인 내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제안해보는 것이 좋겠음. 퀴즈 응모 인원도 예상보다 많았음. 그 중에서도 낯선 이름들이 많아 숨어있던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진행: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예산 책정 시에는 식비를 예상치 못했으나, 30주년 기념식 평가에서 온라인 행사더라도 활동가들은 함께 시청할 것이 권유되어 식사 준비와 식비 지출이 발생함. 그러나 준비 기간 중 예산을 아껴 쓴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식사 준비 가능했음. 단체 시청에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식사와 함께 작은 프로그램(작은말하기 홍보물품의 라벨 부착 작업)을 배치하여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작은말하기 홍보물수작업을 함께 완수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음.
- 향후 계획: 차년도 계획에 따름

목표4. 성평등 인권운동의 성찰성과 영향력 함께 넓히기

4-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배경/필요성
- 공동연대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2020년 필요한 성평등 과제, 전략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활동 전개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의 활동 목표 및 운영 과제를 함께 점검하여, 위기를 줄이고 기회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방법 및 계획 :

- 총회
- 서울인천권역회의(연4회)
- 전성협 운영위원회
- 정책대응팀회의 및 이슈대응 : 필요시
- 성폭력 피해자의 일방적 후원, 기부에 의한 감경 중단 대응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 2021년 진행 주요 의제
- : 운영지침 개선 사항 관련 (시설장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선)
-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 : 의료비 지원 상세 영수증 요구 건 추후 모니터링 (지자체별 차이, 서울시에 건의)
- : 디지털 성폭력 지원체계 (무료법률구조 기금 한도 및 방식 등)
- : 서울시 상담소장의 자격요건의 건 (처우개선 수당 지급 조건, 사회복지사 및 7년 이상 상황)
- 예산안 : 연간 분담금
- 진행내용

종류	일정 및 내용
총회	1월 26일 정정희, 윤경진, 김혜정 참석
서울인천 권역회의	3월 18일(목) 오후 2시 2021년 1차 회의(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 통합형 서울지역 3개중 2개 중단 상황에 대한 공동 성명 제안 예정 (초안) ▶ 상담원 교육 인건비, 참가비 등 상향 제안 ▶ 2차 피해물 삭제 지원 여가부 제안의 건
운영위원회	3월 25일(목) 오후 1시 2021년 1차 회의(한국성폭력상담소) ▶ 상담원 교육 인건비, 참가비 등 상향 제안 ▶ 강의비 관련 현실적 인건비 보조하고 있던 현실, 가정폭력이나 통합상담소는 그렇지 않음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관련 : 여성가족부 항의 방문, 사과 - 대체 상담소 연구 수정 진행
정책팀	5월 17일 1차 회의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전국 실태조사 진행 연구 논의 : 국회의원실로부터 비용 확보,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이해도 격차를 고려한 충분한 설명 및 정확한 추출, 수합 기간을 설정해야 함 6월 2차 회의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논의 7월 23일-30일(8일간) 전성협 설문조사 (130개 대상, 40개소 참여), 9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보고서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제출 10월 4일 소병철 의원실 법무부 대상 질의 10월 5일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체계표 변경 공지 이후 변호사들 반발사태 이후 토론회 개최 논의를 통해 진행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주최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일시 _ 2021년 12월 3일(금) 14:00-16:30 장소 _ 유튜브 중계(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채널) 참여신청 _ https://forms.gle/dWazzZ1taULqdBFR6 진행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p>패널 _ 원민경 (법무법인 원,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변호인단)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안희정/이윤택/박원순 사건 피해자변호인단)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피해자국선변호사) 김혜란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연대자 D (반(反) 성폭력 활동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p> <p>피해자는 자기 경험의 주체지만, 형사 재판절차에서는 소송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존재합니다.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시작되어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 조건과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 어떻게 잘 서로 연대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개선되고, 피해자 법률조력의 장이 더 활발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크토론회, 많은 참여, 의견 기다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신청 : 286명 (법원, 학교, 성폭력상담소 공공기관 등) -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 200명 (조회수 631회)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 : 50명
<p>워크숍</p>	<p>6월 15일 : 감이, 오매, 백목련, 신아 참석 ‘강간죄’ 개정 운동의 현황과 과제 (강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앞 활동가) 6월 17일 : ‘강간죄’ 개정 운동의 현황과 과제 (강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앞 활동가) 전성협 총 131개 상담소 중 130개소, 370명 참석.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사건 사례, 최근 판례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공부가 되었고, 성폭력 지원 한계의 입법적 쟁점과 향후 비전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는 평가</p>
<p>정책논의</p>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17조의2(상담소 등의 안전사고 대응 조치 등) ①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격리 및 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지자체 보고의무, 과태료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들 의견서 제출중 ▶ (장공감 의견) 안전담보가 아닌 특정 집단 배제와 지자체 등 정부 책임회피 조항이 아니어야 함. 취약한 위치 사람이 더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거나 안전을 이유로 개인 사생활, 자유권, 평등권 침해 정당화 안됨 / 1인 1실 의무화, 시설구조 개선 예산 확충 등 대책 없이, 코로나19 때 무조건 상담이나 입소 금지, 대면 지원 금지만 내리면 현장 상황과 매우 괴리됨 ▶ (위기센터 의견) 감염, 질병 규정 모호함. 격리 시 공간과 돌봄 체제 확보, 폐쇄 시 이용자 및 생활인 고립, 방치되지 않도록 추가지원 대책 마련 중요

• 평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회의 성실 참석,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실 제공 및 읍저버 참석 등을 통해 본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활동중인 전성협 참여 연대체의 현황 및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하고, 협력과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음

- 해바라기 센터 폐쇄 대응, 상담일지 원본 제출 요구 흐름,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 안건 제출, 긴급 회의 소집 및 이후 정책 제언, 정책팀을 통한 국정감사 준비(하반기) 등을 통해 정책 단위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음
- 기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온 단체 말고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단위들과 연대, 실무 수행, 성과의 공유 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전성협 운영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공동성장 지향

4-2.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및 성찰 논의 참여

- 배경/필요성
 - 상담소 개소 이래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 전국적 성평등 활동의 조직력을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으로서 이사회, 실무임원위원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등 활동을 지속해 옴
 -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치세력화 전략 등에서 급진적, 독립적, 비판적 여성운동의 정체성이 침해되는 등의 일에 대해서 상담소 내부의 비판 논의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옴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지원과정에서 있었던 여성연합, 여당 여성국회의원을 통한 유출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통한 성찰 및 혁신 논의를 이끌어야 하며, 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이 과정에 책임을 다할 필요 있음
 - 여성단체연합 운동의 의미와 한계, 문제 자체를 논의하고 이후 지속 여부 논의 필요
- 목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총회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안건 상정 논의
 - 이후 성찰 혁신 조사 기록 등 위원회 설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역할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여성연합 회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비전 논의
- 방법 및 계획 :
 - 총회
 - 이사회(연 4회)
 - 실무 임원회의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혁신위원회 진행에서의 의견 개선
 - 여성인권 분야 정책 활동 연대 : 올해 진행 방식 논의 (자치경찰제, 낙태죄 비범죄화 활동, 여성의 날 등)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연합 참여 및 연대 과정 정리 및 평가, 향후 비전 논의
- 진행내용

종류	일정	내용
실무 임원회의	12/20, 12/24, 12/30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총회 의결 안건 토론
이사회	1/7, 6/29, 11/30	6월 정기 이사회 : 여성연합 사무처의 혁신위원회 실무 집중 결정에 따라 취소됨 11월 이사회 : 혁신실행위 이후 혁신안 실행과제 검토, 여성연합 회비분담률 제고 방안 논의,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등
임시 이사회	1/4, 1/10, 1/19, 2/5, 3/11, 4/26, 5/24	2/5 임시 이사회 안건 _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진행상황 공유, 대출 승인의 건, 지난 이사회 이월 안건(남인순 지도위원 관련) : 남인순 의원의 여성연합 이사회에 대한 전언 대독 (1/22 발신) 여성연합 총회 의사록 (5-6장으로 정리) = 녹취록 수준이라 요약정리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p>▶ 발언자와 발언 내용 방식 기입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기록, 회의의 공개적 성격 원칙, 비공개시 별도 원칙 마련 필요를 의견제출</p> <p>4/26 임시 이사회 (오후 2시 대면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인순 의원 징계안 관련 4차 논의 : 사임으로 끝내고 회신 없이 수락 결정 : 소수의견 유감 표명 (4-5), 징계 필요 (1) - 정치세력화와 거버넌스, 여성연합의 역할 : 모둠토론 및 발표 순서 진행 - 앞으로 이사회 전체 발언록 형태로 정리, 회람하여 확정 - 여성연합 회원단체 15분씩 소개로 진행하기로 결정 <p>5/24 10차 임시이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인순 의원 징계 불가 등 - 혁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혁신위원회 질의 및 문제제기 등 - 해당 내용은 혁신위 권고 이후 재논의
총회	1/14	<p>이미경, 김혜정, 최란, 윤경진, 노선이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순 사건'에서 상임대표, 지도위원에 의한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의 건으로 명명 변경 제안 - 사건 명명 이사회 아닌 혁신위원회 논의할 것 제안 - 혁신위원회 예산 배정 제안
혁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위원회 참가 제안에 대한 거절 초기 읍져버로 참석하기로 함 (외부 위원장, 여전대표 논의) - 3/24 여성연합 혁신위원회 2차 고미경 이미경 출석 - 4/9 초기 지원자 4인 드리는 글 정리, 제출 - 5/11 혁신위원장, 피해자 지원단체 2인 대표 만남 - 6/2 여성연합 대표 및 사무처장 미팅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사안에 대한 현재까지 여연 대표와 사무처에서의 평가역량, 가치지향, 필요한 혁신적인 의견 및 논의 도출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의견 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연합 평가 논의 및 제출 7월 6일 - 전국간담회 : 서울지역 간담회 9월 9일 2시 (파이, 조은희 참석) - 혁신실행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음
그 외		<p>○ 한국여성단체연합 회비 한번 더 내기 캠페인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상근활동가 4/14 2차례 논의 : 11월 19일 회비 한번 더 내기 참여 <p>○ 대선 대응 라운드테이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0 상근활동가 회의 : 정책 제안 이후 이행 과정 평가하지 않음 / 약속을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캠프와의 정책 협약 의미 크지 않음 : 정책자료집 제작하던 여성연합 대표들의 캠프 참여 등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 위치에 대한 성찰, 변경된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div>

		<p>: 현재 대선의 성평등 퇴행 기조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필요</p> <p>○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p> <p>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p> <p>■ 일시와 장소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1시 / 서울 청계광장 소리탑 앞(광화문역 5번출구 인근)</p> <p>■ 공동주최 : 38개 여성시민사회단체</p> <p>■ 프로그램(사회 : 도구(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p> <p>1) 발언</p> <p>● 대선정국 규탄 및 향후 방향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오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류(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p>2) 기자회견문 낭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영분 기독교민회 총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양이현 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p>3) 퍼포먼스</p>
--	--	---

- 평가
-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지원정보 유출 건에 대한 2020년 여성연합 내부 논의 제안을 거쳐 2021년 총회에서 전 대표 징계안이 가결되고 혁신위원회 출범하게 됨. 2020년부터 이어온 실무임원회의, 임시이사회 등에서의 지난한 논의가 바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연합은 혁신위원회 진행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 불가 결정 및 번복 등을 지난하게 진행함.
- 혁신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나, 이후 혁신실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2년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상황에서 혁신안 논의에 대한 해석과 번복 등의 우려가 있으며, 총회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관 개정, 사업계획안 등에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함

4-3. 여성인권분야 ‘운동단체의 현재와 미래 모색’

- 배경/필요성
- 신생 혹은 제도화에 진입하지 않았던 단체들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논의에서의 ‘제도화’ 논의 진행과 이에 대한 자문, 컨설팅 등 요청이 있음
- 제도화에 대해서 진행했던 단체들도 법·정책 제도화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위상과 운동성의 지속과 확장 사이에서 현재 지형에서의 쟁점, 논의 형성
- 목표 :
- 제도화와 운동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단체들과 실질적 논의 진행, 상호 도움
- 새로운 연대 모임과 필요에 따른 자율적, 자발적 교류의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 간담회 기획, 진행

시기	주제	대상
7월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 단체 운영 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회의 각 팀별 자문위원들
5월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 단체 운영 방향	(예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반성매매인권운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등
3월	정치세력화와 정치적 영향력 높이기 위한 여성주의적 방안	(예시) 한국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 진행 내용
- 임시총회 관련 계획 정비하여 의결
- 1) 성폭력 사건 지원 공동대응활동 평가 및 원칙 마련
- 2) 여성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권력/자원/원칙의 방향 모색
- 진행 과정 및 세부 내용

1) 성폭력 사건 지원 공동대응활동 평가 및 원칙 마련	<p>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 내부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집행 단위 내부 평가회 (4/29) - 내용 수정 요청, 이견 토론 진행 - 290개 단체 평가회 진행
	<p>서울시장 사건 지원단체 평가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슈퍼비전에서 함께 진행하고자 모색하였으나 코로나 단계로 상담팀 자체 슈퍼비전으로 한정하여 미진행
	<p>상담소 내 공동 대응 사건 피해자 지원자 내부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사건 지원 공동 대응 활동 평가 및 원칙 마련을 위한 FGI - 일시: 2021. 6. 7 / 참석: 감이, 유랑, 오매, 란 - 내용: 각자 담당했던 공동 대응 활동명과 구성과정, 상담소 내 인력배분의 적절성 및 활동공유, 논의방식의 어려움이나 특이점, 담당 공동대응 활동을 통해 확인한 공동 대응 과정의 원칙에 대해 의견나눔
2) 여성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권력/자원/원칙의 방향 모색	<p>상담소 내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 작성</p> <p>: 지원자 및 연대회의 담당자로서의 행동, 회의 참여시나 공유 방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자문위원회 논의 :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회, 상담팀 자문위원회, 열림터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안건 및 의결 내용 공유 : 자문위원들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이사회 논의 : 임시총회 진행 과정 내 평가문서 논의 / 임시총회 이후 평가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합 내부 논의 : 혁신위원회 출범 시 상담소 내부 참여 여부 논의, 혁신위원장과 서울시장 사건 지원단체 대표 간담회, 여성연합 대표단과 상담소 소장 면담 논의 : 여성연합 혁신위 과정에서도 이어진 이사회 안건 논의(여성연합 출신 정치인에

	<p>게 비판적 의견을 전할 수 있는가 관련)</p> <p>상담소 자체 기획 간담회 또는 토론회 : 구체적인 일정 논의를 사무국, 상근자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나 타단체 상황과 여성연합 혁신위 논의 진행 상황의 추이를 보다가 기획안 형태로 도출하지 못함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대 대표단과의 비공식 논의</p>
--	---

- 평가
- 공동대응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공동대응 활동 평가 및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공동대응 활동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간의 공동대응 활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의의가 있었음.
- 추가적으로 공동대응 가이드 라인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2차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진되지 못함. 내년도 상반기 내에 공동대응 가이드 라인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사건 지원 공동대응 활동 평가 및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 완료 예정임
- 자문위원회 논의에서는 찬찬히 논의할 지점이 많다는 의견이 주요였음. 임시 총회 이후 상담소 전 회원, 현재 정치권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발과 비판 의견이 있었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전달되고 가급적 내부에서 공유하고자 하였음. 단체간 논의상황도 마찬가지로었는데 - 이를 공식적인 기획안으로 형성하여 비판점을 살리면서도 향후 개선된 연대를 도모하는 뼈아픈 논쟁의 장을 열기에 시기가 상황의 어려움도 존재. 더 늦지 않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상담소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

4-4.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연대 협력 활동

- 배경/필요성 :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이 보류 되어왔음
 - 그러나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실시간으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진행 등 새로운 국제교류와 연대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소의 참여와 호응도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음
 - 아시아위민브리짓 두런두런의 컨소시엄 요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인큐베이팅 등 상담소의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운동에 대한 기여, 연대 요청이 존재함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제적 연대, 교류, 협력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사업 계획에 따른 국제적 교류, 협력 필요를 살피고 기획, 실행 혹은 모색을 함
- 방법 및 계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제교류 협력의 팬데믹 시대에 맞는 버전의 참여 활동 모색 및 제안 (개인 활동가에 대한 예산 집행은 미뤄두고, 주제별 시기별 맞는 활동가 및 자문위원 등 연계)
 - 해외 단체 방문에서 활동가 참여하여 상담소 소개 및 교류, 토론, 후기 작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홈페이지에 영문 소식 업데이트(영어 사용 자원활동가)
 - 국제협약 기반 한국 정부 보고서 shadow 리포트 작성 :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 한국 ODA에서의 반성폭력 및 젠더 의제 분야 참여 : DAK 회원단체 활동, 아시아위민브리짓 두런두런 등 활동
 - 국제연대를 종류별 분화하여 활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연결하여 전문적 활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분
- 진행 내용
 -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온라인 참석 등록(김혜경)
 - 대만 단체와 디지털성폭력 관련 토론회 개최 타진 연락 나눔 > 여성연합 통역 요청 타진까지 진행(성사되

지 않음)

- 평가
- CSW 온라인 행사 등에 신청했으나, 시간대의 차이와 언어장벽 등으로 원활한 접근이 어려웠음. 결국 1개 세션도 참여하지 못하고 종료됨

4-5. 성평등 정책 실행 네트워크 참여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우리 상담소에서도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활동을 해왔음
 - 그 외 비영리 혹은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정책 생산 및 실행을 위한 참여를 제안받고 있음
 - 보궐선거 및 향후 대선 등 정치적 국면에서 여성운동의 목소리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목표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예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배분하고 적용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진행내용

<정책 파트>

<p>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0.5~20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공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로 최초 시작됨 - 코로나로 인해 위축식이 늦어져서 5/20 1회 회의가 개최 : 위원장 호선이 있었으며 기존 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토론 순서가 진행되지 못함 - 양성평등포스터 홍보물 공모에 대한 심사 의견 요청 :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다움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의 배제 권고 - 공군 양성평등 5개년 계획 검토 / 상담통계 검토 - 6/3 공군 양성평등상담관 수퍼비전 진행 > 사건 발생 대응으로 취소 - 6/5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임시 회의 > 회의 개최 소집 의결 - 6/9 공군 양성평등자문위 소위원회 개최 > 임시회의 안건(권고 및 의견표명) 검토 - 권고문 서명 및 제출
<p>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2019. 9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2기 활동의 안정화 및 확산 지원 - 사업 규모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한 시의회 질의 반복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모델 유효성과 확산 가능성 연구용역에서 그룹 인터뷰 참여 -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과 기존 단체 활동 지원, 기획과 예산의 배분에서의 의견 개진
<p>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정책자문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3월 위촉 (불참) - 2021년 6월 30일 2차 회의 (불참) 회의주제 요청) 준강간 수사, 성특법 24조 위반 행위 구속 수사 방침 필요, 스토킹 관련한 경찰 내부 지침 요청 (안건 순연) - 3분기 서면 의견 제출 및 응답 수령 - 4분기 회의 불참
<p>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5일(금) 오후 3시 위촉식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1차 회의 : 성폭력 전담 대응 기구 신설 관련 조직 설치안 논의 향후 안건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활동 : 성폭력 전담 기구 신설 방안 검토 논의 / 성희롱 관련 체계 및 근거 마련 등 논의 - 군사법원폐지안에 대한 국방부 의회 방해행위, 파행적 운영 등에 문제 제기 하며 중도 사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1. 11~202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진술)자료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전문위원 역할 - 조사위원들이 성폭력피해의 특성을 담아 피해자 조사 및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피해의 의미를 재구성 하는데 노력 회의 일시 : 10/29, 11/10, 12/10, 12/15, 12/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2021.6~20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2021.8~2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의 병영혁신을 위한 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분과에 참여 하면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사건처리 과정, 예방교육 등 전반에 걸친 자문의 견 회의 일시 : 8/6, 10/8, 12/8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9.9~20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6인, 민간인 4인으로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1기 위원회에서 성평등 법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가지 결정을 견인함. (1) 성평등 의제를 매년 3월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 (2) 성평등 법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성차별,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용역을 연내에 발주하여 연구결과에 기반한 평가 및 계획 세우기. 회의 일시 : 1/4, 3/11, 5/12, 6/9, 9/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선발심의위원회 (2019.8~20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여성폭력 전문강사 자격논의 및 선발 최종 심의 회의 일시 : 8/4, 8/25, 12/9

<사건 심의>

대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2019.3~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내부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심의위원 위촉. (위촉 기간 2년) - 10/27 전문가 의견조회 회신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2021.2~20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 2019. 2 위촉기간 2년 활동 후, 2년 간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성공회대학교 성폭력특별위원 (2021.2~2022.2)	- 성공회대학교 성폭력 사안 심의, 자문 등의 역할 - 매년 1회 임기, 연임 가능 - 2019년부터 매해 연임하여 진행 중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 위촉식 2021년 6월 8일 14:00 - 임기 시작 (2년) 위원 : 외부 위원 9명 - 2021년 동안 6개 사건 심의 - 권익조사팀 권익조사관 + 감사팀 > 조사협의체 > 조사보고서 > 심의위 > 심의의견 정리 > 징계위원회 (감사팀 조사관 1인 참석)
보건복지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조사·심의위원회 (2021. 11~2023.10)	- 보건복지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조사·심의 - 2년 임기
전주새연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2021. 3~2023.2)	- 전주새연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 - 2년 임기

• 평가

- 정책기구와 사건 심의 기구로 크게 두 종류 위원회 활동 제안이 있으며, 신규 위원회 제안도 상반기에 여러 건 진행되었고 논의 후 수락한 위원회도 다수 존재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관련 사안에서의 위치성과, 여성운동 NGO로서의 젠더 관련 정책 사안 전반에서의 역할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임
- 다양한 활동가들의 참여와, 진행에서의 환경에 대한 개선 논의, 논쟁적인 안건과 날카로운 감시, 전략적 판단과 위원 간의 연대와 협업 등에서 노하우가 쌓여가고 공유될 필요가 있음.

2021년 상담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7,964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1년 전체상담은 1,415회(595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22회(537건)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3%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초기 상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2021	1,415	595	537	90.3
총	87,964	58,209	49,092	84.3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5%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5.2%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537건 중 502건(93.5%)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29건(61.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의 비율이 2020년 70.8%에서 61.3%로 약간 줄어들었고 여성 청소년(2020년 10.3% → 2021년 13%)과 여성 어린이(2020년 6.9% → 2021년 9.7%) 피해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5.2%(28건)로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5 (0.9)	329 (61.3)	70 (13.0)	52 (9.7)	14 (2.6)	32 (6.0)	502 (93.5)
남	-	23 (4.3)	2 (0.4)	3 (0.6)	-	-	28 (5.2)
기타	-	-	-	-	-	-	-
미상	-	3 (0.6)	-	1 (0.2)	-	3 (0.6)	7 (1.3)
총계	5 (0.9)	355 (66.1)	72 (13.4)	56 (10.4)	14 (2.6)	35 (6.5)	537 (1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9.8%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1%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37건 중 482건(89.8%)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55건(6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7.6%(41건)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13 (2.4)	-	-	-	1 (0.2)	14 (2.6)
남	15 (2.8)	355 (66.1)	50 (9.3)	5 (0.9)	4 (0.7)	53 (9.8)	482 (89.8)
기타	-	-	-	-	-	-	-
미상	-	10 (1.9)	2 (0.4)		1 (0.2)	28 (5.2)	41 (7.6)
총계	15 (2.8)	378 (70.4)	52 (9.7)	5 (0.9)	5 (0.9)	82 (15.3)	537 (1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5.9%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2.6%가 대리인 상담 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537건 중 354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17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6건(1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본인	대리인 175(32.6)									본인 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건수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변호사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 회단체	기타			
354 (65.9)	106 (19.7)	14 (2.6)	12 (2.2)	12 (2.2)	8 (1.5)	1 (0.2)	10 (1.9)	3 (0.6)	9 (1.7)	6 (1.1)	2 (0.4)	537 (1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193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간 피해 상담 역시 190건(35.4%)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간 피해의 경

우, 2018년 28.5%, 2019년 31.1%, 2020년 34.4%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63건(11.7%)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3 (0.6)	3 (0.6)	-	-	-	6 (1.1)	190 (35.4)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2)	80 (14.9)	26 (4.8)	19 (3.5)	3 (0.6)	9 (1.7)	138 (25.7)	
	준강간	-	33 (6.1)	1 (0.2)	-	-	1 (0.2)	35 (6.5)	
	강간미수	-	10 (1.9)	-	1 (0.2)	-	-	11 (2.0)	
강제 추행	강제추행	3 (0.6)	126 (23.5)	16 (3.0)	28 (5.2)	8 (1.9)	7 (1.3)	188 (35.0)	193 (35.9)
	준강제 추행	-	4 (0.7)	-	-	-	1 (0.2)	5 (0.9)	
성희롱		1 (0.2)	52 (9.7)	7 (1.3)	-	-	3 (0.6)	63 (11.7)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2.0)	3 (0.6)	-	-	2 (0.4)	16 (3.0)	
카메라이용촬영		-	14 (2.6)	10 (1.9)	-	1 (0.2)	3 (0.6)	28 (5.2)	
스토킹		-	6 (0.6)	1 (0.2)	-	-	1 (0.2)	8 (1.5)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	-	-	-	-	-	
미상		-	16 (3.0)	5 (0.9)	8 (1.5)	2 (0.4)	8 (1.5)	39 (7.3)	
총계		5 (0.9)	355 (66.1)	72 (13.4)	56 (10.4)	14 (2.6)	35 (6.5)	537 (1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78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2 (0.4)	3 (0.6)	-	-	1 (0.2)	6 (1.1)	190 (35.4)
	강간 (유사강간포함)	3 (0.6)	99 (18.4)	15 (2.8)	2 (0.4)	-	19 (3.5)	138 (25.7)	
	준강간	-	33 (6.1)	-	-	-	2 (0.4)	35 (6.5)	
	강간미수	-	8 (1.5)	1 (0.2)	-	-	2 (0.4)	11 (2.0)	
강제 추행	강제추행	7 (1.3)	137 (25.5)	20 (3.7)	2 (0.4)	5 (0.9)	17 (3.2)	188 (35.0)	193 (35.9)
	준강제 추행	-	4 (0.7)	-	-	-	1 (0.2)	5 (0.9)	
성희롱		4 (0.7)	48 (8.9)	6 (1.1)	-	-	5 (0.9)	63 (11.7)	
통신매체이용음란		-	5 (0.9)	3 (0.6)	-	-	8 (1.5)	16 (3.0)	
카메라이용촬영		-	21 (3.9)	1 (0.2)	-	-	6 (1.1)	28 (5.2)	
스투킹		1 (0.2)	7 (1.3)	-	-	-	-	8 (1.5)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	-	-	-	-	-	
미상		-	14 (2.6)	3 (0.6)	1 (0.2)	-	21 (3.9)	39 (7.3)	
총계		15 (2.8)	378 (70.4)	52 (9.7)	5 (0.9)	5 (0.9)	82 (15.3)	537 (1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2%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52건(84.2%)으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4건(37.7%)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42건(11.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0건(27.8%)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4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36건(64.3%), 9건(64.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다. 이는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말하기

를 시작하고 대응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연령	아는 사람 452(84.2)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85(15.8)		직장	친밀한 관계	온라인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97.3)	1189 (10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0)	40 (5.6)	38 (5.3)	715 (100.0)
2021년	76 (14.2)	9 (1.7)	138 (25.7)	112.2 (10.2)	29 (5.4)	45 (8.4)	19 (3.5)	34 (6.3)	17 (3.2)	18 (3.4)	10 (1.9)	2 (0.4)	40 (7.4)	45 (8.4)	537 (100.0)
고령 (65세 이상)	1 (20.0)	-	-	1 (20.0)	-	2 (40.0)	-	-	-	-	-	-	-	1 (20.0)	5 (100.0)
성인 (20세 이상)	8 (2.3)	5 (1.4)	134 (37.7)	42 (11.8)	15 (4.2)	29 (8.2)	18 (5.1)	19 (5.4)	10 (2.8)	14 (3.9)	8 (2.3)	2 (0.6)	27 (7.6)	24 (6.8)	355 (100.0)
청소년 (19세-14세)	20 (27.8)	1 (1.4)	-	6 (8.3)	9 (12.5)	6 (8.3)	-	14 (19.4)	2 (2.8)	3 (4.2)	-	-	7 (9.7)	4 (5.6)	72 (100.0)
어린이 (13세-8세)	36 (64.3)	3 (5.4)	-	-	-	5 (8.9)	1 (1.8)	1 (1.8)	2 (3.6)	1 (1.8)	-	-	3 (5.4)	4 (7.1)	56 (100.0)
유아 (7세 이하)	9 (64.3)	-	-	-	-	1 (7.1)	-	-	3 (21.4)	-	-	-	1 (7.1)	-	14 (100.0)
미상	2 (5.7)	-	4 (11.4)	6 (17.1)	5 (14.3)	2 (5.7)	-	-	-	-	2 (5.7)	-	2 (5.7)	12 (34.3)	35 (100.0)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1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횟수로 표를 집계하였다. 심리·정서 지원이 865회(48.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639회(35.5%)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 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단체를 안내하거나 기관에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회(%)>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관연계	기타	전체지원수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639 (35.5)	38	131	865 (48.1)	2 (0.1)	103 (5.7)	20 (1.1)	1,798 (100.0)
	169 (9.4)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 동료상담원 활동 보고

작성일	2021.12.	활동기간	2021.2.1 - 2022.1.31	
동료상담원	지희, 유랑	상담건수	1건	
상담내용	팀 내 수직적인 업무 분담과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해결 및 공간 분리를 위해 중재를 요청함.		중재 여부	○
활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운영해온 동료상담원 평가와 제언으로 매뉴얼 숙지가 원활하였습니다. - 상담 이후 동료의 요청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여러 차례 배석하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동료상담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상담 및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 보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비밀보장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에 이르기까지 2달 정도 걸렸고, 문제해결과정에서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조직문화를 다뤄야 하였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 상담에 임하는 동료가 문제상황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으나, 해결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서 전반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중재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중재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동료상담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없었기에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 동료상담원 제도가 문제해결 시스템으로 적절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었으나 한계설정이나 문제해결의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평등문화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는 동료들 간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동료의 조직 내 문제해결 요청이 있을 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 경직된 분위기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소통하기,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동료 간 신뢰를 쌓고 조직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만들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은 상담 및 중재 요청이 있을 시 유용하게 참고가 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인 간의 갈등, 피해자 가해자 문제해결 구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상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결 방안과 중재 절차의 과정, 방법, 주체 등 중재 절차에 대해 규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동료상담원 역할의 범위 설정과 한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인권침해 사안접수(문서 접수)는 2021년 0건임.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및 정책 과제

2022년 정치의 모습 : 페미니즘을 혐오하거나 거리두거나

처참한 선거 국면이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거나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증오 선동 정치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정당과 대통령 선거 후보에 의해서 말이다.

미투운동 이후 첫 대선, 성평등한 정치 비전은 어디 있나?

2016년 촛불운동은 비민주적인 정권을 교체했고 2018년 미투운동은 정치권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 만연해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했다. 특히 선출직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은 정치권 내 공고한 성별권력구조를 드러내었고 민주주의 완성은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여성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게 했다.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인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만연하고 한 정치인의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해야 하는 곳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진지한 물음과 성찰이 제도 정치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미투운동 이후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성평등한 정치, 성평등 정부를 무엇보다 과제로 내걸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역차별론’에 근거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며 여성 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다.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며 거리둔다. 그러는 사이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등을 젠더관점으로 약자/소수자를 지원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라거나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실제 유죄에 이른 무고율이 0.68%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론’에 근거하여 부풀려지고, 불기소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실제로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가해자의 전략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역고소’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 정책이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앞다투어 나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미투운동 이후 이루어지는 선거가 맞는가?

누구도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현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여전히 시급한 상황에 성평등에 대한 진

전은 없고 백래시가 거세다. 백래시는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대남'이라는 세대 집단의 정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남의 정서, 언어, 농담에 남성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대남은 더욱 가시화, 세력화 되어간다. 선거국면에서 '이대녀'는 커녕 여성시민들의 삶과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남초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 두 성별간의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의 특혜만을 주장하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으며, 대선후보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거리를 둘 뿐이다. 언론에서는 20대 남성의 지지율과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페미니즘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비전을 '젠더'라는 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불평등을 제거하자는 실천이자 입장이다.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었지만 젠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젠더는 개인의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이기도 하기에, 인간의 출생, 노동, 교육, 돌봄, 관계, 건강, 주거, 죽음 등 삶의 모든 면면에서 작용된다. 시민들의 삶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젠더관점으로 제시하고, 성별만이 아니라 연령, 장애, 학력, 빈곤 등 다른 사회적 위치와 상황이 만들어내는 부정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다룰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20대 남성들의 삶이 힘든 것이 정말 페미니즘 때문인가? 대선 국면에서 남초집단의 페미니즘에 대한 증오 정서만 반영될 뿐 남성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고려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 혐오 선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정치권에 실망하고 분노한다.

후보와 정당, 주권자 모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선거를 바란다

모든 후보와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언제까지 정권교체를 위한 또는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를 봐야하는가? 언제까지 선거 기간에만 의미있는 유권자나 표심으로만 여겨져야 하는가? 우리는 유권자이기 이전에 주권자이며 차별과 혐오로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차이를 가로질러 다른 소수자 약자 동료 시민들과 연결된 존재이고, 연대를 통해 정치적 장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미투운동이 남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성찰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다른 이들이 겪는 부정의에 함께 맞서며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공유해왔다. 여성, 소수자, 생존자들의 경험, 고발, 운동의 의미를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이 그들의 권력으로 모두 부정하며 지워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짓밟는 월권이다.

여성을 비가시화 하고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남성중심정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 또한 투쟁의 결과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여성도 동등한 인간이므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목숨을 바쳐 싸웠던 여성운동가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었다. 여성의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하기 위해 정치에 주권자로서 참여해왔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의 행사는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사표가 안되고 최악을 막는가?'와 같은 게임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정치로 완성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책으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치에 투표할 것이다. 선거 시기에는 모든 후보와 정당에 따져 묻고 제안할 것이다. 선거 시기에만 호명되는 ‘유권자로서만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시화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1명이 10명에게, 100명이 1000명에게, 1만명이 10만명에게 지금 필요한 변화를 더 많이 말하고 요구하자. 환멸과 낙망에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 내자.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2022년,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10대 반성폭력 정책 과제]

1/ 무고인지 아닌지 No, 동의인지 아닌지로!

-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형법 32장 장 제목 및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 아내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성매매 현장의 성폭력, 친밀한 관계, 무고죄 역고소 사건에서 동의없는 성폭력 현실을 배제하지 않는 수사실무 및 기소, 판결

2/ 친밀하니까 모르쇠 No, ‘범죄로서 처벌’을 적용하는 사회로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스토킹 포함)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 마련

3/ 끄적해서 침묵 No, 가족 내 성폭력에 공적 대응하는 사회

- 가족 내 성폭력, 친족성폭력공소시효 폐지
-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 3항에 성폭력피해자 추가)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보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인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도 법원 별도 허가 없이 생활업무 후견 보장)
-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규정 개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이 다르게 적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권리 확대에 동일 적용 / 주거지원제도 확충)

4/ 피고인 변론권 절대우선 No,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보장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위한 결정 대체입법 마련
-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 : 초기 진술 이전 국선변호사 연계, 열람등사권 보장, 의견개진권 보장
-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강화
- 여성폭력 관련 수사, 재판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변호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윤리 규정 강화

5/ 조직 내 성폭력 2차 피해 No, 문제해결·대응력 높이기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전면화 : 군대 내 성고충상담관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장에 의한 성폭력 특별대책 실행,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법제화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내 직장 내 성희롱 조항 '사업주' > '사용자'로 변경
- 교원재심위원회 민간위원 50% 구성 실행, 교원 성폭력 가해자 현장 복귀 제재
- 학교 및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보완
- 공공부문 성희롱 고충처리 제도화 및 역량 제고
- 피해자 비밀보장, 법적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상담지원 체계 마련

6/ 온라인에서 가해할 자유 No, 안전할 권리 기술적, 법적 보장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수사재판시 지원제도 준용
- 삭제 지원, 무료법률구조 예산 확충
-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기술적, 선제적 조치 연간 모니터링 이행

7/ 형법상 낙태죄 폐지만 No, 성과재생산 권리 법적, 의료복지적 보장

- 임신중지 약물 합법적 허용 신속한 도입
- 임신중지 상담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및 성과재생산권리 기본법 제정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인 교육, 양성, 홍보에 대한 국가지원

8/ 퇴행적 보수적 국가성교육 No, 포괄적 성교육 권리 제도적 보장

- 성교육 표준안 완전 폐기,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통한 학교 현장 강제 중단
- 국제 수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제도적 지원
- 청소년 및 다양한 시민들의 성적 시민성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적 방안 연구 개발

9/ 차별 혐오 방치방기 No,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균형법 92조의 6페이지
- 복합적 · 교차적 차별 상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정책 실질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 평등법 제정

10/ 성평등 제도정책 백래시 No, 성평등 관점 국정운영과 행정 확대

- 성평등 업무 부처 권한, 역할 확대
- 대통령 직속 정책협의기구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이행점검 NGO 참여구조 확립 / 범 정부부처의 과제 수립, 이행 모니터링 내실화
-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의 일반예산 편성
- 해바라기센터, 전담병원, 성폭력상담소 등 안정적 지원 및 장기비전 수립 및 실행

부설 연구소 올림 평가 및 운영 중단 보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1기(1997~2006), 2기(2014~2016), 3기(2016~2021)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개소 이래 상담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사회적인 1차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이례적인 활동이었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하고, 피해자 인 권보장을 위한 제도, 법, 정책, 교육을 신속하게 확산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상담소 법인은 조사연구 1, 2부 운영을 거쳐 1997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를 개소했고, 활동은 2006년까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 '부설 연구소 올림'을 재개소 했는데, 연구소장 및 책임 연구원 부재로 2015년 하반기 휴지기를 거쳐 2016년에 새로운 책임연구원이 활동을 시작하였고, 1인, 또는 2인이 연구소 고유 사업을 운영, 지속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 연구소 운영은 필요성, 중요성이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운영과 지속에 있어서 어려움에 마주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생존자 상담, 성문화운동, 쉼터 등 모든 상담소의 활동 방식과 체계가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활동, 부설 연구소 운영은 이를 진행하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여성인권운동단체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연구활동을 왜 조직의 미션과 비전으로 가지는지, 연구 성과물의 생산과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어떤 조건, 환경, 방식과 내용을 갖추어왔고 개선해갈지,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 참고되고 질문받고 있으며, 답을 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부설 연구소 1기, 2기, 3기 논의 및 평가 과정

여러 차계 각고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1997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초기 설립 당시, 다른 연구소를 참고하며 기존 내부 구성원과 연구자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외부 기금이 줄어들고 상임 연구원도 줄면서 '장기전망이 부재하게 되었고, '해야 할 사업'은 산적한데 성연구라는 보다 근본적 작업을 해야 한다는 과제도 대두됐습니다. 2000년, 상근연구원이 없어지고 무보수 주 1회 상근 부소장이 부임했습니다. 2003년 부설 연구소 연구계획을 성폭력 개념 논의, 여성폭력추방 운동사 재정립 등으로 세웠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해가 되었고 이는 몇 해동안 이어졌습니다. 외부 대학기관 수주로 큰 연구 프로젝트 진행과 평가 과정에서 논의 부족이 평가되었고,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의 조직차원의 고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의 사임 이후 부설 연구소는 해소되었습니다.

2014년 부설 연구소 재개소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타 연구소 탐방, 운영방식, 법인과의 관계, 위상/역할, 급여체계, 자료이용 원칙, 연구물 귀속 등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5개년 연구프로젝트 진행 평가에서 외부 공동연구원의 실제 연구 참여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연구소장이 휴직을 거쳐 사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소장과 연구원 없는 연구소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새로 구성되었고, 법인이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일지분석 등 고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역고소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작, 미투운동 이후 상담일지분석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활동가 교육 및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활발한 연대활동 등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는 시기였습니다. 외부 교수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연구책임자를 역임하는 연구소 운영이 당연 과제가 되자, 퇴임 소장의 연구소장 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현 책임연구원이 주 2일 근무를 지속 하더라도 박사학위 취득을 조직 내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장단과 연구소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책임연구원의 박사학위 취득 마무리 과정이 있었고, 연구원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위치와 역할 차이, 상담소와 다른 업무방식, 연구소 내에서 미래전망의 불투명성, 조직의 책임 등을 제기하며 사직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연구소 운영에 개인적 결의만이 아니라 조직적 기반 마련과 비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부설 연구소 올림 평가 및 비전 논의 과정

‘부설 연구소’라는 연구조직의 운영이나 구성, 위상, 역할, 체계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역사와 필요조건에 대한 상근활동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소 운영과 비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조직을 설립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 성폭력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해석과 개념을 생산하고, 상담현장의 목소리를 의제로 만들고 알리는 것은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이지만, 운영구조와 체계, 지속가능성 조건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평가와 비전에 대한 2021년 논의는 작년 7월을 경과하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설 연구소 구성원들의 질문,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반성폭력 연구 활동의 비전과 체계 정비를 한국성폭력상담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때였습니다.

부설 연구소에 대한 평가 및 비전 논의는 항목 구성, 지난 운영과정의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져왔습니다. 평가 항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이 1) 지속가능한 비전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2) 여성학적 전문성과 여성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3)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① 조직의 비전 ② 조직의 지속가능성 ③ 여성학 전문성과 현장성 ④ 연구수행 및 조직운영 방식을 정하고 평가 항목별 세부 항목 및 평가지표를 19개의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을 기반으로 여성인권운동단체의 부설 연구소의 평가와 비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의 질병 발현으로 인해 이후 논의는 지속될 수 없었고, 책임연구원은 질병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자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부설 연구소 운영 중단 및 향후 계획

앞으로 당분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의 운영은 중단 됩니다. 부설 연구소의 재개소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고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

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가 운영하는 부설 기관으로서의 연구기관의 실효성, 의미, 가능성은 유효하나, 부설 연구기관의 실제 운영과 방향성, 운영 방식 및 조직 체계에는 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부설 연구소 운영과정에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제기되었던 부설 연구소에 대한 평가 및 비전 논의는 연구소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에서 제안되어 부설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조직적 체계 및 운영방안을 아우르는 비전 논의로 확대되어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며 평가되고 논의되었던 지점들을 평가와 비전의 틀거리로 삼아 정리해가려던 과정에서 연구소 구성원들이 모두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평가 및 비전 논의를 지속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후 제기된 평가 의견과 지점, 부설 연구소 운동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 같이 검토하고 살펴보며 이후 부설 연구소 운영 및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이뤄진 평가 논의를 잘 기록화하겠습니다. 이사회, 자문위원, 상근활동가, 회원분들과 조속히 부설 연구소 운영 및 방향, 계획에 대해 함께 살피고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전체 10권

발행월	제목
자료집	자료집
1월	2021년 30차 정기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집
2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집 밖에서 집을 찾다 -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2월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시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
6월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워크숍
8월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8월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온라인 국회 토론회
10월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보고서
12월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12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킷 1차
22년1월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릴레이 토크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2월	나눔터 87호
8월	나눔터 88호

2021년 블로그 “똥다! 상담소” www.stoprape.or.kr **포스트 목록**

전체 96건 (전년 120건)

카테고리	월	일	제목
상담소는 지금 (51건)	1	4	[후기]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1	11	[후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없는2021년 맞이 네 가지 액션
	2	1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	1	[후기] 2021년 제30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2	24	[후기]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
	2	25	[후기] 2021년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	26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3	29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격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4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4	1	[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3/10)
	4	1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4	9	[후기] 서울시장 당선자에게‘성평등을 대/차/계/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4	19	[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4	27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고, 힘들 때 쉬어도 괜찮은 사회
	4	27	[후기] 2021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
	4	30	[후기]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약물 성폭력, 확보된 증거에 대한 수사 진전을 요구한다>
	6	1	[후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6	1	[후기]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6	1	[후기] 반성폭력운동, 포괄적 성교육과 적극 만나야
	6	29	[후기]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6	30	[후기] 2021 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부스ON도 현재진행 중!)	

카테고리	월	일	제목
	6	30	[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7	1	[후기] 릴레이 토크쇼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1부 관계편
	7	28	[후기]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7	29	[후기]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 2부 주체편> 릴레이 토크쇼 후기
	7	30	[후기]"이제 시작하는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 3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후기
	7	30	[후기] 3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후기
	8	31	[후기]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 특강과 토크콘서트
	8	31	[후기]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8	31	[후기] 2021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하게 적극적 합의!
	9	30	[후기]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발표회 후기
	10	1	[후기] 온라인농성장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10	18	[후기]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3부 응용편
	10	26	[후기] 세계커밍아웃의날 균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10	26	[후기]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
	11	1	[30주년 기념식] 특별후원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1	[30주년 기념식 후기]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기념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	1	[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개최 <너에게 가는 길> VIP 시사회
	12	1	[후기] 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
	12	1	[연대] 학교 내 불법촬영, 교육부 대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후기
	12	1	[토론회 후기] 젠더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이제는 '처벌' 가능해야 한다
	12	1	[토론회 후기] 권력형성폭력 대응,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12	1	[후기] 11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기록
	12	1	[후기] 내가반한언니 10월 모임 : 영화 <엘르> 이야기 나누기
	12	1	[후기] 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
	12	1	[후기] 백래시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 모여라! <스트릿 페미 파이터>
	12	9	[후기] 2021 온라인 한해보내기, <평범한 우리의 비범한 일상>
	12	29	[후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

카테고리	월	일	제목
			탄한다!
	12	30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12	31	[후기] 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쟁취 농성
	12	31	[후기]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시골시골 상담소 (39건)	1	18	12월 활동가 인터뷰: 셀프 인터뷰 1
	1	19	12월 활동가 인터뷰: 셀프 인터뷰 2
	1	20	12월 활동가 인터뷰: 셀프 인터뷰 3
	2	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월 모임
	2	22	[후기] 15기 씨타-경희 NGO 인턴십 _ 뿌리
	2	22	[후기] 15기 씨타-경희 NGO 인턴십 _ 수이
	2	23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반한언니 2월 모임
	2	24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2월 모임
	3	23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반한언니' 3월 모임 : 2021년의 첫 문장들
	3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3월 모임
	3	3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3월 모임
	4	27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4월 모임
	4	27	[후기] 자원활동가들의 좌충우돌 유튜브 콘텐츠 제작기!
	4	29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반한언니' 4월 모임 : 우리는 핑크허스트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페미니스트!
	4	30	[후기] 회원놀이터 <반려 식물 키워볼까?>
	4	30	[후기] 서른 번째 생일! 4/13 재충전의 날
	5	25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4월 모임
	5	2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5월 모임
	6	16	[후기] 내가 반한 언니 5월 모임: 다큐멘터리 <디스클로저> 감상
	6	22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5월 모임
	6	30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6월 모임
	6	30	[후기] 존엄한 생존자의 신나는 외출
	7	12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새로운 비를 소개합니다 :)
	7	2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7월 모임
	7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

카테고리	월	일	제목
			년 6월 모임
	7	30	[후기] 내가반한언니 6월 모임: 내가 사랑했던 것들
	8	13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7월 모임
	8	31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8월 모임
	8	31	[후기] 내가반한언니 8월 모임: 나타샤 로마노프를 떠나보내며
	9	24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8월 모임
	9	2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9월 모임
	9	28	[후기] 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 물난리 사건(2021년 8월 30일)
	10	1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9월 모임
	10	26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0월 모임
	11	22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10월 모임
	11	29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1월 모임
	11	29	[후기] 2021 하반기 회원놀이터 <나의 자기방어 말하기>
	12	14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1년 11월 모임
	12	28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2월 모임
이슈를 말하다 (2건)	6	23	[카드뉴스] 아직도 안 했다고?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12	29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킵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에 대해서 (4건)	3	11	나눔터 87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True Survivor - WR
	3	11	나눔터 87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미투 - 이레
	4	1	[후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기자회견
	8	24	나눔터 88호 <생존자의 목소리> 그 집을 지날 때마다 - 선이

2021년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영상 목록

전체 29건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2021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 함께해요!		0:20	3/9
성평등 정책 실종! 보궐선거, 어떻게 생각해? 시민들의 목소리로 함께 말하기		3:08	4/1
[다시보는 10년 전 추억의 영상]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1년부터 걸어온 길(개소 20주년 기념 영상)		5:45	4/13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악물 성폭력, 확보된 증거에 대한 수사 진전을 요구한다."		27:10	4/15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런데이] 저항의 행진을 멈추지 말자		1:09	4/2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_상담소 회원들과 함께		1:05	4/3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_상담소 활동가들		0:50	4/30
시간을 거스르다 : 법의 시간 너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영상]		12:07	5/7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2:23:50	6/10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p>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p>		2:19:05	7/1
<p>[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p>		2:38:01	8/24
<p>[D-1, 선공개] 페미니스트 래퍼 슬릭(SLEEQ)이 30주년을 맞이한 상담사에게</p>		0:34	10/6
<p>[30주년 기념식]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p>		1:09:57	10/7
<p>푸른 나비의 말하기 "생존자인 나는 말할 수 있다"</p>		7:09	10/18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은유의 말하기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	<p>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p> <p>작가 은유</p> <p>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다</p> 	6:37	10/18
이미경의 말하기 "법을 바꾸는 생존자의 목소리"	<p>반성폭력 활동가 경력 3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p> <p>이미경</p> <p>법을 바꾸는 생존자의 목소리</p> 	5:50	10/18
변영주의 말하기 "언제나 바로 지금에서 생각할 것"	<p>낮은 목소리들이 바라는 것들</p> <p>영화감독 변영주</p> <p>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p> 	6:03	10/18
권김현영의 말하기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p>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p> <p>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p> <p>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p> 	5:18	10.18
박정훈의 말하기 "가해자도 유니콘도 아닌"	<p>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p> <p>기자 박정훈</p> <p>가해자도, 유니콘도 아닌</p> 	5:17	10/18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유랑의 말하기 "지속가능한 운동, 함께 더 많이 말하기"		5:29	10/18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		3:30	10/19
비전선언문: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5:11	10/20
86,549번의 말하기가 만든 '어떤'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30년		4:04	10/20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Full ver.		3:33	11/9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p>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관계편</p>		1:27	11/9
<p>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소통편</p>		1:07	11/9
<p>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자신편</p>		1:11	11/9
<p>한국성폭력상담소 2021 한해보내기: 평범한 우리의 비범한 일상</p>		42:44	12/3
<p>[긴급 기자회견]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p>		41:26	12/24

2021년 입장, 논평, 성명

전체 111건 (전년 159건)

월	일	제목
1	4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렷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1	19	[입장] 2차 피해 중단, 진실 규명, 책임 추구를 위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문
1	21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사안 직권조사 의결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2	[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	22	[공동성명]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1	25	[입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1	28	[공동성명] 오거돈 기소 촉구 및 검찰규탄 성명: 검찰은 2차가해 중단하고 오거돈을 즉각 기소하라!
2	1	[공동논평] (1/14)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2	1	[공동논평] (1/21)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	1	[성명] (1/21)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라
2	5	[공동성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활동가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위한 탄원서(시민 2,250명 참여)
2	10	[공동성명]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
2	15	[성명]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 성명
2	17	[공동성명] 권력형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과 변성완 예비후보는 2차가해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	19	[성명]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2	22	[공동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2	23	[입장] 지금, 당장,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월	일	제목
2	25	[성명] [단호한 시선]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3	4	[논평] [단호한 시선]고인의 용기를 기억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가겠습니다.
3	4	[공동논평]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3	8	[공동성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3.8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문)
3	8	[성명] 행진을 멈추지 말자 : 3.8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를 제안하며
3	18	[성명] 미안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안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3	22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3	23	[입장]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 입니까?
3	30	[공동논평]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3/16)
3	30	[시민공동성명]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4	1	[공동성명]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4	1	[공동성명] 오거돈성폭력사건 1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 일상회복 및 권력형성폭력 없는 부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 (3/26)
4	7	[입장]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 갓갓 문형욱 1심 선고기일(4/8 오후 2시)
4	8	[공동성명]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4	12	[공동성명]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계/ 집/요/하/계/ 끝/까/지 촉구' 하는 기자회견
4	19	[공동성명] <우리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한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 (04/02)
4	20	[입장]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에 대한 현 서울시장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4	22	[텔레그램공대위]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4	29	[공동성명]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4/8)
5	4	[논평] [단호한 시선] 성평등을 위한 '성희롱 문제제기'인가, 성평등을 막는 '백래시'인가? : 연예인 박나래씨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고발 사태에 부쳐
5	10	[입장] [카드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모니터링: 박사방 2심 결심
5	10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월	일	제목
5	13	[서명운동]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 구속 수사,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5	18	[성명] [단호한 시선] 앗! '일부'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양심, 타이어보다 싸다!
5	21	[성명] 포괄적 성교육 네트워크 교육부 공개 질의
5	24	[텔레그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주동자들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5	26	[텔레그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주동자들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결과
5	26	[공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5	31	[공동성명] 5.28 세계 월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6	1	[공동성명] [텔레그램 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6	1	[논평] [추모논평]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6	3	[입장] [긴급촉구]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6	3	[공동성명] [해군성폭력공대위]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6	9	[텔레그램 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내용
6	9	[텔레그램공대위] '고담방 와치맨'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결과
6	14	[공동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6	16	[공동성명]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6	18	[텔레그램공대위] '고담방 와치맨'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결과
6	23	[입장]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6	24	[공동성명]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6	30	[공동논평] [카드뉴스] 아직도 안 했다고?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7	1	[공동논평] [모낙페]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7	1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의 글(6/29)에 대한 입장
7	8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고발 1년,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 1년
7	9	[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처
7	13	[텔레그램공대위]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남경을 1심, 한모씨 2심 선고에 부처

월	일	제목
7	15	[텔레그램공대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7	26	[텔레그램공대위] (기간연장)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7	27	[공동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	27	[공동성명] [국가기증 이견회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견회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7	29	[공동성명] [모낙폐][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7	30	[공동논평] [29개 여성단체 공동논평] 페미니스트니까 금메달 반납하라는 한국 사회, 누가 만들었나
7	30	[공동성명] 포괄적성교육기본법 제정촉구 릴레이 1인 시위(7/22)
8	9	[공동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8	20	[텔레그램공대위] 성명서 -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진 판결을 원한다 -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에 부쳐 -
8	20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8	23	[입장]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8/23 피해자 실명 공개 1심, 8/20 가처분 재판 : 가해자에 공감·감정이입하며 피해자·조력자를 공격하는 행위, 함께 멈추게 나서자
8	23	[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8	25	[공동성명]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8	25	[공동성명]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8	25	[공동성명] 땀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8	26	[보도자료]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온라인 국회토론회
8	31	[공동성명]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한국 1325 네트워크 및 여성시민단체 공동성명서
9	3	[공동논평] 2021년 9월, 국회는 평등을 약속할 책무 즉각 이행하라
9	3	[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9	8	[공동성명]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월	일	제목
9	10	[공동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9	15	[공동성명]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오거돈을 엄중 처벌하라
9	17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	28	[공동성명] [모낙폐]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	29	[공동논평]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10	12	[공동성명] 세계 커밍아웃의 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10	14	[텔레그램 공대위]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0	19	[공동성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10	20	[성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10	22	[성명]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조항 신설”? ‘안티 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 당신에게 줄 표는 없다.
10	26	[공동성명] 글로벌기업 사넬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10	28	[공동논평] 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 이미 모두 지났다 이제는 '제정할 때'
10	29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조속히 공식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라!
11	1	[공동성명]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안양여성연대 및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11	4	[공동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11	12	[공동성명]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34년 형이 무기징역이 되는 그 날까지-문형욱(갓갓) 대법원 최종 선고심에 부쳐
11	19	<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 기자회견>
11	25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12	1	[공동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11/26)
12	1	[입장]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루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11/08)
12	1	[성명] 백래시에 대응하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온라인 여성집회 선언문(11/19)
12	13	[논평]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2021년 마지막 임시회 개회에 부쳐

월	일	제목
12	15	[공동성명]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12	16	[공동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12/9)
12	16	[공동성명] [성폭력사안에 해결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연대성명]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자를 공식 징계하고 예방하라
12	24	[기자회견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12	28	[공동성명]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12	31	[논평]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강의 활동

총 83회, 약 3,271명 대상 교육 (전년 81회, 약 2,466명)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	5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례연구
1	16	경원사회복지관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1	30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차별 조직문화 실태와 대응
2	2	서울대 로스쿨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개선성폭력운동과 법정책 개입
2	3	서울대 로스쿨	비동의강간죄와 적극적 합의
2	4	정의당	정의당 사건해결, 2차 피해란?
2	22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폭력피해자지원과 2차 피해 방지
2	22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2	25	여성환경연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	8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재생산권:낳을권리, 낳지 않을 권리
3	9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위력성폭력 사건과 공대위 대응
3	9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운동 현황과 과제
3	11	광명여성의전화	아동·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지원체계
3	19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성폭력사건의 형사처리과정
3	25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아동·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지원체계
3	26	광명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 인권지원 사례연구 및 실습
4	2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성폭력의 유형별 쟁점과 사례
4	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출직 위력성폭력과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4	21	(사)평화캠프	공동체 내 성평등교육
4	22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
4	2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여성주의상담의 실제
4	27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과 이해
4	29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 인권지원 사례연구 및 실습:친밀한관계

월	일	의뢰기관	주제
4	30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주디딤터)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5	7	천안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성폭력과 여성주의 지원상담의 과정
5	7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지원
5	8	천안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지원
5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주요 연계 자원과 방법
5	14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주디딤터)	강간죄 개정운동 현황과 과제
5	20	루트임팩트	직장내 고충상담원의 자세 및 상담스킬
5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 훈련
5	27	수원여성회	최근 성폭력 현황과 과제
5	29	존타클럽	성폭력피해자 현황과 성폭력상담소의 활동
6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간죄 개정운동 현황과 과제
6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6	1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형법상 강간죄 왜 개정되어야 할까?
6	1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형법상 강간죄 왜 개정되어야 할까?
6	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6	22	경남여성단체연합	위력성폭력 사건과 공대위 대응
6	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 훈련
6	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7	7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의 개념과 쟁점
7	8	한국성폭력상담소	위력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운동
7	1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2차피해와 역고소
7	13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현황과 과제
7	19	과천여성비전센터	성폭력피해시설의 역할과 이해
7	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 훈련
7	23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7	27	위드유 직장내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법률동행 지원사업
7	28	의심많은 여자들	페미니즘과 성폭력을 둘러싼 주요개념

월	일	의뢰기관	주제
8	3	김해여성의 전화	성폭력피해쉼터에 대한 이해와 역할
8	5	성남여성의 전화	성폭력보호쉼터의 이해
8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주요 연계 자원과 방법
8	6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대학생캠프 젠더폭력의제활동
8	13	의심많은 여자들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의 등장과 논쟁들
8	16	과천여성비전센터	상담사례연구 및 실습-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
8	23	연세대학교 인권위원회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
8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내의사결정체계 컨설팅
9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 훈련
9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주디딤터)	젠더공감토크(강간죄 개정으로 멈춰진 형법, 시계를 움직여라!)
9	14	부산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주요연계 자원과 방법
9	15	한국여성의전화	위력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운동
9	23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성폭력 사건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논문 강의
9	25	대전ywca	친족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와 상담
9	2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9	28	대전여민회	여성폭력 현황과 과제
9	30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성폭력지원 및 대응체계
10	6	포항한마음부설 상담복지연구원	여성학과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10	12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과 지원체계
10	25	군포여성민우회	비동의강간죄와 적극적 합의
10	25	서울시 교육청	고충처리상담의 이해와 상담기술 훈련
10	28	김해여성의 전화	성폭력피해쉼터에 대한 이해와 역할
11	1	해군 양성평등센터	사례 슈퍼비전
11	2	기독교여민회`	변화를 염원하는 목소리, 권력의 반격에 맞서기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1	5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적극적 합의
11	6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11	18	강화산마을고등학교	젠더감수성 훈련
11	18	강화산마을고등학교	젠더감수성 훈련
11	23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성적 동의
12	7	동북권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획단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의 문제로
12	13	인권재단사람	디지털 성범죄가 현장에 던지는 고민들
12	18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운동권내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12	29	강화산마을고등학교	성평등프로그램(보통의연대보드게임)

2021년 외부 자문 및 정책위원회 참여

전체 67건 (전년 114건)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	4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1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자문위원회
2	9	이우학교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자문
2	17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대학내 인권/성폭력 규정 관련 자문
3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3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4	27	제천간디대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대응 자문회의
4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자문위원회
4	29	서울시NPO지원센터	위기관리툴킷 자문
5	10	땡땡은협동조합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자문회의 (문서)
5	27	서울위드유센터	피해자지원기관 네트워크 회의
5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5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5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6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제화 연구 중간보고 자문
6	9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1차 심의
6	9	공군양성평등자문위원회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임시 회의 - 공군 20비행전투단 성폭력 사건 관련 권고
6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FGI
6	2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6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6	28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1차 회의
7	9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2차 회의

월	일	주최기관	내용
7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에 의한 2차피해 온라인 조사 자문
7	14	남서울대학교	여성긴급전화 1366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술매개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연구 자문
7	1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내의사결정체계컨설팅 기획회의
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자문위원회
7	22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7	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안 및 워크북 감수
8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에 의한 2차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FGI
8	4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7차 회의
8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스토리보드 감수
8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피해자 지원안내서 자문
8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내의사결정체계컨설팅 기획회의
8	11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8차 회의
8	17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임시전체회의
8	19	공군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임시회의
8	25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운영위원회
8	25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분과 회의
8	26	정의당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 자문위원회
9	2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중절의약품(미프지미소정) 관련 중양약사심의위원회
9	30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정책자문단 3분기 자문
10	1	제천간디학교	사건자문위원 위촉 및 교사간담회 (사건 자문)
10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 기초연구 젠더폭력분야 서면자문
10	7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3차 심의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0	15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심의
10	15	대검찰청	사안관련 전문가 의견조회 (서면)
1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자문
1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자문
10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자문위원회
11	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성폭력 피해 말하기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말하기 단계를 중심으로(인터뷰)
11	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성폭력 피해 말하기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말하기 단계를 중심으로(인터뷰)
11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상담원 교육 평가(서면)
11	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1년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최종심의
11	15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양평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역량모델 개발 연구(서면)
11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 주요 현안 및 지식정보 발굴을 위한 간담회
11	1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온라인자료전 - 데이트폭력 현황과 대응 정책
11	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러닝콘텐츠 <위기 상담 및 트라우마 상담 기법> 감수
11	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사자보수교육 블렌디드 교육(이러닝+화상) 모니터링
11	24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반성폭력학교문화 조성방안 연구
12	2	서울시	사례 관련 전문가검토의견
12	3	정의당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 자문위원회
12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종사자보수교육 강사 평가회의
12	16	젠더교육플랫폼 호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2	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역량강화 컨설팅 주제별 컨설턴트 평가워크숍
12	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역량강화 컨설팅 매뉴얼 활용 서면자문

2021년 발제, 발표, 토론, 사회

전체 27건 (전년 25건)

월	일	주최기관	토론회, 발표회 제목	사회, 발표자
1	25	일본	한국의 위력성폭력 대응운동	이미경
3	3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온라인 연속간담회 4.7 재보궐선거 왜 하는데?	김혜정
4	8	여성신문 젠더위원회	4.7 보궐선거 무엇을 남겼나 -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담대한 전진	김혜정
5	22	한국다양성연구소	모두를 위한 성교육 콜로키움	김혜정
6	19	대한여한의사회	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세미나- 성폭력과 인권	이미경
6	21	더불어민주당	제2차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정책간담회 _ 인권·안전 분야	김혜정
6	26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보고회	류수민
6	30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성평등 포럼_페미니즘 백래시	한소망
7	1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2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움 :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향	이미경
7	2	영희야놀자	우리는매일매일 개봉기념 GV	김혜정
7	8	국방연구원	국방연구원 57차 아젠다 포럼 : 군내 성폭력 이슈와 개선 방향	김혜정
8	9	부산성폭력상담소	3차 권력형성폭력분석모임	김혜정
8	24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 회의	강간죄 개정연대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토크콘서트	김혜정
8	3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명품기업 사넬이 직장 내 성희롱을 대하는 자세 - 사내 성희롱 근절 시스템 만들기 위한 토론회	최란
9	8	나무의 마음	『관찰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기념 온라인 북토크	이미경
9	25	부산성폭력상담소	권력형성폭력토론회: 우리는 변화했다	이미경
9	30	충북여성정책포럼	성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위한 점검과 제안	김보화
10	16	이토 시오리 씨의 민사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Act up Now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쟁점	이미경

월	일	주최기관	토론회, 발표회 제목	사회, 발표자
11	8	대법원 양형위원회·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이미경
11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김혜정
11	25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 원	공감과 합리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 콘퍼런스	이미경
11	29	부산성폭력상담소	권력형성폭력대토론회 -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공론화의 의미와 과제	김혜정
12	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 회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김혜정
12	8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 책위원회	디지털성착취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노선이
12	11	한국여성인권영화제	친족성폭력 다큐멘터리 GV	김혜정
12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학술대회 “여성과 평화: 분쟁, 여성 인권, 그리고 폭력”	이미경
12	17	정의당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부터	박아름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고

전체 10건 (전년 7건)

월	제목	게재지	담당자
1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겨레신문	이미경
1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한겨레신문	앞
3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서면 인터뷰	한국여성상담센터 뉴스레터	앞
3	기획특집 :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젠 더리뷰	앞
4	우리 사회가 도달한 세 가지 열쇠말 : 이미경 · 장다혜 · 정대현 · 김선희 · 김보화 · 김수아 · 추지현(2021), 『미투가 있다/있다 :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서평	한국여성학	김혜정
8	죽고 싶은데 살고 싶어서, 광장을 여는 사람들	글항아리,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기록> 추천사	김혜정
9	삶의 주도권을 찾는 여정	빅이슈	류수민
11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	여성신문	김혜정
11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 토크아보기	협동조합 청풍, 가이드북	김보화
12	2021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역량강화 컨설팅 후속자료집- 의사결정체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최란

2021년 언론에 난 상담소

전체 151건 (전년 157건)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	6	민중의소리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1	7	JTBC 뉴스	"우리도 행복할 권리"...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
1	9	한겨레	'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1	14	경향신문	경찰 출동이 '더 큰 데이트폭력' 막았다
1	14	동아일보	여성단체 "'동료 성폭행' 피해자, 사진 유포...명예훼손 멈춰야"
1	15	교수신문	미투가 있다/있다
1	15	민중의소리	'2차 가해로 돈까지 벌다 법정구속 된 조덕제...법원 "죄질 좋지 않다"
1	21	프레시안	'성적 빠치심'도 성적 수치심이다
1	23	한겨레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1	24	한국경제신문	"최고의 시장 억울한 죽음"...하 피해자에 쏟아지는 2차 가해 [종합]
1	25	여성신문	피해자 지원단체 "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 제대로 응답하라"
1	26	YTN	[황보선의출발새아침] 김혜정 "박원순 피해자 휴대전화 공개, 사회적 조사 이후"
1	27	뉴시스	김종철 등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추행'...무엇을 바꿔야 하나
1	27	한겨레	[뉴스AS] 친고죄 폐지...이러라고 한 게 아니다
1	28	한겨레	2020 성폭력 수사·판결은 적절했나... '디딤돌'·'걸림돌' 살펴보니
1	29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신임 소장에 김혜정 부소장
1	30	연합뉴스	"성폭력 사건 해결방식 정답 없어...피해자 결정 존중해야"
2	2	한겨레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누가 하나 살펴보니
2	3	여성신문	[단독] 아빠가 가해자...친족성폭력 매년 766건, 문제는 공소시효
2	4	쿠기뉴스	김종철 사태가 드러낸 '친고죄 폐지' 허점
2	5	KBS	목사가 10대 세 자매 성추행... "가해자의 90%는 지인"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2	6	연합뉴스	"나 13살일 때 삼촌은 26살"...프랑스 뒤흔든 #미투엔제스트 [이슈 킷]
2	11	YTN	'박원순 계승' 우상호에 피해자 "가슴 짓누르는 폭력"
2	11	뉴스포스트	[불편한 진실]① 친족 성폭력, 매년 평균 최소 779건 발생
2	13	아시아경제	"만취한 여성 강간한 남성 무죄" '준강간 사건' 뒤집힐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2	22	한겨레	"피해 말하기까지 20~30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10년이어선 안 되는 이유
2	28	한겨레21	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
3	2	파이낸셜뉴스	'스킵' 누르기 바쁜 직장인 의무교육, 실효성은 어디에?
3	3	뉴스포스트	[불편한진실]②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절대 해선 안 될 말
3	4	여성신문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들 온라인서 '성평등' 외친다
3	8	민중언론 참세상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에게 미프진이 필요하다" 모낙페,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기자회견 열어...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요구
3	10	머니투데이	n번방 절반 벌금형·131건 집유 '숨방망이'... "갓가에 무기징역을"
3	17	연합뉴스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 내일 열려
3	17	뉴시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3	17	여성신문	성폭력특별법 제정 과정 다룬 다큐 나온다
3	19	여성신문	[성폭력 근절 공약 뜯어보니] 젠더 이슈 실종... "서울시장 선거 왜 하죠?"
3	19	여성신문	[젠더위원회, 서울시장 후보에 말한다] "시 조례 등에 성폭력 방지 규정 마련해야"
3	19	연합뉴스	성폭력 상담 중 '불법촬영 피해' 늘어... "아는사람이 가해자 82%"
3	22	뉴시스	군인권센터 등 '성소수자 여성 장교 성폭력 사건' 유엔에 진정
3	23	한겨레	"'보궐선거 왜 해' 캠페인 선거법 위반"...박원순 피해자 지원단체 항의
3	25	한국경제신문	[단독] 강남 유명 병원장 아들 성추행 고소...경찰의 황당 대처
3	26	뉴시스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성별갈등 조짐...남녀아닌 가해자·피해자 문제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3	31	경향신문	성범죄 피해 진술 풍부하게 청취...AI 조서 작성 시스템 확대하는 경찰
4	5	연합뉴스	'룸살롱' 운운 하나카드 사장 막말...불매운동 조짐도
4	5	민중언론 참세상	서울시장 후보들 노동정책 및 여성정책은? 노동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중심으로, 여성은 '성평등'보다 '안전'에 초점
4	8	뉴시스	"오세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복귀 환경 마련해야"
4	8	세계일보	코로나로 '국민참여재판' 지지부진... 피해자 고통만 가중
4	9	여성신문	정책미래-젠더 없는 '3無' 선거... 성평등 사회 향해 담대한 전진 시작해야
4	15	MBC뉴스	"'물뽕' 성범죄 신고했는데...경찰 수사 '미적미적'"
4	17	머니투데이	신고 즉시 '접근금지'... 22년 걸린 스토킹 처벌법, 아직 멀었다
4	18	CBS노컷뉴스	[법정B컷]준강간 중에 피해자가 깨면 미수라고?
4	19	MBN뉴스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기소...사회적 안전망 절실
4	21	조선일보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대처도 2차 가해도 서울시가 부족했다"
4	22	아시아경제	친딸 성폭행하는 '인면수심' 아버지들...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았다
4	29	쿠키뉴스	"피해호소인"·"불필요한 접촉" 성폭력 사건문 톺아보기
5	3	미디어스	KBS 감사실이 성평등센터 부장 '책임' 묻는다는데
5	11	국민일보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②] 초고속 n차 유포 불붙이는 '클라우드'
5	11	우먼타임스	[이슈 짚기] 8번째 발의에도 여전히 발 묶인 포괄적차별금지법
5		TBS NEWS	스토킹 처벌법에 정작 피해자는 빠졌다?
5	12	뉴시스	여성단체 "조주빈 감형 아쉽지만 범죄단체조직죄 인정 의미 있어"
5	19	한국일보	중학생·고교생·군인...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6	1	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상세정보 언론에 공개한 국회의원 "피해자 보호 원칙 사라져"
6	4	머니투데이	'원아웃제' 있으나마나...성폭력 당해도 신고 못하는 여군들
6	4	kbs news	4년마다 반복된 여군의 비극...대책은 말 뿐이었다
6	11	여성신문	성병 감추고 성관계 한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6	13	머니투데이	"오늘밤 같이" "속살도 하얗나"...소개팅이 '악몽' 됐다
6	17	노컷뉴스	[현장EN:]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노컷뉴스
6	17	일다	"성관계에서 '합의'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②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 편"
6	21	시사인	군 성폭력, '부대 내' 전담팀으로는 해결 못한다
7	1	무비스트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우리, 내일의 우리 (오락성 7 작품성 7)
7	1	MBN	[제보M] 사촌오빠 성추행 13년 만에 고소했지만...단죄 못 하는 법원
7	5	뉴스1	'찰~각' 피서지 곳곳에 도사린 나쁜 눈...피서철 몰카 주의보
7	5	MBC뉴스	[집중취재M] 연락 안 닿는 '국선변호사'... '이의 제기' 기한 놓치기도
7	8	노컷뉴스	[노컷 리뷰]백래시 시대에 부치는 다섯 영페미 비망록
7	8	무비스트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강유가람 감독
7	13	로톡뉴스	친족 성폭력 가해자, 그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면죄'를 받았다
7	15	연합뉴스	'가족'이란 이름으로 쉬쉬...고립되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7	19	아트인사이트	[오피니언]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나아가지!' [영화]
8	1	미디어오늘	"성범죄 감형 팁" 인기 카페에 1타 강사... '돈 되는' 가해자 시장을 해부하다
8	1	일다	나의 섹스에 사회적 선입견과 통념이 관여하고 있다!
8	10	크리스천투데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사건, 엄정히 처벌해야"
8	11	한겨레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의 조건을 말하다
8	11	경향신문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8	13	MBC	[뉴스하이킥] "두 딸 성폭행한 남성, 영혼 살인 200번 한 것!"
8	20	쿠기뉴스	부부간 성범죄 첫 인정 17년 후... "여전히 피해입증 힘들어요"
8	25	뉴스락	[뉴스락 특별기획] 현대약품 영국산 낙태약 도입을 둘러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집중조명]
8	25	뉴스앤조이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 성립...현실 반영 못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8	26	여성신문	26일 '페미니즘 백래시' 진단-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8	26	파이낸셜뉴스	[끊이지 않는 디지털성범죄-中]지인 능욕에 딥페이크...플랫폼은 성범죄 천국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8	31	시사IN	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군의 변명
8	31	파이낸셜투데이	샤넬코리아노조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원칙 바로 세워야”
9	2	여성신문	확산되는 페미니즘 백래시...“이익 뺏었다고 느끼는 기득권자 반발”
9	7	국민일보	잇을 만하면 또...대학 단톡방 성희롱, 징계 어땠나
9	7	한겨레	낙태죄 폐지 9개월째, 신속허가하겠다는 임신중절약 도입은 언제쯤?
9	10	조선일보	[박은주의 돌발] ‘공익신고자’라는 신분세탁?
9	17	한겨레	“가해자 없으면 업무가 안 돼”...직장 내 성희롱 신고 뒤 ‘2차 가해’
9	28	MBC	[뉴스하이킥] 서지현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 직접적 가담 요구하는 '지존파 방식' 도입?"
10	6	일다	성관계에서 ‘좋았어?’ 질문 대신 묻고 말해야 할 것
10	7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7일 개소 30주년 기념식 개최
10	8	KBS	[뉴스해설]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 30년,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10	9	여성신문	8만6549번의 말하기가 일군 변화... “그것은 본능 아닌 ‘강간 문화’다”
10	11	뉴시즈	"국방부, 성폭력 침묵 동성만 처벌"...군형법 개정 촉구
10	11	충북일보	스토킹(Stalking), 순애보가 아닌 범죄입니다
10	13	아시아경제	"정말 죄송합니다" '세모녀 살해' 김태현, 정말 반성할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10	14	한국경제	청소 틈타 몰카 설치...모텔 손님 수백명 불법촬영 일당 '덜미'
10	14	KBS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 조직” 인정
10	14	MBN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대법원 "박사방은 범죄단체“
10	15	한겨레	비공개 재판 조재범 판결문 공개한 법률사이트
10	20	파이낸셜뉴스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제대로 될까
10	20	MBC	'안 만나줘서' 살인까지...전조 증상 '스토킹' 내일부터 처벌
10	25	쿠키뉴스	“판사님, 성폭력 증거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하나요”
11	2	여성신문	윤석열 이어 유승민도 “성범죄 무고죄 엄벌”... 후퇴하는 성평등 공약
11	2	한겨레	‘박심’ 경쟁에 성별 갈라치기까지...국민의힘 ‘퇴행적 경선’
11	3	비마이너	[박김영희③] 그렇게 대표가 된다 / 홍은전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1	3	뉴스앤조이	"목회자 성범죄에 취약한 교회 문화 성찰하고 피해자 지원 위해 연대해야"
11	6	여성신문	[기고]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
11	8	아시아경제	"집행유예 많은 젠더범죄 판결, 양형 강화 역행"
11	8	비마이너	폭우 속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국회 앞 농성 시작
11	9	뉴시즈	"신뢰관계·우월지위 이용한 젠더범죄, 형량 더 늘려야"
11	10	한겨레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릴게요"... 성범죄 가해자 지원 '시장'이 섰다
11	17	한국일보	"성폭력 피해에 침묵했던 그때의 나를 고발한다" 28년 만의 미투
11	19	기자협회보	모두의 뉴스, 모두의 뉴스룸을 위해
11	19	여성신문	"이재명·윤석열, '젠더갈등' 조장... 여성들은 성평등에 투표한다"
11	19	뉴스클레임	[생생발언] 거대 양당 후보들, 이렇게 차별에 관심 있으셨나요?
11	21	한겨레	쇠망치로 때려도 '초범+합의=집유'... 풀려난 남편은 아내를 죽였다
11	21	연합뉴스	가해자와 분리 원했는데... 이별 살인 '속수무책'
11	25	한국일보	"그만둡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 그날 이후 속속 돌아섰다
11	25	한겨레	[뉴스AS] '살인 전조' 스토킹, 법은 무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11	26	한겨레	폭력 은폐하는 '치외법권' 지대, 그 이름 '가족'
11	30	파이낸셜뉴스	형량 낮추려고 기부금 내는 범죄자... "면피 반성에 감형하는 법원이 문제"
12	2	로톡뉴스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합니까" 질문에 태평양 건너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한 말
12	2	파이낸셜뉴스	일단 지르고 보는 '무고죄' 급증... 처벌 강화하면 사라질까
12	3	한겨레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수십개 산재... 오히려 미로 되나
12	6	뉴스1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내 은밀한 영상'... 단 10%만 실행
12	7	한겨레	"에타에선 신상 털리고, '성평등 위원 총살해야' 글도 자주 올라와"
12	7	MBC	[집중취재M]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12	8	한겨레	변호사 강용석의 '고발 폭력'... "피해자 악질적 괴롭히기"
12	9	한국일보	유포 안 했다고, 이젠 지웠다고... 디지털 성착취물 '헐거운 단죄'
12	9	뉴시즈	이화여대, '분쟁, 여성인권, 폭력' 학술대회 14일 개최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2	12	한겨레21	법잘알의 n번째 가해
12	14	한겨레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은 검열” 윤석열이 틀린 3가지 이유
12	18	뉴시즈	'최소한의 조치' n번방법...최초 유포 등 사각지대는 대책 없나?
12	20	연합뉴스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팔죽 할머니' 김은숙 씨 등
12	23	한겨레21	‘지금’까지도 지난했다
12	23	KBS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인정은 위헌”
12	24	MBC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영상 증거능력 폐기한 헌재 규탄"
12	27	한국일보	"열이 나네, 다음에 오세요"...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올리는 해바라기센터
12	28	PD저널	성범죄 보도에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일러스트 '이제 그만'
12	29	머니투데이	딸 성폭행한 아빠...신고 말리는 엄마,,,그 아이들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12	31	한겨레	n번방 범죄를 ‘고3 스트레스’ 고려 감형?...문제적 젠더폭력 판결들
12	31	여성신문	[새해엔 달라져야] 스토킹·친족성폭력 등 현행법 허점 메워야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2022. 1. 27 기준

팀	상근활동가	비고
성문화운동팀 (2명)	박아름(앓) 김신아(신아)	(전출) 닷별 2022.1.1
회원홍보팀 (1명)	한소망(닷별)	(전입) 닷별 2022.1.1
여성주의상담팀 (4명)	유호정(유랑) 노조선이(감이) 윤경진(경진) 김현지(파랑)	
사무국 (3명)	김혜정(오매) (소장) 최란(란) (부소장) 전혜영(백목련)	
부설기관	상근활동가	비고
연구소 올림 (0명)		(퇴사) 장주리 (연구원) 2021.7.20. (퇴사) 김보화(파이) (책임연구원) 2021.12.3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5명)	조은희 (원장) 박지희 추상아 류수민(수수) 김주아(낙타)	(입사) 추상아 2021.3.4

회계 감사 보고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총괄회계와 일반회계, 수익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개선권고안을 제외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총괄회계와 일반회계, 수익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개 선 권 고 안

문제점 :

국비, 시비, 구비보조금 수입 총액 587,947,450원 중 운영성과표상 당기 제반 사업비 실적이 532,448,470원이고 나머지 반환금 55,594,811원(이자 95,831원 포함)은 사업수행비용으로 집계되어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

실제 사업수행비용에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어 국고 반환금은 사업 외 비용 구간으로 분류하여 순수 사업비용 총액을 알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함.

2022년 1월 14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KSVRC 예결산서(수입)

수입		(단위: 원)				
과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2년 예산	
강 관 할 목						
한국상속력상당소	859,705,904	932,596,941	108%		809,192,898	
사업수입	694,160,000	827,179,189	119%		734,588,000	
모금사업수입	401,310,000	523,714,189	131%		420,960,000	
정기후원금	249,600,000	275,935,404	111%		272,400,000	
◎ 회비	9,600,000	5,720,000		◎ 회비 10,000 원 × 70 명 × 12 개월	8,400,000	
◎ 후원회비	240,000,000	270,215,404		◎ 후원회비 22,000,000 원 × 12 개월	264,000,000	
일시후원금	66,360,000	151,042,456	228%		129,360,000	
◎ 일시후원금	24,000,000	124,690,756		◎ 일시후원금 8,500,000 원 × 12 개월	102,000,000	
◎ 기업후원금	36,000,000	24,458,000		◎ 기업후원금 2,000,000 원 × 12 개월	24,000,000	
◎ 문자후원금	6,000,000	1,424,700		◎ 문자후원금 1,500,000 원 × 2 회	3,000,000	
◎ 온라인후원금	360,000	469,000		◎ 온라인후원금 30,000 원 × 12 개월	360,000	
◎ 현물후원금	-	-	0%		-	
◎ 현물후원금	-	-		◎ 현물후원금	-	
후원행사수입금	50,000,000	59,499,000	119%		-	
◎ 30주년 기념식	40,000,000	59,499,000			-	
◎ 콜라부드핀딩	10,000,000	-			-	
찾아가는홍보기부금	32,200,000	36,005,839	112%		18,200,000	
◎ 강의 회	18,000,000	19,815,839		◎ 강의 회 1,500,000 원 × 12 개월	18,000,000	
◎ 심층적 전문상담원교육	14,000,000	16,170,000		◎ 심층적 전문상담원교육	-	
◎ 특강	200,000	20,000		◎ 특강 10,000 원 × 20 명	200,000	
자료이홍후원금	2,900,000	1,231,490	42%		1,000,000	
◎ 굿즈	500,000	4,010		◎ 굿즈 50,000 원 × 4 회	200,000	
◎ 자료집	2,400,000	814,549		◎ 자료집 50,000 원 × 12 개월	600,000	
◎ 기타	-	412,931		◎ 기타 50,000 원 × 4 회	200,000	
따발미기금	250,000	-	0%		-	
보조금수입	216,000,000	217,865,000	101%		230,258,000	
국비보조금	118,000,000	123,816,000	105%		134,098,000	
◎ 운영비	118,000,000	123,816,000		◎ 운영비	134,098,000	
시비보조금	98,000,000	94,049,000	96%		96,160,0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98,000,000	94,049,0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95,000,000	
◎ 복지포인트	-	-		◎ 복지포인트	1,160,000	
특별사업수입	75,850,000	83,400,000	110%		83,37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40,000,000	45,000,000	113%		4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5,850,000	16,400,000	103%		23,390,000	
보조금공모사업지원금	15,000,000	17,000,000	113%		-	
◎ 여성가족부양성평등공모사업	15,000,000	17,000,000			-	
◎ 기타공모사업지원금	5,000,000	5,000,000	100%		19,980,000	
◎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	5,000,000	5,000,000		◎ 한국여성재단지원사업	19,980,000	
공동분담금수입	1,000,000	2,200,000	220%		-	
모두를위한낙태회폐지공동행동	1,000,000	2,200,000	220%		-	
사업외수입	165,545,904	105,417,752	64%		74,604,898	
이월금	159,520,904	97,259,904	61%		69,104,898	
전년도 이월금	159,520,904	97,259,904	61%		69,104,898	
기타수입	6,025,000	8,157,848	135%		5,500,000	
이자수입	3,500,000	4,995,351	143%		5,000,000	
◎ 이자수입	3,500,000	4,995,351		◎ 이자수입 1,250,000 원 × 4 분기	5,000,000	
내부강사료수입	2,025,000	2,700,000	133%		-	
◎ 치료회복프로그램	2,025,000	2,700,000			-	
잡수입	500,000	462,497			500,000	
◎ 법인세 환급수입	500,000	433,180		◎ 법인세 환급수입 500,000 원 × 1 회	500,000	
◎ 기타 잡수입	-	29,317		◎ 기타 잡수입	-	

KSVRC 예결산서(지출)

지출		(단위: 원)				
과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2년 예산	
한국생물학연구원	859,705,904	932,596,941	108%		809,192,898	
인건비	361,870,400	367,008,460	101%		401,042,400	
기본급	289,958,000	299,237,680	103%		338,450,000	
기본급	175,860,000	173,389,480	99%		208,040,000	
				○ 상근직 ○ 7호봉 2,057,500 원 × 2 명 × 12 개월 49,380,000 ○ 6호봉 2,025,000 원 × 2 명 × 12 개월 48,600,000 ○ 4호봉 1,965,000 원 × 1 명 × 12 개월 23,580,000 ○ 3호봉 1,940,000 원 × 1 명 × 12 개월 23,280,000 ○ 1호봉 1,880,000 원 × 2 명 × 11 개월 41,360,000 ○ 계약직 1,820,000 원 × 2 명 × 6 개월 21,840,000	186,200,000	
기본급(보조급)	114,098,000	125,848,200	110%		130,410,000	
				○ 3급 15호봉 3,508,500 원 × 1 명 × 12 개월 42,102,000 ○ 5급 12호봉 2,698,000 원 × 1 명 × 12 개월 32,376,000 ○ 5급 8호봉 2,395,000 원 × 1 명 × 12 개월 28,740,000 ○ 5급 6호봉 2,266,000 원 × 1 명 × 12 개월 27,192,000	42,102,000	
수당	71,912,400	67,770,780	94%		62,592,400	
상여금	14,652,000	14,110,900	96%		11,676,000	
				○ 상여금 973,000 원 × 12 개월 11,676,000	11,676,000	
장기근속수당	5,388,000	4,670,700	87%		3,996,000	
				○ 상근직 ○ 7호봉 89,000 원 × 1 명 × 12 개월 1,068,000 ○ 6호봉 88,000 원 × 2 명 × 12 개월 2,112,000 ○ 4호봉 68,000 원 × 1 명 × 12 개월 816,000	3,996,000	
기계보전수당	17,500,000	15,801,000	90%		16,600,000	
				○ 비혼수당 100,000 원 × 8 명 × 12 개월 9,600,000 ○ 딸결혼기비 500,000 원 × 7 명 × 2 회 7,000,000	9,600,000	
기계보전수당(보조급)	14,282,400	15,487,600	108%		15,920,400	
				○ 가족수당 120,000 원 × 2 명 × 12 개월 2,880,000 ○ 딸결혼기비 10,867,000 원 × 0.60 × 2 회 13,040,400	2,880,000	
복리후생및실비보상	1,080,000	1,999,080	185%		1,800,000	
				○ 기타 급여보전비 150,000 원 × 12 개월 1,800,000	1,800,000	
복리후생및실비보상(보조급)	4,800,000	4,800,000	100%		4,800,000	
				○ 정액급식비 100,000 원 × 4 명 × 12 개월 4,800,000	4,800,000	
직무수행	11,810,000	8,501,500	72%		5,400,000	
				○ 직책수당 4,800,000 ○ 선일 100,000 원 × 4 명 × 12 개월 4,800,000 ○ 특검업무수당 600,000 ○ 재경수당 50,000 원 × 1 명 × 12 개월 600,000	4,800,000	
직무수행(보조급)	2,400,000	2,400,000	100%		2,400,000	
				○ 직책수당 200,000 원 × 1 명 × 12 개월 2,400,000	2,400,000	
물건비	52,066,000	56,825,323	109%		59,611,400	
일반운영비	50,966,000	56,214,023	110%		58,161,400	
사무관리비	9,540,000	5,936,910	62%		4,700,000	
○ 지급수수료 ○ 공익법인세무확인수수료 2,100,000 ○ 법인등기수수료 - ○ 기타 600,000 ○ 세무대행용역비 2,640,000	2,137,300 - 1,161,603 -	○ 지급수수료 3,500,000 ○ 공익법인세무확인수수료 2,200,000 원 × 1 회 2,200,000 ○ 법인등기수수료 100,000 원 × 1 회 100,000 ○ 기타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3,500,000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1,800,000 ○ 도서인쇄비 600,000 ○ 기타 소모품 구입비 600,000	1,132,710 396,000 430,297	○ 사무비 1,000,000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 도서인쇄비 - ○ 기타 소모품 구입비 50,000 원 × 12 개월 600,000	1,000,000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 ○ 홈페이지 관리비 600,000 ○ 기타 600,000	- 624,000 55,000 -	○ 유지보수비 200,000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홈페이지 관리비 - ○ 기타 -	200,000			
사무관리비(보조급)	9,398,000	14,457,646	154%		22,536,400	
○ 지급수수료 ○ 세무대행용역비 - ○ 청소용역비 4,620,000 ○ 경수기임대료 900,000 ○ 노트복임대료 2,178,000 ○ 기타 -	- 2,860,000 4,620,000 856,480 2,706,000 101,000	○ 지급수수료 15,360,000 ○ 세무대행용역비 240,000 원 × 12 개월 2,880,000 ○ 청소용역비 385,000 원 × 12 개월 4,620,000 ○ 경수기임대료 25,000 원 × 3 대 × 12 개월 900,000 ○ 노트복임대료 120,000 원 × 4 대 × 12 개월 5,760,000 ○ 기타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15,360,000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600,000 ○ 도서인쇄비 200,000 ○ 기타소모품구입비 -	842,940 1,035,000 690,866	○ 사무비 4,140,000 ○ 사무용품 구입비 125,000 원 × 12 개월 1,500,000 ○ 도서인쇄비 150,000 원 × 12 개월 1,800,000 ○ 기타소모품구입비 70,000 원 × 12 개월 840,000 ○ 방역물품구입비 125,000 원 × 12 개월 1,500,000	4,140,000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400,000 ○ 도메인 및 서버 유지비 500,000	108,460 636,900	○ 유지보수비 3,036,400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 도메인 및 서버 유지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홈페이지 관리비 50,000 원 × 12 개월 600,000 ○ 기타 59,100 원 × 4 회 236,400	3,036,400			
공공운영비	8,810,000	12,903,555	146%		2,720,000	
○ 통신비 ○ 우편발송요금 240,000 ○ 전화요금 - ○ 인터넷요금 - ○ 제세공과금 - ○ 법인세 350,000 ○ 법인등기수수료 100,000 ○ 시설관리 및 경비유지비 - ○ 기타수선비 8,120,000	44,610 683,585 425,150 - 582,280 108,480	○ 통신비 120,000 ○ 우편발송요금 10,000 원 × 12 개월 120,000 ○ 전화요금 - ○ 인터넷요금 - ○ 제세공과금 600,000 ○ 법인세 600,000 원 × 1 회 600,000 ○ 기타 50,000 원 × 2 회 - ○ 시설관리 및 경비유지비 2,000,000 ○ 기타수선비 500,000 원 × 4 분기 2,000,000	120,000			
금공운영비(보조급)	9,670,000	7,556,384	78%		10,0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 ○ 전화요금 5,400,000 ○ 인터넷요금 720,000 ○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요금 300,000 ○ 전기요금 2,400,000 ○ 가스요금 60,000 ○ 보험료 ○ 종합안전배상공제 350,000 ○ 화재공제 60,000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5,000 ○ 신원보증보험 45,000 ○ 의료지원비 100,000 ○ 시설관리 및 경비유지비 ○ 경화조 청소 150,000 ○ 기타수선비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34,484 329,800 648,650 4,014,340 51,110 385,500 59,800 31,200 50,000 35,000 - 11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 ○ 전화요금 75,000 원 × 3 회선 × 12 개월 ○ 인터넷요금 70,000 원 × 12 개월 ○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요금 60,000 원 × 6 개월 ○ 전기요금 400,000 원 × 12 개월 ○ 가스요금 5,000 원 × 12 개월 ○ 보험료 ○ 종합안전배상공제 400,000 원 × 1 회 ○ 화재공제 60,000 원 × 1 회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5,000 원 × 1 회 ○ 신원보증보험 50,000 원 × 1 회 ○ 의료지원비 50,000 원 × 2 회 ○ 시설관리 및 경비유지비 ○ 경화조 청소 200,000 원 × 1 회 ○ 기타수선비 100,000 원 × 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40,000 2,700,000 840,000 5,220,000 360,000 4,800,000 60,000 545,000 400,000 60,000 35,000 50,000 100,000 600,000 200,000 400,000
복지포인트(보조금)	-	0%	-
복지후생비	12,348,000	13,930,728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비 ○ 종식대 3,264,000 ○ 아근식대 3,264,000 ○ 소모품비 900,000 ○ 교육문화비 3,600,000 ○ 경조사비 1,200,000 ○ 기타 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46,590 2,762,450 1,598,388 3,339,650 1,683,6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비 ○ 종식대 10,000 원 × 42 회 × 12 개월 ○ 아근식대 10,000 원 × 34 회 × 12 개월 ○ 소모품비 300,000 원 × 6 개월 ○ 교육문화비 300,000 원 × 12 명 ○ 팀별명예비 50,000 원 × 12 명 ○ 경조사비 150,000 원 × 12 개월 ○ 기타 30,000 원 × 4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20,000 5,040,000 4,080,000 1,800,000 3,600,000 600,000 1,800,000 120,000
방역물품구입비(보조금)	1,200,000	1,428,800	119%
여비	1,100,000	611,300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500,000 ○ 숙박비 400,000 ○ 식비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1,3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200,000 원 × 4 분기 ○ 숙박비 80,000 원 × 5 회 ○ 식비 10,000 원 × 25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000 400,000 250,000
경상이전	67,698,846	64,248,860	95%
연금부담금 등	67,698,846	64,248,860	95%
퇴직급여부담금	18,856,800	17,888,330	95%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1,298,000	12,370,050	109%
사회보험부담금	23,477,588	21,365,100	91%
사회보험부담금(보조금)	14,066,458	12,625,380	90%
자본지출	5,000,000	14,522,300	290%
시설비	2,000,000	-	0%
시설비	2,000,000	-	0%
자산취득비	3,000,000	14,522,300	484%
비품비	3,000,000	14,522,300	484%
사업비	208,753,200	187,058,793	90%
영역별사업비	93,851,400	75,764,908	81%
사무국사업비	13,879,400	12,588,950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계획회의비 544,000 ○ 활동가재충전의날진행비 850,000 ○ 활동가교육진행비 900,000 ○ 경기총회비 ○ 회계감사비(선물) 75,000 ○ 공중수수료 1,560,000 ○ 인쇄비 1,040,000 ○ 재료비 460,000 ○ 이사회의비 650,000 ○ 자문위원회의비 650,000 ○ 활동가연담비 - ○ 동료상담운영비 100,000 ○ 신규채용경비 60,000 ○ 노무컨설팅 1,000,000 ○ 회의비 100,000 ○ 기타 ○ 감사 명절선물 400,000 ○ 용역업체 명절선물 180,000 ○ 기타 100,000 ○ 임시총회비 ○ 온라인투표 이용료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6,020 838,220 900,000 75,000 1,530,000 462,000 512,090 320,400 - 194,000 59,400 - 1,000,000 - 342,500 150,000 67,0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계획회의비 30,000 원 × 17 명 × 4 회 ○ 활동가워크숍진행비 ○ 식비 10,000 원 × 17 명 × 7 식 ○ 간식비 5,000 원 × 17 명 × 3 식 ○ 숙박비 1,000,000 원 × 2 박 ○ 교통비 200,000 원 × 17 명 ○ 재료비 25,000 원 × 17 명 ○ 활동가재충전의날진행비 50,000 원 × 17 명 ○ 활동가교육진행비 300,000 원 × 3 회 ○ 경기총회비 ○ 회계 및 사업감사비 - 회의비 15,000 원 × 6 명 - 회계감사비(선물) 150,000 원 × 1 회 ○ 공중수수료 1,600,000 원 × 1 회 ○ 인쇄비 15,000 원 × 80 부 ○ 재료비(공문서배 외) 100,000 원 × 2 개 ○ 이사회의비 5,000 원 × 10 명 × 5 회 ○ 자문위원회의비 15,000 원 × 10 명 × 5 회 ○ 활동가연담비 10,000 원 × 2 명 × 16 회 ○ 동료상담운영비 10,000 원 × 3 명 × 10 회 ○ 신규채용경비 20,000 원 × 3 명 × 2 회 ○ 노무컨설팅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 활동가초.진예방비 1,000,000 원 × 연간 ○ 기타 ○ 감사 명절선물 100,000 원 × 2 명 × 2 회 ○ 용역업체 명절선물 30,000 원 × 3 명 × 2 회 ○ 이사회 감사선물 100,000 원 × 9 명 × 1 회 ○ 기타 100,000 원 × 1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000 7,270,000 1,130,000 255,000 2,000,000 3,400,000 425,000 850,000 900,000 3,240,000 240,000 90,000 150,000 1,200,000 200,000 250,000 750,000 320,000 250,000 120,000 100,000 1,000,000 1,580,000 400,000 180,000 900,000 100,000

○ 우편발송비	30,400	20,520					
○ 30주년기념사업비							
○ 리브런팅용역비	5,000,000	4,950,000					
○ 회의비	-	38,000					
○ 팀발령터비	150,000	143,800					
대외협력사업비	4,100,000	4,054,150	99%				4,300,000
○ 연회비	600,000	1,220,000		○ 연회비	600,000 원 × 1 회		600,000
○ 참가비	300,000	10,000		○ 참가비	30,000 원 × 5 명 × 2 회		300,000
○ 공동분담금	1,200,000	950,000		○ 공동분담금	200,000 원 × 6 회		1,200,000
○ 타단체후원금	1,000,000	1,150,000		○ 타단체후원금	100,000 원 × 12 회		1,200,000
○ 기타	1,000,000	724,150		○ 기타(조문금 등)	250,000 원 × 4 회		1,000,000
대외협력사업비(보조금)	520,000	400,000	77%				520,000
○ 연회비	400,000	400,000		○ 연회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회의참가비	120,000	-		○ 회의참가비	30,000 원 × 4 명		120,000
조직사업비	3,900,000	2,031,260	52%				5,062,000
○ 회원참여행사진행비		1,387,560		○ 회원참여행사진행비			3,312,000
○ 회원놀이터	1,500,000	411,170		○ 회원놀이터			1,662,000
- 재료비				- 재료비	100,000 원 × 2 회		200,000
- 강사비				- 강사비	250,000 원 × 2 명 × 2 회		1,000,000
- 문자통역용역비				- 문자통역용역비	154,000 원 × 3 시간 × 1 회		462,000
○ 한해보내기	1,000,000	976,390		○ 한해보내기			1,650,000
- 영상중계비				- 영상중계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재료비				- 재료비	150,000 원 × 1 회		150,000
- 이벤트 경품 구입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10,000 원 × 20 명		200,000
- 식비				- 식비	10,000 원 × 30 명		300,000
○ 자원활동보조비	800,000	485,900		○ 자원활동보조비	10,000 원 × 10 명 × 10 회		1,000,000
○ 소모임활동보조비	600,000	157,800		○ 소모임활동보조비	120,000 원 × 5 모임		600,000
				○ 자원회비	10,000 원 × 15 명		150,000
모금사업비	39,360,000	37,562,668	95%				15,785,000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5,215,000
○ 연간 이용료	2,760,000	6,654,543		○ 연간 이용료	3,025,000 원 × 1 회		3,025,000
○ 부가서비스이용료	1,000,000	2,005,508		○ 부가서비스이용료			2,190,000
				- 문자발송 및 인준수수료	100,000 원 × 12 분기		1,200,000
				- 커뮤니티케이션 라이선스	82,500 원 × 12 개월		990,000
○ 후원금출급대행수수료	7,200,000	7,598,497		○ 후원금출급대행수수료	600,000 원 × 12 개월		7,200,000
○ CMS 이행보조금합계	20,000	19,400		○ CMS 이행보조금합계	20,000 원 × 1 회		20,000
○ 회원예우사업비				○ 회원예우사업비			3,250,000
○ 신규회원	1,200,000	2,795,645		○ 신규회원(인쇄비)	50,000 원 × 1 회		50,000
○ 기존회원	-	280,000		○ 지속회원(디자인 용역비 회)	3,000,000 원 × 1 회		3,000,000
○ 클라우드로스팅	9,120,000	32,000		○ 문자후원(이벤트 상품 구입비)	10,000 원 × 20 명		200,000
○ 기타	-	7,500		○ 기타	100,000 원 × 1 회		100,000
○ 후원행사진행비	18,060,000	18,169,575		○ 후원행사진행비			-
홍보사업비	30,692,000	19,127,880	62%				20,080,000
○ 나눔터 제작비				○ 나눔터 제작비			7,780,000
○ 인쇄제작비(1500부)	5,600,000	5,335,000		○ 인쇄제작비(1500부)	2,800,000 원 × 2 회		5,600,000
○ 우편발송비	1,880,000	1,714,580		○ 우편발송용역비	940,000 원 × 2 회		1,880,000
○ 원고료	300,000	90,000		○ 원고료	30,000 원 × 5 명 × 2 회		300,000
○ 기획비	200,000	-		○ 컨텍츠기획비			1,100,000
				○ 인터뷰 섭외비	50,000 원 × 10 명		500,000
				○ 교통비	100,000 원 × 2 명 × 3 회		600,000
○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22,000,000	11,000,000		○ 홈페이지 및 소통-홍보 채널 리뉴얼	11,000,000 원 × 1 회		11,000,000
○ 기타	-	36,300		○ 기타	50,000 원 × 4 회		200,000
○ 온라인홍보비							-
○ 이메일소식지 제작플랫폼 이용료	312,000	312,000					-
○ 광고수수료	200,000	-					-
○ 기타	200,000	640,000					-
홍보사업비(보조금)	1,400,000	-	0%				4,272,000
○ 홍보물제작비	1,000,000	-		○ 홍보물제작비	600,000 원 × 5 종		3,000,000
○ 온라인홍보비	400,000	-		○ 온라인홍보비			1,272,000
				○ 이메일소식지 제작플랫폼 이용료	312,000 원 × 연간		312,000
				○ 광고수수료	50,000 원 × 4 분기		200,000
				○ 디자인 플랫폼 이용료	560,000 원 × 연간		560,000
				○ 기타	50,000 원 × 4 분기		200,000
특정사업비	38,051,800	22,932,807	60%				44,485,490
인권사업비	5,550,000	3,191,007	57%				10,465,000
○ 이주대응사업비	3,000,000	-		○ 이주대응사업비/간담회			2,440,000
				○ 책넬토론비	300,000 원 × 4 명		1,200,000
				○ 문자통역용역비	154,000 원 × 3 시간		462,000
				○ 인쇄비	288,000 원 × 1 회		288,000
				○ 장비대여비	190,000 원 × 1 회		190,000
				○ 재료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식비	10,000 원 × 20 명		200,000
				○ 친족상복역공소시효제거사업비			5,500,000
				○ 책넬토론비	300,000 원 × 4 명		1,200,000
				○ 영상출송용역비	1,500,000 원 × 1 회		1,500,000
				○ 장비대여비	500,000 원 × 1 회		500,000
				○ 영상촬영용역비	500,000 원 × 2 명		1,000,000
				○ 인쇄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재료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회의비	10,000 원 × 10 명 × 5 회		500,000
				○ 홍보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연대활동사업비	720,000	749,050		○ 연대활동사업비			770,000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0,000 원 × 1 회		200,000
				○ 선거 대응 연대활동	300,000 원 × 1 회		300,000
				○ 차별금지법제정강연대	120,000 원 × 1 회		120,000
				○ 백래시 대응 범시민네트워크	100,000 원 × 1 회		100,000
				○ 군성년	50,000 원 × 1 회		50,000
				○ 선거대응사업비			600,000
				○ 디자인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인쇄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서울퀴어문화축제	400,000	229,759		○ 서울퀴어문화축제	300,000 원 × 1 회		300,000

○ 수요서위	300,000	50,400	○ 수요서위	400,000 원 ×	1 회	400,000	
○ 자문회의비	130,000	203,300	○ 자문회의비	15,000 원 ×	17 회	253,000	
○ 회의비	100,000	47,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기타	100,000	-	○ 기타			100,000	
○ 세계여성날	150,000	64,500					
○ 직극락합의(가부담)	500,000	1,699,998					
○ 팀별일터비	150,000	147,000					
상담사업비	13,825,000	13,061,270	94%			14,315,000	
○ 상담사업운영비				○ 상담사업운영비		1,845,000	
○ 자문위원회	195,000	-		○ 자문위원회	15,000 원 × 15 명	225,000	
○ 회의비	100,000	39,000		○ 회의비	20,000 원 ×	20,000	
○ 사무비	-	114,940		○ 사무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일지 및 통계자문비	400,000	400,000		○ 용역비	100,000 원 ×	14 회	1,400,000
○ 사건지원비	2,100,000	2,433,500		○ 사건지원비	750,000 원 ×	4 분기	3,000,000
○ 상담원지원비				○ 상담원지원비		2,375,000	
○ 재충전 및 소진예방프로그램	500,000	500,000		○ 재충전 및 소진예방프로그램	1,000,000 원 × 2 명	2,000,000	
○ 슈퍼비전				○ 슈퍼비전		375,000	
- 회의비	225,000	64,200		- 회의비	5,000 원 × 15 명 × 3 회	225,0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49,4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원 ×	1 회	50,000
- 기타	125,000	-		- 식비	10,000 원 × 10 명	100,000	
○ 상담원지원기모임				○ 상담원지원기모임		510,000	
○ 식비	272,000	234,160		○ 식비	10,000 원 × 17 명 × 2 회	340,000	
○ 다과비	108,000	44,270		○ 다과비	5,000 원 × 17 명 × 2 회	170,000	
○ 필요법률상담운영비	100,000	-		○ 필요법률상담운영비	10,000 원 ×	10 회	100,000
○ 연대활동비(공동분담금)	800,000	-		○ 연대활동비(공동분담금)	200,000 원 ×	4 회	800,000
○ 의료기관네트워킹	150,000	50,200		○ 의료기관네트워킹		220,000	
				○ 식비	10,000 원 × 6 명 × 2 회	120,0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원 ×	2 회	100,000
				○ 조력인집단모임		440,000	
				○ 다과비	5,000 원 × 7 명 × 4 회	140,000	
				○ 재료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여성주의상담스터디		550,000	
				○ 감사비	300,000 원 × 1 명	300,000	
				○ 다과비	5,000 원 × 6 명 × 5 회	150,000	
				○ 도서구입비	20,000 원 ×	5 회	100,000
				○ 종결사례포럼		500,000	
				○ 발표비	200,000 원 × 2 명	400,000	
				○ 다과비	5,000 원 × 20 명	100,000	
				○ 점심권 내 식폭력 사건 지원		3,875,000	
				○ 회의비	15,000 원 × 5 명 × 5 회	375,000	
				○ 워크쇼진행비		3,500,000	
				- 개발도론비	200,000 원 × 5 명	1,000,000	
				- 대관료	500,000 원 ×	1 회	500,000
				- 영상중계비	2,000,000 원 ×	1 회	2,000,000
				○ 기타		100,000	
○ 기타	100,000	-					
○ 상폭력전문상담원교육	8,400,000	8,944,480					
○ 팀별일터비	200,000	187,120					
상담사업비(보조금)	1,276,800	920,370	72%			1,330,000	
○ 상담사업운영비				○ 상담사업운영비		730,000	
○ 업무용 휴대폰요금	396,000	309,370		○ 업무용 휴대폰요금	27,500 원 ×	12 개월	330,000
○ 사무용품 구입비	-	11,000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 천리안 이용료	130,800	-					
○ 슈퍼비전	600,000	600,000		○ 상담원지원비(슈퍼비전)	300,000 원 ×	2 회	600,000
○ 사건지원비(우편발송요금)	150,000	-				-	
피발탁기관사업비	5,000,000	207,190	4%			2,775,490	
○ 내담자지원비	5,000,000	207,190		○ 내담자지원비	2,775,490 원 ×	연간	2,775,490
정책개발사업비	1,200,000	2,740,700	228%			15,600,000	
○ 일반정책개발사업비	200,000	61,800		○ 일반정책개발사업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이대남백제시대홍포럼		3,000,000	
				○ 대관료	400,000 원 ×	1 회	400,000
				○ 개발도론비	200,000 원 × 8 명	1,600,000	
				○ 문자 및 수어용역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임시총회의점사업비		700,000	
				○ 발제비	200,000 원 × 3 명	600,000	
				○ 기타	100,000 원 ×	1 회	100,000
				○ 다섯여름 투고콘서트 사업비		11,700,000	
				○ 운영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연술비	1,000,000 원 × 1 명	1,000,000	
				○ 영상제작용역비	1,500,000 원 ×	1 회	1,500,000
				○ 촬영용역비	1,000,000 원 × 2 명	2,000,000	
				○ 출연료	800,000 원 × 4 명	3,200,000	
				○ 대관료	2,000,000 원 ×	1 회	2,000,000
				○ 홍보비	1,000,000 원 ×	1 회	1,000,000
○ 친록성폭력공소시효폐지사업비	1,000,000	2,678,900					
연구소운영비	11,200,000	2,812,270	25%			-	
○ 출판홍보비	9,200,000						
○ 반성록 14호	1,500,000	1,449,710					
- 봉투 발송대행비	150,000	-					
- 봉투 제작비	150,000	261,800					
- 발송비	1,200,000	1,187,910					
○ 반성록 15호	7,700,000	800,000					
- 제작인쇄비	5,200,000	-					
- 원고비(정경과일장)	600,000	600,000					
- 원고비(기고)	400,000	200,000					
- 발송비	1,200,000	-					
- 봉투 발송대행비	150,000	-					
- 봉투 제작비	150,000	-					
○ 연구활동비	1,800,000						
○ 도서구입비	500,000	263,580					
○ 사무비	400,000	53,980					
○ 연구소 미래전략모색사업비	400,000	-					

- 다과비	200,000	-				
- 사례비	200,000	-				
○ 정책개발사업비	200,000	200,000				
○ 발간자료정리비	200,000	-				
- PDF화	100,000	-				
- 계본	100,000	-				
○ 회의비	100,000	45,000				
○ 팀별엔터비	100,000	-				
○ 기타	100,000	-				
특별사업비	76,850,000	88,361,078	115%		84,178,905	
○ 성폭력피해자요비	40,000,000	45,000,000	113%		40,000,000	
○ 치료회복프로그램	15,850,000	16,318,310	103%		23,490,000	
○ 개별상담	9,000,000	10,980,000		○ 개별상담	110,000 원 × 6 명 × 15 회	9,900,000
○ 작은말하기	6,300,000			○ 작은말하기		4,110,000
○ 대안료	2,000,000	936,000		○ 대안료	200,000 원 × 10 회	2,000,000
○ 식비	1,040,000	-		○ 식비	10,000 원 × 10 명 × 10 회	1,000,000
○ 다과비	650,000	530,600		○ 다과비	5,000 원 × 10 명 × 10 회	500,000
○ 홍보비	400,000	712,360		○ 홍보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재료비	100,000	-		○ 재료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회의비	80,000	-		○ 회의비	5,000 원 × 4 명 × 4 회	80,000
○ 기타	5,000	-		○ 기타	30,000 원 × 1 회	30,000
○ 감사비	2,025,000	2,700,000		○ 집단상담		6,400,000
				○ 감사비(사권)	150,000 원 × 7 명 × 1 시간	1,050,000
				○ 감사비	450,000 원 × 10 회	4,500,000
				○ 다과비	5,000 원 × 8 명 × 10 회	400,000
				○ 재료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홍보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기타	50,000 원 × 1 회	50,000
				○ 글쓰기		3,080,000
				○ 감사비	300,000 원 × 6 회	1,800,000
				○ 다과비	5,000 원 × 6 명 × 6 회	180,000
				○ 재료비		900,000
				- 디자인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인쇄비	500,000 원 × 1 회	500,000
				- 홍보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작은말하기/콘서트외	550,000	459,350				
보조금공모사업비	15,000,000	17,000,000	113%		-	
○ 여성가족부		17,000,000			-	
○ 가이드라인		5,140,000			-	
○ 연속집담회		4,092,000			-	
○ 대응콘텐츠		7,768,000			-	
기타공모사업비	5,000,000	5,000,000			19,980,000	
○ 한국여성재단	5,000,000	5,000,000		○ 한국여성재단		19,980,000
○ 장학금	5,000,000	5,000,000		○ 적극적합의 교육프로그램 기획비	2,580,000 원 × 1 회	2,580,000
				○ 주제 및 대상별 맞춤형 워크숍	6,450,000 원 × 1 회	6,450,000
				○ 찾아가는 적극적 합의 교육 진행비	7,650,000 원 × 1 회	7,650,000
				○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사업비	3,300,000 원 × 1 회	3,300,000
공동분담금	1,000,000	5,042,768	504%		708,905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708,905
사업 외 지출	45,000,000	141,211,215	314%		12,000,000	
사업 외 지출	38,000,000	124,211,215	327%		-	
○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38,000,000	124,211,215	327%		-	
○ 예금	38,000,000	124,211,215			-	
필요지출금	7,000,000	17,000,000	243%		12,000,000	
○ 부실기관보조금	7,000,000	17,000,000	243%		12,000,000	
○ 열릴터	7,000,000	17,000,000		○ 열릴터		12,000,000
예비비 및 기타	31,590,342	32,617,092			6,616,221	
○ 예비비	-	-			-	
반환금	31,590,342	32,617,092			6,616,221	
○ 국비보조금 반환금	-	115,064			-	
○ 시비보조금 반환금	31,590,342	19,598,928			6,616,221	
○ 후원회소 반환금	-	12,903,100			-	
○ 경기후원금/후원회비		369,800				
○ 일사후원금		9,920,000				
○ 찾아가는 홍보기부/상담원교육		2,613,300				
○ 기타 반환금	-	-			-	
자기이월금	87,727,116	69,104,898	79%		54,542,533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개선권고안을 제외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귀중

열린터 예결산서(지출)

지출

과목		2021년 예산	2021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2년 예산
장	관	항	목			
1	10	100	1000		한국영특혁신담당서 부설 열린터	455,358,403
				102%		186,374,000
				97%		144,420,000
				0%		-
				98%		144,420,000
					○ 기본급 ○ 3급 7호봉(3월 승급) 3,008,000 원 x 1 명 x 12 개월 36,096,000 ○ 5급 7호봉(12월 승급) 2,370,000 원 x 1 명 x 12 개월 28,440,000 ○ 5급 3호봉(3월 승급) 2,226,000 원 x 1 명 x 12 개월 26,712,000 ○ 5급 3호봉(1월 승급) 2,217,000 원 x 1 명 x 12 개월 26,604,000 ○ 5급 2호봉(4월 승급) 2,214,000 원 x 1 명 x 12 개월 26,568,000	144,420,000
				123%		41,954,000
						-
						-
						-
				97%		15,402,000
					○ 영결휴가비 12,035,000 원 x 0.6 x 2 회 14,442,000 ○ 가족수당 40,000 원 x 2 명 x 12 개월 960,000	14,442,000
				468%		6,900,000
					○ 기타 급여보전비 575,000 원 x 12 개월 6,900,000	6,900,000
				112%		17,652,000
					○ 정액급식비 100,000 원 x 5 명 x 12 개월 6,000,000 ○ 연장근로수당 971,000 원 x 12 개월 11,652,000	6,000,000
				8%		2,000,000
					○ 직책수당 200,000 원 x 1 명 x 10 개월 2,000,000	2,000,000
				89%		32,360,000
				90%		31,940,000
				135%		6,240,000
					○ 사무비 300,000 원 x 4 분기 1,200,000 ○ 운영수당/숙직비 70,000 원 x 6 명 x 12 개월 5,040,000 ○ 자문비 -	1,200,000
				78%		10,240,000
					○ 일반수용비 10,240,992 ○ 지급수수료 ○ 사무대행용역비 230,000 원 x 12 개월 2,760,000 ○ 주민경비용역비 140,000 원 x 12 개월 1,680,000 ○ 기타 100,000 원 x 12 개월 1,200,000 ○ 사무비 2,000,000 ○ 사무용품 구입비 200,000 원 x 4 분기 800,000 ○ 도서인쇄비 100,000 원 x 4 분기 400,000 ○ 기타스모품 구입비 200,000 원 x 4 분기 800,000 ○ 유지보수비 1,600,000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300,000 원 x 4 분기 1,200,000 ○ 기타 100,000 원 x 4 분기 400,000 ○ 보수교육비 200,000 원 x 5 명 1,000,000	10,240,000
				138%		570,000
					○ 통신비 120,000 ○ 우편발송요금 10,000 원 x 12 개월 120,000 ○ 시설관리비 100,000 원 x 4 분기 400,000 ○ 제세공과금 50,000 ○ 필연세 50,000	120,000
				77%		4,960,000
					○ 통신비 996,000 ○ 우편발송요금 10,000 원 x 12 개월 120,000 ○ 전화요금 33,000 원 x 12 개월 396,000 ○ 인터넷요금 40,000 원 x 12 개월 480,000 ○ 수도광열비 954,000 ○ 수도요금 29,000 원 x 6 개월 174,000 ○ 전기요금 40,000 원 x 12 개월 480,000 ○ 가스요금 25,000 원 x 12 개월 300,000 ○ 보험료 370,000 ○ 화재보험 150,000 원 x 1 회 150,000 ○ 신원보증보험 220,000 원 x 1 회 22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2,640,000 ○ 엘리베이터유지관리비 220,000 원 x 12 개월 2,640,000	4,960,000
				86%		8,430,000
					○ 급상비 1,900,000 ○ 아근식대 10,000 원 x 5 명x 14 회 700,000 ○ 숙직식대 100,000 원 x 12 개월 1,200,000 ○ 소모품비 10,000 원 x 5 명x 12 회 600,000 ○ 교육문화비 1,493,600 ○ 경조사비 149,120 ○ 팀별 엔터비 530,072 ○ 상담지원비 900,000 ○ 기타 560,170	1,900,000
				52%		420,000
				70%		420,000
					○ 교통비 35,000 원 x 12 개월 420,000	420,000
				0%		-
				110%		32,600,400
				450%		574,800
				98%		14,955,600
				1351%		570,000
					○ 퇴직직립금 47,900 원 x 12 개월 574,800 ○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4,000,400 ○ 퇴직직립금 1,246,300 원 x 12 개월 14,955,600	574,800
					○ 국민연금보험료 125,000 원 x 2 개월 250,000 ○ 국민건강보험료 100,000 원 x 2 개월 200,000	250,000

				◎ 고운보험료	30,000 원 x	2 개월	60,000
				◎ 신개보험료	30,000 원 x	2 개월	60,000
	사회보장부담금(보조금)	14,788,560	13,492,820	91%			16,508,000
				◎ 국민연금보험료	600,000 원 x	12 개월	7,200,000
				◎ 국민건강보험료	500,000 원 x	12 개월	6,000,000
				◎ 고운보험료	150,000 원 x	12 개월	1,800,000
				◎ 신개보험료	125,000 원 x	12 개월	1,500,000
							6,000,000
자본지출		-	2,420,000				-
사업비		-	-				-
사업비		-	-				-
민간대행사업비		-	-				5,000,000
민간대행사업비		-	-				5,000,000
자산취득비		-	2,420,000		◎ 가능보강사업비	5,000,000 원 x	1 회
자산취득비		-	2,420,000				1,000,000
					◎ 배품구입비	250,000 원 x	4 분기
							1,000,000
사업비	125,016,350	109,027,611	87%				119,627,780
영역별사업비	1,520,000	1,462,730	96%				3,249,000
모금사업비	1,020,000	1,002,100	98%				2,749,000
◎ 후원금출금수수료		983,560		◎ 후원금출금수수료	83,750 원x	12 개월	1,005,000
◎ CMS이행보증보험료		15,000		◎ CMS이행보증보험료	15,000 원x	1 회	15,000
◎ 회원예우사업비		3,540		◎ 회원예우사업비	10,000 원x	4 분기	40,000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1,689,000 원x	1 회	1,689,000
홍보사업비		-	-				-
홍보사업비(보조금)		-	60,630				-
대외협력사업비	100,000	-	0%		◎ 회의비	20,000 원x	4 분기
					◎ 기타	20,000 원x	1 회
							100,000
대외협력사업비(보조금)	400,000	400,000	100%		◎ 전국성공학매제자보호시스템의뢰비	400,000 원x	1 회
							400,000
목적사업비	95,588,000	78,761,771	82%				86,668,780
생활인거민사업비	19,080,000	25,441,273	133%				19,389,000
◎ 일상생활지원비		20,357,703		◎ 일상생활지원비	800,000 원x	12 개월	9,600,000
◎ 식생활보조공여비		1,140,000		◎ 식생활보조공여비	360,000 원x	12 개월	4,320,000
◎ 학교학습지원비		2,461,200		◎ 학교학습지원비	200,000 원x	12 개월	2,400,000
◎ 의료발물지원부대비용		1,482,370		◎ 의료발물지원부대비용	180,000 원x	12 개월	2,160,000
◎ 사례관리비		-		◎ 사례관리비	303,000 원x	3 회	909,000
생활인생계비(보조금)	15,000,000	8,298,320	55%		◎ 생계비	1,432,145 원x	12 개월
							17,185,740
생활인준계부식비(보조금)	75,000	60,000	80%		◎ 준계부식비	15,000 원x	5 명
							75,000
생활인하계수련회비(보조금)	200,000	120,000	60%		◎ 하계수련회비	40,000 원x	5 명
							200,000
생활인김장비(보조금)	75,000	75,000	100%		◎ 김장비	15,000 원x	5 명
							75,000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금)	3,600,000	3,600,000	100%		◎ 사회훈련비	900,000 원x	4 분기
							3,600,000
생활인거민사업비(보조금)	37,392,000	19,152,890	51%				20,000,040
◎ 일상생활지원비		9,410,958		◎ 일상생활지원비	780,000 원x	12 개월	9,360,000
◎ 학교학습지원비		2,290,420		◎ 학교학습지원비	190,000 원x	12 개월	2,280,000
◎ 의료발물지원부대비용		1,808,130		◎ 의료발물지원부대비용	150,000 원x	12 개월	1,800,000
◎ 프로그램비		4,199,582		◎ 프로그램비	366,670 원x	12 개월	4,400,040
◎ 직업훈련비		1,243,800		◎ 직업훈련비	180,000 원x	12 개월	2,160,000
◎ 생활지원금		200,000					-
생활인명절의문금(보조금)		-	110,000				350,000
뒤조지침지원금(보조금)	5,000,000	5,000,000	100%				5,000,000
도우리지원사업비	15,166,000	16,035,288	106%				18,794,000
◎ 일상생활지원비		8,976,678		◎ 일상생활지원비	9,000 원x	8 명	12 개월
				○ 개인연립	200,000 원x	7 명	1,400,000
				○ 자립생활지원비	1,000,000 원x	1 명	1,000,000
				○ 타소지원금	1,000,000 원x	5 명	5,000,000
				○ 대학입학지원금	50,000 원x		600,000
				○ 의료발물지원부대비용	75,000 원x	40 명	3,000,000
				○ 물품지원			1,640,000
◎ 도우리모임사업비	934,710			◎ 도우리모임사업비	10,000 원x	20 명x	4 회
				○ 식비	5,000 원x	20 명x	4 회
				○ 다과비	50,000 원x	4 회	200,000
				○ 재료비	20,000 원x	3 명x	4 회
				○ 교통비			5,290,000
◎ 도우리홀릭기금사업비	5,193,100			◎ 도우리홀릭기금사업비	500,000 원x	10 명x	1 회
				○ 개별지원금	5,000 원x	12 명x	2 회
				○ 다과비	10,000 원x	12 명x	1 회
				○ 식비	50,000 원x	1 회	50,000
				○ 재료비			-
◎ 특별의문금	930,800			◎ 특별의문금			-
연구사업비	-	869,000			◎ 회의비	5,000 원x	10 명x
					◎ 인터뷰비	50,000 원x	4 명x
					◎ 원고비	200,000 원x	2 명x
					◎ 인쇄비	11,500 원x	100 매
							2,000,000
특별사업비	27,908,350	28,803,110	103%				29,710,000
성폭력피해자의원비	15,000,000	14,671,130	98%				15,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2,490,000	13,220,000	106%				13,710,000
◎ 개별 성교육		6,242,040		◎ 개별 성교육	150,000 원x	5 명x	6 회기
				○ 검사비	5,000 원x	5 명x	6 회기
				○ 다과비			150,000
◎ 심신회복캠프	1,622,960			◎ 심신회복캠프	100,000 원x	12 명	1,200,000
				○ 교통비	100,000 원x	6 실	600,000
				○ 숙박비	10,000 원x	12 명x	5 식
				○ 식비	5,000 원x	12 명x	2 식
				○ 다과비	20,000 원x	12 명	240,000
				◎ 글쓰기			4,200,000
				○ 검사비	300,000 원x	10 회기	3,000,000
				○ 다과비	5,000 원x	6 명x	10 회기

				○ 재료비	9,000 원x	100 매	900,000
				◎ 집단상담			2,100,000
				○ 감사비	300,000 원x	6 회기	1,800,000
				○ 다과비	5,000 원x	6 명x 6 회기	180,000
				○ 재료비	20,000 원x	6 명	120,000
		5,355,000					
◎ 자기방어훈련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418,350	911,980	218%				1,000,000
				◎ 광열비지 원금	250,000 원x	2 개월	1,000,000
				○ 하계방빙비			500,000
				○ 월동난방비	250,000 원x	2 개월	500,000
사업 외 지출	30,000,000	-	0%				10,000,000
사업 외 지출	30,000,000	-	0%				10,000,000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30,000,000	-	0%				10,000,000
예비비 및 기타	50,000	35,908,070	71816%				25,050,000
예비비	-	-	-				-
반환금	50,000	35,908,070	71816%				25,050,000
국비보조금 반환금	50,000	34,099	68%				50,000
시비보조금 반환금	-	35,846,720					25,000,000
구비보조금 반환금	-	-					-
후원회소 반환금	-	-					-
기타 반환금	-	27,251					-
과기이월금	58,570,685	42,200,623	72%				43,346,223

재 무 상 태 표

제 2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845,780,548		781,211,364
(1)당 좌 자 산		845,780,548		781,211,364
현 금		137,130		557,480
보 통 예 금		180,458,163		203,834,210
정 기 예 적 금		664,211,215		540,000,000
퇴 직 적 립 예 금		0		34,146,754
미 수 금		974,040		0
가 지 급 금		0		2,052,420
선 납 세 금		0		620,500
(2)재 고 자 산		0		0
Ⅱ.비 유 동 자 산		1,260,352,137		1,148,529,760
(1)투 자 자 산		119,760,105		0
특 별 회 계 정		119,760,105		0
(2)유 형 자 산		1,140,472,032		1,148,409,760
토 지		313,063,774		313,063,774
건 물	953,483,600		953,483,600	
감 가 상 각 누계액	150,891,780	802,591,820	127,054,690	826,428,910
비 품	136,472,540		119,630,140	
감 가 상 각 누계액	118,863,821	17,608,719	114,317,361	5,312,779
시 실 장 처	27,593,297		23,413,297	
감 가 상 각 누계액	20,385,578	7,207,719	19,809,000	3,604,297
(3)무 형 자 산		0		0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120,000		120,000
기 타 보 증 금		120,000		120,000
자 산 총 계		2,106,132,685		1,929,741,124
부 채				
Ⅰ.유 동 부 채		130,676,519		46,894,083
미 지 급 금		0		1,346,885
예 수 금		10,870,313		9,449,458
퇴 직 적 립 예수금		0		34,048,231
미환급사업비예수금		46,101		98,928
대외협력사업위탁금		0		1,950,581
상 담 소 계 정		119,760,105		0
Ⅱ.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30,676,519		46,894,083
자 본				
Ⅰ.자 본 금		225,294,914		225,294,914
보 통 기 금		225,294,914		225,294,914
Ⅱ.자 본 잉 여 금		0		0

재 무 상 태 표

제 2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 액		금 액	
Ⅲ.자 본 조 정		0		0
Ⅳ.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0
Ⅴ.이 익 잉 여 금		1,750,161,252		1,657,552,127
미 처 분이익잉여금		1,750,161,252		1,657,552,127
(당 기 순 이 익)				
당기 : 92,609,125 원				
전기 : 237,600,008 원				
자 본 총 계		1,975,456,166		1,882,847,04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06,132,685		1,929,741,124

손익계산서

제 20(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0 (당)기		제19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187,645,839		1,234,812,172
정기후원금	327,266,404		307,460,079	
일시후원금	152,584,456		244,912,392	
현물후원금	244,500		3,038,692	
자료이용후원금	1,231,490		3,071,415	
후원행사수입금	59,499,000		0	
국비보조금	327,154,450		341,989,780	
시비보조금	185,698,000		213,284,000	
구비보조금	475,000		28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수입	45,000,000		5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29,620,000		32,740,000	
보조금공모사업지원금	0		8,000,000	
보조금공모사업지원금/여가부	17,000,000		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1,000,000		300,000	
기타공모사업지원금	0		7,000,000	
기타공모사업지원금/여성재단	5,000,000		0	
모낙폐분담금	2,200,000		2,143,500	
찾아가는홍보기부금	33,392,539		20,192,314	
기타수입	280,000		400,00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1,187,645,839		1,234,812,172
IV. 판매비와관리비		1,106,165,902		1,008,058,114
기본급여	173,389,480		143,531,180	
사회보험부담금	24,605,290		18,960,405	
상여금	14,110,900		10,647,770	
제수당	42,365,340		30,971,730	
퇴직급여부담금	19,744,307		18,618,193	
복리후생비	18,240,680		16,380,830	
여비	862,200		1,293,800	
공공운영비	13,747,461		1,085,328	
사무관리비	13,289,930		10,770,625	
감가상각비	29,060,028		31,525,729	
모금사업비	38,564,768		11,804,941	
대외협력사업비	4,054,150		3,295,720	
대외협력사업비(보조)	800,000		920,000	

손익계산서

제 20(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0 (당)기		제19 (전기)	
	금	액	금	액
사무국사업비	12,288,950		9,953,047	
상담사업비	13,061,270		7,565,700	
상담사업비(보조)	920,370		984,880	
홍보사업비	19,127,880		8,092,139	
홍보사업비(보조)	60,630		493,361	
인권사업비	3,191,007		2,307,442	
조직사업비	2,331,260		1,467,720	
정책개발사업비	2,740,700		651,950	
연구소운영비	2,812,270		6,885,460	
자기방어훈련비	0		8,000,000	
조직변화실험실비	0		6,995,406	
파발마기금사업비	207,190		252,04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59,671,130		62,597,020	
사무관리비(보조)	25,702,638		31,958,118	
공공운영비(보조)	11,597,872		13,569,301	
복지포인트비(보조)	1,000,000		1,250,000	
방역물품구입비(보조)	1,428,800		2,804,980	
기본급여(보조)	279,031,390		302,322,340	
제수당(보조)	34,078,600		42,880,200	
사회보험부담금(보조)	26,118,200		28,011,160	
퇴직급여부담금(보조)	26,084,320		28,733,010	
공동분담비	5,042,768		1,152,958	
여비(보조)	0		108,900	
생활인생계비(보조)	8,298,320		12,252,760	
생활인지원원사업비(보조)	19,152,890		36,725,574	
생활인지원사업비	25,441,273		10,279,379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	3,600,000		3,600,000	
생활인명절위문비(보조)	110,000		0	
생활인김장비(보조)	75,000		45,000	
생활인춘계부식비(보조)	60,000		75,000	
생활인하계수련비(보조)	120,000		160,000	
퇴소자립지원비(보조)	5,000,000		0	
복권기금사업비	29,538,310		28,650,460	
연구사업비	869,000		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비	911,980		216,122	

손익계산서

제 20(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0 (당)기		제19 (전기)	
	금	액	금	액
또 우리 사업 지원비	16,035,288		6,959,480	
보조금공모사업비/여가부	17,000,000		0	
기타공모사업비/여성재단	5,000,000		0	
구비보조금반환금	0		23	
국비보조금반환금	149,163		4,174,596	
시비보조금반환금	55,445,648		36,076,305	
기타반환금	27,251		32	
V. 영업이익		81,479,937		226,754,058
VI. 영업외수익		28,129,188		15,040,557
이자수익	0		4,175,180	
상담소보조금	17,000,000		4,2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950,581		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0	
복권내부감사수입	2,700,000		1,800,000	
고유목적준비금수입	6,396,127		0	
잡이익	62,480		4,865,377	
VII. 영업외비용		17,000,000		4,213,807
부설기관보조비	17,000,000		4,200,000	
잡손실	0		13,807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92,609,125		237,580,808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이익		92,609,125		237,580,808

운 영 성 과 표 (총 괄)

제 2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과 목	제 21 (당)기			제 20 (전)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 업 수 입	1,187,645,839	1,187,645,839	0	1,234,812,172	1,234,812,172	0
1) 고 유 목 적 사 업 수 입	1,187,645,839	1,187,645,839	0	1,234,812,172	1,234,812,172	0
정 기 후 원 금	327,266,404	327,266,404	0	307,460,079	307,460,079	0
일 시 후 원 금	152,584,456	152,584,456	0	244,912,392	244,912,392	0
현 물 후 원 금	244,500	244,500	0	3,038,692	3,038,692	0
자 료 이 용 후 원 금	1,231,490	1,231,490	0	3,071,415	3,071,415	0
후 원 행 사 수 입 금	59,499,000	59,499,0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327,154,450	327,154,450	0	341,989,780	341,989,780	0
시 비 보 조 금	185,698,000	185,698,000	0	213,284,000	213,284,000	0
구 비 보 조 금	475,000	475,000	0	280,000	280,000	0
성 폭 력 피 해 자 의 료 비 수 입	45,000,000	45,000,000	0	50,000,000	50,000,000	0
치 료 회 복 프 로 그 램	29,620,000	29,620,000	0	32,740,000	32,740,000	0
보 조 금 공 모 사 업 지 원 금 / 서 울 시	0	0	0	8,000,000	8,000,000	0
보 조 금 공 모 사 업 지 원 금 / 여 가 부	17,000,000	17,000,000	0	0	0	0
서 울 시 여 성 폭 력 연 합 회 지 원 금	1,000,000	1,000,000	0	300,000	300,000	0
기 타 공 모 사 업 지 원 금 / NGO 지 원 센터	0	0	0	7,000,000	7,000,000	0
기 타 공 모 사 업 지 원 금 / 여 성 재 단	5,000,000	5,000,000	0	0	0	0
모 나 패 분 달 금	2,200,000	2,200,000	0	2,143,500	2,143,500	0
찾 아 가 는 흥 보 기 부 금	33,392,539	33,392,539	0	20,192,314	20,192,314	0
기 타 수 입	280,000	280,000	0	400,000	400,000	0
2) 기 타 사 업 수 입	0	0	0	0	0	0
II. 사 업 비 용	1,106,185,902	1,106,185,902	0	1,008,058,114	1,008,058,114	0
1) 사 업 수 행 비 용	718,185,518	718,185,518	0	712,467,583	712,467,583	0
대 외 협 력 사 업 비	4,054,150	4,054,150	0	3,295,720	3,295,720	0
대 외 협 력 사 업 비 (보 조)	800,000	800,000	0	920,000	920,000	0
사 무 국 사 업 비	12,288,950	12,288,950	0	9,953,047	9,953,047	0
상 담 사 업 비	13,061,270	13,061,270	0	7,565,700	7,565,700	0
상 담 사 업 비 (보 조)	920,370	920,370	0	984,880	984,880	0
홍 보 사 업 비	19,127,880	19,127,880	0	8,092,139	8,092,139	0
홍 보 사 업 비 (보 조)	60,630	60,630	0	493,361	493,361	0
인 권 사 업 비	3,191,007	3,191,007	0	2,307,442	2,307,442	0
조 직 개 사 업 비	2,331,260	2,331,260	0	1,467,720	1,467,720	0
정 책 개 발 사 업 비	2,740,700	2,740,700	0	651,950	651,950	0
연 구 소 운 영 비	2,812,270	2,812,270	0	6,885,460	6,885,460	0
보 조 금 공 모 사 업 비 / 서 울 시	0	0	0	8,000,000	8,000,000	0
기 타 공 모 사 업 비 / NPO 지 원 센터	0	0	0	6,995,406	6,995,406	0
파 발 마 기 금 사 업 비	207,190	207,190	0	252,040	252,040	0
성 폭 력 피 해 자 의 료 비	59,671,130	59,671,130	0	62,597,020	62,597,020	0
사 무 관 리 비 (보 조)	25,702,638	25,702,638	0	31,958,118	31,958,118	0
공 공 운 영 비 (보 조)	11,597,872	11,597,872	0	13,569,301	13,569,301	0
복 지 포 인 트 비 (보 조)	1,000,000	1,000,000	0	1,250,000	1,250,000	0
방 역 물 품 구 입 비 (보 조)	1,428,800	1,428,800	0	2,804,980	2,804,980	0
기 본 급 여 (보 조)	279,031,390	279,031,390	0	302,322,340	302,322,340	0
제 수 당 (보 조)	34,078,600	34,078,600	0	42,880,200	42,880,200	0
사 회 보 험 부 담 금 (보 조)	26,118,200	26,118,200	0	28,011,160	28,011,160	0
퇴 직 급 여 부 담 금 (보 조)	26,084,320	26,084,320	0	28,733,010	28,733,010	0
공 동 분 달 비	5,042,768	5,042,768	0	1,152,958	1,152,958	0
여 비 (보 조)	0	0	0	108,900	108,900	0
생 활 인 생 계 비 (보 조)	8,298,320	8,298,320	0	12,252,760	12,252,760	0
생 활 인 지 원 사 업 비 (보 조)	19,152,890	19,152,890	0	36,725,574	36,725,574	0

운 영 성 과 표 (총 괄)

제 2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과 목	제 21 (당)기			제 20 (전)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생활인 지원 사업비	25,441,273	25,441,273	0	10,279,379	10,279,379	0
생활인 사회훈련비 (보조)	3,600,000	3,600,000	0	3,600,000	3,600,000	0
생활인 영절위문비 (보조)	110,000	110,000	0	0	0	0
생활인 긴장비 (보조)	75,000	75,000	0	45,000	45,000	0
생활인준계부식비 (보조)	60,000	60,000	0	75,000	75,000	0
생활인 하계수련비 (보조)	120,000	120,000	0	160,000	160,000	0
피소자 자립지원비 (보조)	5,000,000	5,000,000	0	0	0	0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	29,538,310	29,538,310	0	28,650,460	28,650,460	0
연 구 사 업 비	869,000	869,000	0	0	0	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비	911,980	911,980	0	216,122	216,122	0
또 우리 사업 지원비	16,035,288	16,035,288	0	6,959,480	6,959,480	0
보조금공모사업비 / 여가부	17,000,000	17,000,000	0	0	0	0
기타공모사업비 / 여성재단	5,000,000	5,000,000	0	0	0	0
구 비 보 조 금 반 환 금	0	0	0	23	23	0
국 비 보 조 금 반 환 금	149,163	149,163	0	4,174,596	4,174,596	0
시 비 보 조 금 반 환 금	55,445,648	55,445,648	0	36,076,305	36,076,305	0
기 타 반 환 금	27,251	27,251	0	32	32	0
2) 일 반 관 리 비 용	349,415,616	349,415,616	0	283,765,590	283,765,590	0
기 본 급 여	173,389,480	173,389,480	0	143,531,180	143,531,180	0
사 회 보 험 부 달 금	24,605,290	24,605,290	0	18,960,405	18,960,405	0
상 여 금	14,110,900	14,110,900	0	10,647,770	10,647,770	0
제 수 당	42,365,340	42,365,340	0	30,971,730	30,971,730	0
퇴 직 금 여 부 달 금	19,744,307	19,744,307	0	18,618,193	18,618,193	0
복 리 후 생 비	18,240,680	18,240,680	0	16,380,830	16,380,830	0
여 여 비	862,200	862,200	0	1,293,800	1,293,800	0
공 공 운 영 비	13,747,461	13,747,461	0	1,065,328	1,065,328	0
사 무 관 리 비	13,289,930	13,289,930	0	10,770,625	10,770,625	0
감 가 상 각 비	29,060,028	29,060,028	0	31,525,729	31,525,729	0
3) 도 금 비 용	38,564,788	38,564,788	0	11,804,941	11,804,941	0
III. 사 업 외 의 수 익	81,479,937	81,479,937	0	226,754,058	226,754,058	0
IV. 사 업 외 의 수 익	34,525,315	28,129,188	6,396,127	15,040,557	15,040,557	0
이 자 수 익	6,396,127	0	6,396,127	4,175,180	4,175,180	0
상 달 소 보 조 금	17,000,000	17,000,000	0	4,200,000	4,200,000	0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1,950,581	1,950,581	0	0	0	0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20,000	20,000	0	0	0	0
복 권 내 부 감 사 수 입	2,700,000	2,700,000	0	1,800,000	1,800,000	0
고 유 목 적 준 비 금 수 입	6,396,127	6,396,127	0	0	0	0
잡 이 익	62,480	62,480	0	4,865,377	4,865,377	0
V. 사 업 외 의 비 용	23,396,127	17,000,000	6,396,127	4,213,807	4,213,807	0
부 설 기 관 보 조 비	17,000,000	17,000,000	0	4,200,000	4,200,000	0
고 유 목 적 준 비 금 전 입 액	6,396,127	0	6,396,127	0	0	0
잡 손 실	0	0	0	13,807	13,807	0
VI.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당 기 운 영 이 익 (손 실)	92,609,125	92,609,125	0	237,580,806	237,580,806	0
VII. 법 인 세 비 용	0	0	0	0	0	0
VIII. 당 기 운 영 이 익 (손 실)	92,609,125	92,609,125	0	237,580,806	237,580,806	0

2021 주 석

(사)한국성폭력상담소(통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 비용	0	658,768,507	29,060,028	418,337,367	1,106,165,902
사업 수행비용	0	366,312,510	0	351,873,008	718,185,518
일반관리비용	0	292,455,997	29,060,028	27,899,591	349,415,616
모금비용	0	0	0	38,564,768	38,564,768
기타사업 비용	0	0	0	0	0
합계	0	658,768,507	29,060,028	418,337,367	1,106,165,902

사업 감사 보고

감사보고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년도 사업 감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작성, 제공한 2021년도 사업 감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상담소는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담소는 여성주의 상담팀, 성문화운동팀, 열림터, 연구소, 사무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토대로 팀별로 구체화된 목표를 정하여 실행하는 체계성이 다양하고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열림터의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어떻게 '피해자성'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들의 주체성·대처 능력 강화, 퇴소 생활인과의 유대·자립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사업을 실행하여 상담소의 열림터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상담소는 창립 30주년의 해로 2021년 사업 방향의 가장 우선 순위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상담소 활동의 의미를 정리,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단단한 반성폭력 운동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30주년의 의미를 담은 사업을 전년도부터 기획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상담소의 30년이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기에 30주년 기념사업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그 중요성에 맞게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성주의 상담 윤리규정 및 매뉴얼 공식화 같은 상담소로서의 기본적인 사업에서부터 비전논의와 선포, 30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념식까지 진행되어 상담소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30주년 기념사업 계획 중 단행본은 연구소의 상황 등의 영향으로 발간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장기반 이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이 인력과 자원, 조직구조에 비해 적절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페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한 백러시가 강력해졌습니다. 여성운동의 성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기반한 상담소의 담론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상담소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넉넉지 않은 상근 활동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동력과 성과를 보여주신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14일

감사 허오영숙 

2022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목표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

- 시리즈 집담회, 종결사례포럼, 조력인 집단모임 등을 통해 백래시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
- 선거 국면에서 상담소의 입장을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대를 통해 정치권 백래시에 대응
- 상담소의 관점으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연대의 의미를 확산
-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활인들의 일상에 페미니즘과 반성폭력 언어를 반영
-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 지형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반성폭력 과제를 제시하며 페미니스트의 연대의 장 형성
- 다층적인 대선 대응 논의에 참여하여 여성운동 내외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연대와 운동방향 모색·조직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

- 상담통계 분석과 일지 읽기를 통해 생존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슈 발굴
- 참여자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 합의 의제 확산
- 성폭력 및 여성인권 관련 법/정책/판결/문화를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 강간죄개정, 백래시대응, 차별금지법제정 등을 여성과 소수자의 언어로 설명
- 상담소의 말과 글을 쉽고 친절하게 다듬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 지역과 분야를 넘어 다채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상담소의 언어로 안내
- 다양한 생활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생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 형성
- 생활인, 또우리들과 삶을 긴밀히 나누어 여성주의 쉼터의 의제 발굴
- 미투운동 이후 거세지는 백래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2030 여성의 목소리, 미투운동 이후 생존과 비전의 목소리를 대중적으로 가시화
- 여성운동 이외 인권사회운동과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대가능성과 성평등 가치 확산 도모

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

-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생존자 역량강화 도모
- 생존자지원 경험을 가진 조력자들의 공간을 마련하여 연대감 고취
- 친족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를 의제로 활동하는 액션그룹을 지원하고 연대
- 후원 관리의 체계를 다지고 후원회원의 효능감을 끌어낼 수 있는 예우 시스템 마련
- 문자후원의 달, 회원놀이터, 한해보내기, 다양한 행사로 친밀감 향상
- 뉴스레터 개편, 신규후원 웰컴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장소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함.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과 심터의 의제를 지지자들과 공유, 연대 활성화
- 미투 이후 다섯번 째 여름을 맞아 변화된 사회를 조망하고 2차 피해 및 일상을 위협하는 공세에 대항하는 대중적 연대를 확인하는 문화의 장 형성

가슴 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

- 적절한 휴가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치지 않게 상호 돌봄
- 일상적 슈퍼비전과 지지격려로 협력하며 신뢰 형성
- 팀개편에 따라 성문화운동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 순환을 위한 체계 마련
- 회원홍보 팀 계정 생성하여 회원과 안전하고 빠르게 소통하고 자문위원회 신설로 정체성 확립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로운 심터 운영
- 신규활동가 채용과 팀 개편을 통해 활동하기 좋은 조직체계 구성
- 활동조건 개선 및 조직문화 점검 논의를 통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지향 마련
-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공통의 시각과 이해 형성

2022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여성주의 상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 일지 보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간다. 3.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4.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 5.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6.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는 연대를 확장하고 굳건히 한다.
성문화운동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를 확산한다. 2.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든다. 3.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인권 운동과 연대한다. 4. 성문화운동팀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를 안정화한다.
회원홍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우 시스템을 마련한다. 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 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 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정화에 힘쓴다.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단하게 지원하고 활기차게 소통하여 생활인의 치유회복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2. 퇴소자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시설퇴소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4.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여 반성폭력 운동을 세상에 알린다.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래시와 퇴행으로 점철된 선거 국면 페미니스트 연대로 대응 2. 반성폭력 운동/언어/정책으로 성평등 비전 제시 3. 조직개편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가슴 뛰는 조직만들기

2022 여성주의상담팀 활동 계획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슬로건	팀별 실천방안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	- 시리즈 집담회, 종결사례포럼, 조력인 집단모임 등을 통해 백래시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다진다.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	- 상담통계 분석과 일지 읽기를 통해 생존자들의 경험에서 우려나오는 이슈를 발굴한다.
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	-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생존자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생존자지원 경험을 가진 조력자들의 공간을 마련하여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가슴 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	- 적절한 휴가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지치지 않게 서로 돌보며 나아간다 - 일상적 슈퍼비전과 지지격려로 협력하며 신뢰를 쌓는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p> <p>목표2.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 일지 보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간다.</p> <p>목표3.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p> <p>목표4.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p> <p>목표5.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p> <p>목표6.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는 연대를 확장하고 굳건히 한다.</p>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안정화에 힘쓴다.

1-1. 여성주의 상담과 통합적 지원의 체계화 및 전문화

- 배경/필요성 :
- 상담부스는 1차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창구로서, 기본적인 안내 뿐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 향후 법적, 의료적 지원까지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초기 상담이 진행됨. 안정적으로 상담

부스가 운영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활동가의 상담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현재 4명의 상담팀 상근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직자가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상담부스에서 1차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지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사건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기존의 의료·법률·심리지원 외 공론화나 비사법적 해결 등 다양해지는 내담자의 욕구에 맞춰 다채로운 사건지원 방식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를 모색함.
-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
 - 목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 및 지원 경험 확대
 - 방법 및 계획 :

- 1) 상담부스 운영 : 상담팀 4일(월~목), 상근활동가 1일(금 2타임(10:00~12:30 / 13:30~17:00) 배치. 상담팀 활동가 휴직 기간(2월~5월) 동안 주 1회 상담 부스 운영 대체 인력 확보
- 2) 사건 지원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검토. 활동가별 총 15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적극 연계. 격주 1회의 업무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 활동을 경험
 - :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체	담당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감이, 파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유랑, 경진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
 - 상담 부스 및 사건 지원의 안정화
 -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개선
 - 사건 공동대응을 통한 깊이 있고 전략적인 사건지원 모색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감 성취 및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 강화

1-2. 성폭력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언이 필요
 -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로의 접근성 향상
 - 피해생존자들이 방문하는 기관과의 회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도모

- 신규 피해생존자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기 전부터 방문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우 성폭력피해 및 기관 이용자 등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진료 및 상담의 질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활동이 요구됨

-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함. 이처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 가능한 새로운 기관 탐색 활동이 필요함

- 목표 :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하며,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 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의료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 1) 의료비

- 1인 6개월 이내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 사건지원 없이 의료비 지원만 하는 내담자의 경우 별다른 지속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담자 구청 직접신청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이 경우에는 구청 직접신청 안내

- 2) 개별상담(복권기금)

- 전화 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 3) 의료기관 네트워크

- 기존 기관 대면 소통

-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4월, 9월 예정)

- : 장기 의뢰 기관 - 점검회의를 통한 개선 사안 등의 논의

- : 신규 의뢰 기관 - 기관 안내를 통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 높임

- 신규 기관 탐색

- : 기존 의뢰 기관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여성폭력방지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

- 담당자 : 파랑

- 기대효과 :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하며 의료지원체계 파악

- 의료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소외되기 쉬운 피해생존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

- 각기 다른 피해생존자들의 주호소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기관에 진료 의뢰 가능

- 피해생존자 지원 외에도 상담소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음

1-3.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 무고와 억고소, 명예훼손, 성매매 중 성폭력 피해 사건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 존재

-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가 필요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 제공
- 방법 및 계획:
 - 1월/5월 변호사 참가 여부 및 일정 확인
 - 2월 중 홈페이지 홍보 및 이후 지원자 확인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자원활동 의사를 밝힌 신규변호사와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진행
- : 신규변호사의 경우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3월~11월 법률상담 진행
 - 1월에 월요법률상담 참가한 변호사들 대상으로 신규 변호사 추천 및 법률상담 평가 및 의견 취합
- : 격주 1회,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피해자의 법률조력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1-4.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건 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목표: 비서울 지역의 내담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직접 지원
- 방법 및 계획:
 - 1인 50만 원 지원 한도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비서울 지역에 사는 내담자에게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상담소 내 사건지원을 받는 내담자와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사용 지출 내역 보고
 - 홍보활동
- : 홈페이지에 파발마 기금 안내문 게시
- : 대면상담 시 내담자에 직접 안내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건지원과 활동 참여 담보

목표2.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 일지 보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간다.

2-1. 상담일지 데이터화

- 배경/필요성:
 - 30년 동안의 상담일지보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인 상담일지 보관 및 전자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오랜 보관으로 변형된 일지 등 상담일지의 데이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손상 및 변형이 심한 일지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전자화 작업 필요.

- 목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담일지 전자화 및 보관
- 방법 및 계획:
 - 훼손 일지부터 우선적으로 스캔 작업
- : 비파괴식(수직 위 렌즈)기기 사용 필요. 장기간 보관된 일지와 훼손 일지의 경우 종이 손상이 심함. 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파괴식 스캔(렌즈 접촉 방식)기기를 사용할 경우 부품 등 손상 우려 큼.
- : 작업방식 및 보안을 고려하여 작업 인력 직접 채용하여 진행
- 나머지 일지
 - : 훼손 일지 스캔 작업을 마친 후 논의 필요.

시기	내용	방식
1월	훼손 일지 우선 스캔	- 기존 비파괴식 기기 사용. pdf파일 저장
2월 ~4월 중순	수기작성 일지(~2000년 초)	
4월 중순 ~6월	전자작성 일지(2000년 초 ~)	- 파괴식 스캔(렌즈 접촉 방식)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작업속도 향상 기대.

- 작업자 모집
 - : 작업자 1명으로 스캔과 데이터화 작업이 가능하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2인 분업 방식 고려하며 모집공고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오래된 일지 보관에 따른 공간문제 해소

2-2. 여성주의 상담 윤리규정 매뉴얼 공식화

- 배경/필요성:
 - 30주년을 맞아 상담활동가 윤리규정 마련
 - 상담 및 사건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일관적인 지침과 기준 필요
- 목표 : 여성주의 상담 윤리 규정을 통한 사건지원 및 상담 기준 방향 제시
- 방법 및 계획:
 - 2월 중 상담 윤리 규정 수정 및 검토
 - 3월 이사회 안건 상정
 - 윤리규정 제정 후 상담소 홈페이지 게시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 윤리규정을 통한 상담활동가의 의무 및 권리 공식화

목표3. 성폭력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3-1. 상담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 본 상담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생존자들의 전화상담이 많아, 통계분석을 통해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음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2018년 자원활동상담원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 초기 상담 이후 지속지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상담 통계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상담일지와 통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원현황 파악과 이슈대응 및 발굴에 활용
 - 방법 및 계획 :
 -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 상담팀 활동가의 일지 검토 및 수퍼비전 진행
 - 월별 일지 점검 :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 요청 시 상담 관련 실적 및 통계 보고
 - 지원 현황 보고 : 이사회, 나눔터, 상하반기 평가회의 등 지원 현황 보고
 - 이슈별 통계 제공 : 필요시 혹은 요청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상담 통계 분석 제공
 -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통계 배포 : 전체 및 키워드 중심의 1년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외화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상담일지 분석자료를 외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언

3-2. 일지읽기모임

- 배경/필요성:
 - 해당 모임에 활용할 일지 선별부터, 진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슈 발굴하고 현황 파악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담당자만의 상담 및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이에 상담활동가들과 의견 나눔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목표: 성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슈발굴,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3월, 8월 예정)
 - 오전: 상담일지사본 배포 및 읽기, 오후: 워크시트지 토대로 의견나눔 및 평가
- 담당자: 파랑
- 기대효과
 - 발굴된 이슈를 통계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 가능

목표4.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

4-1.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말하기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진행
 - : 매달 참가신청 받아 모집(모집인원 기준: 활동가 포함 10명 내)
 - :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집인원 기준을 최대한 적용
 -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대관 장소 탐색 필요)
 - : 이후 참여 소감과 설문 진행
 - : 모임 이후 <모임후기>작성하여 작은말하기 사전홍보보다 사후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 : 12월에는 작은말하기 송년회 행사 진행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진행방식(감염 상황에 따라 지침 수시 변동 가능성 있음)

단계	주요 방역조치	진행방식
사회적거리두기	<행사/집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활동가 포함 10인 이내 참여자 모집 백신 접종 여부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비 상호 2m 이상 간격 유지 가능, 환기가 가능한 공간 대여 또는 이안젤라홀 이용 식사 제공 안함.
단계적 일상회복	* 1단계, 2단계 <행사/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접종자+PCR음성 500명 미만 행사 가능	활동가 포함 10인 이내 참여자 모집 백신 접종 여부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및 손소독제 구비 상호 2m 이상 간격 유지 가능, 환기가 가능한 공간 대여 또는 이안젤라홀 이용 간단한 음료 제공
	* 3단계 <행사/집회>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세부일정

상반기	3/30	4/27	5/25	6/29	7/27
하반기	8/31	9/28	10/26	11/30	12/28

- 담당자: 경진/파랑
- 기대효과:
 -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치유의 힘을 얻음
 - 작은말하기 공간을 통해 피해생존자 간 지지망 구축

4-2. 집단상담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디딤돌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일상을 원활하게 함
 - 생존자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역량강화를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활동	시기	세부내용
----	----	------

홍보	7월 중	참가자 모집
사전상담	8/9~11	1회기씩*5~7명 예상
집단상담	8/16~10/18	10회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사후상담	10/24~26	1회기씩*5~7명 예상

- 기획안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안전하게 말하기 (강사: 김은아)

회차	프로그램	시간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여성으로서 나의 삶	3	1. 집단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집단규칙정하기 2. 자기소개와 집단상담의 목표 3. 타로카드로 이해하는 나의 심리
2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 1 - 성폭력 피해경험과 지금	3	1. 지금 여기의 나, 자원 찾기 - 내적자원, 외적자원 만나기 2. 나의 삶 이야기 -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패턴 발견하기
3		3	성폭력피해 “경험”과 “지금” 1.성폭력 피해 이후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 겪고 있는가? - 성격(생각, 감정)/가족관계/행동/대인관계/일 등의 변화 2.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주된 감정은 ?
4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 2 -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발딘기	3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 피해경험 말하기
5		3	- 피해경험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 몸 느낌 접촉 - 가해자, 주요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 접촉하기
6		3	- 타로카드를 활용한 알아차림의 증진
7	자원찾기와 자기돌봄 -권력분석, 감정 접촉 및 표현	3	- 자아경계 세우기 - 적절하고 안전한 경계 연습 - 탄력있고 유연한 경계 만들기
8		3	성폭력 피해경험을 권력분석으로 이해하기 1. 문제와 관련한 권력의 위치, 무력의 위치 탐색 2. 관련하여 발달한 심리 탐색 3. 자기돌봄 목록 작성
9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기	3	1. 가해자, 비보호적 부모, 2차가해자 등에게 편지 쓰기 - 가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 - 피해경험을 수용해주지 못한 타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 2. 변화와 원하는 삶을 위한 권력분석
10		3	1. 집단참여의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 2. 변화의 선물 만나기 : 내 안의 페르세포네와 트리플 여신 만나기 3. 새로운 문 열기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경험을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음.

- 집단상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지기반 확보.

4-3. 치유프로그램-피해생존자 글쓰기(가제)

- 배경/필요성:
 - 글쓰기를 통해 피해 이후 치유의 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음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만나고 싶은 피해생존자들의 수요가 큼
- 목표:
 - 내면의 사유를 풍부하게 하고, 완성된 글쓰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함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3월에 홈페이지 및 sns홍보를 통해 참여자 모집
 - 4, 5월에 글쓰기 프로그램 6-8회 진행
 - 문집 또는 기사 기고 등으로 모임에서 작성한 글 외화
 - 성폭력피해생존자 추천 도서목록 개발 사업이나 피해자 자조 글쓰기 모임으로 후속 모임 진행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 피해경험 재해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내면을 강화함
 - 글쓰기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감을 다짐

목표5.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5-1. 사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타 상담소와의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망을 넓힐 뿐아니라 슈퍼비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사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상근활동가들과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나눔
 - 종결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를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이후 다른 사건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확인 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평가함.
 -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기회제공
- 목표: 사건 지원의 경험을 정리·공유함으로써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 함
- 방법 및 계획 :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슈퍼비전	4월, 10월	상담 사례의 성격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섭외하여 전문가 슈퍼비전 진행(상, 하반기 총 2회)
동료슈퍼비전	8월	타 상담소 교류 및 사례 슈퍼비전 총 1회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상근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지원방법을 논의함
------------------	----	--------------------------------------

- 담당자: 파랑/감이
- 기대효과 : 상담 및 사건 지원 역량 강화와 활동가 소진 예방

5-2.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통합적 사건지원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를 7월 중 개최
 - 상시 자문 활성화: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팀 자문회의	7월 중순	- 법률, 상담, 의료 자문위원 - 팀 보고 및 안건 논의
--------	-------	-------------------------------------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자문위원들과의 연계망을 확고히 하고, 상담과 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임.

5-3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례를 지원하는 당시에는 전반적인 사건 지원 흐름과 체계를 파악할 기회가 부족함. 사건 종결 후 전반적인 사건지원 체계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전략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나누면 이후 사건 지원에 큰 참고가 될 것임.
 - 지원자 외 사건지원 과정에 함께 참여한 변호사나 의료인의 평가와 의견을 들을 기회 또한 부족함. 이에 종결사례포럼 시 사건지원과정에 참여한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 나눔의 자리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사건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 방법 및 계획 :
 - 9월에 상담팀에서 논의 후 종결 사례 선정
 - 사건 지원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또는 의료인 섭외 요청하여 함께 종결사례포럼 진행
 -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반공개로 외화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
 -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상담활동가와 조력자의 사건지원에 대한 역량강화

5-4. 여성주의상담 스터디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상담팀 내에서 여성주의상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스터디모임을 운영하여 여성주의상담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
 - 목표 : 여성주의상담팀 뿐 아니라 상담소 전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역량강화
 - 방법 및 계획 :
 - 상담팀 인원 필수 참여, 그 외 전체 활동가 중 스터디를 원하는 사람 참여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5시(일정 조정 가능)
 - 1시간 발제, 1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1시간 여성주의상담 관련 책모임 및 다음 모임 논의
 - 4월 사전모임 때 월별로 주제별 발제자 및 진행자 정하여 스터디 운영. 세부 발제 주제 및 도서 선정은 스터디 모임원끼리 결정함.
 - 모임 마지막 시기에 심화교육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강의 요청하여 진행
 - 담당자: 파랑
 - 기대효과 :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힘

5-5.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 1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2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금액 부족분 발생 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 적극 활용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상근자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담당자: 파랑/경진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목표6. 페미니즘 백래시에 맞서는 연대를 확장하고 굳건히 한다.

6-1. 시리즈 집담회-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킵

- 배경/필요성 :
 - 피해생존자들이 법적해결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는 현실에서 법적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흐름 속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성폭력 상담 현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 피해 대응에 대한 백래시에 맞선다
- 방법 및 계획 :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주최함
 - 2/8(화) 오후2시~4:30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가공 및 유포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집담회 진행
 -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 참여자들은 사전신청으로 제한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역량강화

6-2. 성폭력 피해생존자 조력인 집단모임(가제)

- 배경/필요성 :
 - 최근 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피해생존자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사례가 많음.
 - 피해생존자에게 있어 지지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애매한 위치에 놓이거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 소진은 경기도 함. 이에 조력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목표 : 성폭력 피해생존자 조력인들의 말하기 공간을 만들기 및 반성폭력운동인들의 연대감 형성
- 방법 및 계획:
 - 9월 중 2일 프로그램으로 1회 진행
 - 대상자 모집
 - : 회당 5~6명
 - : 피해생존자의 주변인으로 조력 경험자
 - : 온라인 게시 홍보 및 내담자 추천
 - : 신청서 접수를 통해 참여자 적절 여부 판단
 - 세부일정(변동 가능성 있음)

구분	프로그램	시간	내용	진행자
첫째날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 열기	1	1. 오리엔테이션 및 규칙안내 2. 참여자 소개	경진
	성폭력 생존자 조력인으로서의 나의 위치 찾기	2	1. 워크시트지 작성 2. 작성된 워크시트지를 토대로 이야기 나누기	상담팀
둘째날	서로 말하기	2.5	1. 경험 나누기 - 당시 고민이 되고 아쉬웠던 일 등 감정 다루기 - 내가 잘한 일 - 나의 욕구 2. 마무리 칭찬사워	경진
		0.5	종료 소감 나누기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조력 경험 중 발생한 감정들과 생각에 대해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욕구파악

2022 성문화운동팀 활동 계획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	- 선거 국면에서 상담소의 입장을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대를 통해 정치권 백래시에 대응함.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	- 참여자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 합의 의제를 확산함. - 성폭력 및 여성인권 관련 법/정책/판결/문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함. - 강간죄개정, 백래시대응, 차별금지법제정 등을 여성과 소수자의 언어로 알림.
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	- 친족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를 의제로 활동하는 액션그룹을 지원하고 연대함.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장소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함.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현장에 함께함.
가슴 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	- 팀개편에 따라 성문화운동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 순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팀 활동 목표	
<p>목표1.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를 확산한다.</p> <p>목표2.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든다.</p> <p>목표3.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인권 운동과 연대한다.</p> <p>목표4. 성문화운동팀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를 안정화한다.</p>	

목표1. 새로운 반성폭력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를 확산한다.

1-1.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 배경/필요성:

- 상담소는 성적 동의가 '적극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음. 2019년에는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명시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지속적으로)을 마련했으며 2021년에는 릴레이 토크쇼, 홍보 영상 제작, 대중인식조사 등을 진행했음. 그동안 축적하고 심화해온 운동적 경험과 담론을 다양한 활동 현장 및 경험 주체들과 만나 더욱 확산해야 할 때 임.
- 2021년 진행한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를 진행했을 때 대중들에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원칙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구체적인 자신의 성적 관계와 실천에서는 '동의'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평등한 관계와 성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가이드와 사례가 필요한 시점임.
- 성적 동의가 전 사회에 실천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조건과 맥락을 고려해야 함. 행위자의 사회구조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데이트, 학교, 가족 여러 사회적 관계 안에서 '동의'를 둘러싼 쟁점은 다르게 구체화될 것임. 다른 몸, 다른 맥락 속에서 '성적 동의'는 어떻게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고민과 질문이 다양한 현장에서 이어지고, 상담소의 고민과 질문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적극적 합의'를 일상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형성함
 - 다양한 시민, 단체, 현장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온도를 확인함
 - 자체적으로 '적극적 합의' 교육을 프로그램을 열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함
 - 방법 및 계획:
 - 적극적 합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주제 및 대상별 맞춤형 워크숍 진행
 - 찾아가는 '적극적 합의' 교육 진행
 - 프로그램북 제작 및 배포
 - 담당자: 신아/앎/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적극적 합의 담론을 확산하여 강간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성문화를 조성함.
 - 다양한 시민, 단체, 현장을 만나고 시민들이 직접 '적극적 합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함.
 -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사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적극적 합의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게 함.

목표2.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든다.

2-1.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법/정책/판결/이슈 모니터링과 대응

- 배경/필요성:
 - 상담소는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정책/판결을 비판하고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음.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성폭력 판단 및 양형기준,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 처분 정책 등 새롭게 논의되는 관련 법/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특히 2022년은 백래시 현상에 따른 위헌 소송이나 재심 청구

- 등 현안 대응 및 대안 입법 마련 논의 참여, 2차 피해 양산 및 위력 성폭력 사안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감시 등이 필요한 국면임.
- 또한, 상담소는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 관계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성평등하게 변화하기 위한 성문화운동을 지속해왔음. 이를 위해 반성폭력운동 현장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시의적절하게 알리고, 성평등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따른 유기적인 활동을 수립 및 진행함.
 - 반성폭력/성평등 관련 법령을 생산, 비판하고 이를 회원, 생존자, 대중 등과 공유함.
 - 시사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알려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및 여성인권 관련 법/정책/판결/이슈를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함.
 -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성폭력/여성인권 관련 의제가 있을 시 팀 논의하에 성명/논평(단호한 시선) 발행, 긴급 기자회견/토론회 진행, 연대 조직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함.
 - 학계, 운동계, 정책, 법률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여 필요한 반성폭력/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
 - 토론, 발제, 정책 제안 활용 등으로 해당 과제 활동 진행
 - 법 개정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개진 (관련 부처 또는 국회의원 발의안 등)
 -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업/분담
- 담당자: 앞/신아/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법제도 제언의 필요성을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반성폭력 의제 및 과제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고 공론화함.
 -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법/정책/판결/문화의 변화를 신속하게 팔로우업하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에 반영함.
 - 반성폭력운동 현장단체이자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법/정책/판결/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함.

2-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공폐단 활동 지원

- 배경/필요성:
 - 2019년부터 시작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작은말하기, 미투운동에서의 말하기, 자주적 액션, 책 발간 등을 통해 친족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구조적, 입체적으로 알려오고 법적 시간과 법적 권리 제한에 맞서는 정의실현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2021년에는 생존자 그룹을 중심으로 매마토(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정기 1인 시위, 제1회 생존기념축제 등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의제로 하는 활동이 활성화, 본격화됨.
 - 향후 지속적인 생존자·활동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적 도전과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연대, 협력, 액션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수요와 기대가 존재함
- 목표: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법 개정 운동과 관련 정책 및 입법적 대안 논의를 지원함.
 - 자치적인 액션 그룹으로 모인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함.

• 방법 및 계획: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생존자 그룹의 활동 지원 및 상담소의 역할 논의
- 친족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가 책임을 논의하는 토론회 주최
-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기획 및 추진

• 담당자: 앎/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여성주의 관점으로 친족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자료와 의제 활동 도구 및 기회 등을 생산함.
- 친족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뤄냄
- 생존자 그룹이 생존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 및 지원함.

2-3. 선거 대응

• 배경/필요성: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 선거,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대남’ ‘이대녀’ 담론이 부상하고, 정치권에서는 남성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방법으로 여성혐오, 페미니즘 및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를 선동하고 부추김. 유력대선후보들은 여가부 폐지,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 n번방 방지법 전면 폐지 등 백래시 정책을 내세웠으며, 성차별·성폭력 관련 법제도를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개인화하는 방향의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여성/인권 운동에서 이야기해왔던 비동의 강간죄 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성과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입법,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정책임 및 기조는 찾아보기 어려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전면 내세우고 비동의 강간죄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야당 여성 후보는 지지율 3% 내외에 그치고 있음. 미투 운동 이후 열린 대선국면에서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 전반이 비가시화되고 있음. 성차별·성폭력이 정의롭게 해결되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목표: 대선 정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백래시에 대응하고 페미니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
- 연결된 여성인권 의제들을 힘있게 이야기하기 위해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연대함.
- 3.9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 선거,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담소의 정책, 입장, 관점을 만들고 발행함. 사무국과 협력하여 진행.

주요일정	내용	세부내용
12월	언론 정책검증 기획 참여	- 닷페이스 대선 캐비닛 젠더폭력 정책공약 자문 - 한겨레21 청년활동가 대선정책 공약 자문 및 제안
1월	입장 및 정책 초안	- 초안 정리 -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공유
2월	입장 및 정책 정리안	- 입장 및 정책 정리안 업로드, 공표 - 보도자료 발송
3월	입장 및 정책 홍보	- 카드뉴스 제작 발행

• 담당자: 신아(사무국과 협업)

• 기대효과:

- 생존자, 여성, 소수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를 만들.

- 백래시 등의 정치적 퇴행에 효과적으로 맞섬.

목표3.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인권 운동과 연대한다.

3-1. 반차별 운동

- 배경/필요성: 2021년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3개안이 발의되었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하여 성사되기도 하였음. 9월 온라인농성, 10월 전국도보행진, 11월부터는 국회앞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사회운동과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의제에 집중하여 열의있게 요구함.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대선 국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있는 상황임. 백래시, 혐오와 차별의 확산, 코로나19 상황 등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더욱 명료해지고 있음. 2022년 여러 선거국면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현안으로 이야기 되고 나아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방법 및 계획: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자: 신아/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평등을 앞당김.

3-2. 백래시 대응 활동

- 배경/필요성: 미투운동 이후 선출직 정치인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 및 연대활동 현장 등에서 백래시를 접함. 한편 손가락 사건 등 페미니스트에 대한 백래시가 대두되고 온/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차별·성폭력 피해로 이어짐. 역차별론에 입각한 성폭력 대응,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무력화 시도,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이 이어짐.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폭력 문제제기 등에 대한 담론을 후퇴시키고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후퇴한 행보가 이어짐.
- 목표:
 - 성평등 운동 및 제도와 문화를 축소시키는 백래시에 대응함.
 - 백래시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성폭력에 대응함
 - 페미니즘, 여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담론과 법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함.
 - 백래시를 조장하거나 비판적 관점을 상실한 정치권, 공공기관, 언론 등의 책임있는 대응과 행보를 요구함
- 방법 및 계획: 연대체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자: 신아/달별(회원홍보팀)
- 기대효과: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대를 통해 백래시에 대응함.

3-3. 다양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방법 및 계획: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 활동을 지속 또는 마무리하고 필요시 신규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담당자: 각 연대체 담당 참조

연대체	내용	담당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대 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차별 문제를 상담 지원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국회/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얌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신아
서울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상담소의 지향과 의제를 알리며, 성소수자 성폭력 생존자가 상담소를 인지하고 필요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다.	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넓은 연대를 통해 다양한 여성인권 이슈에 개입하고 해결함.
- 상담소가 어떤 연대 활동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회원 및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

목표4. 성문화운동팀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를 안정화한다.

4-1. 성문화운동팀 안정화 및 역량 순환을 위한 체계 마련

• 배경/필요성:

- 그동안 성문화운동팀 사업내용에는 의제 관련 사업, 대중 행사(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등) 관련 사업, 법·정책 관련 활동, 이슈대응 활동, 연대 활동, 회원 사업 등 방대한 스펙트럼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음. 이에 2022년부터 성문화운동팀과 회원홍보팀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
- 고연차 활동가들이 특정 업무를 다년간 담당함으로써 각각의 전문성은 높아졌으나, 활동가별로 특정 의제/업무에 관한 이해 및 숙련도의 편차가 큰 상황임. 향후 팀 로테이션 또는 역할 분담에 따른 담당자 변동 등을 고려했을 때 각 의제/업무에 관한 담당 활동가의 정보, 의견, 고민 및 노하우가 더 활발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음.

• 목표: 새롭게 출발하는 성문화운동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를 안정화함.

• 방법 및 계획:

- 팀원 간 역량 순환을 위한 의제·업무 공유 및 논의 방식 개편
- 상근활동가들과의 공유 및 논의 활성화(사무국 활동가 교육 사업 중 월 1회 강의 편성)

• 담당자: 얌/신아/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명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문화운동팀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함.
- 팀 내 상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 성문화운동팀 활동에 관한 상근활동가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춤.

4-2. 자문위원 소통 및 자문 활성화

- 배경/필요성: 새롭거나 낯선 시선으로 성문화운동팀 활동을 바라보며 반성폭력·성문화 운동의 빈 공간을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성문화운동팀의 활동 방향, 사업 전략 및 내용, 현안 대응 등에 관해 자문위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자문함.
- 방법 및 계획:
 -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온/오프라인 정기 자문회의 1회 진행
 - 전화/서면 등을 통한 상시 소통 및 자문 진행
- 담당자: 앞/신아/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자문 및 전문지식, 관련 정보 또는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성문화운동팀 활동 과정에 반영함.
 - 자문위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함.

2022 회원홍보팀 활동 계획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의 관점으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함. - 상담소가 이미 가진 매체를 활용해 연대의 의미를 알림.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의 말과 글을 쉽고 친절하게 다듬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함. - 지역과 분야를 넘어 다채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상담소의 언어로 소개
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관리의 체계를 다지고 후원회원의 효능감을 끌어낼 수 있는 예우 시스템 마련 - 문자후원의 달, 회원놀이터, 한해보내기, 다양한 행사로 친밀감 향상 - 뉴스레터 개편, 신규후원 웰컴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친근한 이미지 형성
가슴 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홍보 팀 계정 생성하여 회원과 안전하고 빠르게 소통함. - 회원홍보 자문위원회 신설하여 정체성 확립
팀 활동 목표	
<p>목표 1. 회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우 시스템을 마련한다.</p> <p>목표 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p> <p>목표 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p> <p>목표 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정화에 힘쓴다.</p>	

목표1. 회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우시스템을 마련한다.

1-1. 정기후원

- 배경/필요성: 회원담당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약 500명 가량의 정기후원회원이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대거 증가한 후원회원들이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반성폭력 운동의 오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연결과 소통이 필요함.

- 목표: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후원 유도, 신규후원자 환영 체계 자동화
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후원회원과 신뢰 관계 형성,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방법 및 계획:

- 1) 신규회원관리: 도너스 확인 및 환영메세지 전송, 신규회원 웰컴키트 발송, 신규회원 굿즈 정비, 상담소 소개 메일링 5회차 기획 및 세팅, 가해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후원중단 및 별도 기록

- 2) 기존회원관리: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3/5/10년 지속후원자 특별예우 시스템 정비, 예우 시스템 자동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담당자: 달별,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 후원회원 이탈률 하락 및 장기후원회원 비율이 높아짐.

- 상담소 활동에 관심있는 후원회원 증가.

1-2. 일시 및 특별후원

- 배경/필요성 : 정기적인 후원을 부담스러워하는 후원자,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하는 후원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후원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시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일시 후원자가 장기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가 필요함.

- 목표: 상담소 활동과 후원을 연결하고, 후원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일시후원: 감사인사 및 연 1회 연말정산 안내, 요청 시 기부확인서 발급

- 특별후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후원사례 발굴하여 이미지와 함께 후원스토리 SNS 게시

- 담당자: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일시 및 특별후원 증가, 상담소가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짐.

1-3.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전통적 후원방식인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원자들이 다수 존재. 일회성으로-여윌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낮은 사람들에게 가벼우면서도 접근성 좋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이 필요.

- 목표: 주기적인 문자 내역 체크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빈도수 증가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문자후원 홍보

- <문자후원의 달> 이벤트 진행

- 연 2회 문자후원 후기 발행

- 담당자: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상담소 인지도 및 모금액수 증가

목표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

2-1.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매호마다 상담소의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담소의 연간 상담통계를 공유하고 있음.
- 목표: 상담소의 활동을 기록·홍보하고,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나눔터 89호 발간(1월), 90호 발간(7월), 91호 발간 준비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 원고 청탁 및 수합
 - 편집 및 편집 디자인(외주 제작), 교정
 -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 반송분 처리
- 담당자: 달별(상반기), 신규 활동가(하반기)
- 기대효과:
 - 상담소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상근/자원/인턴 활동가, 회원, 비회원 등)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상담소에 친숙감을 느끼게 함.
 -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함.
 - 무겁지 않은 톤의 글로 상담소 활동에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됨.

2-2.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현행 이메일 소식지 형식을 개편하여 오픈율을 높임.
- 방법 및 계획: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22년 1월호~12월호, 총12회)
 - 발송 대상: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집중할만한 활동을 짧게 소개
 - 스티비로 포맷 제작, 도너스로 발송하여 발송기록 일원화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매일 회원 및 구독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소 활동 소식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함.

2-3. 회원놀이터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각 1회 진행
 - 여성주의 영화 공동체 상영, 소근육 발달을 위한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상담소가 만나고 싶은 그룹들과의 활동 기획·추진

- 다양한 생존자, 주변인, 페미니스트 회원들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채널 (ZOOM,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
 - 담당자: 신규 활동가, 달별
 - 기대효과: 상담소에 소속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들은 후원회원 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2-4. 회원소모임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참여자/동료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상담소를 거점으로 재미있고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목표: 정기모임을 열어 회원/지지자들이 상담소의 분위기를 알아가고 소소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담당자: 달별,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상담소에 소속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들은 후원회원 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2-5.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리고자 함.
- 목표:
 - 코로나19 시국에서 자원활동가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함.
 -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일정 주기로 자원활동가 OT를 오프라인 진행하여 상담소를 소개.
- 담당자: 달별,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에 소속감과 친숙감을 느끼도록 하며, 다양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을 통해 상담소 자원활동가로서 숙지해야 할 ‘이 공간의 약속’, ‘비밀유지 의무’ 등을 안내·교육하고, 각 자원활동가가 스스로 상담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실행함.

2-6.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 여전히 2015 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힘.
- 방법 및 계획: 제15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임지은, 김하윤 인턴활동가(씨티-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및 수요시위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사전 답사 진행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둘러싼 성폭력 통념 및 피해자상에 대한 균열을 도모
- 활동 후 실무자 및 상근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여 상호 평가 진행

제153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후 12-13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참가 단체 소개

: 문화공연

: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 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에 연대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논의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상호 평가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를 문제화하는 다중적인 목소리에 동참함.

2-7. 한해보내기

- 배경/필요성: 상담소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간 필요.
- 목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상담소와의 친밀도를 키움.
- 방법 및 계획: 팀마다 돌아가며 진행.
- 기대효과 : 상담소의 1년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목표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

3-1. 홈페이지 리뉴얼

- 배경/필요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지지자 그룹-개인과 만나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담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연결오류, 모바일 최적화가 되지 않는 문제, 가독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가독성 좋게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모바일 최적화를 달성함
 - 상담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페이지의 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UX/UI 리디자인, 게시판 카테고리 변경, 검색기능 등 필요한 기능 체크
 - 상담소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온라인 공간의 접근성이 좋아져 상담소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3-2. SNS 채널 관리

- 배경/필요성: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요즘 다양한 의제가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함.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
- 방법 및 계획:
 - SNS 상시 관리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상시 관리
 - 카드뉴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담당자: 신규 활동가
- 기대효과: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상담소 활동을 널리 알려 잠재적 후원회원을 확보함.

3-3.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체 콘텐츠 생산

- 배경/필요성: 그간 상담소에서 제작한 다양한 자료, 콘텐츠 등의 높은 수준과 다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음. 또한 생산한 자료의 내용이 대중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아옴.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제/이슈 등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함.
- 방법 및 계획:
 - 상담소의 입장에서 특정 의제에 연대하는 이유를 인터뷰.
 - 교류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재미있는 토론회/현장 등을 방문해 취재.
 - 블로그 연재글, 카드뉴스 등으로 정리하여 격월로 발행.
- 담당자: 달별, 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상담소 인지도 및 모금액수 증가

목표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하고 안정화에 힘쓴다.

4-1. 회원홍보팀 메일 생성 및 관리

- 배경/필요성: 후원회원들의 요청 메일이 다른 요청사항과 함께 상담소 공용메일로 들어오고 있음. 회원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인데, 담당자가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모든 상근자가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 안전한 회원관리 및 드라이브 분리를 위해 팀 계정 별도 생성.
- 목표: 회원홍보팀에 오는 요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방법 및 계획:
 - 구글 G-Suite 회원홍보팀 계정 생성
 - 회원업무 전용 메일 홍보 및 상시 관리
- 담당자: 달별, 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 회원홍보팀 업무 메일의 편리한 아카이브, 권한 설정으로 편리하게 연락 제한.

4-2.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회원홍보팀의 활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긴밀한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함.
- 목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들과 상담소 멤버십 고취방법 및 홍보 방향 점검.
- 방법 및 계획:
 - 회원홍보 자문회의 신설하여 신규 자문위원 위촉.
 - 하반기 내 1회 자문위원들과 온라인/서면 자문회의 개최
 - 담당자: 달별, 신규활동가
- 기대효과: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원홍보팀의 장기 미션 및 비전 확인.

2022 열림터 활동 계획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p>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p> <p>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 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p> <p>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p> <p>가슴 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지원으로 생활인들의 일상에 페미니즘과 반성폭력 언어를 녹여낸다. - 다양한 생활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생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든다. - 생활인, 또우리들과 삶을 긴밀히 나누어 여성주의 쉼터의 의제를 만들어 간다. - 쉼터의 의제를 다양한 지지자들과 공유하여 연대를 활성화 한다.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로운 쉼터를 운영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단단하게 지원하고 활기차게 소통하여 생활인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도모한다.</p> <p>목표2. 퇴소자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시설퇴소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p> <p>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p> <p>목표4.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여 반성폭력 운동을 세상에 알린다.</p>	

목표1. 단단하게 지원하고 활기차게 소통하여 생활인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열림터 특성상 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큼.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 목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생활인들에게 각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일상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입소이력	의뢰시 연계기관에 열림터의 생활규칙과 운영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용 공간 확보 및 2층 침대 추가설치로 입소인의 수를
------	---

	최대한 높임. 공동생활이 어려운 입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소인의 안정을 도모함.
입·퇴소 지원	입소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안전한 입소를 도움. 입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소 절차를 진행하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논의하여 입소를 진행할 수 있음.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생활지원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등 지급. 외식(명절, 생일축하,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생활상담지원	사례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상담 지원. 열림터 생활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별 개인 상담 진행.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로비)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정신과진료,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돕고 사례에 따라 팀미팅 진행.
법률지원	진술, 변호사미팅, 재판 동행, 탄원서 등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의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학교·학습지원	사례별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기초 학습 지원.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사례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진행 및 진로/자립계획을 구상하도록 노력.
정서문화지원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하계수련, 나들이, 명절 한복체험 등으로 정서안정 도모 및 문화생활을 지원. 체력단련비의 경우 필요시 학교·학습지원비에서 충당하여 심신단련을 도움.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생활인 개개인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열림터 생활을 적응하도록 하며 심신회복을 도움.
-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인의 역량강화를 돕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주체적인 자립을 도움.

1-2. 함께 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지속적인 폭력피해로 인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인들이 다수임.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 경험 역시 빈약한 경우가 많음. 활동가들과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활인들의 욕구도 높은 상황임. 이에 함께 하는 나들이를 진행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재미와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함.
- 목표 : 생활인과 활동가가 함께 정기적인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함.

- 방법 및 계획 : 격월(4월, 6월, 8월, 10월 - 명절·연휴프로그램이 있는 달은 제외)로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사전에 생활인들에게 어떤 나들이를 진행하고 싶은지 의견을 받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생활인과 활동가가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상호 협동과 신뢰형성의 경험을 쌓음.
 - 열림터 입소 전 다양한 이유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기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파악해봄.
 - 규칙적인 공동생활에서 오는 피로감을 완화함.

1-3.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① (개별성교육) 페미니즘 관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재해석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사회가 맺는 관계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음. ② (집단상담-글쓰기) 많은 열림터 생활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함. 모호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연습이 필요함. ③ (집단상담-자해자살위기대응) 열림터 생활인의 다수가 자해 경험이 있으며, 자살고위험군인 경우도 많음.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특성상, 자해자살위기는 필연적으로 생활인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서로의 자해자살위기를 돕거나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법을 함께 익힐 필요가 있음. ④ (심신회복캠프) 폭력 피해로 인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거나, 스스로 주도하는 여행을 해본 적 없는 생활인들이 많음. 함께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며 즐거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함.
- 목표 : 성교육, 글쓰기,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개별성교육(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소) : 상·하반기 개별 교육 각 6회기 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 집단상담-글쓰기(은유/글쓰기의최전선 작가) : 상반기 10회기 진행. 글쓰기 과제물을 토대로 작은 문집을 발행하며 종결할 계획.
 - 집단상담-자해자살위기대응 집단상담(라다/심리상담사) : 하반기 6회기 진행.
 - 심신회복캠프 : 10월 진행 예정하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식과 지역은 유동적으로 결정.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개별 성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함.
 - 함께 글을 쓰며 자기표현 방식을 익히고, 문집을 발행하여 성취감 획득.
 - 전문가 주도 하에 자해자살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로 또 같이 개인의 위기를 다루는 법을 배움.
 -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면서 스스로 즐거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만들어냄.

1-4.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
 - 생활인들이 폭력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예방함.
 -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
- 목표 :
 - 공동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지켜 나가야할 약속과 규정 이해

- 상담소의 활동을 알고 공감대를 형성
-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 바라보기
-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 증진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진행하며 마지막 5회기에는 교육내용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발표하고 평가의 시간을 마련함.
 - 교육진행 전에 사전미팅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진행에 대해 효율성을 증진함.
- 상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백목련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란
3회기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경진
4회기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신아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 하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진
1회기	이 공간의 약속	달별
2회기	상담소의 역사, 활동	오매
3회기	여성주의란?	감이
4회기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얏
5회기	정리 및 평가	은희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공동주거 공간인 열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려하고 지켜야할 규칙들을 숙지함.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상담소 활동 및 열림터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
 - 성적 권리에 근거하여 공적·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받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1-5.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 공동생활공간인 열림터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과 청결한 환경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활인들 대부분이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강저해의 위험이 있음.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 및 비위생적인 식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자극이 필요함. -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개인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시행, 생활인과 함께 주제를 탐색한 후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하여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안전교육: 연간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시행.
- 화재예방교육 : ① 격월 1회 시행.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 ② 연 1회 화재대피훈련 완강기 사용법
- 생명존중교육 : 연 1회(상반기: 은희) 시행. 열림터 내의 자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 기대효과 :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 키움.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킴.

1-6. 생활인이 진행하는 열림터 운영평가 · 생활인과 만드는 열림터 생활규칙

- 배경/필요성 : - 매주 생활인 주도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호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열림터 운영 전반에도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하반기 열림터 생활인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생활규칙개정에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생활인 운영평가 : 7월, 1월 1회씩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
 -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7월, 1월 1회씩 진행. ① 생활규칙 변경 논의 및 워크시트 배부 , ② 열림터 업무회의 논의, ③ 가족회의에 변경 생활규칙 안내.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예산안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 생활인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을 강화함.
 - 열림터 운영에 생활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쉼터 운영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함.

목표2. 퇴소자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시설퇴소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힘쓴다.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 친족성폭력 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퇴소 이후 어려운 경우가 많음으로 열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타기관연계 시 지속적인 약물치료비용,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률지원, 타시설 연계등의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움.
- 방법 및 계획 :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

- 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대학학자금 지원: 대학합격시 등록금 일부지원.(1인 100만원)
- 자립생활지원 : 퇴소자립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20만원) 이외에도 퇴소자들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출산, 경조사가 있을 경우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개인면담 : 필요 시
- 의료법률부대비용 : 시설연계 퇴소 시 의료지원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물치료 비용지원과 퇴소이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 물품지원 : 연간 1회이상 명절을 맞이하여 물품지원을 시행.
- 이외에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발굴하여 지원함.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 퇴소생활인(또우리)들은 퇴소 후에도 열림터와 친밀함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성폭력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생활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고충, 피해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와 연대를 꾀할 장이 필요함.
- 목표 : 또우리, 전·현 활동가들이 함께 또우리모임을 진행한다.
- 방법 및 계획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10월 말)
- 또우리모임 실행 (3, 5, 7, 11월 평가계획 모임)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모임을 활성화하되, 가능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대면 모임을 진행할 계획임.
- 대면 모임 진행 시 비서울 지역에서 방문하는 또우리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참여의 허들을 낮춤.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정기적인 또우리모임을 통해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
- 전·현 활동가들이 개인적 부담을 줄이면서 또우리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와 연결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2-3. 퇴소자지원기금 “또우리폴짝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지원의 부재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개인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함. - 또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립 과정의 불안정성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

-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심터 퇴소생활인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림터 퇴소생활인들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 1회 지원선정 시 이듬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 당해연도 폴짝기금참여자 발표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외화하고,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생활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4월	- 홍보 및 모집	
5월 중순	- 지원대상 발표 - 폴짝기금참여자 사전인터뷰	개별 진행
6월 ~ 10월	- 폴짝기금 사용기간	참여자들과 상시 소통
11월	- 폴짝기금참여자 평가모임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

- 담당자 : 수수, 조은희
- 기대효과 :
 - 퇴소 이후에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사회적 지지처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우리들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함.
 - 집단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금 참여 또우리끼리 역량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 시설퇴소생활인지원의 필요를 수집하고 선례를 만들어 퇴소자지원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함.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최근 자해, 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생활인들의 입소가 많아지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성매매나 성적착취의 과정에 있는 생활인 지원을 위한 전문지식 함량과 현실적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됨.
 - 생활인 지원을 위한 생활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동가 보호와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 목표 :
 - 자해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상황에 대처
 - 생활인들이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내용	강사
4월	경계선 지능 생활인 지원	장애여성공감
6월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	평화의샘
9월	자해와 약물 복용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지원자의 자해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
- 생활인들이 새로운 성폭력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음.
- 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만 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방법 및 계획 :
 - 대상자는 3인이고 미리 준비하여 연내 소진할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재충전 및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함

3-3. 생활인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방향과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목표:
 - 사례를 종결하면서 지원자의 소회를 나누고 활동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원자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참여한 활동가들도 다양한 사례지원의 틀을 배울수 있음.
 - 사례를 종결하고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가지원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연 1회 진행
 - 지원을 종결한 후 사례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에서의 아쉬운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함께 나누어 향후 다양한 사례지원에 대처할 수 있음.
 - 퇴소자로 위치가 변경된 상황에서의 지원방향이나 한계를 함께 재설정할 수 있음.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퇴소한 생활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자로서의 평가를 상담소 전체 활동가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고 향후 지원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음.
 -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원사례를 경험하여 역량강화할 수 있음.

3-4. 청소년 생활인의 온라인 공간×섹슈얼리티 경험 스테디

- 배경/필요성 : -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열림터 청소년 생활인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증가함. - 이 과정에서 친밀함과 폭력의 출타기가 이루어지기도 함. - 생활지원자로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인들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이해하고 고민을 확장하여 지원방향을 정립할

필요 있음. - 이에 2021년 하반기동안 열림터 또우리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거주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스터디 결과물을 생산할 필요있음.

• 목표 :

-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성과 섹슈얼리티를 이해함.
- 열림터 생활인 사례를 통해 온라인 공간의 친밀성과 폭력의 경계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1) 진행방법

- 열림터 개별성교육 강사 호연과 협업하여 2021년에 진행한 인터뷰 자료를 확인하고, 해석함. 다음의 주제를 주요한 해석 대상으로 삼음. 온라인 공간의 일상화 과정,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관계 맺기 전략 및 형성하는 관계의 특징,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과 대응 방법, 성폭력 피해와 온라인 관계의 연결지점 등.
- 필요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함.
-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연구보고서, 매뉴얼 등의 스터디 결과물을 생산함.

(2) 진행계획/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2월 ~ 5월	자료 해석	인터뷰 내용 해석, (필요시) 추가 인터뷰 진행
5월 ~ 8월	스터디 결과물 준비	스터디 결과물 기획회의
8월 ~ 11월	결과물 생산	원고 작성 등 생산 작업 진행
12월	인쇄/홍보	인쇄 및 배포/홍보

• 담당자 : 수수 (참여: 조은희, 박지희, 수수, 낙타, 추상아, 경진(상담팀),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소))

• 기대효과 :

- 온라인 공간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해 온 청소년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해석하여, 지원자들이 변화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됨.
- 경험자들의 지식을 토대로 더 알맞은 생활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3-5 사례관리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자의 지원방향과 전략을 슈퍼바이저와 함께 나누고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례를 나누면서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역량강화할 수 있음.
- 동료활동가들 역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음.

• 목표 : 사례의 지원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1회기(총2회)
- 사례에 맞는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섭외하여 진행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사례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나누고 지원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목표4.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여 반성폭력 운동을 세상에 알린다.

4-1.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 - 보호시설이 32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블로그: ①격월로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퇴소생활인 인터뷰 및 또우리 원고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 ④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하며 홍보함.
 - SNS: 블로그 게시글 중 프로젝트 등의 경우 SNS에 일부 홍보함.
 - 메일소식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율을 높이고 블로그 최신 글을 링크로 첨부하여 블로그 유입 및 열림터 활동을 홍보함.
 - 해피빈 공기부함: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정기 기부함을 진행.
 - 후원예우: 후원시스템 변경에 따른 전산작업을 정비하여 편리한 후원을 도움.
- 기대효과:
 - 연계기관에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열림터의 사회적 역할을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장기 후원회원을 유치할 수 있음.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생활인 및 퇴소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4-2.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쉼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관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쉼터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목표 : 열림터를 알리고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키움
- 방법 및 계획 :
 -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와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과 연대
 -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2월 총회, 워크샵 1회, 보수교육 1회, 3월,5월,7월,9월 임원회의 예정.
 -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복지분과위원회: 분기별 회의진행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매 월 전체회의 예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법인화(단체화) 진행 이후에는 회원 단체로 결합.
- 담당자 : 조은희, 수수
- 기대효과 : 유관단체와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고 연대감 성취

4-3.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절실히 필요함. 운영위원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전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열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받아들여 향후 열림터 운영에 반영하고 열림터의 쉼터 운동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열림터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 운영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음.
- 방법 및 계획 :
 - 분기별 각 1회 진행(총 4회),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 1회기 zoom 또는 메일로 진행예정
 - 다양한 안건개발로 운영위원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의 기회를 마련함.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여유 있게 일정을 안내하고 업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함.
- 담당자 : 조은희
- 기대효과 :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 상근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주의 쉼터운동을 활성화

2022 사무국 활동 계획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에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반성폭력 언어로 대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래시와 반페미니즘 정치 지형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반성폭력 과제를 제시하며 페미니스트의 연대의 장을 형성함. - 다층적인 대선 대응 논의에 참여하여 여성운동 내외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연대와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조직함
들리지 않던 목소리에 주목하고, 세상에 가닿는 활동으로 성평등 운동을 확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운동 이후 거세지는 백래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2030 여성의 목소리, 미투운동 이후 생존과 비전의 목소리를 대중적으로 가시화함 - 여성운동 이외 인권사회운동과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대가능성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도모함.
생존자, 회원, 지지자들과 더 굳세고 활력있게 연결되어 풍부한 연대망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 이후 다섯번 째 여름을 맞아 변화된 사회를 조망하고 2차 피해 및 일상을 위협하는 공세에 대항하는 대중적 연대를 확인하는 문화의 장을 형성함
가슴뛰는 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미래가 기대되는 조직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활동가 채용과 팀 개편을 통해 활동하기 좋은 조직체계를 구성함. - 활동조건 개선 및 조직문화 점검 논의를 통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지향을 마련함. -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공통의 시각과 이해를 높임.
팀 활동 목표	
<p>목표1. 백래시와 퇴행으로 점철된 선거 국면 페미니스트 연대로 대응 목표2. 반성폭력 운동/언어/정책으로 성평등 비전 제시 목표3. 조직개편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가슴 뛰는 조직만들기</p>	

목표1. 백래시와 퇴행으로 점철된 선거 국면 페미니스트 연대로 대응

1-1. 다층적 대선대응 논의 참여, 연대

- 배경/필요성 : 정치영역에서는 정치개혁법이 완수되지 못한 상황, 기존 사회운동가들이 정치와 공공영역에 다수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미투운동과 정치권내 성폭력, 코로나팬데믹 위기심화, 차별금지법 제정난항 등의 시기를 지나며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장은 협소해지고 거대 기득권 양당의 장은 독점이 된 상황은 점점 더 격차가 발생함. 여성운동, 인권사회운동 영역에서 지난 선거대응 전략을 돌아보고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장이 열리고 있음
- 목표 :
 - 여성운동이 지난 미투운동기의 협력, 정치권성폭력 대응에서의 균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와 지향, 움직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일원으로 함께 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 실행함
 - 여성운동 이외 인권사회운동의 다양한 정치영역 대응 전략의 사례, 고민, 경험을 나누며 여성운동의 고민을 심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역할함
- 방법 및 계획 :

논의단위	주요일정	세부내용
한국여성연합 이사회	2021.12.30. 1차 논의 2022.1.7. 2차 논의 - 이후 TF 구성, 실행	- 정책제안, 정책검증 대중적 가치 선언 등의 방향 - 여성연합 총회준비위원회에서 2022년 계획으로 인준하도록 제안 - 여성연합 정치세력화전략본부, 의제운동 전략본부에서 초동사업으로 통합되도록 함
한국여성민우회 제안	2022.1.6. 1차 논의 이후 기획팀 구성	- 2022.2.13. 후보등록일까지 그 이전 대중적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집합하는 오프라인 집회 필요성 논의
길내는 모임	2022.1.19	- '2022대선과 사회운동' 집담회 o일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4시~6시 30분 o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o진행 : 발제 - 시민사회운동의 선거 대응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과제 제안(홍명교/플랫폼C) 토론1 - 탈시설장애인당을 비롯해 장애운동의 경험과 고민(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2 - 성평등 후퇴시키는 퇴행적 대선 정국에서 여성운동의 경험과 고민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 담당자: 란, 오매, 신아 (성문화운동팀 협업)
- 기대효과 :
 - 거대양당과의 관계, 진보정당과의 관계, 정치영역과 정치확장-개입 행동에 대한 고민과 관점을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상상과 실행사례, 활력, 사회운동 주체들을 형성함

1-2 (공동) 이대남백래시 담론 대응, 미투 이후의 사회 포럼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 이후 약자혐오와 역차별담론,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이 명

확해졌고, 이는 안티페미니즘을 신념화하는 ‘20대 남성’ 현상으로도 분석됨. 미투운동-보궐선거 이후 정치 세력이 ‘이대남’ 논의를 적극 정치적 논의로 연결하여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청년과 공정을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담론으로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선거 이후 본격적인 국정이 형성될 때 이러한 담론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20대 여성 시민의 목소리, 미투운동의 현재적 생존의 목소리를 조명할 필요가 큼

• 목표 :

- 대선 직후 포럼을 통해 ‘이대남’ 담론을 정리, 비판하고, 20대 여성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성찰적, 확장적으로 드러내는 포럼을 개최함

• 방법 및 계획 :

- 2022년 3월 말 한국여성학회,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와 함께 포럼 개최, 포럼 준비기획 공동 진행
-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가급적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이고 크게 환류될 수 있도록 장소와 규모 기획
- 이대남 담론, 2-30대 여성들의 반격과 성찰적 삶의 조명, 미투운동 이후의 생존과 비전 등의 주제를 공동 기획
- 본 상담소는 미투운동 이후의 생존과 비전(가제) 파트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진행 : 지난 4-5년 동안의 연구물을 리뷰, 스터디하고 필자와 발화자를 발굴함

• 담당자 : 오매, 신아 (성문화운동팀 협업)

• 기대효과

- 포럼을 통해 2022년 백래시 시기 이후를 살아가는 다양하고도 성찰적인 삶과 목소리를 연결함
- 미투 이후 생존과 비전에 대한 논의조직, 진행을 통해 향후 대응 내용과 조직을 마련해 감

1-3 (공동) 다섯여름 - 미투 이후 삶을 노래하는 광장

• 배경/필요성 :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나고 7월 1일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출소를 예정하고 있음. 이처럼 시민들 다수의 관심과 감시 속에 이루어진 사건 공론화와 처벌이 법적 시효를 빠르게 이행완료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피해자 일상회복의 환경,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소속 영역과 조직의 변화, 성평등한 사회로의 일상변화는 위기감 속에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문화적인 계기 필요

• 목표 :

- 6월 중 문화적인 방식이 결합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진행함
- 사회적으로 변화해왔던 흐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변화, 피해자의 일상회복, 가해자들의 반성과 성찰, 조직의 변화 과제를 명확히 촉구한다

• 방법 및 계획 :

- 6월 중 ‘다섯여름 - 미투 이후 삶을 노래하는 광장’ 토크콘서트 개최

(진행예시)

진행 월	진행흐름	세부 내용
2월	토크콘서트 기획단 구성 초동 개요 준비	- 공동주최 단체 제안 - 기획단 제안 및 모집 (주요 전문가 일정 타진) - 예술인 (영상, 음악, 밴드, 무대, 연출, 티켓, 홍보) 자문 - 기획단 제안 및 모집 / 1차 회의 착수 - 장소 타진 및 예약
3월	토크콘서트 기획	- 슬로건, 컨셉, 출연진, 메시지 논의 - 영상팀, 출연진 섭외 - 예산안 마련
4월	홍보, 콘텐츠 제작	- 영상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진 세부 내용 협의, 계약 진행, 준비 지원 - 세부 스태프 구성 및 큐시트 작성 - 무대 및 연출, 객석 논의 - 홍보물 제작
5월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콘서트 홍보 - 언론 홍보-인터뷰 진행 - 현장스태프 모집, 배치 / 현장 시뮬레이션
6월	토크콘서트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진행 (무대, 연출, 설치) - 사후 홍보, 보도자료
7월	토크콘서트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 - 사후 메시지, 자료 갈무리 등

• 담당자 : 오매, 란 (+성문화운동팀 협업)

• 기대효과

- 미투 이후 변화된 현실을 조망하고 반격에 대응하는 연대의 장 형성
- 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힘을 주고 받는 주체로서의 연대감 확인

1-4. 선거국면에 골하지 않는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 지원

• 배경/필요성 :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폭력 사건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선거시기 거대양당 이분법적 경쟁구도에 피해자 및 사건 진행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임을 인식함.

• 목표 : 안정되면서도 지혜롭게 중요한 지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원단체 역할 수행 -

• 방법 및 계획 :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김지은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약칭 세사모) 모임 제안 및 2021.12월부터 월 1회 진행
동향 파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측의 공격 및 정치적 퇴행 국면 제지를 위한 액션 기획

: 피해자 건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건강검진 지원모금 등)

: 민사소송에서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의견서 작성 제출 등 진행

: 11월 중 - '김지은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토크쇼 기획, 진행 (ex) 여성폭력추방주간)

- 오거돈 성폭력 사건

: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석 중

: 형사재판 - 2심 (2022.1.19. 선고예정) 결과 이후 상고심까지 지속적인 지원에 참여

: 더불어민주당에 제소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결과 지속 모니터링 및 비판 성명 등

: 선거 시기 극심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함께 지형을 파악하고, 중요한 피해자의 목소리와 지향을
정돈하고 대응 활동 공동 모색, 진행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 지속

: 선거 시기 극심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함께 지형을 파악하고, 중요한 피해자의 목소리와 지향을
정돈하고 대응 활동 공동 모색, 진행

• 담당자 : 오매

• 기대효과

- 선거 시기 2차 피해 공동 대응

- 존엄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고 환류되고 공유됨

1-5. (공동) 여성현실과 성평등 비전 제시, 정책 제안

- 배경/필요성 :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은 국가-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평등추진체계, 법, 정책-제도, 예산, 국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기임. 이러한 논의는 지난 4-5년간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직면에 기반해야 하며, 여성대중과 만나는 여성운동 NGO가 정책생산의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임. 그러나 기존 공약의 반복, 후보의 약속 방식을 넘어서 정책적 개입 방식과 경로, 언어를 고민해야 함
- 목표 :
 - 여성현실을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분석, 서술하면서 향후 4-5년에 필요한 정책 방향, 세부 정책을 마련함
 - 실행 가능하기 위한 운동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대를 구성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비전 수립 및 추진체계를 튼튼히 하도록 정부전환시기에 개입함
- 방법 및 계획 :
 - 공동논의 테이블을 통한 정책논의 방법 구상, TF구성, 실행 (ex) 한국여성단체연합 선거 정책대응 TF)
 - 반성폭력 정책 뿐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 성평등 비전 제시, 전체 정책 논의 틀거리 논의에도 참여
 - 예시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성평등 현황을 논의하고, 지향을 제안하며, 각론을 평가-제안하는 토론회를 공동기획, 진행함 (하반기 중)
- 담당자: 오매, 앞 (성문화운동팀 협업)
- 기대효과 :
 - 선거시기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완수가 아니라, 정책적 틀거리(인수위원회, 각종 기본계획, 추진체계 정비 및 인선 등)를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여성운동의 정책적 대응 사이클을 활성화해감

1-7. 임시총회 의결사업 : 평가 간담회, 가이드라인 제작

- 배경/필요성 : 2021년 2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사업들이 2021년 다양한 활동과 대응 속에서 녹아져 흘러왔지만, 2022년 대선과 지선 이후 가시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공동사건 대응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 정치-제도화-운동성 관련 간담회 진행
- 방법 및 계획 :
 - 1) 공동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제안
 - 상반기 내 공동 사건 대응단위 공동 평가 2회 진행 (작년 1회차 진행, 총 3회)
 - 한국여성의 전화 지원자 평가회의 및 서울시장 공동행동 평가자료 리뷰 진행
 - 평가 내용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초안 정리(6월)
 - 2) 제도화와 운동, 정치세력화 사이
 - 7, 8월 간담회 개최
 - 주요 참여대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연대단위 활동가, 자문위원, 정회원 등 + 그 외 관심참여자

내용	준비과정	일정 / 내용
공동사건대응 가이드 제안	내부 논의 공동대응단위 공동평가	-사무국, 상담팀 공동 2회 논의(2월~5월) -한국여성의전화 지원자 평가회의, 서울시장 공동 행동 평가자료 리뷰 등 (4~5월) -공동사건대응 가이드라인 초안 정리, 상근자회의 공유 (6월)
제도화와 운동, 정치세력화 사이	기획 및 섭외	(발제1) 젠더폭력, 성폭력이 정치적 국면에서 왜곡, 소모, 전유되는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관점 운동은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고자 고민하고

	<p>실행해왔는가 (예시) (발제2) 사회운동 세력이 정치영역, 공공기관으로 진출한 상황에서 현장과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적극적 연결과, 예방적 거리두기 두 차원의 역할 제안 및 토론 (예시)</p>
--	--

- 담당: 란, 오매
- 기대효과
- 페미니즘 정치와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성폭력운동의 정치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목표2. 반성폭력 운동/언어/정책으로 성평등 비전 제시

2-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2020년 21대 국회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 및 약속, 개원 이후 다양한 의제 홍보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본 상담소가 사무국을 맡아옴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반성폭력 레짐의 방향과 시민적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합의’를 폭 넓게 운동으로 만들고자 하며,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과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주제화함으로써, “동의/적극적 합의”의 의미, 적용기준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가고자 함, 여성운동에서 ‘동의’ 의 의미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와 함께 교차 논의되는 장 필요
 - 대선 국면 ‘무고죄’ 가 성폭력 관련 정책으로 제안되는 등 백래시 국면에서 정면으로 담론 개입 필요성 있음
- 목표:
 - 동의 기준으로 변화라는 세계적 흐름을 한국에서도 가시화하고 명확히 함, 입법적 진행을 위해 정부 역할을 촉구, 압박
 - 대선시기 퇴행적 담론에 개입
- 방법 및 계획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운영 (성문화운동팀 협력, 공동)
 - (상반기) 대선시기 : ‘무고’가 아니라 ‘동의여부’다 대중캠페인 기획, 진행
 - (하반기) ‘동의와 여성운동 대토론회’ 기획, 진행
 - (하반기) 2021년 유엔입법가이드 자료 발제, 한국의 입법현황 2022년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입장 회신(토론자 참여 등) / 국제규약 한국정부 권고 이행상황 점검
- 담당: 오매, 앞, 신아
- 기대효과
 - 무고가 아닌 동의여부로 대중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대중토론회 및 연대회의 활동, 적극적 입법 활동을 통해 강간죄 개정의 대중적 공감 형성 및 실제 개정

2-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배경/필요성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의 활동 목표 및 운영 과제를 함께 점검하여, 위기를 줄이고 기회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본계획, 대선-지선 선거에서의 젠더폭력 공약, 세부 행정 제도 운영 모니터링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및 워크숍 참석
- (서울인천권역) 정기 권역회의(연4회)
- (전국) 전성협 운영위원회 참석
- (정책) 정책대응 TF 활동 : 주도적 참석
- (시민감시단)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2022년 진행 주요 의제

: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지 관련 (운영지침상 서술 개선 방안, 현황 파악)

: 국선번호사제도 (2021년 토론회 사후 자료집 발간, 법무부 정책 제안 면담 진행)

: (상반기) 여성가족부 정책 대응 - 언어와 방식 논의하기, 정책대응 TF 역할과 의사결정 방법

: (상반기) 대통령 선거결과 및 인수위원회 의견 개진

: (하반기)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및 이행 점검

2-3.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 배경/필요성

-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서 여성단체 및 여성단체 출신 인사로부터의 피해자 지원정보 전달 사건, 이후 혁신위원회 가동, 혁신안 도출, 혁신 실행안의 총회 의결 및 2022년 사업추진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목표 :

- 진보적 여성운동의 연대와 지향, 실행, 협력 등의 현재 가능성을 협력과 논의 속에서 모색함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참석 : 대의원 구성
- (논의기구)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대표자회의 (연 2회)
- (특별) 총회준비위원회 참석 (2021.12~2022.1) / 대선 공동대응 TF 등

2-4. 성평등 정책 실행 네트워크 참여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우리 상담소에서도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활동을 해왔음

- 그 외 비영리 혹은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정책 생산 및 실행을 위한 참여를 제안받고 있음

- 보궐선거 및 향후 대선 등 정치적 국면에서 여성운동의 목소리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목표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예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배분하고 적용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방법 및 계획 :

정책자문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0.5~2022.4)	- 군대내 성폭력 사건 공론화와 대책 마련 위원회, 실행위원회 가동중인 상황에서 국방부 차원의 개선진행과 각국 차원의 개선 진행 연결 논의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3기 운영위원회 활동 (2021~)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자문위원회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정책자문단 (2021~2022) : 분기별 1회
성폭력, 성희롱 사안자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발생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 심의의결
	대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2021.3~2023.3)	- 대검찰청 내부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심의위원 위 촉. (위촉기간 2년) - 2019. 2. 위촉기간 2년 활동 후, 2년 간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성공회대학교 성폭력특별위원 (2021.2~2022.2)	- 성공회대학교 성폭력 사안 심의, 자문 등의 역할 - 매년 1회 임기, 연임 가능 - 2019년부터 매해 연임하여 진행 중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2021.2~2023.2)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심의. - 2019. 2 위촉기간 2년 활동 후, 2년 간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 추가 위원회 참여나 정책 자문 요청의 경우, 활동가들 전반이 고루 참여하여 역량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배분, 제안.

2-5.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
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법정책 영역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률가 양성과정에 상담소가
일정정도 개입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 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방법 및 계획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실무실습 2/7(월)~2/18(금) 60시간 (5명)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실무실습 2/7(월)~2/18(금) 64시간 (2명)
- 내용 - 반성폭력 운동역사, 법적책활동, 성폭력관련법 이해, 상담소 지원사건 및 법적쟁점 특강
소주제 판례분석 과제 수행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 담당자: 란, 도경
- 기대효과: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한 예비 법조인 양성

2-6.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목표:
 - 다양한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 강의, 발표, 자문, 심의위원회 등 요청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 후 모든 활동가가 요청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 수락, 진행
 - 방송,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언, 기획 참여, 출연 및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유 등 진행
 - 집계 및 평가
 -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보완계획으로 환류
 - 담당자: 란 (강의 배분)
 - 기대효과: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을 통해 상담소 활동을 외화하고 공유함.
- 활동가 개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산하고 환류하며 역량강화하는 계기가 됨

목표3. 조직개편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가슴 뛰는 조직 만들기

3-1. 회원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총회

- 목표 :
 -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결정, 그리고 평가되는 총회개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멤버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반성폭력운동 장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 중임에 따른 법인 행정 수행
 - 코로나19시기 변화된 조건에 따른 안정적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진행
- 방법 및 계획 :
 - 총회 안내, 홍보 : 2021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명부 확정 및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및 정비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확인 및 후원회원 전환
 - 일정 및 내용
 - : 2022. 1. 27(목) 저녁 7시, 온라인 진행
 - : 주요 사업계획, 반성폭력 활동방향 및 당면과제 등 공유 및 평가, 논의
 - 공증 : 변호사 입회 공증 방식으로 편의도모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
- 신규 정회원 등록으로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회원 참여 독려

3-2. 이사회

- 목표 :
- 상담소 의사결정체계인 이사회에 참여를 높이고 논의 활성화
- 다양한 영역의 활동기반을 가진 새로운 신임 이사를 선출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역할재고
- 방법 및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별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중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상시적이고 친근한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자율성, 활동성을 높이고 사업전반에 대한 다양한 방향 제시 및 논의 활성화

3-3.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기관협력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은 반성폭력운동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활동가를 만나는 기회
-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담소 활동의 실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활동의 고민을 환류
- 인턴 및 자원활동 기록, 평가, OT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속성을 도모.
- 목표 : 인턴십,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계획가능한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법 및 계획
- 학기 중 : 서울대학교(하반기)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방학 중 :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겨울)
- 기타 개별 실습 및 연구, 정책 자원활동 신청자 면담 및 활동 배치
- 사전에 주요 업무/활동 및 일상지원활동에 대해 분명한 안내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종료 시 활동나눔 진행 및 후기 공유
- 담당자 : 백목련
- 기대효과 :
-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풀 확대
- 새로운 시각과 활력으로 상담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실행 문화 활성화
-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주제로 성장하고 연대

3-4.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법 및 계획 :
- 분야별 자문위원회 새로운 인적 구성 마련
- 새로운 인적 구성에 따른 자문회의 진행 및 신규 위촉 절차 진행

- 자문위원 활동 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상담소 운영에 상황에 따른 상시적 자문회의 진행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 새로운 영역의 노하우를 가진 자문위원단 구성에 따른 실질적인 자문 가능

3-5. 전체 논의 및 팀별 회의 지원

- 목표 : 2022년 활동방향과 핵심목표에 따른 팀별 사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 2022년 팀별 활동방향 및 핵심목표에 따른 사업 수립 및 실행 지원
 - 격주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체계 마련
 -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애로사항 해소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팀별 인원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팀별 로테이션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차년도 안정적 시행 준비
 - 소장 연 1회 활동가 면담을 통한 개인별 비전 청취 및 업무 고충이나 애로사항 수렴 등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성문화운동팀/회원홍보팀 각1인) 1월 공고 및 채용 절차 진행, 2월 직 무연수, 3월 팀 배치
 - 평가 계획회의 : 1월 계획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회의 진행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상시적인 논의/공유/소통 체계 운영

3-6. 활동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목표 : 활동하기 좋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산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내 활동조건 개선논의(별도 항목으로 편성) 진행 및 관련 처무규정 및 재정내규 개정
 - 조직문화 논의 진행 (별도 항목으로 편성)
 - 개소기념일, 전체 상근활동가 참여 소그룹 활동(재충전의 날) 진행
 - 상근활동가 소진예방비(상담비 지원 등) 기준 및 예산 반영, 관련 규정 정비
 - 업무환경 개선 : 업무상 필요한 비품 구입 및 교체, 불필요 비품 폐기 처리 등
 - 상근활동가 워크숍
 - : 워크숍 준비위원회 구성, 전체 프로그램 및 역할 분담 등 구상
 - : 워크숍 2박 3일 진행 (8/23-25 방역지침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제주도 예정)
 - 공통업무 : 공통업무의 적절한 배분 및 운영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첫째 주중 영역별로 일과 시간 중에 시행(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 곳, 냉장고 정리 등)
 - 휴가 운용 :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휴가 사용 독려 / 월차, 연차, 대차 사용확인 및 독려 / 야간 휴 일 근무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성실히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수행(재택근무, 소독 등)
 - 월별 나눔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담당자: 란, 백목련

- 기대효과: 활동하기 좋은 조직 환경을 만들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심장 박동을 느끼며 활동하기

3-6-1. 활동조건 개선 논의

- 목표 :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의 활동조건에 대해 논의, 기준 및 지향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2회 워크숍 진행 후 개선안 5월 이사회 안건으로 발의, 관련 규정 개정

○ 논의사항

논의사항	구체 내용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근로시간 추산 및 활동계약서 변경 -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안 마련 - 연장근로 시간 체계 + 대체휴무, 시간외 근로수당 체계 - 근로시간 관리 어플리케이션(카카오웍스) 도입 논의 - 열림터 야간근로 시간 체계 적합성 논의 (부야간 제도 등)
휴가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마련에 따른 휴가제도 개편
임금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상여금, 호봉, 장기근속수당 > 기본급+호봉테이블로 통합 - 호봉표 개편 : 매년 물가상승률, 재정여력 감안하여 호봉인상률 결정, 비혼수당 가족부양수당 통합 - 직책수당, 활동비 : 현행유지 or 일부 통합 - 재정수당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가 지급으로 개편 - 육아수당 유지 - 상근활동가 급여 수준 / 기준안 마련, 타당성, 지속가능성 검토
외부활동 수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업무지침에서 개인지급 불가항목 제외됨 cf) 세무상 이슈 - 기존 권고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중 > 정액수당 : 근무시간 외 > 정액수당 + 시간외 근로 수당 : 원고작성 > 시간외 근로수당

○ 논의 및 진행일정(안)

일시	내용	세부내용
2-5월	2회 전체 워크숍 진행 (4/6,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컨설팅 안 참고 - 타 단체 사례 조사 - 법적, 지침상 기준 교육/강의 - 그 외 논의할 지점 발제, 토론 - 향후 예산소요 시뮬레이션 - 최종 개선안 마련
5월	이사회(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협상안 이사회 논의
6월	이사회 임시 서면 의결	
7월	7월 1일부터 새 규정 적용	
9월	추경예산안 마련	

- 담당자 : 란, 백목련 + 팀별 각 1인
- 기대효과 : 상담소에 걸맞는 활동조건의 지향 및 기준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담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및 활동하기 좋은 조직을 위한 활동 조건 마련

3-6-2. 조직문화 논의

- 목표 : 매해 조직문화 논의 필요성 제기예 따른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논의 및 실험에 따른 평등하고 변화하는 조직문화형성
- 방법 및 계획 :
 - 조직문화 담당자 지정을 통해 매해 조직문화 논의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설계 (참고. 2020 조직문화 실험실 중장기 과제)
 - 외부 협력기관, 강사, 워크숍 팀 등 선정 및 진행
 - 하반기 2회 전체 상근활동가 워크숍 진행
- 담당자 : 오매, 동료상담원 2인(얏, 달별), 유량
- 기대효과 :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진단 및 필요 과제 도출에 따른 변화 시도 동료간 신뢰 향상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 환경 구축

3-7. 법인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방법 및 계획 :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수발신문서철, 각종 계약서철 관리, 인사기록철, 인턴/자원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양식과 연동하여 관리 등 - 상담소 발간물 관리 등 - 2022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확인 및 적용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및 관리 - 행정 업무 전달연수 진행(공문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각종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메일 관리 및 강의, 자료 요청 응대
법인 행정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 법인 운영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

- 담당자: 오매, 란, 백목련
- 기대효과: 법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

3-8. 회계 및 공익법인 공시

- 목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운용과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내역 공개로 회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 계획
 - 일상 회계 업무 총괄 및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을 위한 업무 협조, 회계감사 지적 사항 반영
 - 기부금 집행 건전성 관리 : 재정내규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공익법인공시(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 내역 공개 포함)
 - 기부금 내역 공개 : 상담소 홈페이지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제

19호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지자체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세청 2회(3월, 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기대효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

3-9. 튼튼하게 상담소 관리

- 목표 : 건물의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
- 방법 및 계획 :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 구청 지도점검 시기 안전 점검 체계화
 - 안전 매뉴얼 마련 및 적용, 정기적인 안전물품 점검 및 대비(소화기, 대피로 등)
 - 반기별 자체 모의 대피훈련 실시
- 담당자 : 란
- 기대효과: 실시간 재난상황 대비능력 향상

3-10. 활동가 교육

- 목표 : 법정 의무교육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및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진행
- 방법 및 계획 :
 - 1) KSVRC학교
 -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2시~5시) KSVRC 학교 등교 : 전체 활동가 각 강의별 1개 필수 수강
 - 개설 강의(안)

강의명	내용	담당
여성주의 상담 개론	- 여성주의 상담 개론서 스터디 - 여성주의상담가 특강 - 세부 커리큘럼 팀 계획 참조	여성주의상담팀 (파랑)
여성주의 이론서 강독	- 여성주의 이론서 4~5권 강독 (여성주의 개론, 여성주의철학, 교차성 이론 등) - 회차별 발제 및 토론	사무국 (란)
적극적합의 담론 구성	- 동의 관련 텍스트 스터디 - 주요 이슈/ 쟁점 토론	성문화운동팀 (신아)

2) 법정 의무 교육

분류	교육명	의무 시수 및 시간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2회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1회
관련종사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 담당자 : 란

임원 소개 및 변동 임원 보고 / 임원 후보

○ 현재 임원

이사	이사장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
	이사	김혜경	현 소장
	이사	박부진	명우임상심리연구소, 심리상담가
	이사	배순희	미즈앤미 산부인과 의사
	이사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사	이미경	반성폭력운동가, 여성학 박사
	이사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사	최보원	최보원 산부인과 의사
	이사	홍순기	청담마리 산부인과 의사
감사	회계감사	배자하	세무사, 배자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업감사	허오영숙	한국이주인권센터 상임대표

○ 이사 선출안 (2022.1.18. 이사회 추천 임원 후보)

중임	이사	이경환	현 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	----	-----	-------------------------------------

2022년 자문위원

분류	이름	소속
운영	김지영	공인회계사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리징지두런두런 대표, 상담소 발기인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소장, 전 상근활동가
법 정책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정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지원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유석	전 상담소 활동가
	정현	검사
	황은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성문 화	강유가람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김다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현이		서울시위드유센터 센터장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부소장
아오리		영화감독
양수안나		위밋업스포츠 대표
양현경		성평등작업실 이로

분류	이름	소속
상담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소장
	김은아	상담심리센터 위민 대표, 타로 마스터, 전 상담원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장
	최지나 (토리)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교육전문연구원, 전 상근활동가
의료	소은희	소은희마인드피아 의원
법률	권정	법무법인 대영
	김두나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신수경	법무법인 울다함
	이은심 (보정)	변호사
	원민경	법무법인 원
	이정선	법무법인 재울
	장윤정	법무법인 세원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종합법률사무소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국제 협력	류호윤
아일린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성예랑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정경자		호주UTS대교수(사회정책&옹호)

2022년 공로상,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공로상 : 위밋업스포츠

위밋업스포츠 는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열림터 생활인들의 치유 회복과 역량 강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양하고 재미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활인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법,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인들의 '파워업!'에 열렬히 지지를 보내주신 위밋업스포츠 여러분께 감사와 신뢰를 담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님

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님은 예술대학 사진작가에 의해 자행되는 디지털 성폭력을 발견하고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찰, 학교, 언론 등에 목소리를 내며 놀이처럼 이어진 가해자들의 성폭력 문화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지지자인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찾고 의견을 내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항과 생존의 나날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친구들과 다진 눈부신 연대는 든든한 힘과 깊은 울림을 주었고 생존자님의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또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당당히 걷는 멋진 생존자님께 연대의 마음을 가득 담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상담소에서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을 드립니다.

2021년 안젤라 어워드

※ 안젤라어워드는 한 해동안 상담소와 연결되어 활약한 분들께 <한해보내기>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2021년 안젤라어워드는 2021년 12월 3일 수여되었습니다.

최고의자원활동가 상 : 김하윤

하윤님은 2021년 3월부터 ‘적극적합의’와 ‘친족성폭력 관련 해외자료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성문화운동팀과 연구소 활동에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또 3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의 수강생으로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 과정 내내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이에 한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뽑은 2021년 최고의 자원활동가 김하윤님께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베스트협업상 상 : 예술인팀 (노랑,다이브,아오리,준벅)

예술인팀은 올해 본 상담소의 성문화운동팀과 함께 ‘적극적합의’ 라는 낯선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 제작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주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활동가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협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끈기있는 네 분 예술인들의 목표를 향한 열정과 눈부신 노고로 2021년 11월 가장 확실한 성적 종의, 적극적 합의 영상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VRC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상담·지원 활동
-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③ 연구소 운영
- ④ 인권 활동
- ⑤ 교육 활동
- ⑥ 홍보출판 활동
- ⑦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 ⑧ 부동산 임대
- ⑨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인

②상임이사 1인

③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④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⑤감사 2인

⑥부설기관의 장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소장, 부소장, 이사, 부설기관의 장 및 감사는 이사회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감사선임의 제한) 법인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2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부소장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이사장 : 법인을 대표한다.
- ②상임이사 :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소장 :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④부소장 : 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⑥부설기관의 장 :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감사
- ②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소집 요구
- ⑤법인의 재정, 총회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의 의견 진술

제17조 (겸직 금지)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소장 및 상근활동가를 겸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 총회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 ①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 소장, 감사 또는 이사 중 3분의 2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③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승인
- ③예산, 결산의 승인
- ④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정관개정
- ⑥법인의 해산
- ⑦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회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연 4 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예산, 결산서의 작성
- ③상근활동가의 선임
- ④재산관리
-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 ⑦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정관의 변경사항의 작성
- ⑨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①법인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6. 1. 28. 개정>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결산) ①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 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의2 (후원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상근활동가

제33조 (상근활동가)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②상근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운영규정의 처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상근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제3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8. 1. 24>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3.27 제정	1993.10.5 1차 개정	1996.2.10 2차 개정	1998.11.12 3차 개정
1999.5.28 4차 개정	2000.2.12 5차 개정	2002.2.7 6차 개정	2003.2.6 7차 개정
2006.1.20 8차 개정	2007.1.25 9차 개정	2008.1.24 10차 개정	2008.4.8 11차 개정
2009.1.31 12차 개정	2013.1.30 13차 개정	2014.1.24 14차 개정	2014.8.5 15차 개정
2015.7.21 16차 개정	2016.1.28 17차 개정		

2022년 제31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발행일 _ 2022년 1월 27일
발행처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_ 김혜정
편집책임 _ 최란
실무도움 _ 김하윤, 임지은
만든이 _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
인쇄 _ 카피플러스 본점